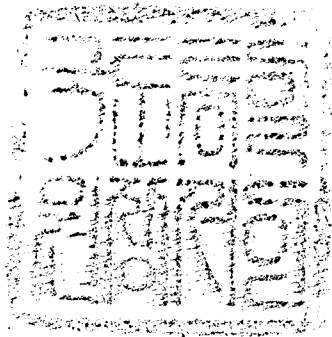


I. 이 책은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한 自体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共産圏研究를 위한 參考資料로서 提供되는 것임.

周辺勢力調査研究

蘇聯의 政治外交問題



466

刊行責任 金 仁 坤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

序 文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蘇聯政治研究의 意義에 대한 論議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晩時之嘆의 感이 없지 않으나 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간의 蘇聯研究에 대한 일반적인 關心이 低調했던 것은 言語의 문제, 資料의 問題, 學界의 關心, 政治의 분위기 등과 같은 研究環境의 制約이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大學의 學部, 또는 大學院過程에 獨立된 蘇聯政治 論講座를 설치하고 있는 學校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와같은 形편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우리 나라와 國境을 接하고 있는 周邇의 強大國, 현실적으로 우리의 政治狀況에 직접·간접의 큰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는 한 나라에 대한 學術的 理解와 論究가 한 世代 이상이나 中斷돼 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歐美學界에서는 蘇聯을 포함한 共產國家政治에 대해서 새로운 觀點을 정립하고 研究方法를 체계화하는 社會科學的 省察이 주요한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歐美學者들도 蘇聯 또는 여타 共產國家 政治에 대한 그들 자신의 偏見을 自認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나은 理解"를 추구하기 위한 그들의 科學的 立場은 落後되고 日淺한 우리의 蘇聯研究關心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洞察力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생각들은 蚩勇을 무릅쓰고 不備한채로 이 책을 出
刊하는 動機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著者は 미흡하나마 이것을
蘇聯政治研究를 위한 하나의 “案内者”로 삼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讀者의 理解에 따라서 이 책이 有益하게 活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著者が 이 책에 대해서 거는 期待는 그 정도
로 만족하다. 앞으로 이 分野에 精進을 기대하면서 先輩·同學들
의 질책을 기다린다.

1977년 1월

內 容

蘇聯体制의 變化와 研究方法的 摸索	3
蘇聯政治研究의 方法論的 省察.....	67
— 代表的 蘇聯政治論著를 中心으로 —	
蘇聯政治의 分析틀：比較·歷史的 脈絡.....	92
蘇聯体制의 危機：共產主義와 發展.....	116
附 錄 I：	
共產主義比較研究方法論序說	205
蘇聯 브레즈네프政權의 背景分析	217
— 25次 党大會를 中心으로 —	
蘇聯의 外交政策決定過程 分析	227
蘇聯의 아시아戰略과 役割構造	239
在蘇聯韓人의 法的地位 研究	253
附 錄 II：	
蘇聯共產党大會 略史	283
蘇聯共產党 組織體系	284

蘇聯共產黨 中央委機構	285
蘇聯邦 最高 소비에트 構成	286
蘇聯邦 最高 소비에트 選舉	287
共和国의 行政体系	287
蘇聯邦閣僚會議의 組織	288
蘇聯의 行政区域編制	289
聯邦共和国現況	290
蘇聯邦의 構成	291
附 錄 III :	
蘇聯政治用語解說	295

蘇聯体制의 变化와 研究方法의 摸索

一. 序論 : 問題의 提起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主義者들의 歷史觀을 受諾하지 않는 立場에서 있지만, 1917年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權力을 掌握하여 地上에 最初의 共產主義政權을 樹立하고 蘇聯國家建設과 世界共產化 革命運動을 推進해 온 事實을 歷史上 새로운 政治的 時代를 引導한 가장 重要한 『計劃된』 政治的 事件의 하나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蘇聯共產主義國家 建設이 갖는 現代史的 意義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였다.

『蘇聯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을 實踐에 옮긴 最初의 國家로서 今世紀의 가장 영향력있는 思想體系의 垂範者로, 또 近代의 人間이 當面하고 있는 主要한 딜레마들을 해결하기 위한 社會的 모델로 君臨할 수 있었다.』¹⁾

蘇聯이 갖는 이와같은 이데올로기의인 또는 体制的인 象徴性은, 오늘날 傳統的인 基盤에서 急速한 工業化를 推進함으로써 『意圖된』 發展 또는 近代化를 探索하는 第三世界國家들에게 例示的인 發展經驗으로서 하나의 誘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웨슨」(Robert Wesson)은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Zbigniew Brzezinski, *Between Two Ages : America's Role in the Technetronic Era* (New York : Viking Press, 1970), p.123.
2. 蘇聯의 發展모델이 第3世界에 끼친 影響에 대해서는 David E. Albright의 研究參照. David E. Albright, "The Soviet Model : A Development Alternative for the Third World?" in Henry W. Merton and Rudolf L. Tökés (ed.), *Soviet Politics & Society in the 1970's* (New York : Free press, 1974), pp.299 ~ 339.

『蘇聯이 世界人口의 상당한 部分에 대한 이데올로기의인 指導者가 되고 있으며 또 그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政治的인 靈感을 提供하고 있다는 點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蘇聯은 統洽과 近代化의 手段을 찾아 鬭爭하고 있는 많은 國家들에게 큰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 世界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蘇聯의 모델은 보다 傳統的인 西歐의 方途에 대한 代案을 意味한다.』³

뿐만 아니라 現實의으로도 蘇聯은 世界 第一位의 領土, 第3位의 人口, 第2位의 國民總生産高를 가진 強力한 国力을 背景으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一石柱의(monolithic)인 支配體制를 確立하고 美國과 더불어 二次大戰後의 國際 秩序를 主導하는 超強大國의 地位를 維持해 왔으며 비록 最近에 와서 國際情勢가 『多極化』의 方向으로 進行됨에 따라 世界에 對한 그의 『革命的 使命』(revolutionary vocation)이 多少 後退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世界政治 또는 國際關係의 重要한 行爲者(actor)로써 役割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蘇聯의 政治現象 또는 蘇聯政治體系의 本質이나 性格에 관한 體系의이고도 科學的인 理解의 重要性은 새삼스럽게 強調할 필요도 없다. 굳이 오늘날 社會科學의 立場에서 蘇聯政治研究의 意義를 더욱 附言하자면 그것은 蘇聯의인 政治現象에 대한 科學的인 理解를 통하여 보다 客觀的인 真理를 指向하려는 社會科學的 認識의 基盤을 擴充해 가리라는 『學問的 期待』에 있다고 하겠다. 蘇聯政治의 研究를 통하여 現代史의 重要한 局面들과 오늘날 國際政治의 많은 側面을 解明할 수 있는 보다 有力한 觀點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우리의 學問的 期待는 當연한 것이다.

二次大戰以後 蘇聯에 대한 研究關心은 急激히 增大하였다. 特히 蘇聯이 美國外交政策의 主要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相對意識은 蘇聯研究에 대한 政策的 需要를 增大시키는 분위기를 고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背景은 蘇聯政治體系에 대해서 道德的인 正當性의 問題나 好·不好의 感情動機를 排除하는 冷情한 理解를 어렵게 하였다.

3. Robert C. Wesson, The Soviet Russian State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2), p. 1

따라서 「스탈린」時代 蘇聯共產主義의 特徵에 留意하였던 西方側 政治學者들은 共產政權을 一般의으로 西歐의인 政治體系에 對한 反意의 概念으로 公式化하는 全體主義體制의 카테고리 속에서 把握하고 世界共產主義의 國際的 連繫과 團結性을 強調하여 一石柱의인 體系로 理解하였다.

이와같은 共產主義 또는 蘇聯體制에 對한 冷戰的 理解方法은 蘇聯政治 研究에 있어서 『方法論的 例外主義』(methodological exceptionalism)⁴ 또는 『理論的 孤立主義(theoretical isolationism)⁵를 수반하였다. 즉 從來 西方側 政治學者들은 蘇聯政治體系의 獨創性(novelty)이나 特異性(uniqueness)을 지나치게 強調함으로써 蘇聯政治體系를 西歐的인 社會科學의 概念으로는 不可解한 領域으로 放棄한채 그에 對한 比較的인 理論的 眺望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蘇聯政治體系에 對한 從來의 研究水準에서는 蘇聯의 政治 現象을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로만 解釋하려는 이데올로기 決定論이나, 蘇聯의 政治現象이 特徵의으로 보여주고 있는 權力 또는 權威의 側面을 強調하는 全體主義理論모형을 適用하는 것이 高작이었다.

원래 『全體主義』(totalitarianism) 또는 『全體主義的』(totalitarian)이란 用語는 共產政治體系에 對한 概念道具로 開發된 것은 아니다. 이 用語는 一般的인 政治體系의 分類 또는 比較의 範疇으로써 보통 Nazis獨逸, Fascist 伊太利, 「스탈린」治下의 蘇聯과 같은 20世紀初에 出現한 새로운 政治形態 즉 政治的 리더쉽이나 政治過程 또는 政治的 理念을 代表하는 意味로 廣範하게 사용되어 왔다.⁶

4.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r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14.
5. Robert C. 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 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 1 (March 1961), p. 281.
6. 全體主義라는 用語는 最初로 Mussolini에 의해서 Fascist의 독트린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Herbert Spiro, "Totalitarianism : Critique of a Concept"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1968). Tucker, op.cit. p. 281.

따라서 全体主義 概念은 使用方法에 따라 本質的 側面을 強調하기도 하고 現象的 側面을 강조하기도 한다. 前者는 全体主義 政治形態가 보여주는 唯一絶對的인 政治的 真理에 對한 假定, 全般的인 政治테러 (total terror), 革命的 다이내미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內容이나 그것이 追求하는 目標을 強調하는 立場에서 있는 것이고, 後者는 全体主義的인 政治体系의 客觀的인 屬性 (objective attributes) 을 說明할 수 있는 몇가지 特徵群이나 特性의 패턴, 示頭特徵 (performance characteristics) 을 重視하는 立場이다. 全体主義論者들은 一般的으로 20世紀初에 나타난 全体主義를 西歐的인 民主主義와는 異なる, 古典的인 權威主義政治体系와 엄격히 區別되는 『歷史上 獨特한』 (historically unique) 또는 原形的인 (suigeneris) 政治現象으로 理解하였다.⁸

그들은 全体主義 體制가 갖는 特徵으로서 全社会的인 變革 (total social change) 을 企圖하는 革命的 프로그램이나 大衆의 基盤을 내세우는 政治權力的 全体性 (totality of political power), 中央集權化된 엘리트 支配 (rule of elites) 에 유의하거나⁹ 國家나 支配的인 黨의 權력이 社會의 구석구석에까지 浸透되어 社會의 根本的인 變化를 誘導하고 모든 社會的 行爲를 單一目標로 指向하도록 하는 『가혹한 勞力 動員』 그를 위한 『革命的 統一性』 또는 效率的인 強制力에 주목

7. Benjamin R. Barber는 全体主義概念을 本質的 定義와 現象的 定義로 區別하고 있다. B.R. Barber, "Conceptual Foundations of Totalitarianism" in Carl J. Friedrich et al. (eds), Totalitarianism in perspective : Three Views (New York ; Praeger, 1969), p.10.
8. Carl J. Friedrich, "The Unique Character of Totalitarian Society" in Carl J. Friedrich (ed.), Totalitarianism (New York : Universal Library, 1964 (初版은 1954年 Harvard University Press에서 出刊), p.47.
9. Zbigniew Brzezinski, Ideology and power in the soviet politics (New York : Fredrick A. praeger, 1967), pp.46 ~ 47.

하였다. 10 따라서 그러한 全体主義下에서는 個別的인 利益의 表現 (Interest articulation) 이나 利益集團의 出現이 否認되고 政治的 異意 (political opposition) 가 存在할 수 없는 排他的인 政治過程을 갖는 것으로 理解되었다.

이러한 全体主義概念을 蘇聯政治에 適用해 온 중래의 蘇聯政治研究들은¹¹ 주로 스탈린 治下의 蘇聯政治體系가 보여준 『獨特한』 政治現象 특히 全人民을 共產主義의 建設이라는 理想을 爲하기의 目標로 動員하는 強制的인 權力의 本質과 独占性을 分析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蘇聯政治體系의 그와 같은 全体主義的 特性을 가장 代表的으로 定義한 것은 「프리드리히」 (Carl J. Friedrich) 와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의 公式이다. 이들은 20世紀 全体主義가 갖는 主要한 特徵의 性格을 다음과 같은 5 가지로 說明하였다.

① 全体主義下에서는 人間存在의 모든 주요한 側面을 다 포괄하는 公式的인 原則의 實體로서 하나의 公的인 理想을 爲하기 (an official ideology) 가 存在하며 全体主義社會內에서의 모든 生活은 적어도 受動的으로나마 그러한 理想을 爲하기에 服從해야 한다.

② 少數의 理想을 爲하기 狂信者들로 構成되며, 嚴格한 階序的, 寡頭的 方式으로 組織되는 單一大衆政黨 (a single mass party) 을 가지며 黨은 同상한 指導者에 의해 領導된다.

10. Karl W. Deutsch, "Cracks in the Monolith: Possibilities and Patterns of Disintegration in Totalitarian Systems" in Friedrich (ed.), op.cit.

11. 1950年代의 代表的 著作으로는,

- i) Merl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 ii)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iii) Bertram D. Wolfe, Communist Totalitarianism (Boston: Bacon Press, 1956) 등이 있다.

③ 党이나 官僚, 軍隊와 같이 党에 봉사하는 機構에 의해 效果的인 武装 斗争 手段이 独占的으로 統制된다.

④ 党이나 官僚, 軍隊와 같이 党에 봉사하는 機構에 의해 신문, 라디오, 영화와 같은 매스컴의 效果的인 手段들이 独占的으로 統制된다.

⑤ 政權의 生命과 住民들의 이데올로기의인 離脱의 방지를 위해서 공공연한 反抗者들과 反对勢力에 대한 테러의 警察統制가 存在한다.¹²

이와같은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全体主義概念圖式은 종래의 蘇聯政治体系分析에 거의 無批判的으로 適用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탈린死亡 以後 蘇聯政治体系의 内部的 變化가 促進됨에 따라 靜態的인 全体主義概念은 그러한 變化를 說明하기에 適切하지 못하다는 難點이 들어나게 되고 共產圈內 民族主義的 發展의 強調은 『分派的 共產主義』(sectarian communism)의 樣相을 露呈하여 「스탈린」時代와 같은 一石柱的인 共產主義의 概念은 그 妥當性을 크게 상실하였다.

이렇게 종래의 蘇聯政治体系에 대한 認識方法의 欠點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歐美政治學者들 間에는 蘇聯政治体系에 對한 政治學的 「認識의 失敗」를 自認하고 共產政治体系의 固定的인 特性보다는 動的인 (dynamic) 發展段階나 多樣한(multiple) 變化모델에 關心을 갖게 되었다.

12.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op.cit., pp.9~10.

Friedrich는 후에 이러한 5個 項目을 다음과 같이 다소 修正하였다.

- I) 全体的 | 이데올로기 (totalist ideology)
- II) 흔히 一人의 独裁者에 의해 領導되는 單一政黨
- III) 高度로 發達된 秘密警察
- IV) 매스컴에 대한 独占的 統制
- V) 戰鬪武器에 대한 独占的 統制
- VI) 經濟組織에 대한 独占的 統制와 中央集權的인 經濟計劃

Carl J. Friedrich, "Evolving Theory and Practice of Totalitarian Regimes" in Friedrich, et al., (eds.), op.cit., p.126.

이러한 研究關心에 따라 60年代부터는 蘇聯政治体系에 唯一한 概念圖式으로 通用되어 왔던 全体主義理論모델에 대한 批判論이 活潑히 提示되고 일각에서는 蘇聯의 政治現象을 比較的인 카테고리속에서 다루는 새로운 理論 모델의 必要性이 強調되었다. 이러한 學問的 關心은 새로운 政治學的 概念이나 接近方法들을 蘇聯政治体系研究에 適用해 보려는 意慾인 試圖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學問的 努力들은 研究戰略이나 方法論의 모색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蘇聯政治体系研究을 政治學과 連結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問題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카네트」(Roger E. Kanet)는 이제까지 共產政治体系에 대한 專門的인 研究과 政治學問의 乖離를 야기시킨 原因을 ① 共產政治体系研究에 利用할 수 있는 經驗的 資料의 制限, ② 종래 共產政治体系研究의 個別記述的인 地域研究(area study)化 경향, ③ 共產政治体系에 대한 政策的인 研究態度, ④ 共產政治体系研究에 새로운 政治學的 接近方法이나 概念道具를 活用하지 못한 점 등으로 分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共產政治体系研究方法的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共產政治体系研究에 行態主義 適用可能性의 問題를 제기하고 있으나¹³ 아직 그 研究結果의 意義나 妥當성을 評價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어쩌든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共產政治体系 또는 蘇聯政治体系研究方法的 落後性에 대한 認識과 새로운 研究戰略의 試圖는 종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解析이나 個別記述的인 地域研究의 水準에 머물렀던 蘇聯政治体系研究을 크게 改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一般的으로 우리는 蘇聯政治体系研究에 있어서 研究對象과 研究者의 立場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方法論上의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즉 蘇聯政治体系研究은 우리가 研究對象으로 삼는 蘇聯政治体系 자체가 이데올로기인

13. Roger E. Kanet(ed.), the Behavioral Revolution and Communist Studies : Applications of Behaviorally Oriented Research o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New York : Free Press, 1971) pp.1 ~ 10. (Introduction)

屬性을 크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對象에 대한 科學的 處理의 困難性을 제기하며 한편으로는 研究者 자신이 갖는 文化的 拘束性(cultural bound) 또는 이데올로기의 立場때문에 對象에 대한 科學的 認識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蘇聯政治體系를 科學的으로 理解하려는 우리의 새로운 政治學的 努力도 결국은 價值問題와 認識의 客觀性이라는 現代 社會科學의 基本問題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社會科學者들은 自己 社會以外的 社會를 自己社會의 基準으로 判斷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常識化되고 있다. 그들은 特定한 社會 또는 社會現象을 評價하지 않고 理解한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어떤 理解나 概念의 틀 또는 參考의 틀(frame of reference)이 다르게 마련이다. 이 參考의 틀은 當代의 自己社會가 自己社會를 理解하는 樣式의 단순한 反映이 될 可能性이 크다.』¹⁴

蘇聯政治體系를 理解하려는 歐美社會科學의 새로운 努力도 결국은 『社會科學者의 立場』이라는 범위를 얼마나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인가가 問題인 것 같다. 本考의 目的은 이와같은 問題意識 속에서 근래 蘇聯政治體系研究에 있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方法論的 自省의 경향을 추적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蘇聯政治體系變化의 特徵적인 諸側面과 그 變化의 意味를 究明해 보는 한편, 그러한 蘇聯政治體系的 變化에 대한 새로운 歐美的 接近方法들을 分析 整理하려 한다.

二. 蘇聯政治體系에 있어서의 變化

1. 「스탈린」以後 變化의 主要側面

「스탈린」 死亡後 蘇聯에서는 政治體系 自體的 進化(evolution)와

14. 金榮口, Leo Strauss의 政治學 論考: 政治哲學과 科學的 政治學的 批判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72), p. 69.

關聯되는 매우 뚜렷한 變化의 諸樣相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스탈린」 政權을 繼承하는 새로운 集團의 리더십의 대두 그에 따른 黨構成과 機能의 變化, 經濟의 改革이나 教育의 改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政策 決定의 合理主義化경향, 秘密警察이 누리던 權力行使의 專斷性 및 政治的 테러의 감소등과 같은 全体主義的인 「스탈린」체제의 解体 또는 「스탈린」主義로 부터의 離脫現象(de-Stalinization)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탈린」以後 諸變化의 側面은 特別히 從來 全体主義理論 모델에서 不可欠한 特徵으로 定義되어 온 公式的 이데올로기나 테러적 統制 또는 黨의 權力独占과 같은 政治的 權威 또는 리더십의 本質을 根本的으로 變質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蘇聯研究家들에게 蘇聯政治體系 自體의 進化 問題와 관련하여 重要한 關心을 끌게 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스탈린」以後 蘇聯政治體系的 變化가 갖는 意味를 이데올로기의 非過激化(ideological deradicalization) 政治的 테러의 衰退(reduction of political terror), 그리고 黨統制의 合理化(rationalization of party control)라는 세 側面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가지 側面은 蘇聯政治體系에 대하여 實用主義化(instrumentalization)나 自由化(liberalization) 또는 合理主義化(rationalization)라는 觀點을 갖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非過激化

蘇聯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公式的 原理(official doctrine)가 唯一한 真理라는 立場에서 人民들에게 意圖的으로 賦課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蘇聯政治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共產主義 革命의 수행 또는 共產主義國家建設에 人民들을 動員하기 위한 하나의 社會的 公式(social formula)이며 동시에 黨이나 黨의 政策에 대해 人民들을 服從시키는 根柢로써 正統性的 諸形態를 取한다.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政治的 權威의 一部 또는 政治的인 統制體系(system of control)로 되고 있다.

「벨」(Daniel Bell)은 蘇聯政治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役割을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広意로 보아서 이데올로기의 機能은 社會에 대한 諸價值 또는 規範的 判斷을 具體化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蘇聯의 경우 이데올로기는 未來의 方向과 그러한 未來에 있어서의 어떤 價值實現을 指示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行爲에 대한 一連의 制約을 마련하기 위해서 一般화된 社會의 諸價值와 制度化된 集團의 活動(예컨대 政府)을 連結시키는 正當性의 諸形態를 取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權威를 政治的 機能에 對한 規範的 統制에 적절한 規制樣式으로 定義한다면 이데올로기도 權威의 側面 또는 社會에 대한 統制體系의 一部로 볼 수 있다』¹⁵

蘇聯에 있어서 이와같은 이데올로기의 機能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蘇聯政治體系에 있어서 政治的 權威 또는 政治過程의 本質이 變化하고 있다는 判斷의 重要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탈린」死後 蘇聯이 國內外政策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인 硬直性을 크게 緩和하고 있다는 사실은 蘇聯政治體系의 構造的 變化와 關聯시켜 西方 學者들에게 새로운 關心을 불러 일으키기에 充分하였다.

「터커」(Robert C. Tucker)는 「스탈린」死後 蘇聯의 外交政策이 뚜렷한 變化過程을 보여주고 있는 점, 特히 1956年의 匈牙利事件, 1966年 체코事件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蘇聯外交政策의 『反革命的 行態』나 國內政策路線의 實用主義化 등 蘇聯의 政策決定이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革命的 本質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現實을 『이데올로기의 非過激化』 過程으로 說明하고 있다.¹⁶

15. Daniel Bell, "Ideology and Soviet Politics," *Slavic Review* Vol. XXIV No. 4, (December 1965).

Reprinted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p. 105.

16. i) Robert C. Tucker, *Maxian Revolutionary Idea* (New York: W.W. Northon, 1969), p. 204.

ii) Robert C. Tucker, "The Deradicalization of Marxist Move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 No. 2. (June 1967), pp. 343 ~ 358.

이와같은 이데올로기의 쇠퇴현상은 蘇聯에서 經濟的 成長과 社会的 複合성이 增大됨에 따라 더욱 促進되었고 이에 따라 一部 西歐 社会科学者들은 蘇聯政治体系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의 타락』(ideological erosion) 또는 『脫이데올로기화』(de-Ideologization)이라는 觀點을 갖게 하였다.

「벨」은 그와같은 立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에 있어서 共產主義支配의 正当성은 거의가 歷史의 真理와 方向을 지시하는 党的 綱領으로 부터 연유한다. ……그러나 党的 役割은 사라졌다. ……그것은 公式化된 綱領 또는 취합된 信念体系로써의 이데올로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綱領의 다이내믹이 쇠퇴했다는 점에서 또 外敵에 대한 「武器」로서의 이데올로기가 갖는 役割이 쇠퇴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終末」(the end of ideology)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⁷

그러나 이와같은 觀點은 이데올로기가 社会속에서 現實과의 繼續된 蹉跌로 緊張關係를 유지하지만 그를 通한 修正, 適応의 過程속에서 變化를 正當化해가는 이데올로기 자체의 動態性을 고려할 때 安易한 見解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터커」는 「스탈린」以後 蘇聯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非過激化가 반드시 이데올로적인 修辭(ideological rethoric)의 後退를 수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共產主義革命運動의 궁극적인 目標에 대한 忠誠心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 政策上的 이데올로기의 非過激化 現象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자체의 象徴性은 不變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커」는 「스탈린」以後 蘇聯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非過激化를 그와 같은 不變하는 이데올로기의 象徴성과 實際의인 政治行爲間의 『安定된 蹉跌』(stable discrepancy)이 增大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¹⁸

17. Bell, op.cit., p.111.

18. Tucker, op.cit., p.214.

이와같은 서구학자들의 觀點에 대해서 한 蘇聯側 理論家は 다음과 같이 反論하고 있다.

『「脱이데올로기化」라는 社会思想이 歐美学界의 예컨대 「다니엘 벨」, 「레이봉 아롱」, 「에드워드·윌스」, 「씨무어 뢰셋트」, 「존·갈브레이드」, 「브레진스키」등에 의해서 부르조아적 宣傳武器로 追加되고 있다.

……脱이데올로기 論者들은 이데올로기의인 問題와 技術의인 問題를 分離 對立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실제생활 특히 生産의 아주 特殊한 側面만이 아니라 그 發展의 方向이나 展望을 問題삼을 때 위의 두가지 問題는 항상 密接한 相互關聯을 갖는다. 물론 어떤 歷史的인 行動綱領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科學的인 發展理論의 틀을 樹立하지 못하고 있는 브르조아 社會의 支配階級이 그들 스스로 現實的인 問題에 대해 아주 實用主義的인 解決을 추구하길 좋아 한다는 것은 別個의 問題이다』¹⁹

여기서 「코르투노프」(V.Kortunov)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와 技術의 相互關係性이라는 問題는 다시 말하면 실제 蘇聯政治体系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어떤 確固한 原則의 實體라기 보다 융통성 있는 原則의 適用이라는 점을 說明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융통성 있는 原則의 적용은 적어도 상징적인 이데올로기의 目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蘇聯에 있어서 「마르크스」 「레닌」主義가 政治行爲의 指針이 되고 있으나 하는 點에서는 많은 問題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蘇聯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政治的 行爲의 動機를 부여하고 있다기 보다는 어떤 政治的 事實을 事後에 合理化하고 正当化하는 知的 過程을 意味할 수도 있다²⁰ 이때 이데올로기는 既存 社會秩序의 保全, 더욱 現實的으로 말하면 政治權力行使의 外面(mask)으로 역할하는 것이 된다. 「마이어」(Alfred G.Meyer)가 蘇聯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마

19. V.Kortunov, "De-ideologization": Social Roots and Class Essence",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June, 1970), pp.63 ~ 69.

20. Bell. op.cit..p.109.

치 日曜禮拜가 점점 聖經의 敎理보다는 日常事나 市民的 權利

또는 人間關係와 같은 것으로 變質해 온 것과 같이 『하나의 儀式으로 실제적인 生活이나 活動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은²¹ 그와같은 이데올로기의 變質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蘇聯에서 이와같이 儀式化(ritualization)된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政治的 形式으로 機能하고 있는 것을 이데올로기와 社會的 敎養(social indoctrination)이라는 政治過程과의 밀접한 關聯性이라는 脈絡속에서 說明하고 있다²²

어쨌든 이러한 論議는 蘇聯政治体系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機能이 크게 後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팅톤(Samuel P.Huntington)이 말하는 体系의 理念性和 實用性이라는 基準에서 볼때 蘇聯政治体系가 實用主義化의 方向으로 移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政治的 테러의 衰退

일반적으로 政治的 테러라는 것은 政治的 權威를 갖는 機關을 통해서 個人 또는 集團에 대해 혹독한 強制를 行使하거나 行使를 威脅하고 政治的 숙청을 자행하는 것을 意味한다. 또 그것은 자의성(arbitrariness)과 不可豫測性(unpredictability)을 特徵적으로 보여주는 權力의 한 手段으로써 가장 效果的인 強制의 形態이며 그렇기 때문에 全体主義下에서는 政治的 統制의 重要な 道具로 간주되고 있다.

蘇聯政治体系에 있어서 이와같은 政治的 테러는 重要な 意味를 갖는

21. Alfred G.Meyer, "The Functions of Ideology in the Soviet System : A Speculative Essay Designed to Provoke Discussion", Soviet Studies, Vol.XVIII, No.3. (January 1966), pp.273 ~ 285.

22. Carl J. Friedrich, "Totalitarianism : Recent Trends", Problems of Communism(May-June, 1968), p.37.

23. Samuel P.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USSR(New York : Viking Press, 1964), p.74.

것이다. 특히 「스탈린」統治下에서는 政治的 테러가 強壓的인 動員化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絶對的인 強制의 手段을 제공하는 한편 政治權力을 방어하고 강화하기 위한 制裁의 体系(system of sanction)로써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메인 소드」(Merl Fainsod)는 蘇聯政治體系에 있어서 테러가 갖는 重要性을 강조하여 『秘密警察과 함께 테러는 蘇聯의 權力體系를 組織하는 핵심』²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蘇聯에 있어서 政治的 테러는 政治權力의 主要한 武器로써 人民들로 하여금 기존 權威構造 또는 社会的 行動의 規範을 受諾하도록 強要하며 特定 政策目標에 대한 服從行態(occompliant behaviour)를 誘導하는 政治的 統制의 主要한 內容을 構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린」(Alexander Dallin)과 「브레슬라우어」(George W. Breslauer)는 動員化段階의 共產政權의 體制的인 要求와 關聯시켜 「스탈린」時代 蘇聯의 政治的 테러를 說明하고 있다. 즉 그들의 說明에 따르면 共產政權은 일단 權力을 掌握한 후에는 그 權力의 基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工業化와 같은 政策目標을 急速히 達成하기 위해서 動員化政策을 推進하며 그러한 動員化政策은 테러와 같은 강제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⁵ 다시 말해서 革命以後 動員化段階의 蘇聯에서는 組織的인 反對派를 제거하여 人民들을 唯一한 價值體制로 拘束하면서 急速한 工業化라는 政策目標로 動員하기 위하여 政治 테러가 不可避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死亡後 蘇聯에서는 그와 같은 政治的 테러의 衰退現象이 特徵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스탈린」以後 蘇聯에서는 강제노동자 수용소가 폐쇄되고 秘密警察의 많은 機能들이 다른 國家機關이

24. Merl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rev. ed., p. 103.

25.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chs. 3 ~ 5.

나 党機構로 分散되며 司法機能의 制度化가 增大되는 등의 現象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²⁶

「달린」과 「브레스라우어」는 「스탈린」以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政治的 테러의 衰退 現象을 動員化 以後 段階의 共產政權에서 볼 수 있는 政治的 統制方式의 變化로 說明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스탈린」以後 政治的 테러의 衰退現象은 다음과 같은 側面을 보여준다.

- ① 恣意的인 形態의 強制가 豫測的인 形態의 強制로 代置된다. 예컨대 司法的인 機能의 制度化가 增大되며 재판소가 주요한 政治的 統制機關이 된다.
- ② 說得 (persuasion), 刺戟 (incentive), 또는 強制力 (coercive power) 과 같은 制裁體系間的 均衡이 이루어지며 指示的인 (Prescriptive) 制裁로부터 限定的인 (restrictive) 制裁로 전환하다. 특히 強制力보다는 說得과 刺戟에 대한 依存度가 높아지며 따라서 政治的 說得이나 政治社會化를 위한 制度가 增大된다.
- ③ 全般的으로 政治的 統制的 領域이 縮小된다. 따라서 社會內 下位體系의 利益 集合 (interest aggregation) 이나 自律性的 增大現象이 일어난다.²⁷

이러한 政治的 테러의 衰退現象이 야기된 原因은 일반적으로 體制의 機能的 要求와 關聯시켜 理解되고 있다. 예컨대 「달린」과 「브레스라우어」는 그러한 原因을 動員化段階에서 推進되었던 諸政策의 結果 또는

26. 蘇聯의 秘密警察에 關한 研究로는 Frederick C. Barghoorn, "The Security Police" in H. Gordon Skilling and Franklyn Griffiths, (eds.), Interest Groups in Soviet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p. 93 ~ 129.

蘇聯에 있어서 司法機能의 變化過程에 關한 研究로는 Harold J. Berman, "The Jurists" in H. Gordon Skilling and Franklyn Griffiths, (eds.), op. cit., pp. 291 ~ 333. 參照.

27.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in Char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196 ~ 197.

意圖인 急速한 工業化過程의 產物로 說明하고 있다. 즉 이들의 說明에 따르면 工業化가 達成된 以後에는 이미 그러한 工業化를 성취하기 위한 강제적인 動員化政策의 테러인 統制手段은 새로이 複合性이 增大되고 있는 社會에서 요청되는 自發的인 參與와 協助의 必要性에 부응할 수 없는 말하자면 非效果的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⁸

「프리드리히」는 그러한 變化의 原因을 社會的 安定에 必要한 體制의 要求와 關聯시켜 說明하고 있다. 즉 「프리드리히」의 說明에 따르면 社會가 安定되어 이미 『상당한 合意』가 이루어지면 급격한 社會的 轉換 期에서 요청되던 強制的 機能이 後退하고 종래의 직접적인 物理的 테러는 政治的 宣傳이나 思想敎養과 같은 間接적인 『心理的 테러』(psychic terror)로 대체된다고 한다.²⁹

한편 全體主義政治體系에서 獨裁的인 指導者의 個性(personality)이라는 要因을 중시하는 「터커」와 같은 立場에서 보면³⁰ 「스탈린」以後 蘇聯에서의 그와같은 政治的 테러 衰退現象을 「스탈린」死亡이라는 독특한 事件의 脈絡속에서 理解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문제는 「스탈린」死後의 그와같은 變化를 蘇聯政治體系의 本質的인 變化, 예컨대 『自由化』와 같은 것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나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死後 政治的 테러가 크게 衰退하고 있는 現象을 蘇聯體制가 以前의 社會的 패턴으로 부터 全面的으로 離脫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카소프」(Allen Kassof)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獨裁者가 死亡한 以來 상당한 「自由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觀察方法은 여러가지로 有益하긴 하지만 分析과 評價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問題를 제기한다. …… 脫 스탈린化(destalinization)의 폭렬 많은 政治的 드라마를 理解하기 위한 執念은 部分的으로 그러한 政治的 變化의 社會的

28. Ibid.

29. Friedrich, op.cit., p.40.

30. Robert C.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Vol. XVII, No.4. (July 1965), p.563.

結果를 輕視해 왔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政治的 自由化를 社会的 自由化로 同一視하는 不正確한 假定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³¹

「카소프」는 「스탈린」以後 蘇聯社会가 広範한 變化過程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蘇聯社会가 「스탈린」的인 要素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限界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테러없는 全体主義」(totalitarianism without terror)를 想定하고 蘇聯을 보는 새로운 모델로써 『行政化된 社会』(administered society)라는 概念을 제시하기도 한다.³²

「스탈린」以後 蘇聯政治体系에 대한 이러한 「카소프」의 觀點은 어느 면에서는 社会的 變化에 대한 政治体系의 『機能的 適應』이라는 側面을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테러는 가장 效果的인 強制的 形態이기 때문에 꺼꾸로 그러한 테러가 有効한 政治的 統制의 手段이 되지 못할 때는 人民들의 疎外를 最大化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政治体系는 그러한 새로운 問題에 적절히 対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달린」과 「브레스라우어」는 蘇聯政治体系가 당면한 그와같은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強制는 심지어 그것이 服從行態를 確保하고 있을 때에도 疎外를 最大化하기 때문에 大衆의인 正統性을 달성해야 하는 政權의 課題를 보다 어렵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政權과 市民과의 關係를 強制的인 것으로 부터 規範的인(normative) 것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변질시키려는 경향에 있다. 그러므로 테러는 政權의 效果的인 道具이며 동시에 그 政權에 대하여 부담스러운 挑戰이 된다』³³

다시 말해서 動員化以後段階에 있어서 不可避한 테러의 감소는 그러한 테러의 결과로 야기된 大衆의인 疎外感을 組織的인 反抗으로 전환시키게

31. Allen Kassof, "The Administered Society: Totalitarianism Without Terror" World Politics, Vol. XVI, No. 4 (July, 1964), p. 560

32. Ibid., pp. 558 ~ 575.

33.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op.cit., p. 193.

되거나 反体制(dissent)의 경향을 誘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급격한 社会的 變動期에 政治的 테러가 수행해 왔던 社会的인 轉換(transformation), 政權의 生存(survival) 또는 強化(consolidation)와 같은 機能은 퇴색하게 되고 体制의 安定(stability)이라는 새로운 要求에 맞추어 새로운 『機能的 代用品들』(functional equivalents)³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以後 蘇聯에서 政治的 테러에 대신하여 새롭게 기존 体制에 대한 一体感(identification) 또는 黨리더쉽에 대한 信賴를 確立하기 위한 政治過程의 開放과 政策的 方向轉換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体制의 適応』이라는 脈絡에서 이해된다.

黨統制의 合理化

蘇聯에 있어서 共產黨은 『全社會를 指導하고 方向 지워주는 社会的 政治的 組織의 最高形態』로 規定되고 있다. 이와같은 蘇聯社會內에서의 黨의 役割에 대한 定義는 『專門의 革命家 엘리트의 組織』이라는 「레닌」의인 黨概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웨손」은 蘇聯社會에서 黨이 차지하고 있는 地位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黨의 지시없이는 條理있는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黨은 이데올로기를 表現하고 解析하고 適用한다. 同시에 黨은 蘇聯社會의 目標과 社會와 黨과의 關係를 밝혀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正統性을 主張한다. 黨과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하나의 政治的 現實에 대한 두 側面을 말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真理를 独占하고 있다면 黨은 組織을 独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兩者는 다같이 統一性和 統制라는 目標를 指向한다』³⁵

이와 같이 共產黨이 실제로 蘇聯社會의 目標과 方向을 指導하고 있다

34. Ibid., p.208.

35. Robert C. Wesson, The Soviet Russian State(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2), p.155.

고 볼 때 바로 그 党的 構成이나 機能 또는 組織形態는 蘇聯政治体系의 核心的 機能으로 볼 수 있는 政治的 리더십 役割의 本質을 表現해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蘇聯社会 자체의 性格을 反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蘇聯에 있어서 党自體의 變化는 바로 蘇聯政治体系의 變化 또는 蘇聯社会의 變化로 해석된다.

「스탈린」時代에는 급속한 工業化와 農業集團化를 推進하고 革命體制를 制度化해 가는 過程에서 그의 독특한 個人崇拜統治 스타일과 테러적인 強制手段에 의해서 效率적인 動員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手段으로 党을 利用하였다. 따라서 「스탈린」治下에서는 國家官僚機構나 秘密警察에 비해서 党的 機能이 상대적으로 輕視되었다. 36

그러나 「스탈린」死後에는 党的 役割이 새롭게 강조되고 党的 社会的 統制機能이 強化되는 特徵的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스탈린」以後의 이와같은 變化는 蘇聯社会에 대한 党的 機能變化라는 側面과 党自體의 變化라는 側面에서 동시에 把握될 수 있다.

우선 그러한 變化의 原因은 「스탈린」以後 蘇聯指導者들이 當面한 諸課題속에서 찾아진다. 「스탈린」以後 蘇聯指導者들이 當面한 問題는 소위 『承繼의 危機』(crisis of succession)를 극복하고 效果적인 政治權力的 独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테러나 秘密警察과 같은 「스탈린」적인 統治技術을 後退시키고 大衆적인 主張과 要求에 接近하여 體制의 正統性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必要的 社会的 動員을 達成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었다. 37

따라서 「스탈린」以後의 蘇聯指導者들은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党機能의 活性化를 통한 새로운 社会統制의 代案을 마련해야만 했던 것이다.

둘째로 그러한 變化는 蘇聯의 工業化에 따라 나타나게 된 새로운 社

36. Jeremy R. Azrael, "The Party and Society" in Allen Kassor (ed.),

Prospects for Soviet Society (New York: Praeger, 1968), p. 63.

37. Ibid., p. 65.

會·經濟的 要求에 부응해야 하는 体制의 適応의 問題와 관련시켜 이해 될 수 있다. 「콕스」(Paul Cocks)는 「스탈린」以後 黨機構 또는 黨行政의 改革과 같은 『黨統制의 合理化』(rationalization of party control)過程을 그와같은 体制의 適応 또는 適合理化라는 脈絡에서 說明하고 있다³⁸

여기서 「콕스」는 『統制』(kontrol)나 『合理化』(ratsionalizatsia)라는 것을 매우 制限的인 蘇聯的 概念 또는 露語的 意味로 사용하고 있다. 즉 『統制』라는 것은 英語의 "Control"이 갖는 點檢 (check) 또는 制限(restraint)의 意味보다는 命令의 處理 또는 實施에 대한 確認이라는 制限된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合理化』라는 것도 西歐的인 組織理論에서 통용되는 「웨버」(Max Weber)의인 『合理化』나 『카리스마의 日常化』(routinization of charisma)와 같은 概念보다는 行政改革이나 機構의 變化와 같이 組織活動을 改善해 가는 過程 정도의 制限的이고 技術的인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콕스」의 說明에 따르면 「스탈린」以後의 黨統制 合理化 傾向은 政治体制의 基本的인 變化라기 보다는 새롭게 제기된 体制의 效率性과 正統性의 問題를 解決하고 검증하는 官僚制化를 견제하기 위해서 取해지는 리더십 戰略이며 따라서 多분히 技術的이고 行政的인 手段의 問題라는 것이다³⁹

「스탈린」以後 蘇聯指導者들에 의해서 추진된 黨統制의 合理化 戰略은 「후르시초프」의 人民主義的인 『公衆原則』(Obshchestvennye Nachala, Public principle)⁴⁰과 「브레즈네프」의 科學主義的인 『勞動의 科學的

38. Paul Cocks, "The Rationalization of Party Control" in Johnson, (ed.), op.cit., pp.153 ~ 190.

39. Ibid., p.155.

40. "Obshchestvennye Nachala"는 直訳하면 『公衆原則』이고 西歐的인 意味로는 『公衆參與』의 概念과 가깝다. 후르시초프는 이 말을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또는 『共產主義的 公衆自治政府』, 『大衆에 의한 自治行政』과 같은 概念과 關聯시켜 使用하였다. 狹意로는 非專門家 또는 非黨職者가 無報酬로 行政的作業에 自發的으로 參與하는 것을 장려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組織化』⁴¹ (Nauchnania Organizatsiia Truda, scientific organization of labor) 原則이라는 對照의인 두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후르시초프」는 22次黨大會를 통하여 政府機構 또는 黨에 대한 人民의 參與를 增大하고 그러한 參與를 통해서 國家權力機構를 점점 大衆의 自治政府의 形態로 指向시킬 것을 명시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大衆의 參與를 誘引하는 『參與的 統制』(participatory control) 또는 『公衆統制』의 採択을 의미한다. 이러한 「후르시초프」의 『公衆原則』은 『黨·國家統制委員會』(Party-State Control Committee)나 地方黨의 『非黨戰者委員會』(Non-staff Party Committee)를 통하여 國家官僚主義를 견제하고 人民들의 자발적인 行政參與를 促進하였다. 그러나 그와같은 「후르시초프」의 人民主義的 改革은 強力히 대두되는 官僚主義와 專門技術者들로부터 道전을 면치 못했다.

「브레즈네프」時代에 와서는 새로운 經濟改革을 推進하면서 『勞働의 科學的 組織化』(NOT)運動이 復活되고 黨組織이나 行政機構에 廣範圍하게 科學主義를 適用하는 『組織生活의 科學化』, 『統治技術의 科學化』가 모색되었다. 이와같은 「브레즈네프」의 黨統制合理化戰略은 「후르시초프」時代의 人民主義的 方式에 대신하여 科學的인 『政治技術』을 발전시킴으로써 역시 體制의 效率성과 正統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브레즈네프」時代에 강조된 『統治技術의 科學化』와 관련하여 蘇聯에 있어서 종래까지만 해도 『브르조아의 가짜 科學』(brougeois pseudo-science)으로 지탄돼 오던 社會科學 特別 政治學(political science)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르시초프」가 失脚한 직후인 1965年 蘇聯의 哲學者 「부르라츠키」(Fyodor Burlatskii)가 「프라우다」紙(1月 10日字)에 發表한 『政治와 科學』

41. NOT는 1924이래 經濟的 生産의 合理化運動으로 展開되 왔다. 이것은 共產主義建設을 위한 科學技術의 기초를 강조하는 것으로 1967年 6月 NOT全國會議를 계기로 NOT運動을 行政에 適用하는 問題가 제기되었다.

이라는 論文속에서 實用的이고 經驗主義的定向을 갖는 政治的 리더십을 樹立하는 문제와 관련시켜 진정한 經驗的 政治學의 必要性을 主張한 이래 蘇聯에서는 政治學과 社會學과 같은 새로운 社會科學의 出現을 보고 있다.⁴²

「카츠」(Zev Katz)는 이와같이 蘇聯에서 經驗的인 社會科學의 要求가 增大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여기서는 蘇聯에서 社會學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理由가 무엇인가를 밝혀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 확실히 그 理由는 대부분 「스탈린」死後 蘇聯社會에서 進行되 오고 있는 長久한 變化過程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스탈린」以後의 指導者들은 점점 大衆的 테러에 대한 依存으로 부터 보다 미묘하고 세련된 說得方法和 社會的 操作에 依存하는 方向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들은 社會統制나 體制正當化를 위한 보다 效果的인 手段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더욱 広範하게 「科學」, 특히 經驗的 調查나 社會構造, 態度, 動機, 行態등의 科學的 分析和 같은 社會學的 研究에 대한 依存을 增大시키게 된다』⁴³

다시 말하면 60年代 蘇聯에서 새롭게 出現하고 있는 經驗的인 社會科學의 主張은 순수한 學問的 側面보다는 政治的인 目標의 手段이라는 側面에서 理解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웰」(D.E. Powell)과 「소우프」

-
42. i) David E. Powell & Paul Soup, "The Emergence of Political Science in Communist Count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V, No. 2 (January 1970), pp. 572 ~ 578.
- ii) Zev Katz, "Sociology in the Soviet Union",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No. 3. (May-June 1971), pp. 22-40.
- iii) Rolf H.W. Theen, "Political Science in the USSR: 'To Be, Or Not to Be.' Some Reflections on the Implications of a Recent Soviet Critique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World Politics (July 1971), pp. 684-703.
- iv) Rolf H.W. Theen, "Political Science in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 No. 3. (May-June 1972) pp. 64-70. 등을 參照
43. Katz, op. cit., p. 22.

(Paul Soup)도 蘇聯의 새로운 經驗的 社会科学이라는 것은 그것이 『党에 効果的인 기여를 할 때』에만 容納되는 것이며 리더십의 技術이나 行政의 技術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沒價値한 社会科学으로의 指向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結論짓고 있다.⁴⁴

그러나 「콕스」가 시사하고 있듯이 창기적으로는 蘇聯에 있어서 그와 같은 社会科学의 出現은 단순히 技術的인 党統制의 合理化라는 制限된 해석과 관련시킬 수 없는 『보다 깊은 意味』⁴⁵를 갖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후르시코프」의 『公衆原則』이나 「브레즈네프」의 『科学主義』에 의해 추진된 「스탈린」의 全体主義의 合理化政策은 지도자의 意圖 또는 리더십戰略이라는 면에서 볼때 다같이 새로운 社会統制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技術的 適応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技術的 適応(adaptation)만으로 規定되는 合理化概念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蘇聯政治体系의 進化(evolution)를 完全히 解明할 수 없다.

「콕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合理化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보다 큰 效率性を 達成시켜 주는 데는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蘇聯社会의 變化하고 있는 要求에 부응할 充分한 政策은 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完全한 技術이나 훌륭한 適応 또는 改革이 必要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變化가 要求되고 있다. 變化의 要求는 效率性的 問題를 초월하는 것이다』⁴⁶

이렇게 볼때 蘇聯政治体系에 있어서 党統制의 合理化라는 문제는 参与와 制度化 또는 動員과 組織의 問題로 환원하여 政治体系 자체의 進化라는 動態的인 觀点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4. Powell & Soup, op.cit., p.580.

45. Cocks, op.cit., p.185.

46. Ibid., p.188.

2. 變化를 理解하는 두가지 立場

蘇聯政治体系的 變化에 대한 關心은 變化的 原因에 대한 分析과 變化的 方向에 대한 豫測이 焦點이 되고 있다. 그러나 蘇聯政治体系變化에 대한 그와같은 關心의 方向은 政治体系的 變化過程에 대한 動態的 認識이나 政治体系的 不變的인 本質 또는 變化的 範圍에 대한 再評價를 제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은 蘇聯政治体系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묘사하고 說明할 수 있겠느냐 하는 똑같은 문제로 귀착된다. 더우 기 變化的 原因에 대한 究明은 變化的 方向을 豫見케 하는 것이며 變化的 方向에 대한 예측은 變化的 原因에 대한 分析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蘇聯政治体系 變化的 原因에 대한 분석이나 方向에 대한 진단은 같은 論理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蘇聯政治体系的 變化原因은 여러가지 複合的인 要因으로 說明될 수 있다. 經濟發展이나 傳統的인 政治文化 또는 國際環境, 指導者의 個性과 같은 것들은 비록 그것이 相對的으로 輕重을 가지는 것이지만 직접, 간접으로 蘇聯政治体系的 變化에 作用하고 있는 要因들 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蘇聯政治体系的 變化를 가장 說得力있게 說明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要因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러한 複合的인 要因을 分析하는 立場도 따라서 매우 多様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蘇聯政治体系的 動態的인 過程을 体系的 機能(function)이라는 概念속에서 파악한다면 蘇聯政治体系變化的 重要한 要因으로써 리더십의 戰略으로 代表되는 体系的 能力(capacity)과 環境的 要因으로부터 起因하는 政治体系에 대한 諸要求의 두 機能的 變數(variables)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코넬」(Richard Cornell)은 蘇聯政治体系에 있어서 이와같은 두가지 變數間的 相互關係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政治体系는 어떤 環境의 影響과 高度로 中央集權化, 制度化된 小數엘리트 集團에 의해서 意圖的으로 指示되는 諸行為간의 相互作用 過程으로 가장 잘 說明될 수 있다. 엘리트들은 環境이 가져다 주는 影響의 效果를 制限하거나 緩和하려 한다. 그러나 環境

은 어떤 社会的 勢力을 形成하여 엘리트에 의해 統制되는 政治過程에 대한 諸要求를 創出함으로써 결국 엘리트에 도전한다』⁴⁷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와같은 蘇聯政治体系의 動態的 過程을 決定해 주는 두 變數間의 相互關係를 어떻게 說明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蘇聯政治体系의 變化는 『위로부터』의 原因이 主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부터』의 原因이 主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質問은 바꾸어 말하면 蘇聯政治体系에 있어서 變化의 問題는 리더십戰略의 限界속에서 理解돼야 하느냐 아니면 社会, 經濟的인 環境變化의 不可避한 結果로 理解돼야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蘇聯 政治体系의 變化原因을 分析하는 立場을 두가지로 大別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社会, 經濟的인 環境으로 부터 오는 政治体系에 대한 諸要求의 壓力을 강조하는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이고 또 하나는 리더십의 側面을 강조하는 政治的 決定論의 立場이 그것이다.

經濟的 決定論

蘇聯政治体系의 變化를 經濟的 發展段階나 테크놀로지의 水準과 關聯시키는 分析은 工業化에 따른 經濟的 基盤의 變化가 불가피하게 政治体系와 같은 『上部構造』의 變化를 要求한다는 마르크시안의인 假定에 基礎하고 있거나 經濟發展段階論과 같이 單線的(unilinear) 發展過程을 가정함으로써 蘇聯의 工業化 또는 近代化過程을 西歐社会의 發展과 同一한 脈絡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에 있다.

다시 말해서 蘇聯政治体系의 變化에 대한 經濟的 決定論의 基本的인 가정은 經濟成長이나 테크놀로지의 發展이 그에 상응하는 社会的 構造나 体系의 變化를 야기시키고 그와같은 社会的 變化는 결국 政治体系의 變化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分析이 工業化된 蘇聯의 社会나 政治体系가 先進된 西歐에 接近하고 있다는 收斂論的 豫測을 낳게

47. Richard Cornell, (ed.), op.cit., p.3.

하고 있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⁴⁸

共產體制에 있어서 經濟發展段階나 테크놀로지의 水準이 政治的 發展 또는 政治的 變化와 밀접한 關係를 갖는 諸側面에 유의하고 있는 「엑스타인」(Alexander Eckstein)은 어떤 政體(polity)의 성격을 一定한 經濟的 發展段階에 있어서 體制에 대한 諸要求(demands)와 그에 대처하는 體制의 能力(capacity)간의 適合化 機能으로 規定하고 있다.

『어느 政治體系간에는 그것은 能力和 要求 또는 能力和 希望의 產物로 볼 수 있다. 이 두 變數間的 계속적인 相互作用은 體制內 變化의 基本的인 動因을 마련해 주고 있다. 體制의 能力이라는 側面은 테크놀로지 水準이나 經濟發展段階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⁴⁹

「엑스타인」이 例示하는 要求變數들은 國民的 統合, 國家安保 또는 國力の 達成, 物質的 福祉의 改善과 같은 最終的 要求(final demand)와 그를 推進하기 위한 工業化, 資源의 動員과 같은 過程的 要求(intermediate demand)등이며 能力變數는 組織, 暴力, 이베올로지, 經濟的(物質的) 誘因, 心理的 誘因과 같은 것이다.⁵⁰

「엑스타인」에 의하면 이와같은 要求와 能力間에는 相互 適合化(mutual adjustment)의 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나 經濟發展段階의 어느 限界點을 넘으면 그러한 均衡이 破壞되고 體制的인 緊張이 야기되어 政體의 性格에 있어서 급격한 變化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中央集權的인 命令經濟(command economy)나 命令政體(command polity)는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急速한 工業化를 추진하는데 매우 훌륭한 機

48. 資本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間的 收斂論을 제기한 代表的 經濟學者로는 「갈브레이스」(J.K.Galbraith), 「로스토크」(W.W.Rostow), 「틴버젠」(J.Tinbergen) 등을 들 수 있다.

49.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XXII, No.4, (July 1970), p.480.

50. Ibid. p.478.

能을發揮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投入生産性(input productivity)이 다소 쇠퇴되더라도 잠재적인 勞働이나 資本의 投入動員(input mobilization)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와같은 동원전략을 위해서 테러가 훌륭한 機能手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生産에 있어서의 複合性(complexity), 迂回性(roundaboutness),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y)이 증대되고 이러한 生産 樣式의 變化는 分業과 職業的 役割 또는 社会的 役割의 機能的 分化를 促進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段階에서는 층級の 強制的인 動員手段이 이미 적당치 못하게 된다. 더욱이 새롭게 제기된 經濟的 能率이나 合理性의 問題(예컨대 管理 또는 勞動力投入의 質的改善)를 해결하기 위하여 專門的 技術에 대한 依存性이 增大되고 分權化, 自律化, 合理化와 같은 새로운 社会的 要求가 增大함에 따라 命令經濟에 기초하고 있던 命令정체는 불가피한 變質의 過程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蘇聯政治体系의 變化에 대한 이와같은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은 여러가지로 批判을 받고 있다.

蘇聯政治体系의 變化에 대한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이 批判받는 첫 理由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單線的인 經濟的 進化의 패턴을 가정하여 하나의 표준적인 成長段階만을 고려하는 西歐의인 經濟發展論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같이 西歐의인 工業化 또는 近代化를 唯一한 發展모델로 前提하는 立場은 『政治發展』을 『西歐化』로 同一視 하였던 政治發展論者들이 開發途上國家들의 政治体系를 적절히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⁵¹

더우기 그와같은 經濟的 決定論의 無理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經濟的 發展段階와 政治体系의 性格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政治的 變化는 經濟的 社会的 變化의 단순한 反映 또는 結果라기 보다는 多樣한 適応 또는 進化의 形態를 取하는 動態的인 過程으로 理解된

51. Dankwart A. Rustow, "Communism and Change" in Johnson, (ed.), op.cit., p.353.

다. 「아즈레이얼」(Jeremy R. Azrael)은 蘇聯이나 東歐共産國家들의 脫「스탈린」化 過程이 각기 多様な 形態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檢討하면서 그러한 政治的 變化의 差異가 各 政權이 당면해야 했던 상이한 經濟的 條件만으로는 만족스럽게 說明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²

「스킬링」(H. Gordon Skilling)도 共産政治体系의 進化는 單線的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국가간의 다양성 또는 공산정치체계내의 변화原因에 대한 호기심이 증증하고 있다. 어떤 단순한 說明方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것은 공산주의의 進化에 관한 복합적인 實際를 理解하는데 適切하지 못하다. 그와같은 說明方法속에는 經濟的 基礎의 變化가 政治的 上部構造의 變化를 불가피하게 要求하기 때문에 政治的 變化는 어느정도 經濟的 發展의 結果라는 假定을 같이 놓고 있다. 따라서 모든 共産國家들은 어떤 같은 進化의 段階를 통과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進化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軸을 따라 段階의 으로 進行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심지어 逆行의 코스를 보여주고 있다. 發展의 길은 單線的인 것이 아니라 多様な 方法을 갖는 것이며 各 共産政治体系에 게는 많은 選擇의 門이 열려 있는 것이다. 變化는 一般的인 것일 수도 있고 特殊한 것일 수도 있으며 革命的인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다』⁵³

經濟的 決定論이 批判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理由는 그것이 지나치게 經濟的 要因을 앞세움으로써 蘇聯政治体系의 變化를 說明하는데 있어서 相對的으로 政治的 要因을 輕視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러스토우」(Dankwart A. Rustow)는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經濟發展論의 「發展段階」 概念은 마르크시즘을 공공연히 反對하고 있는 社會科學者들간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다. ……즉 政治的 進化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經濟, 社會的 變化의 反映이라는

52. Jeremy R. Azrael, "Varieties of De-Stalinization", in Johnson, (ed.), op.cit., p.150.

53. H. Gordon Skilling, "Group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in Johnson, (ed.), op.cit., pp.229-30.

것이다. 이와같은 概念도 역시 「마르크스」가 물려준 遺産의 一部이다. 그러나 美國의 많은 政治社會學者들은 「레닌」以來로 政治의 優位를 充分히 인식하고 있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이나,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政治的 基盤이 중요하다는 점을 充分히 깨닫고 있는 「쿠즈네츠」(Simon Kuznets), 「슈펜글러」(Joseph Spengler), 「허쉬만」(Albert Hirschman), 「루이스」(W.Arther Lewis)와 같은 經濟學者들보다도 더욱 그러한 概念에 집착하고 있다』⁵⁴

이상과 같은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에 대한 批判은 결국 蘇聯政治體系의 變化가 經濟的·또는 社會的인 性格으로 適당히 還元할 수 없는 어떤 本質的인 政治的 側面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政治的 決定論

「존슨」은 共產政治體系에 대한 經濟的 分析의 限界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어떤 目的을 위해서 비록 政治的 性格을 社會·經濟的인 性格으로 적절히 환원시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過程은 共產政治體系에 있어서 政策決定과 같은 政治的인 問題를 解明해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分解시켜 버리는 것이 된다』⁵⁵

蘇聯政治體系의 變化를 경제적 또는 社會적 變化의 結果로 보는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이 蘇聯政治體系의 變化可能性을 배제하고 있던 總體의 全體主義理論의 結점을 상당히 극복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즉 經濟的, 社會的 基盤의 變化를 政治體系의 變化와 關聯시키는 分析은 政治體系가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計劃적으로 『賦課하는』關係가 아니라 經濟的, 社會的 發展이 政治體系를 『자동적』으로 變질시키는 關係에 주목함으로써 蘇聯政治體系 자체의 動態的 側面을 說明하고 있다는 것이다.

54. Rustow, op.cit., p.353.

55.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Johnson, (ed.), op.cit., p.4.

그러나 이러한 分析의 欠點은 計劃된 經濟的, 社會的 變化가 意圖치 않은 政治體系의 變化를 가져오게 되는 諸過程에서 政治體系 自體의 機械的 對應이라는 側面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蘇聯政治體系의 變化에 대한 理解의 問題에 있어서 『밑으로 부터의』 自動的인 變化壓力보다 그에 相互機能하는 『위로 부터의』 要因 즉 政治體系 자체의 要因을 더욱 重要視하는 것이 政治的 決定論의 立場이다. 이것은 종래의 全體主義理論모형과 같이 蘇聯體制의 政治優位性⁵⁶을 是認하는 立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政治體系 자체의 變化에 대하여 保守的인 立場을 取하는 리더십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政治體系 또는 리더십의 役割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政治的 決定論은 蘇聯政治體系의 多元主義化에 대해서 否定的인 展望을 갖게 한다.

한편 蘇聯政治體系變化 原因에 대한 政治的 分析은 주로 政治體系內 『緊張의 管理』나 『갈등의 調整』 또는 「政治體系의 革新」이라는 側面에 유의하게 된다. 따라서 政治的 決定論의 立場에서 보면 蘇聯政治體系의 變化自體가 政策決定過程을 통해서 表現되는 『現狀維持의 修正』(modification of status quo)⁵⁶이라는 制限된 意味로 이해된다.

「로웬탈」(Richard Lowenthal)은 蘇聯政治體系 變化의 근본적인 原因을 이데올로기가 指向하는 理想主義的 目標과 工業化 또는 發展이라는 目標을 동시에 追求해야 하는 『目標의 二重性』(dualism of goal)⁵⁷에서 찾고 있다. 「로웬탈」에 의하면 그와같은 두가지 상호충돌하는 目標은 구체적인 政策에 있어서 계속되는 葛藤의 形態로 나타나며 그와같은 계속되는 葛藤은 결국 理想主義에 대한 近代化主義의 勝利로 낙착된다.

「로웬탈」은 共產政治體系에 있어서 그와 같이 發展目標과 優位하게

56. Gordon Skilling, op.cit., p.231.

57.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tics" in Johnson, (ed.), op.cit., p.50.

됨에 따라 야기되는 政治的 變化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① 職業革命家 엘리트와 革命以後의 專門家엘리트間的 葛藤에 있어서 專門家엘리트의 勝利는 몇가지 형태로 党的 構成과 党的 政策觀에 있어서 主要한 變化를 가져온다.

② 精神的인 誘認과 物質的인 誘因의 役割問題에 관한 葛藤에 있어서 『經濟的 人間』(economic man)의 勝利는 物質的 價值를 점점 중시하게 되는 경향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强제의 役割이 현저히 줄어든다. 따라서 비밀경찰의 政治的, 經濟的 權力行使가 後退하고 政策的 手段으로써의 大的인 테러리즘은 사라진다.

③ 『위로부터의 革命』을 계속 부과하느냐 하는 문제 즉 永久革命(permanent revolution)의 問題에 관한 갈등에 있어서 革命的 다이내미즘의 소멸은 社會에 대한 党的 主要한 變化를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 政治的 正當性의 危機가 초래된다.⁵⁸

이와같이 「로렌탈」은 蘇聯政治体系의 變化를 『政治的으로 强要된 發展』(politically forced development)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 說明한다.

그러나 「로렌탈」은 「스탈린」以後 蘇聯政治体系變化의 重要한 動因이 되고 있는 革命的 다이내미즘의 소멸이 바로 多元主義的인 政治体系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革命段階以後의 共產黨은 社會內의 多樣한 諸利益의 存在를 시인하지만 그러한 利益의 表現이나 代表性을 規制 또는 制限하면서 最終的인 決定權을 保持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不可欠한 權威의 仲裁者로 생각한다.

共產黨은 이제 社會에 대하여 革命을 계속 賦課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스스로 어떤 순간의 集合된 社會的 勢力을 表現해 주는 단순한 役割로 後退하려고도 않는다는 점에서 全体主義的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民主主義的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權威的이라고 할 수 있다. 共產黨은 自動的인 社會的 發展

58. Ibid., p.111.

의 諸勢力에 대해서 守勢의이다.

工業화된 社會를 支配하는 共產黨의 그와같은 守勢의인 立場은 그것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인 正當性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써도 證明이 된다.

共產黨은 이제 더이상 完全한 共產主義를 達成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支配를 正當化할 수 없게 되자, 扎实的 經濟成長과 福祉를 확보하고 外勢의 侵透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民族的 團結과 獨立 또는 民族의 偉大性을 유지하기 위해서 黨의 指導的 役割이 必要하다고 주장한다』⁵⁹

「존슨」은 共產政治體系의 變化를 『위로 부터의』 革命을 遂行하기 위한 強制的인 動員化(mobilization)의 過程 또는 그 結果로 說明한다.⁶⁰

「존슨」은 共產國家에서의 動員化 目標을 目標文化(goal culture)와 移轉文化(transfer culture)로 區別하고 있다. 즉 目標文化는 革命的 이데올로기가 追求하는 『理想郷』이며 移轉文化는 目標文化로 指向하는 過程上的 諸政策을 規範化하는 內容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移轉文化의 目標은 실제적으로는 黨 指導者들이 目標文化의 必需的인 要件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예컨대 階級없는 社會)과 社會體系의 持續과 維持를 위한 要件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예컨대 工業化)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移轉文化目標속에는 革命的 이데올로기가 직접 要求하는 內容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社會의 機能的 要求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蘇聯의 경우는 黨의 權力獨占, 國防을 위한 重工業建設 農業集團化, 生産手段의 國有化, 消費의 억제, 市場原理의 근절, 勞動技術訓練과 같은 것들이 移轉文化目標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移轉文化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위로 부터의』 革命을 추진하는 全體主義의 動員體系가 樹立되며 選定된 部門, 예컨대 經濟建設이나 國防과 같은 分野에서 集中的으로 動員化가 이루어진다. 즉,

59. Ibid., p.115.

60. Johnson, op.cit., pp.1-32.

『動員化政策은 모든 매력적인 目標을 다 達成할 수는 결코 없다. 따라서 動員化政策은 리더십에 의해서 規定되는 몇가지 優先的인 目標을 成就할 것을 目標로 한다』⁶¹

「존슨」에 의하면 이와같은 편중적인 動員化政策은 體制의 不均衡發展, 특히 機能的分化和 複合性이 增大된 社會와 全體主義的인 統制가 逆機能하게 된 政治間에 심한 不均衡狀態를 誘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不均衡發展에 대한 処方은 역시 리더십에 의해 規定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工業化以後의 動員政策은 社會의 새로운 機能的 要求들을 移轉文化目標속에 흡수하는 이데올로기적 革新의 形態를 取하게 된다. 결국 蘇聯政治體系의 動態的 性格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現實의 矯正』과 『現實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矯正』⁶²이 반복, 순환되는 過程으로 表現된다는 것이다.

三. 蘇聯政治 體系에 對한 새로운 接近方法

1. 全體主義모델批判論

蘇聯政治體系의 變化, 특히 「스탈린」以後 變化의 本質에 대한 體系의 理解를 企圖하고 있는 比較政治學者들間에는 종래까지 蘇聯政治體系 分析에 一般적으로 適用되온 全體主義理論모델을 批判하는 論議가 활발히 起기되었다. 그와 같은 批判論議에서 公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全體主義모델의 欠點은 바로 그것이 蘇聯政治體系에 대한 分析概念으로서 現實的인 妥當性을 갖지 못하며 또 政治體系의 比較的인 分類法(typology)로서 活用性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全體主義理論모델의 弱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스탈린 時代 蘇聯政治體系의 特徵을 分析基準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탈린」

61. Ibid., p.25.

62. Ibid., p.18.

以後의 變化와 같은 蘇聯政治体系의 動態인 過程을 說明해 주지 못하는 말하자면 「歷史적으로 制約된 모델」⁶³이라는 점이다.

「인켈리스」(Alex Inkele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社會를 分析하는 모델은 時間이라는 次元을 念頭に 두어야 한다. 만약 문제를 歷史적으로 본다면 남은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한 活用價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소개되어야만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蘇聯社會가 發展하고 變化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發展 또는 變更시키던가 아니면 現實과 맞지 않는 概念的 틀을 가지고 계속 蘇聯問題를 分析하던가 둘중의 하나이어야만 했을 것이다.』⁶⁴

「마이어」(Alfred G. Meyer)도 全体主義理論 모델이 蘇聯政治体系의 現實에 適合치 않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全体主義는 하나의 理念型이며 抽象的인 構造物이다. 이제까지 어느 體制도 완벽하게 全体主義的인 것은 있어본 적이 없다. 더우기 公산권내의 變化와 分化의 정도가 積증함에 따라 우리들은 점점 모델과 現實間의 많은 不一致를 보게끔 된다. ……
……全体主義理論 모델은 아마 共產體制發展의 어느 限定된 時期, 즉 體制建設(system-building)의 역경을 겪는 時期, 또는 生産과 權威手段의 「原始的 蓄積段階」에 처해 있던 時期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⁶⁵

全体主義理論모델의 또 다른 欠点으로 지적되는 것은 全体主義概念 또는 그 用語自体가 內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的인 意味內容이다. ⁶⁶

63. Alex Inkeles,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ociety," *Survey*, No. 60 (July 1966). Reprinted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 Book of Reading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p. 16.

64. Ibid., p. 24.

65. Alfred G. Meyer,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Slavic Review*, Vol. XXVI, No. 1 (March 1967). Reprinted in Cornell, op. cit., p. 48.

66. Alexander J. Groth, "The Ism's in Totalitaria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III, No. 4 (December 1964), pp. 888-901.

즉 종래 蘇聯政治体系에 적용받은 全体主義의 概念은 이미 非民主的인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善惡의 價值判斷이나 對決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인 理解를 制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티스」(Michael Curtis)가 주목하고 있듯이⁶⁷ 그와 같은 全体主義概念의 이데올로기 介入性은 國際政治的 背景 또는 研究環境上의 問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실 蘇聯政治体系研究에 全体主義理論 모델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二次大戰以後 1950年代까지는 東·西陣營間的 冷戰的 對立으로 特徵化되는 時期였으며 그러한 國際環境속에서는 共産主義와 民主主義는 相容不能이라는 信念과 두 體制間的 必然的인 敵對라는 眺望이 支配하였다. 따라서 蘇聯政治体系에 대한 西方側 學者들의 研究 態度는 이데올로기적인 感情動機나 外交政策上的 論理에 큰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어」는 이와같이 冷戰的인 國際環境을 背景으로 하였던 全体主義 理論 모델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意味內容을 배제하고 새로운 理論을 構成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共通된 概念이나 理論을 통해서 共産主義社會를 보지 못하는 理由의 하나는 진정 冷戰이라는 이데올로기적 風土대문이었다. 우리가 共産主義社會에 대한 研究와 比較 研究方法을 統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 나는 그러한 企圖에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冷戰的 要素를 깨끗이 지워 버려야 할 것을 제의한다」⁶⁸

全体主義理論 모델은 그것이 比較的인 分析概念으로서의 活用性이 적다는 점이 또 하나의 欠點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全体主義理論 모델은 蘇聯政治体系와 다른 政治体系와의 類似性 또는 相異性을 밝혀주는데 적

67. Michael Curtis, "Retreat from Totalitarianism", in Carl J. Friedrich, et al. (eds.), *Totalitarianism in Perspective: Three Views* (New York: Praeger, 1965), p. 58.

68. Mayer, op. cit., p. 54.

절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스킬링」(H.Gordon Skilling)은 全体主義理論모델의 이와같은 欠點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冷戰이 加重됨에 따라 더욱 자주 쓰여지게 된 全体主義概念은 蘇聯의 政治와 西歐의 政治를 黑白關係로 보려는 경향을 야기시켜 왔으며, 소위 全体主義 範疇에 속하는 政治體系間의 相異성과 동시에 모든 政治體系가 갖는 共通의인 側面을 애매하게 해왔다』⁶⁹

「터커」는 또 다음과 같이 全体主義理論 모델이 갖는 比較概念으로서의 결함을 批判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左”와 “右”의 두 가지 全体主義概念은 분명한 區別이 없이 사용돼 왔다. 全体主義理論모델에서는 「스탈린」主義와 파시즘이 아니라 共產主義와 파시즘을 同一視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바로 이 점이 失敗였다. 그 두 現象은 큰 共通點을 갖지만 또 매우 다른 側面이 있는 것이다. 「레닌」主義(혹은 볼셰비즘)가 「스탈린」主義와 다르듯이 共產主義는 파시즘과 다른 것이다.』⁷⁰

요컨대 全体主義理論모델은 共產主義政治體系를

① 같은 全体主義의 範疇로 간주되는 나치나 파시스트 政治體系와 구별해 주지 못하며,

②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共產主義政治體系의 多樣성을 고려할 수 없고,

③ 共產主義政治體系와 西歐政治體系와의 類似性 또는 共產主義政治體系와 民族主義의인 近代化 政治體系間의 類似性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69. H.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XVII, No.3(April 1966), p.436.

70. Robert C.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1(March 1961), p.282.

그러나 이상과 같은 論議에도 불구하고 蘇聯政治体系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全体主義理論모델이 전혀 無價值하다는 것은 아니다. 「잉켈리스」는 다음과 같이 全体主義理論 모델의 價值를 認定하고 있다.

『全体主義理論모델은 여전히 높은 妥当性を 갖고 있다. 즉 그러한 모델을 念頭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蘇聯이 그러한 모델로부터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어떤 모델이 완벽하고도 정확한 指針으로서 不適當하다고 지적했다고 해서 바로 그러한 모델이 妥当性を 完全히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⁷¹

따라서 「잉켈리스」에 의하면 全体主義理論 모델은 無用之物이므로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最近의 蘇聯社会 또는 将来의 蘇聯社会 分析에 適合한 發展모델이나 工業社会 모델로 補完돼야 한다는 것이다.⁷²

「홀랜더」(Paul Hollander)는 「잉켈리스」보다도 더욱 全体主義理論모델의 有用性を 인정하는 입장이다.

『나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더 좋은 모델을 갖게 될 때까지, 또는 共産圈內的 變化가 더욱 촉진되어 全体主義理論모델의 有用성이 심히 감소될 때까지는 全体主義理論 모델을 그대로 利用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⁷³

「홀랜더」는 全体主義理論 모델이 아직도 共産政治体系分析에 有用한 理由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似而非 유토피아적 社会秩序에 대한 明白한 信念과 결부되고 있

71. Inkeles, op. cit., p. 23.

72. Ibid., pp. 16 ~ 22. 로렌탈(Richard Lowenthal)도 그와 같은 「마이어」의 提議에 同感하고 있다.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r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10.

73. Paul Hollander, "Observations on Bureaucracy, Totalitaria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in Cornell. (ed.), op. cit., p. 62.

는 리더십의 높은 이데올로기志向性

② 비례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官僚主義의인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강력한 統制의 存在

③ 工業化를 向한 邁진.

④ 正統的인 多元主義의 不在 또는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다원주의화.

⑤ 모든 社会的, 經濟的, 政治的, 行政的, 또는 文化的 機構나 活動의 相互依存性.

全体主義理論 모델에 대해서 가장 擁護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은 「프리드리히」이다. 「프리드리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마도 全体主義의 理論이나 實際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는 우리가 그것을 現在의 統治過程으로 보는 認識속에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全体主義도 다른 政治体系와 마찬가지로 絶對的인 範疇라는 認識이다. 우리가 어떤 「理想型」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政權들을 比較해보면 역시 全体主義的인 諸傾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有益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⁷⁴

이와같이 「프리드리히」가 全体主義를 하나의 『相對的인 範疇』로 認識할 것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全体主義라는 用語나 그 概念 자체를 動態的으로 理解하자는 것일뿐 결코 蘇聯政治体系의 全体主義的인 特徵이 本質的으로 變質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아 왔듯이 全体主義理論모델을 변호하는 立場들도 역시 종래의 全体主義理論모델이 蘇聯政治体系分析에 絶對적으로 適用하지는 못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全体主義理論모델의 치명적인 欠點은 蘇聯政治体系의 變化問題를 설명하는데 虛弱하다는 것이다.

「존슨」(Chafmers Johnson)은 共產政治体系 研究에 있어서 결국

74. Carl J. Friedrich, "Totalitarianism: Recent Trends",
Problems of Communism, Vol. XVI, No. 3 (May-June 1966), p. 42.

全体主義理論 모델은 다른 어떤 더욱 적절한 모델로 대체해야 한다고
斷言한다.

『全体主義理論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社会科学者는 全体主義가 「어
떻게 發展하고 變化하는가」하는 질문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
이다. 즉 全体主義理論모델은 바로 全体主義는 變化하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나치獨逸이나 스탈린治下의 蘇聯에서는 變化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現代의 共產政治体系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기왕의 全体主義모델
은 분명히 빈약해 보인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모델은 再檢討, 修正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共產
政治体系가 機能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인 것과 副次的인 것을 더
갈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델로 代置되어야 할 것이다.』⁷⁵

2. 『比較共產主義論』의 視角

蘇聯研究에 있어서 全体主義理論모델에 대한 反省의 傾向은 종래까지의
蘇聯學(Sovietology) 또는 中國學(Sinology)과 같은 個別記述的인
地域研究의 水準을 탈피하려는 共產體系比較研究의 進展과 軌를 같이 하고
있다.

共產體系에 관한 最近의 研究傾向은 일반적으로 個別的인 共產體系를
比較의 맥락속에서 理解함으로써 比較政治學 또는 比較社會學의 對象속에
포함시키는 한편 共產體系研究에 現代社會科學의 分析方法이나 技術을 광
범하게 적용함으로써 共產體系研究과 社會科學間의 間격을 해소하려는 새
로운 學問的 努力을 보여주고 있다.⁷⁶

75.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Johnson
(ed.), op. cit., pp. 2 ~ 3.

76. 共產主義政治體系의 比較研究에 關한 본격적인 論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H. Gordon Skilling, "Soviet and Communist Politics :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Politics, Vol. XXII,
No. 2 (May 1960), pp. 300 ~ 313.

이 이것은 오늘날 사회과학이 共產體系라는 새로운 關心分野를 發見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어프로치를 모색하게 되는 學問的 分化의 한 조짐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다.

『터커』는 共產體系에 관한 比較研究를 可能하게 해주고 있는 전제조건으로 ① 共產主義自體의 多様な 分化, ② 地域研究의 成果 ③ 比較政治學의 概念을 適用할 수 있는 새로운 主題의 선정등을 지적하고 있다.⁷⁷ 이와같은 터커의 分析은 물론 오늘날 共產體系比較研究의 背景을 闡明해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동안 共產體系 研究의 系列화를 위한 方法論的 論議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터커』의 지적에 따르면 오늘날 共產體系比較研究의 水準은 단순한 地域研究의 결합이나 地域專門家들의 共同作業과 같은 취합적 비교(aggregate Comparison), 또는 特定 制度, 政策 및 이데올로기적인 原理등을 比較하는 경험적 比較(empirical comparison)의 段階를 넘어서고 있다.⁷⁸ 이것은 다시 말해서 共產體系比較研究가 이미 一般化段階까지 進展

-
- ii) Robert C. Tucker,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World Politics, Vol. XIX, No. 2 (January 1967), pp. 242 ~ 257.
 - iii) Alfred G. Meyer,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Slavic Review, Vol. XXVI, No. 1 (March 1967), pp. 3 ~ 12.
 - iv) John H. Kautsky, "Commu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Vol. XXVI, No. 1 (March 1967), pp. 13 ~ 17.
 - v) Robert Sharlet, "Systematic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st Systems", Slavic Review, Vol. XXVI, No. 1 (March 1967), pp. 18 ~ 28.
 - vi) Paul Soup, "Comparing Communist Nations: Prospects for an Empirical Approa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 No. 1 (March 1968), pp. 185 ~ 203.
 - vii)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rlmers Johnson, (ed.), op. cit., pp. 1 ~ 32.

77. Tucker, op. cit., pp. 244 ~ 245.

78. Ibid., pp. 246 ~ 247.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一般化段階에서의 共產體系 比較研究는 共產主義의 多樣性和 可變성을 인정하는 比較의 眺望을 取하게 된다. 즉 여기서는 共產體系의 特徵을 一般化할 수 있는 主題, 즉 政治的 리더십이나 政策決定過程과 같은 연 구과제를 선정하고, 어떤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거나 그러한 理論的 모델과 關聯시키는 研究를 推進함으로써 政治體系의 理念型을 概念化하는 分類法 (typology)을 發展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共產體系에 대한 比較의 眺望이 단순한 共產體系들간의 多樣性 또는 分派的 共產主義 (sectarian communism) 만을 유의할 것이 아니라 共產體系와 여타 政治體系와의 交叉體系比較 (cross system comparison) 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입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共產體系에 대한 比較研究의 觀點은 比較의 對象에 따라서 ① 共產體系를 低開發國家의 近代化모델과 同一한 범주로 보려는 입장, ② 先進된 共產體系의 工業社會的 特性에 착안하여 西歐의인 體制와의 類似性으로 把握하려는 입장, ③ 共產體系간의 多樣性에 유의하는 입장등으로 大別된다. 이와같은 입장들은 다같이 共產體系를 포함한 現代의 權威的 政治體系를 再定義하고 模型化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컨대 『터커』는 共產政治體系와 파시스트政治體系 그리고 民族主義의 인 單一政治體系까지 포함하는 一黨主導下의 革命的 大衆運動政權을 『運動政權』 (movement regime) 개념으로 把握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포괄되는 政治體系들간의 類似性和 아울러 이데올로기와 階級的 基盤, 그리고 革命的 政治의 動機 (motivation of revolutionary politics) 나 革命的 다이내미즘의 差異와 같은 分化의 제기에 주목하였다.⁷⁹

한편 『에프터』 (David E. Apter)는 共產體系를 포함한 現代의 權威的 政治體系를 「動員體系」 (mobilization system)로 規定하였다. 즉 그는 모든 政治體系를 正統性의 類型, 體制에 대한 忠誠心, 決定의 自律性, 權威의 配分, 이데올로기의인 表現등에 따라 動員體系, 近代化體系, 協

79. Robert C. Tucker, op.cit., pp.281 ~ 93.

商体系(reconciliation system)로 類型化하고 있다.⁸⁰ 『애프터』의 說明에 따르면 오늘날 共產政治体系는 극단적인 動員体系의 典型이며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正統性의 패턴에서 볼 때 階序的 權威(hierachical authority)를 特徵으로 한다.

② 體制에 대한 人民의 全體的인 服從 또는 忠誠을 강조한다.

③ 決定過程의 自律性이라는 面에서는 戰術的인 融通性을 보여준다.

④ 權威의 分配는 統一主義(unitarianism)를 취한다.

⑤ 이데올로기의 表現은 特化(specialization)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터커」의 『運動政權』모형이나 『애프터』의 『動員体系』모형은 共產政治体系에 대해서 기존의 全体主義理論모형보다는 훨씬 進歩한 比較的 眺望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모형은 革命段階의 共產政治体系만을 抽象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共產政治体系의 本質的 變化와 多樣性을 해명해 주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헌팅턴』(Samuel P.Huntington)은 이와같은 運動政權모형이나 動員体系 모형의 欠점이 『確立된 一黨體制』모형로 補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¹ 즉 그는 『革命의 制度化』 또는 體制의 轉換(transformation), 確立(consolidation), 適応(adaptation)과 같은 革命의 進化段階와 관련시켜 革命以後 段階의 一黨體制를 模型化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革命以後의 一黨體制에 관한 모형의 不在는 그와 같은 體制를 以前의 基準에 의해서 판단하려는 傾向을 고무하고 있다. 一黨體制는 革命모형이나 全体主義모형 또는 運動政權모형로부터 離脫하고

80. David E.Apter, Some Conceptu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Modernization(New Jersey : Prentice-Hall, 1968), pp.272~294.

81. Samuel P.Huntington,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s", in Huntington and Clement H.Moore(eds.),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 The Dynamics of Established One-Party Systems(New York : Basic Books, 1970), pp.3 ~ 47.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달이 필연적인 때 그것은 「變質」(transformation) 또는 衰退(degeneration)로 판단되고 있다. ……이제 그것은 다른 기준 또는 모델에 의해서 分析, 評價되어야 한다. 確立된 一党体制모델은 마치 革命的 一党体制가 傳統的 權威体制과 다르듯이 革命的 一党体制와는 다른 것이 되어 할 것이다.』⁸²

한편 오늘날 歐美学界動向은 共產體系研究가 方法論的으로 比較政治學과 接合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現段階에서의 이와같은 共產體系에 대한 比較政治學의 關心 方向은 크게 나누어 近代化의 歷史的 段階에 關한 比較歷史論的 眺望을 취하는 立場과 政治文化論的 分析을 통해서 政治體系의 多樣性을 闡명하려는 立場으로 代表되는 것 같다. 前者의 立場이 共產體系나 非共產體系를 不問하고 經濟的 發展段階와 政治體系의 性格間의 關係를 巨視的으로 類型化하는 것이라면 後者は 政治體系間의 類似性과 相異性을 同一한 次元에서 比較해 볼 수 있는 構造 機能的인 側面에 대한 微視的 分析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比較 歷史論的 眺望

『마이어』(Alfred Meyer)는 共產體系間의 相異性이나 共產·非共產體系間의 類似性을 밝혀내려는 比較研究에 있어서는 「時間의 次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몇년전 「스킬링」(Gordon Skilling)은 比較共產體系論(Comparative Communist System)이라는 새로운 學問分野를 發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이제까지 窮極的으로는 그와같은 學問分野가 出現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해 오고 있다. ……그러면 政治學者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共產體系들을 서로 比較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關連해서 이제까지 소홀히 해온 많은 接近方法들이 利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空間의 次元에다가 時間의 次元을 추가해야 한다. 즉 우리는 예컨대 단순히 蘇聯과 中國만을 比較할 것이 아니라 1966年代의 蘇聯과 1946年

82. Ibid., p.24.

또는 1926 年代의 蘇聯을 比較해야 한다. ……
 둘째로 共產體系와 非共產體系의 比較에 있어서 우리는 종전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같은 技術과 가정, 모델, 기타의 知的考案物들을
 適用해야 한다. 이미 共產主義의 經驗을 近代化모델에 맞추어 설
 명하려는 약간의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다.』⁸³

이와같이 時間的 次元을 고려하는 共產體系比較研究는 蘇聯 또는 共產
 政治體系를 보편적인 近代化過程 또는 近代化以後의 段階의 類型으로 다
 루려고 한다. 共產體系에 대한 比較歷史的 眺望은 1960 年代의 近代化
 論者들에 의해서도 暗示된 바 있다. 예컨대 蘇聯을 外的인 近代化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自体内의 近代化推進리더십 確保가 可能했던 모델로
 類型化한 「블랙」(Cyril Black)이나 共產主義方式의 近代化를 資本主義
 的 方式 또는 파시스트의 方式의 近代化와 區別한 『무어』(Barrington
 Moore, Jr.) 등을 그 代表的인 學者로 들 수 있을 것이다.⁸⁴

共產體系研究와 近代化政治研究의 結合이라는 方法論上的 問題를 제기한
 代表的인 學者로는 또 『터커』와 『카우츠키』(John H. Kautsky) 를
 꼽을 수 있다.

터커는 共產體系研究와 近代化論의 相互關聯性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83. Meyer, op.cit., p.53. (註65 參照)

84. 『살라몬』은 『블랙』, 『무어』, 『헌팅턴』과 같은 代表的인 近代化
 論者들의 다음과 같은 代表的인 著書を 통하여 그들의 近代化過程에
 대한 比較歷史的 關心을 검토하였다.

- i) Cyril Black, Dynamics of Modernization: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y (New York: Harper & Row, 1966).
 - ii)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66).
 - iii)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Lester M. Salomon, "Comparative History and The Theory of Modernization", World Politics, Vol. XXI, No. 1 (October 1970), pp. 83 ~ 103 參照.

『대부분의 共產體系와 몇몇 民族主義-黨體系가 公同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特徵의 하나는 政治的인 權威가 後進社會의 近代化 또는 國內的 發展에 대한 約束과 결부돼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共產體系研究와 「發展途上國家」研究間의 相互關聯性的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까지 經濟的, 政治的 發展 또는 近代化過程에 관한 많은 研究와 理論化가 있었지만 이와같은 새로운 學問的 境地와 共產體系研究間의 理論的 接觸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었다. 近代化에 관한 一般理論은 하나의 近代化 方式으로서의 共產主義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

……따라서 交叉體系比較를 위한 가능한 領域이 비교적 소홀히 돼 있는 것 같다. 共產體系와 近代化研究는 相互 關聯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⁸⁵

이와같은 「터커」의 지적은 共產體系研究가 바로 近代化論이라는 主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論旨는 다만 社會科學의 어떤 目的을 위해서 共產國家가 「開發途上國家」의 範疇속에 포함될 수 있고 또 共產主義式 近代化가 近代化의 比較研究範圍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일 뿐이다.

『카우츠키』도 共產主義의 運動이나 制度,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이 다른 것과는 比較될 수 없는 어떤 獨特한 것이라는 가정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蘇聯研究와 現代政治學의 統合을 主張하면서 모든 政治體系가 通過하는(비록 그것이 똑같은 速度, 똑같은 段階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發展過程을 갖고 있다고 想定하였다.⁸⁶ 따라서 그는 모든 共產主義運動은 近代化運動으로 가장 잘 理解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共產主義 革命運動과 非共產主義的 近代化運動間의 많은 公同된 特徵

85. Tucker,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op.cit., pp.250 ~ 51.

86. John H. Kautsky, op.cit., pp.13 ~ 17. Reprinted in Frederic J. Fleron, (ed.), Communist Studies and Social Sciences (Chicago: Rand-McNally, 1969), 또 共產主義와 政治發展에 관한 그의 論文을 集積한 그의 Communism and Political Development(New York: John Wiley & Sons, 1968) 參照.

(리더십의 구성, 급속한 공업화 정책등등)을 볼 수 있고 또 共產主義에도 發展된 體系와 發展途上の 體系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지어 『發展된 體系』, 『發展途上の 體系』, 『共產體系』와 같은 範疇化에 대해서 不滿을 表示하기도 한다.

여기서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있다.

『따라서 政治體系, 政治運動, 政治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은 共產國家나 非共產國家를 不問하고 그들이 대개 相應한 經濟의 發展段階에 있을 때 有益한 比較가 可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컨대 經濟發展이라는 要因이 一定하다고 보고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機能을 比較해 볼 수 있다.』⁸⁷

이와같은 『카우츠키』의 觀點에 따르면 모든 政治體系는 近代化를 中心으로 近代化 過程과 關聯되는 特徵뿐만 아니라 또 近代化의 結果로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공통된 政治現象을 示顯하게 된다. 『카우츠키』는 蘇聯과 같이 先進된 共產體系를 近代化의 結果로 나타난 工業化된 政治體系와 比較할 수 있다고 하였다.

『共產主義를 近代化政治의 脈絡속에서 다룸으로서 나는 共產主義의 많은 중요한 측면들과 共產主義의 독특한 성격에 관한 特別한 準拠없이도 그러한 體系가 近代化의 政治의 結果로서 만족스럽게 說明될 수 있길 希望한다. 한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共產主義의 獨特性을 박탈할 수 있고 共產主義의인 近代化와 非共產主義의인 近代化의 政治의 結果를 比較할 수 있다.』⁸⁸

특히 近來에 와서 蘇聯研究家들은 工業化를 達成한 蘇聯과 같은 共產體系와 先進 西歐體系間의 機能的 類似性(多元主義化 또는 官僚制化등과 같은)을 工業化된 社會의 共通된 特徵으로 理解하려는 傾向에 있다.

예컨대 『잉켈리스』는 다음과 같이 蘇聯社會를 成熟한 工業社會의 도별로 把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87. Ibid., p.17.

88. John H.Kautsky,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2), p.239.

『나는 工業사회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蘇聯사회를 理解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업사회 모델은 특히 將來에 대해서 妥當한 것이다. 蘇聯사회가 成熟을 계속함에 따라 그것은 더욱더 西歐型 社会体系의 特性을 갖게 될 것이다.』⁸⁹

『우리가 美國과 蘇聯의 經濟体制을 검토할 때 우리는 兩体制間의 어떤 類似性 때문에 根本的인 差異點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한편 두 社会의 階層構造를 評價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겨우로 두 体制間의 어떤 差異點때문에 根本的인 類似性을 혼동해서는 안된다』⁹⁰

「카소프」도 같은 觀察을 보여주고 있다.

『近代의인 体制들간에 工業化에 의해서 야기된 대부분의 중요한 類似性은 이미 蘇聯社会에서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어느 한 觀察者가 다른 衛星에 가서 現代社会의 모든 面을 내려다 본다면 그는 모든 工業化된 社会들간의 差異點보다는 類似性 때문에 더욱 큰 印象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⁹¹

한편 「마이어」는 모든 工業化된 社会가 공통적인 特徵으로 官僚制的 組織을 增大하게 되는 傾向에 착안하여 蘇聯을 『하나의 巨大한 官僚制』로 理解할 것을 제의하였다.⁹² 즉 그는 工業化된 蘇聯이 近代의 官僚制에 관한 『웨버』의 모델과 많은 一致點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점 全社会的인 官僚制化의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工業化된 共產体系에 官僚制모델을 適用할 수 있다는 주장의 기본적인 假定은 工業化가 달성되면 모든 社会는 불가피하게 官僚制化의 要求를 增大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즉 工業化된 社会는 점점 社

89. Alex Inkeles, op.cit., pp.20 ~ 21.

90. Alex Inkeles, Social Change in Soviet Rus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408 ~ 9.

91. Allen Kassof, "The Future of Soviet Society" in Kassof(ed.), Prospects for Soviet Society (New York: Praeger, 1968), p.504.

92. Alfred G. Meyer,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n Interpret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5).

会的인 調整과 階序를 必要로 하게 되며, 情報管理의 必要性, 科學的 管理과 合理性의 要求, 複合의 組織의 增大를 要求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工業化된 共產體系가 보여주는 官僚制의 特徵은 다른 여타의 官僚制와 區別되는 重要한 差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마이어』는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共產主義의 支配는 近代官僚制와 같이 기본적으로 複合的인 組織을 통해서 社會生活을 合理的으로 管理하려는 하나의 企圖이다. 이와같은 노력은 構造的인 諸形態, 政治的인 諸過程, 心理的인 諸適應 또는 그에 따른 不作用들을 야기시키며 이것들은 마치 非共產圈의 官僚的 組織과 매우 類似한 것처럼 보인다. 아직도 重要한 差異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른 官僚制는 보다 광범한 社會的 諸構造內에서 運營되는 것임에 反해 共產體系는 「主權的 官僚制」(sovereign bureaucracy)이며, 따라서 하나의 共產主義國家는 全社會에 걸친 단 하나의 官僚的 體系 또는 巨大한 官僚制가 있다는 점이다.』⁹³

共產體系의 近代化過程 또는 近代化의 政治的 結果에 대한 比較歷史論的 眺望은 窮極의으로 近代化以後의 變化方向을 포함해서 收斂論的 諸假定과 같은 가설적인 未來透視(projection)나 巨視的 理論化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比較歷史論的 眺望이 갖는 가장 基本的인 盲點은 그것이 비슷한 經濟的 發展段階에 있는 社會는 비슷한 政治體系를 갖는다는 단순한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에 置重하고 있을뿐 아니라 默示的으로 西歐的인 發展모형을 準拠로 하기 때문에 選擇的인 現實認識(selective perception of reality)에 기초하는 觀念的 構成으로 흐리기 쉽다는 점이다.

政治文化論的 眺望

共產體系研究에 있어서 政治文化論的 眺望이 중요시되는 背景은 무엇보다도 共產體系 자체가 革命的인 動態性을 갖고 있으며 또 그와같은 體系의 變化가 公式的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說明되고 있다는 本來的인 性

93. Alfred G.Meyer, op.cit., p.48. (註65 參照)

格에서 연유되는 것 같다.

革命的인 變化的 過程을 겪는 政治体系의 研究에서는 우선 政治權力의 組織形態를 보여주는 리더십의 性格이나 政治權力과 社會의 關係를 規定해 주는 이데올로기의 機能, 그리고 政策決定의 形態를 特徵지워주는 政治過程이 서로 分離될 수 없는 關係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 이와같이 革命的 리더십의 性格이나 이데올로기의 進化機能, 또는 政治過程에 초점을 맞추어 共產 政治体系의 變化에 接近하려는 立場은 어차피 政治 文化論的 分析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⁹⁴

한편 共產体系研究에 있어서 政治文化論的 眺望이 중요시된 또 하나의 背景은 共產体系間의 多樣성에 대한 認識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政治文化論的 分析은 政治体系의 公式的이고 構造的인 側面과 아울러 非公式的인 側面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政權의 課題(task)와 이데올로기의 標榜(ideological tenets) 또는 課題를 再定義해가는 政權의 対応과 같은 政治文化를 決定해 주는 諸變數의 多樣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長點을 갖는 것이다. 이와같은 政治文化論的 分析의 長點에 대해서 『조위트』(Kenneth Jowit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政治文化는 政治的 構造와 關聯시켜서 研究해야 한다. 構造와 文化는 반드시 一致할 必要는 없는 것이지만 相互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요컨대 政治文化는 公式的, 構造的 要因과 非公式的, 文化的 要因간의 相互作用이라는 面에서 共產政權들간의 比較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政治文化論的 接近은 한편으로 例外主義 또는 獨特性이라는 結論을 회피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構造的 要因만이 共產政權의 政治的 性格

94. 國際政治研究에 있어 政治文化論的 分析을 試圖한 代表的 例로는 Frederick C. Barghoorn, Politics in the USSR (Boston: Little Brown, 1966),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USSR (New York: Viking Press, 1963)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決定해 준다는 주장을 피할 수 있다』⁹⁵

이와같은 政治文化論의 分析은 最近 蘇聯의 政治過程에 대한 經驗的 接近을 통하여 中範圍水準의 研究 (middle-range studies) 에 팔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의 蘇聯研究에서는 政策決定過程에 대한 政治 엘리트의 參與態度 分析이나 黨엘리트構成樣式의 變化에 따른 政治的 리더십의 適應메카니즘에 관한 計量的 研究가 進展을 보고 있으며 심지어 蘇聯政治에 대한 集團어프로치의 可能性을 論議하고 있는 形편이다.

예컨대 『룻지』(Milton Lodge)는 蘇聯의 黨機關誌를 비롯한 經濟, 軍事, 法律, 文學에 關한 專門誌의 內容分析을 통해서 「스탈린」이후 專門家엘리트들(中央의 經濟官僚, 軍隊, 知識인테리, 法律專門家等)의 政策決定에 대한 參與態도와 專門家엘리트 對 黨엘리트關係의 變化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엘리트 多元主義』(pluralism of elites)의 뚜렷한 징후와 黨의 이데올로기의 基盤이 퇴색하고 있는 傾向을 확인하였다.⁹⁶

『겔렌』(Michael P.Gehlen)과 『맥브리드』(Michael McBride)는 23次 蘇聯黨大會(1966年)의 中央委員會委員들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경력, 출신, 黨地位등과 같은 個人的-背景을 分析함으로써 黨엘리트의 선발에 있어서 專門的 經歷을 가진 人物과 중요한 機能集團의 代表들이 互選(co-optation)되고 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었다.⁹⁷ 이들을

95. Kenneth Jowitt,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in Marxist-Leninist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VIII, No. 3 (September 1974), p. 1173.

96. Milton Lodge, "Soviet Elite Participatory Attitudes in the Post-Stalin Peri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II, No. 3 (September 1968), pp. 827 ~ 39.

97. Michael P. Gehlen and Michael McBride, "The Soviet Central Committee: An Eli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II, No. 4 (December 1968), pp. 1232 ~ 1241.

이와같은 새로운 엘리트의 互選을 政治的 엘리트가 기존의 權威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고 情報과 安全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防禦매카니즘으로 說明하였다⁹⁸ 즉 互選은 集團代表(group representation)를 허용함으로써 政策決定者와 社会内 機能集團間에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한편 새로운 專門, 技術엘리트들을 黨支配下에 統合함으로써 『代表』와 『統制』라는 두가지 機能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론』(Frederic J.Fleron)도 蘇聯의 政治 리더십에 있어서 互選은 하나의 適應매카니즘(mechanism of adaptation)이라고 보았다.⁹⁹ 그는 蘇聯政治 리더십의 經歷類型을 『充員된』(recruited) 職業的 政治엘리트와 互選된(co-opted) 特殊專門家엘리트로 區別하고 기존의 政治엘리트가 社会統制를 위한 專門技術을 흡수하기 위해 社会内的 다양한 特殊專門家 리트를 互選하게 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서 政治엘리트는 그의 支配를 正当化하기 위한 일종의 組織的 対応(organizational response)으로 互選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프레론』은 政治的 엘리트가 社会内的 다른 特殊專門家엘리트로 부터 社会를 統制, 管理하는 技術을 獲得하는 방식에 따라 政治体系를 独裁体系(monocratic system), 適應的 独裁体系(adaptive monocratic system), 互選体系(cooptative system), 多元主義体系(pluralist system)로 類型化하고 있다.¹⁰⁰ 『프레론』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8. Ibid., p.1241.

99. Frederic J.Fleron, "Cooptation as a Mechanism of Adaptation to Change :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System", Polity Vol.11, No.2(Winter 1969), pp.176 ~ 201.

Reprinted in Kanet, (ed.), The Behavioral Revolution and Communist Studies(New York : Free Press, 1970).

100. Frederic J.Fleron,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 The Political Leadership System", in Fleron, (ed.),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Chicago : Rand McNally, 1969), pp.222 ~ 43.

金学俊, 蘇聯 東歐에 있어서 政治的 리더십의 官僚制化에 관한 研究, 韓國政治学会報, 8輯(1974), pp.155 ~ 73.

① 独裁体系에서는 政治엘리트가 스스로 必要的인 모든 技術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強制에 의해서 다른 特殊專門家엘리트로부터 技術을 獲得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社会的인 集團의 自律性이나 政策決定에 대한 積極적 參與가 배제되고 있다.

② 適宜의 独裁体系는 政治的인 엘리트가 必要的인 技術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 特殊專門家엘리트로부터 마음대로 技術을 獲得할 수도 없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政治的인 엘리트가 必要的인 技術을 獲得하기 위해서 既存 幹部를 再訓練하거나 새로운 젊은 엘리트를 充員하게 된다.

③ 互選体系는 政治的인 엘리트가 必要的인 技術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社会內의 多様な 特殊專門家엘리트를 政治엘리트로 互選함으로써 技術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社会內의 特殊專門家 엘리트들에게 政策決定에 대한 直接 接近이 허용되기도 한다.

④ 多元主義体系는 社会內의 다양한 特殊專門家엘리트들이 政策決定 過程에 대한 參與와 影響을 위해서 競爭하는 경우이다.

以上과 같은 엘리트分析 以外에도 蘇聯 政治体系內의 集團葛藤 또는 利益表明이라는 要因을 重要視하는 集團어프로치의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스킬링』은 黨만을 唯一한 集團利益으로 생각하는 全体主義理論 모델이나 종래까지의 共產政治体系 分析이 주로 產出(output) 面에만 偏重돼 왔던 과오를 지적하고 政策論議나 施行段階에서 利益表明이나 利益聚合의 傾向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⁰¹

蘇聯政治体系에 대한 이와같은 集團어프로치의 可能性에 대해서는 이미 『브레진스키』와 『헌팅턴』에 의해서도 暗示되고 있었다. 즉 그들은 蘇聯体制內에 ① 社会的인 勢力을 形成하고 있는 勞働者, 農民들의 期待(appeal), ② 知識人, 科學者, 少數民族과 같은 特殊利益集團 ③ 軍部, 工業 管理者, 農業管理者, 國家官僚와 같은 政策集團(policy group) 등을 포함한 廣意의 利益集團이 存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것을

101.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op.cit., pp.435 ~ 451.

蘇聯政治体系的 動態的 要因으로 理解하였던 것이다.102

最近에는 이와같은 集團어프로치를 적극적으로 蘇聯研究에 적용하는 한편 그 妥当性 問題에 관한 方法論的 論議가 活潑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論議의 焦點은 우선 多元主義的인 西歐政治体系의 分析을 통해서 開發된 利益集團이나 集團葛藤의 概念을 共產体系分析에 어떻게 適用할 것인가, 그리고 共產体系內의 集團影響이나 集團行動을 어떻게 確認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集中되고 있다.

『스킬링』은 共產体系에서는 權威가 嚴格히 中央集權化돼 있고 民主的인 討論過程이나 自由選舉가 존재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의 手段이 統制되고 있기 때문에 集團行動은 特殊한 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蘇聯의 下位体系는 相互認知(mutual awareness)나 接觸(interaction)의 程度가 낮으며 利益을 表現하는 적절한 手段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一種의 輿論(opinion)을 형성하는 『潛在的 集團』(potential group) 또는 『非結社的 集團』(non associational group)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103

『그리피스』는 蘇聯의 政策決定過程에 대한 이와같은 特殊한 形態의 集團影響을 『体系優位的인 利益表明의 性向葛藤』(system-dominant conflict of tendencies of articulation)으로 理解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104

여기서 말하는 『体系優位』라는 概念은 下位体系가 全体로서의 体系에 順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下位体系의 自律性은 매우 制限的인 것임을 意味하고 있다. 또 『利益表明』이란 政策的인 期待가 政治 參與者에게 伝達되는 커뮤니케이션行爲로 定議된다. 따라서 『그리피스』

102. Brzezinski and Huntington, op.cit., pp.196 ~ 197.

103. Skilling, op.cit., p.450.

104. Franklyn Griffiths, "Tendency Analysis of Soviet Policy-Making", in Skilling and Griffiths, (ed.), Interst Groups in Soviet Politic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336.

는 蘇聯의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政治的 엘리트와 非엘리트(大衆) 中間階層의 『中間的:參與』(intermediate participation)層¹⁰⁵ 役割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蘇聯政治体系에 대한 이와같은 集團어프로치의 可能性에 懷疑를 갖는 사람도 없지 않다. 예컨대 『야노스』(Andrew C.Janos)는 蘇聯에서는 西歐와는 달리 政治的 多元主義의 本質的인 條件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즉 蘇聯의 政治文化자체가 多元主義에 對立되는 것이기 때문에 集團概念은 蘇聯政治分析에 適切치 못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¹⁰⁶ 『웨슨』(Robert C.Wesson)도 蘇聯政治에 있어서 集團의 役割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黨의 役割을 最少化하게 됨으로서 結果적으로 蘇聯政治体系의 客觀的인 現實을 왜곡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그는 蘇聯의 政策決定에 있어서 利益集團이 과연 얼마나 核心的인 役割을 行使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며 따라서 現단계에서 蘇聯政治体系에 대한 集團어프로치의 的의는 說明的인 意味보다는 記述的인 意味밖에 없다고 評價한다.¹⁰⁷

그러나 蘇聯体制의 進化方向과 關聯시켜 생각할 때 集團어프로치는 蘇聯研究에 많은 可能性을 기약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슈바르츠』(Joel J.Schwartz)와 『키치』(William R.Keech)는 『스탈린』以後 蘇聯政策決定過程에 대한 集團影響이 增大되고 있는 背景을 分析하

105. Ibid., p.358. 『그리피스』는 이와같은 概念이 일반적인 中産層이나 中間階層의 意味와는 無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06. Andrew C.Janos, "Group Politics in Communist Society : A Second Look at the Pluralistic Model" in Samuel P. Huntington and Clement H.Moore, (eds.),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 The Dynamics of One-Party Systems*(New York : Basic Books, 1970), pp.437 ~ 450.

107. Robert C.Wesson, *Soviet Russian State*(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2), p.5.

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¹⁰⁸

① 리더십體系가 더욱 集團的 (collective) 일 수록 社会內 諸集團이 政策形成에 介入할 수 있는 전망은 크다.

② 政治的 태러가 緩和되고 政權의 正統性을 合意 (concensus) 에 根柢하게 될 때 集團의 影響力은 증대된다.

③ 社会가 더욱 近代化할 수록 社会는 더욱 技術的인 熟練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集團이 政策決定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전망은 더욱 改善된다.

『스킬링』은 集團役割에 착안하여 共產體系間의 多樣性을 究明하는 比較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共產體系의 政治過程에 대한 集團役割 또는 利益葛藤의 정도에 따라 擬似全体主義 (quasi-totalitarianism) 協議的 權威主義 (consultative-authoritarianism), 擬似多元的 權威主義 (quasi-pluralistic authoritarianism) 民主化하고 있는 多元的 權威主義 (democratizing and pluralistic authoritarianism), 無政府的 權威主義 (anarchic authoritarianism) 등으로 類型化하였다.¹⁰⁹ 『스킬링』의 說明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擬似全体主義下에서는 자유로운 集團活動이 否認되고 실사 集團이 存在하더라도 그것은 리더십의 道具化한 形式的 集團이며 自主성이 制約된다. 예컨대 『스탈린』治下의 蘇聯, 1945 ~ 48年の 유고, 1948年以後의 헝가리, 폴란드, 1960年代初의 체코, 알바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② 協議的 權威主義下에서는 自發的인 集團活動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利益의 聚合이 어느정도 허용되지만 党的 機能이 相對的으로 優位를 유지한다. 예컨대 『후르시초프』以後의 蘇聯, 1960年代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東獨, 1968年以後의 폴란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108. Joel J. Schwartz and William R. Keech, "Group Influence and the Policy Process in the Soviet Un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I, No. 3 (September 1968), pp. 848

109. H. Gordon Skilling, "Group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in Charlmers Johnson, (ed.), op. cit., pp. 222 ~ 229.

③ 擬似多元的 權威主義下에서는 集團 葛藤이나 政策決定過程에 대한 集團影響이 增大된다. 여기서도 党優位는 유지되며 특히 官僚集團이 유력한 세력으로 부각된다. 『후르시초프』治下の 蘇聯, 1953 ~ 56년의 헝가리, 폴란드, 1960년의 체코가 여기에 해당된다.

④ 民主化하고 있는 多元的 權威主義下에서는 기본적으로 權威主義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政治過程이 상당한 정도로 民主化하고 리더십의 制度化가 이룩되고 있다. 1966年以後의 유고, 1968年의 체코가 여기에 해당된다.

⑤ 無政府的 權威主義下에서는 党的 主導的 立場이 붕괴되고 國家行政體系가 惡化되어 集團(특히 軍部, 學生, 青年層)葛藤이 고조되어 一時的인 社會混亂을 초래한다. 文化革命 期間의 中共이 여기에 해당된다.

共產政治體系에 대한 이와같은 政治文化論의 眺望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예상케 한다. 우선 蘇聯에 대한 政治文化論의 分析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蘇聯政治體系에 대한 經驗的 接近을 어떻게 強化해 가느냐 하는 점이다. 오늘날 資料接近의 곤란성이라는 共產體系研究가 當面한 一般의 問題點에 비추어 볼 때 經驗的 分析의 制約은 쉽게 예견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제까지 政治文化論의 眺望을 취하는 연구는 주로 下位體系에 대한 微視的이고 靜態的인 분석에 몰두해 왔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와같은 研究成果를 어떻게 蘇聯政治體系의 動態的 變化에 관한 體系的 理論化로 연결시키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셋째로 共產政治體系에 대한 政治文化論의 眺望이 극복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西歐와는 매우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갖기 쉬운 人種的 偏見이다. 이것은 바로 研究者의 立場과 社會科學의 客觀性이라는 문제인 것이다.

四. 結論的 考察

歐美政治學界動向은 60年代以後 近代化問題를 研究焦點으로 하여 可謂 『比較政治學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60年代를 통하여 활발히 제기된 近代化論議는 일반적으로 近代的인 것과 西歐的인 것을 同一視함으로써 發展途上國家들의 將來를 先進된 西歐國家들의 經驗패턴으로 透視해 보려는 默示的 假定에 기초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近代化論議는 非西歐的 近代化를 포함하는 政治的 變化에 대한 보다 一般的인 理論을 構成하려는 努力과 더불어 새로운 『修正』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다.

『런팅톤』은 歐美政治學者들의 關心이 이와같이 1950年代의 『주어진 條件에 關한 研究』(the study of given conditions)로 부터 『政治的 變化의 檢討』, 더 나아가 『政治的 變化에 대한 一般理論』으로 移行하고 있는 사실을 『變化에 對한 變化』(change to change)라고 表現하였다.¹¹⁰

『타우브만』(William Taubman)은 이와같은 『런팅톤』의 『變化에 對한 變化』의 觀察을 蘇聯研究에 適用시킴으로써 蘇聯政治體系의 變化를 理論的으로 解明하려는 새로운 比較政治學의 傾向을 추적하였다.

『새로운 社會科學의 概念은 共產主義에 關한 새로운 感覺을 가져다 주었을까? 아니면 그와같은 概念을 共產體系에 適用하려는 努力들이 그 理論自体에 대한 疑問을 더욱 깊게 하는 경향을 가져왔던 것인가? 近來에 와서 發展을 보고 있는 「蘇聯研究」에서는 「變化에 對한 變化」가 증척되고 있다. 심지어 近代化理論 또는 近代化以後에 關한 理論이 蘇聯에 適用되고 있을 경우에도 일종의 修正主義를 볼 수 있었다. 즉 蘇聯은 非西歐的인 發展을 보여줄지 모르며 그밖에도 불구하고 近代 또는 近代以後로 가는 獨白的

110. Samuel P. Huntington, "The Change to Change: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Vol. III, No. 3 (April 1971), pp. 283 ~ 322.

길을 가질 것이라는 「矯正的 反動」(corrective reaction)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理論的 複雜性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몇몇 學者들이 暗示하고 있듯이 만약 蘇聯이 獨自의인 길을 찾는 反面 美國이 그의 길을 잃게 된다면 近代性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에 어떤 客觀的이고도 科學的인 基準이 있을 수 있을까? 社會科學者들은 그의 研究에 價値를 수반한다고 볼 때 그가 어떻게 「近代性的 諸要件」(the requirements of modernity)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같이 近代性的 要件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할때 양심적인 蘇聯專門家라면 어떻게 最近의 口味에 맞추는 研究業績들과 같이 共產體系的 過去, 現在, 未來에 대한 응대하고 當당한 評價를 계속 生産해 낼 수 있을 것인가?」¹¹¹

이와같은 『타우브만』의 問題意識은 오늘날 蘇聯政治體系가 經驗하고 있는 變化의 本質과 그것을 解明하려는 社會科學的 努力의 限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탈린」死亡以後 蘇聯政治體系的 變化에 대해서 매우 광범한 理論的 洞察을 보여준 것은 收斂理論이다. 收斂論의 論旨을 간단히 要約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現代의 代表的인 두 體制, 즉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는 工業化 또는 工業化以後에 있어서 비슷한 社會, 經濟的인 課題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未來의 發展方向은 持續的인 接近過程을 통하여 必然的으로 비슷한 軌道를 밟게 된다.

② 따라서 두 體制의 모델이 되고 있는 美國과 蘇聯의 窮極的인 變化結果에 대해서 어떤 統一的인 類型을 假想할 수 있다.

③ 蘇聯의 경우는 工業化에 따라 점점 複合的인 社會를 發展시키게 되고 이와같은 社會的 多元主義는 스탈린主義와 같은 全體主義的 支配의

111. William Taubman, "The Change to Change in Communist System: Modernization, Postmodernization, and Soviet Politics", Henry W. Merton and Rudolf L. Töskés, (eds.), Soviet Politics and Society in the 1970's (New York: Free Press, 1974), p. 371.

本質的 變化를 불가피하게 하며 窮極의으로 政治的 多元主義를 초래한다.

이와같은 收斂論者들속에는 蘇聯革命의 阻導된 結果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轉向한 마르크시스트들(disillusioned marxists)과 社會主義의 命令經濟의 逆機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合理的 計劃의 不可避性을 내다보는 一團의 經濟學者들이 주축을 이루었다.¹¹² 따라서 收斂論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假定은 蘇聯體制의 不合理性에 대한 道德的 評價나 그와같은 蘇聯體制의 民主化, 自由化에 대한 希望的 思考(wishful thinking), 또는 冷戰에 대한 혐오감이 介在하거나 經濟的 決定論의 立場에 立脚하는 것이었다.

蘇聯政治體系의 變化에 대한 이와같은 收斂論的 假定에 대해서 최초로 異議를 제기한 代表的 學者로는 『브레진스키』와 『런팅頓』을 들 수 있다. 이들은 收斂論을 한마디로 『反蘇的인 마르크스主義』(anti-Soviet Marxism)라고 規定한다.¹¹³ 이들은 또 收斂論이 美國이나 蘇聯이 겪고 있는 全體的인 歷史的 經驗을 最少化 내지는 無視하고 部分的인 要因만을 너무 誇張하는 單純化에 흐르고 있다고 批判하고 결국 美國과 蘇聯 두 體制의 進化方向은 收斂이 아닐 것이라고 結論지었던 것이다.¹¹⁴

이와같이 蘇聯政治體系의 근본적인 變質을 가상한 收斂論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최근의 노력은 대체로 두가지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 같다. 즉 하나는 蘇聯政治體系가 당면한 社會·經濟的인 條件을 해결하

112.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pp.313 ~ 341. 「마이어」는 收斂論의 系譜를 分析하면서 共產體制나 西歐體制가 官僚制化를 통하여 점점 構造的, 文化的 差異를 해소해 가리라는 展望을 新收斂論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收斂論의 범주속에 追加하고 있다.

113.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USSR(New York : Viking Press, 1963), p.10.

114. Ibid., p.419 ~ 436.

기 위해서는 政治的 改革과 같은 根本的인 變化가 不可避하지만 그것은 莫大한 代價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蘇聯은 妥協이나 아니면 衰退나 (transformation or degeneration) 하는 兩斷의 危機에 직면한다는 주장이며, 또 하나는 蘇聯에 있어서는 어떤 効率的인 統治過程을 갖고 있기 때문에 根本的인 變化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政治体系자체의 調和와 適應이 可能하다고 보는 主張이다.

前者의 立場을 代表하는 것으로는 蘇聯의 技術的 適應(technological adaptation)이라는 問題와 政治的 變化를 關聯시키는 『브레진스키』¹¹⁵ 나 『버크스』(R.V.Burks)¹¹⁶, 그리고 動員化以後 段階의 經濟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政治的 리더십의 危機를 연결시키는 『존슨』이나 『로엔탈』의 分析을¹¹⁷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危機論』의 立場은 政治的 多元主義化의 可能性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볼때¹¹⁸ 또다시 收斂論의 가정으로 逆行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後者 즉 『適應論』의 立場을 代表하는 것으로는 革命的 一黨體制의 制度化가 성공하고 있는 適應段階(adaptation phase)에 주목한 『헌팅

115. Zbigniew Brzezinski, "Soviet Political System : Transformation or Degeneration",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66), pp.1 ~ 15.

116. R.V.Burks, "Technology and Political Change in Eastern Europe", in Johnson(ed.), op.cit., pp.265 ~ 312.

117. i)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Johnson(ed.), op.cit., pp.1 ~ 32.

ii)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Johnson(ed.), op.cit., pp.33 ~ 116.

118. 예컨대 『브레진스키』는 『電子技術時代의 共產主義』를 展望하면서 蘇聯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代案中 가장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技術的인 適應』(technological adaptation)과 『多元主義的 進化』(pluralist evolution)의 中間形態를 들었다. Brzezinski, Between Two Ages : America's Role in the Technetronic Era(New York : Viking Press, 1970), pp.164 ~ 176.

론』¹¹⁹ 을 비롯해서 리더십의 適応 또는 調和機能을 강조한 『프레론』¹²⁰ 蘇聯의 政治過程이 보여주는 多元主義의 특수한 制約을 고려하고 있는 『스킬링』¹²¹, 蘇聯體制가 寡頭制의 化石化(oligarchic petrification)를 회피하는 參與의 官僚制(participatory bureaucracy)를 확립함으로써 점진적으로 『制度的 多元主義』(institutional pluralism)를 발전시켜 가리라고 보는 『후』(Jerry Hough)¹²²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다같이 蘇聯體制的 政治的 多元主義化에 대한 限界를 明示해 주고 있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蘇聯인들이 展開하고 있는 防禦論理를 볼 필요가 있다. 蘇聯인들이 西方側 學者들의 蘇聯研究에 대해서 批判하고 있는 한 例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50여년동안에 反蘇主義는 전반적으로 특수한 內容, 形態, 方法들에 있어서 상당한 變化를 가져왔다. 이데올로기部門에 있어서 反蘇主義는 이제 브르조아科學의 一分野로서 수천명의 「專門家」들과 수백개의 「研究所」를 갖는 「蘇聯學」이라는 것으로 代表되고 있다.

그러나 專門家들이 蘇聯의 現實을 分析하려는 莫大한 努力과 經費에도 불구하고 「蘇聯學」은 基本的인 弱點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前進하고 있는 社會主義體制를 謀陷하려는 不可能한 과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하나의 두드러진 現象은 「收斂」理論이 브르조

-
119. Samuel P. Huntington,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s", in Huntington and Moore(ed.), (註 81 參照)
120. Frederic J. Merton, "Co-optation as a Mechanism of Adaptation to Chang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System" (註 99 參照)
121.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註 69 參照)
122. Jerry Hough, "The Soviet System: Petrification or Pluralism?",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2), pp. 35 ~ 45.

아의인 著作에서 광범하게 展開되 왔고 또 많은 경우 그것이 公式
的인 贊辭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R.Dahrendorf의 「資本主義以後社會」, K.Lichtheim의
「브르조아以後社會」, J.Galbraith의 「새로운 産業社會」, K.
Boulding의 「文明以後社會」, Z.Brzezinski의 「電子技術社會」등
과 같은 主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왔다.

브르조아 理論家와 더불어 「뉴 레프트」들도 (예컨대 H.Marcuse,
A.Touren) 역시 統一的인 「工業社會」 또는 「工業社會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R.Garudy나 O.Sik와 같은 右派
修正主義者들도 가담하고 있다.

最近에는 마르크스主義者들 뿐만 아니라 많은 브르조아 이데올로기
스트들에 의해서까지도 「收斂」理論이 批判을 받고 있다. 브르조아
이데올로기스트들은 그것이 社會發展의 實際과 合致하지 않으며 妥當
性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收斂」論의 論旨
는 브르조아 理論家들에 의해서 널리 利用되고 있는 形편이다.

브르조아科學은 「收斂」理論을 통해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 관한
「마르크스」主義敎說에 代值할 하나의 代案을 公式化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独占브르조아들에게는 「收斂」理論이 社會主義에 對抗하는 하
나의 鬭爭手段이며, 共產主義가 人類發展의 不可避하고 自然스러운 段
階가 아니라는 것을 證明해 보려는 最近의 試圖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鬭爭은 社會主義에 대한 全面的이고 完全한 否定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세련된 方法, 즉.....社會發展을 支配하
는 法則에 대한 『마르크스』主義의 특별한 假定을 「援用」하려는
시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후 최근만해도 브르조아지는 社會主義라는 말을 듣기조차 싫어했
고 심지어 社會主義는 브르조아「自由世界」와는 竝存할 수 없는
「獨裁」라고 막지를 붙였었다. 이제 많은 브르조아이데올로기스트들
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收斂」에 관해 얘기하면서 資本主義를
위해서 社會主義의 어떤 「部分」을 援用할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

했다.

「收斂」理論은 社會主義의 맹공격때문에 브르조아이테올로기가
後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해주고 있다. 오늘날에는
「收斂」理論家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브르조아學者들도 全世界의
思想的 發展에 대해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미치고 있는
큰 影響力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브르조아科學의 또다른 한 分野인 「마르크스」學 (Mar-
xology) 이 科學的 社會主義理論을 「批判」하는데 전념해온 데
反해 「蘇聯學」은 社會主義的 實踐을 비방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
다.

우리는 많은 브르조아 또는 뿌머브르조아代表들의 演說이나 글속
에서 종종 여러가지 「마르크스」主義的 假定을 따라 表現된 進술
을 接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 敵들은 그와같은 進술을 「마
르크스」主義에 對抗하는 全面的 鬪爭에 있어서 戰術的인 계교로
 끊임없이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와 같은 進술은 이전
에 브르조아學者들이 가지고 있던 이테올로기의 概念이 崩壞하고
있다는 사실과 브르조아의 思考의 危機가 더욱 深化되고 있다는
사실을 證明해 주는 것이다.』 123

以上の 比較적 引用에서 보듯이 蘇聯人들의 主張은 물론 철저한
이테올로기의 敵對感위에 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蘇聯研究가 갖
는 方法論的 취약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一面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레론』은 蘇聯研究와 社會科學的 方法에 관한 몇가지 問題點을 제
기하면서 蘇聯에 대한 보다 體系的인 縱橫的 理解를 위해서는 人間行態

123. A Granov, "The Struggle of Ideologies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s",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January
1975), pp. 76 ~ 77.

의 普遍的 法則과 같은 것에 대해서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24 이와같은 「프레론」의 主張은 경험적인 蘇聯研究가 등한시하기 쉬운 第一原理에 대한 注意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워드』(Robert E. Ward)의 表現대로 말하면 오늘날 比較政治學의 課題는 地域研究와 行態主義를 통합하는 命題, 즉 社會科學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of social science)를 지향하는 것이다. 125 그러나 社會科學에 대한 根本的인 挑戰은 이데올로기이다. 아무리 社會科學이 科學을 志向한다 하더라도 窮極의으로 事實과 規範을 따로 다룰 수 있는 領域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여하튼 우리는 蘇聯을 社會科學의 對象속에 다들으로써 蘇聯의 政治體系가 종던' 싫던 간에 그것이 西歐의인 政治方式과는 매우 다른 고유한 價值를 갖는 實際로서 보다 잘 理解될 수 있을 것이라는 希望을 버릴 수 없다.

-
124. Frederic J. Fleron, "Soviet Area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in Communist Studies", Soviet Studies, Vol. XIX No. 3. (January 1968), p. 315.
125. Robert E. Ward, "Culture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s, or the Conspitated Dialectic" (APSA Presidential Address, 1973),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VIII, No. 1. (March 1974), pp. 190 ~ 201.

蘇聯政治研究의 方法論的 省索

- 代表的 蘇聯政治論著들 中心으로 -

I. 序論 : 分析의 目的

우리는 最近 西方學者들의 소련政治論著를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하여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現 브레즈네프時代에 관한 독창적인 研究나 최근의 情報를 기대해도 좋겠는가? 우리는 一般의인 研究가 그 主題에 관해 참신한 理論的 또는 概念的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슈」와 問題들을 제기하여 새로운 說明이나 解釋, 또는 洞察力을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研究는 蘇聯의 政治行態에 관해서 광범하게 수락되고 있는 一般化나 諸假定을 세련시킨다든지 論駁하고 있는가? 그것은 또 讀者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자극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蘇聯政治行態에 대한 우리의 理解를 배가시키는데 유용한 새로운 方法論과 分析技法을 시도하고 있는가? 끝으로 그것은 行態와 制度에 관한 정교한 記述, 綜合, 調査, 說明, 比較를 위해, 또한 중요한 主題나 問題 또는 「이슈」나 「토픽」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그리고 說明의 명료성과 포괄성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筆者 자신의 극히 主觀的인 見解로는 이 모든 것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모든 일반적인 연구가 그러한 일들을 모두 시도해야 한다거나 各分野에서 성공적으로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合理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이것은 美國의 共產主義研究學術季刊紙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VIII, No 3, Autumn 1975)의 特輯 "The Science of Communist politics : political Science Textbooks on the Soviet Union, China, and Eastern Europe"中 호프만(Erik p. Hoffmann)의 "The Soviet Union : Consensus or Debate?" (pp.230 ~ 44)와 同호프만의 論文에 대한 달린(Alexander Dallin)의 論評(pp 245 ~ 7)을 編訳하고 本書의 위치에 맞추어 약간 修正

우리는 冊의 부피나 出版費用에 대한 고려때문에도 주제의 범위와 내용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또 오늘날에는 蘇聯政治에 관한 教材가 너무 많기때문에 새로운 解釈을 제시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機能中 몇가지만을 갖추고 있는 著書라면 그런대로 상당히 값진 기여를 하고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저서는 사회과학자들이 蘇聯體制를 보는 方法과 蘇聯體制에 관한 우리의 知識의 깊이에 기여하거나 현재의 情報나 解釋 또는 見解차를 특히 大學, 企業, 行政府 심지어 一般의 讀者들에게 진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筆者는 개인적으로 蘇聯政治에 관한 중요한 主題, 發想 또는 主張을 개진하고 옹호하는 研究 또 그렇게 함으로서 批判의이고, 독창적인 思考를 充實化하고, 蘇聯政治의 重要한 諸側面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研究에 대해 특히 커다란 價値를 부여한다. 또한 筆者는 公共政策이 樹立, 補完되는 過程에 특히 커다란 관심을 가진다. 이 過程의 理解를 위해서는 蘇聯의 主要제도와 人事의 記述, 「이슈」別 政策의 內容分析, 그리고 蘇聯社會內의 다양한 機構, 集團, 個人에게 미치는 政策의 影響에 대한 評價가 重要하다고 믿는다.

☆ 加筆한 것이다. 호프만은 Indiana 大學에서 博士學位를 받았으며 현재는 New York 州立大學校(Albany 所在)의 教授로 재직하면서 Columbia 大學校의 러시아 研究所 高等研究員으로 있다. 著書로는 Frederick J. Fleron, Jr. 과의 共編,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1971)가 있다.

달린은 1962 ~ 67년간 Columbia 大學校의 러시아 研究所 所長을 역임하고 1966 ~ 71년간 同大學에서 國際關係論 教授로 재직하였다. 現在는 Stanford 大學校의 政治學 教授로 재직하면서 Hoover 研究所의 高等研究員으로 있다.

著書로는 political Terror in Communist Systems(1970);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1963); politics in the Soviet Union(1966); Soviet politics Since Khrushchev (1968) 등이 있다.

바로 이상과 같은 것들이 蘇聯政治體制에 관한 최근 西方學者들의 著書를 「需要者에게 案内」하려는 筆者의 結심에 影響을 주었던 몇가지 考慮事項이다.

II. 戰後初期의 代表的 著書

아주 최근의 文獻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2次大戰 직후 출판된 蘇聯體制에 관한 두개의 研究가 事實상 최초의 基準이었으며, 比較의 가장 精確한 標準이 되고있다는 事實을 상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Barrington Moore, Jr.의 Soviet Politics - The Dilemma of Power 와 Merle Fainsod의 How Russia Is Ruled ?이다.⁽¹⁾

무어의 研究는 理念이 사회변동에 미친 影響 또는 사회변동이 이념에 미친 影響이라는 중요한 核心的인 主題를 가지고 있다. 社會科學者들의 接近方法에서는 理念과 社會變動을 각각 獨立變數 또는 從屬變數로서 보는 立場이 恩연중 나타나고 있다. 무어의 研究는 蘇聯指導者의 행동과 사상의 상호간 影響關係를 다른 文脈에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長點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蘇聯의 政策결정자에 대한 환경적 制約, 그리고 급변하는 事態와 狀況에 대한 그들의 적응성 또는 대응성, 黨의 主要人物이 가지는 價值와 信念에 따라 변화되는 機能등을 사려깊게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무어는 레닌의 言行과 러시아革命傳統속에 예시된 볼셰비키의 「手段의 이데올로기 (ideology of means)」가 蘇聯政治體制的 발전에 막대한 影響력을 행사하였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어에 따르면 이러한 手段的 「이데올로기」는 共產黨幹部들의 行爲에 대해서 古來「람스」主義나 러시아 「람스」主義 (이것은 目標과 理想이 보다 덜 權威主義的이며 보다 불분명하다) 가 미친 影響보다 훨씬 큰 影響을 주었다는 것이다.

페인소드도 역시 蘇聯體制에 관해서 명료하고 놀라울만큼 많은 文獻을 活用한 理論的 分析과 解釋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全體主義」 概念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무어의 研究보다는 한층 巨視理論的인 (Macro-th-

eoretical) 研究(아마도 페인소드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욱 巨視理論的인 것이다)를 生産할 수 있었으며, 그의 연구는 한 世代의 西歐學者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페인소드의 著書를 再讀하게 되면, 社會科學者로서 또한 「中範圍」(middle-range) 社會理論家로서의 그의 能力을 (특히 動員, 葛藤, 「콤무니케이손」理論의 분야에서) 전보다 한층 높히 평가하게 될 것이다. 페인소드는 그가 蘇聯 政策決定의 獨裁性을 強調하고 있다는 理由로 흔히 「葛藤」理論家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으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權限의 多元化」(pluralization of authority)를 방지하려는 中央의 努力에 있어서 組織 상호간의 또는 組織內的인 갈등이 갖는 중요성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다.

분명히, 무어와 페인소드의 著書는 어느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무어는 스탈린의 強任政策을 불충분하게 취급하였는데 이것은 Terror and Progress - USSR⁽²⁾에서 잘 분석되고 있다. 또한 페인소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組織的인 投入(organizational input)을 경솔히 취급하고 있으며 스탈린의 政策的意圖나 權力形態와 후르시초프의 그것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第2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초기의 두 一般的인 研究는 그 學問性이나 세련성을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Ⅲ . 60 年代의 代表的 著書

蘇聯體制에 관한 戰後 「第二世代」의 研究中(개정판이 수차례 나왔으므로 精確한 年代를 제시하기가 곤란하지만) 헤이자드(John Hazard),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마이어(Alfred Meyer)의 研究는 특히 言及할 가치가 있다. 이들은 모두 그 主題에 대해 신실한 接近法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問題에 대한 새로운 解答을 추구하고 있다.

헤이자드는 그의 著書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³⁾에서 蘇聯

政체를 「民主主義의 諸形態」가 주요 「臨界點」(peril-points)上的 「平衡錘」에 종속되는 政治體制로 보는 것은 說明的, 比較的인 또는 規範的인 長點을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헤이저드는 全體主義理論을 전개 하면서, 「民主主義의 諸形態의 民主主義의 機能」을 방해하는 蘇聯體制的 결정적인 특징(예컨대, 정치적 사건의 경우 黨의 支配에 종속되는 司法府, 그리고 집재적인 制度的, 結社的, 壓力集團의 등장을 금지하는 統制)을 확인하고 있다. 헤이저드의 연구는 일반적인 黨政策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立法化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제적인 문제나 法的 淵源에 관한 그의 깊은 知識을 보여주고 있다. 헤이저드는 스탈린以後의 주요한 발전(예컨대, 기술전문가의 대거 黨內充員, 最高 소비에트의 常任委員會를 통한 政策樹立에의 참여 확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체제전반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몇 개의 주요 분야에서(예컨대, 특정한 「臨界點」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그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分野의 하나로서 「支配엘리트 계층의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또 體制的 「本質的인」 변화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

브레진스키와 헌팅톤의 共著 Political Power : U.S.A./USSR⁽⁴⁾는 잘 알려져 있듯이 蘇聯과 美國의 體制를 比較하고 「收斂」(Convergence)理論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브레진스키와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近代化 특히 工業化와 都市化의 정치적 諸結果에 관한 비교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專門技術의 多樣化가 집단적 自律性(group autonomy)에 기초한 社會, 政治的 多元主義와 동일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政治, 經濟關係의 본질은 現存政治體制的 특징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蘇聯의 경우, 主要變數는 職業的인 黨官僚의 政治的 「비전」과 技術, 그리고 「經濟的 合理化를 이데올로기的인 刷新과 결합시키는」 力量이라고 생각한다. (pp. 424 以下 참조)

1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브레진스키의 著書가 기여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同著書가 政策決定過程에 理論的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브레진스키의 著書가 政策的 先導 (policy initiation), 合意의 樹立 (Consensus-building), 政策決定을 강조하고 또 蘇聯指導者들의 目標, 信念, 認識, 思考法, 經驗 그리고 상호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關係를 중요시한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페인소드는 權力이나 「이데올로기」, 또는 「이슈」가 蘇聯歷史上 時期別로 政策決定의 投入으로서 상호 어떤관계에 있었는가에 관해서 거의 言及을 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브레진스키는 蘇聯政治를 하나의 「協商」過程으로 보고 있다. 그는 스탈린 以後 時代에 公共政策이 樹立, 実行, 補充되는 각기 다른 段階에서 다양한 參與者 또는 예상되는 參與者(集團과 개인)가 이용할 수 있는 「政治的 資源」(political resources)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過程의 本質이나 節次 또는 結果를 분석하고 있다.

마이어의 The Soviet Political System⁽⁵⁾은 아주 잘 알려져 있듯이 蘇聯을 「巨大한 官僚制(bureaucracy writ large)」라고 보며, 또 蘇聯을 「會社群」을 지배하는 現代의인 西方의 持株會社에다 비교하고 있다. 마이어는 蘇聯共産黨을 고도로 복합적이고 세분화된 巨大한 官僚制를 統制하는 核心部(「理事會」 또는 「株主」)로 보고 있다. 그는 蘇聯體制를 단하나의 巨大한 單位로 개념화 함으로서 본질적으로 蘇聯政治의 組織內的인 (intra-organizational) (組織 相互間(inter-organizational)이 아닌) 特性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注意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그는 蘇聯共産黨 指導者들이 대부분 주요 관료제의 組織과 人事를 빈번히 바꾸고 새로운 對内外 狀況이나 問題, 또는 勢力關係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力量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어의 接近法을 「全體主義 모델」과 구별짓게 해주는 것은 그가 蘇聯政治의 中央統制가 가지는 모순적이고 불분명하며 비현실적인 特性을 강조하고 또 黨의 目標를 下級官吏가 실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政策과 法律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심각한 官僚制의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工業化와 都市化때문에 이러한 要因들이 한층 중요해지며, 또한 정책결정체제에 대해 質的으로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약컨대, 마이어는 정책결정과 行政節次의 중요성 그리고 정책결정의 實際와 본질적인 決定간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해서 극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 그는 蘇聯에서는 "극히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많은 公共政策「이슈」에 관해 公開討論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또 "다양한 「엘리트」" 또는 제도적인 "利益集團들"間에 "公開的인 討論이 한층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pp.188, 231, 470 以下)

한편 마이어는 "蘇聯政治体制라는 어떤 하나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目的, 構造, 機能 면에서 서로 전혀 다른 일련의 体制"(6)가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思考에 신중히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이어가 蘇聯体制의 力量과 變化추세(정치, 경제, 사회적인)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이어는 흐르시초프가 "소비에트聯邦社會主義共和國" 내에서 권한의 分散과 자유토론을 적극 장려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묘한 管理技術이었음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策略은 第一書記와 中央委員會의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였으며, 실제로 어느정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몇사람만의 最高位職 指導者에 의해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基本目標"에 따라 官僚組織과 社會를 관리 통제하기 위해 中央黨僚(apparatchiki)의 力量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마이어는 이러한 解釋을 브레즈네프行政政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어느 경우에서도 그는 先驗的이라기 보다는 經驗的인 기반에 입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70年代의 代表的 著書

1970년대에 저술되었거나 개정된 蘇聯政治에 관한 一般的인 研究中, 筆者는 암스트롱(John Amstrong), 바그훈(Frederick Barghoorn),

햄머 (Darrell Hammer), 레인 (David Lane), 오스본 (Robert Osborn), 르세타르 (John Reshetar) 등⁽⁷⁾ 6 人의 研究에 關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最近」의 文獻에 關한 一般化와 考察은 주로 이들의 著書에 의거할 것이다.

당장 놀라운 것은 이들 여섯 研究의 範圍가 인상적이라는 것이다. 著者들은 광범한 年代에 걸친 (보통은 蘇聯時期, 몇몇 경우는 初期의 러시아 政治·社會史까지도) 매우 다양한 主題를 무난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비록 자기 다른 主題에다 서로 다른 強調點을 두고 있지만 스탈린 以後 時代의 많은 주요측면, 즉 政治制度, 經濟, 「이데올로기」 的 作業, 社會관계, 법률, 人種의 및 宗教的인 다양성, 反體制 要素, 外交政策 및 기타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포괄성이나 說明의 명료성에 있어서도 이들 著書는 역시 모두 추천할 만하다. 이 저서들은 西方의 蘇聯研究가 이룩한 업적과 結果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精確하고 풍부한 情報을 일반독자들이 쉽게 接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섯권의 著書 모두가 현재의 브레즈네프-포드코르니코시긴 時代에 對해 동등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암스트롱은 현재의 蘇聯政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르세타르는 자신이 蘇聯體制의 本質적이며 지속적인 特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의 歷史的 先例에 對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르세타르의 著書는 비교적 최근 일에 關한 說明이 부족하지만, 암스트롱은 현재의 事態발전을 說明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다. 르세타르의 研究는 蘇聯體制의 커다란 變化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하는 반면, 암스트롱은 최근의 主要事件을 검토하고, 어떠한 事態發展이 과거의 추세나 傾向으로부터 이탈하는 契機를 만들 것인가 하는 問題를 보다 歸納的인 方式으로 分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여섯 著書는 후르시초프 以後 時代에 關한 상당한 量의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著者는 이들 著書가 브레즈네프時대에 關한 우리 的 知識을 배가시킬 것을 (예컨대, 1964 ~ 1970 年의 시

대와는 중요한 몇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1970 년대의 政治에 관해서) 기대했다. 또한 筆者는 현재의 "集團指導體制"의 정책, 정책결정과정, 정책결과를 과거 政權의 그것과 보다 체계적으로 比較할 것을 소망하였다. 우리는 보다 집중적인 比較를 통해 (특히, 호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行政府 그리고 스탈린과 스탈린 以後의 行政府간의 比較를 통해), 持續성과 變化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보다 명백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또 현재 蘇聯政治의 各分野에서 일어나는 變化의 速度, 方向, 內容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보다 경험적인 解答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덜 強調하고 있는것은 유감이지만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기에 소개되는 최근의 著書들은 西方의 蘇聯研究文獻에 관한 現實, 즉 專攻論文의 결여, 그리고 現蘇聯政治의 重要한 많은 側面에 關한 經驗적인 研究의 결여 (反體制要因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분명 例外지만)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우기, 어떤 분야에서는 최신의 연구를 기대하는 것이 時期尙早일지도 모르며, 또 이 著者들은 各自의 能力이 미치는 專攻分野에서만 또는 그분야에 치중해서 獨창적인 研究를 한 것 같다.⁽⁸⁾

다음으로 이들 여섯 著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새로운 理論的 또는 概念的인 접근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그훈과 레인의 研究는 西方의 社會理論家 또는 比較論者들의 構造機能主義와 體系分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확실히 概念上的 革新을 보여주는 것이다.⁽⁹⁾ 그들은 모두 蘇聯政治行態를 설명·묘사하기 위해서 西方의 社會科學概念 (예컨대, "政治文化" "政治社會化" "利益表明" "利益集約" 등)을 차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가 생각컨대, 바그훈의 "分析틀(analytic framework)"은 그의 理論的인 分析이나 해석에 대해서보다는 資料를 組織化하는 문제나 表現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바그훈의 機能主義的인 概念用語가 그 자신이 제기한 問題나 그 자신이 도달한 結論에 대해서 또 어쩌면 그가 論議하고자 선정한 主題나 각각의 주제를 다루는 상대각이

比重(예컨대,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에 대한 그의 強調)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政治文化나 政治社會化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偽裝된 祝福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構造機能分析(특히 전반적인 政治體制에 관한)은 蘇聯政治에 관한 理解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제한된 價值를 가지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論評이 레인에 대해서도 해당되지만, 그 정도는 다소 덜하다. 레인은 政策決定에 관한 2개의 章(7章과 8章)에서 蘇聯政治에 대해 단순화된 "體系"(System) 모델을 적용하려는 革新的인 試圖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蘇聯政治體制의 現在와 過去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現代政治學에서 使用되는 用語를 採摺함으로써 얻는 利點에 관해서 다른 著者보다 한층 樂觀的인 듯하다. (pp.203 以下 참조), 더우기, 레인이 다른 著者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借用하고 있는 理論的 定向에서 연유하는 것일지며 또 아마도 그것에 의해서 견해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책결정에 관한 오스본의 分析은 보다 덜 巨視理論的 接近이다. 오스본은 "主要한 政治的 決定"의 原因과 結果를 분석함으로써, 蘇聯에서의 變化와 安定의 諸側面을 규명하려고 한다. 오스본은 중요한 蘇聯 政策의 政治적, 경제적, 사회적 제 측면을 강조하며, 蘇聯共産黨 指導者에게 "開放되어 있는" 代案,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政權의 力量" 그리고 "변화하는 정책결정의 性格" 등을 밝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pp.vii - viii, 122-124 以下 참조) 이러한 主題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것이며, 특히 變化하는 政策決定의 性格이라는 主題는 이제까지 研究文獻에서 충분히 取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중요한 오스본의 主題와 선구적인 문제의식은 同著者의 전반에 걸쳐 다소 간헐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을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상당히 가치있는 記述과 어느정도 설득력있는 說明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分析이 적고 또 分析도 明瞭하지 못하다.

더우기, 그는 그의 主題나 問題意識 또는 結論을 구성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工業化過程의 社会 또는 工業化된 社会的 공공정책결정에 관한 최근의 西方研究文獻을 실제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는 蘇聯의 經驗을 그의 著書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다 큰 問題에 단지 형식적으로 관련시키고 있다. 個人的으로 筆者는 이것은 機會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의 정책결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경우) 그러나 筆者는 "公共政策"에 관한 最近의 文獻이 상당히 制約되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다. 어쨌든, 오스본의 著書는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며, 그가 천명한 目的이나 各章의 小題目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革新的이지 못하다.⁽¹⁰⁾

해머는 "比較政治學의 최근추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대신 蘇聯體制의 「엘리트」制度和 人事 그리고 정책결정 充員·政治社會化의 過程이 발생하는 制度的 脈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vi). 이러한 전통적인 公式的·法的·制度的 分析의 混合은 샤피로(Leonard Schapiro)나 스코트(Derek Scott)의 研究⁽¹¹⁾를 연상케 한다. 해머는 샤피로와 스코트보다 指導的인 黨·國家·經濟官僚의 經驗이나 경력패턴을 더욱 잘 묘사하고 있다. 해머는 中央 및 地方黨機構의 운영에 관해서 암스트롱이나 레인과 전혀 다른 情報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러한 官僚制 單位를 支援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한층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해머는 政治局, 秘書局, 中央委員會의 各部署 및 地方黨機構內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事實만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몇가지 잠재적으로 관련성있는 情報를 추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부터 그는 蘇聯官僚들의 정치적 행태에 관해 몇가지 극히 조심스런 推論을 도출하고 있으며, 또 一般讀者들에게도 그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들 여섯 著書의 또다른 一般的 特徵은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는 새로운 技法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연구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弱點이 아니라 強點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注目할만하다. 여기서는 計量的인 內容分析이나 蘇聯人과 接觸했던 서방의 정부

관리나 企業界人士 또는 최근의 亡命者와의 광범한 面談과 같은것 이외에
기타의 非伝統的인 자료수집기법이나 획득곤란한 情報源이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蘇聯官吏와의 面談이 자료로 이용되고 있
긴하다. 그러나 이들 研究의 중요한 資料基盤은 당이나 국가, 기관 또
는 전문화된 言論機關에서 出版된 資料이다.

마지막으로 最近의 一般的인 研究의 특징은 蘇聯體制에 관한 해석과
작기 다른 歷史的 時代에 있어서 共産党的 역할에 관한 해석이 모두
유사하다는 것이다. 筆者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가장 문제시되
는 관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찰은 또 다소간 곤란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나 問題로부터 다른 생각이나 문제로 옮겨
가는 研究가 아니라 어떤 事件이나 時期로부터 다음의 사건이나 時期로
진행되는 敘述的 研究에서 核心的인 主題나 論議 또는 假定를 추출한다
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섯 著書들은 흐루시초프時代를
분석하면서, 모두 똑같은 一次資料를 이용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二次研究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흐루시초프가 기도했던 "원대한 構想"
의 본질과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던 理由에 관해서 광범한 意見의 一
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第一書記가 가지는
權限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1960년대 초반의 西方의 論爭은 끝난 것
같다. 이들간에는 主要事件, 심지어는 흐루시초프의 失脚에 관한 說明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브레즈네프政權의 해석에 있어서도 또한 이들은 놀랄 정도로 의견의
일치를 보여준다.

이들의 著書속에서는 "극단적인" 입장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어느
누구도 古典的 "全体主義모델"과 양립할 수 있는 어떤 政治過程을 묘
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테크노크라트」"가 權力을 잡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西歐의 結社的인 集團(asso-
ciational group)과 유사한 개념의 利害集團理論을 받아드리고 있는
사람도 전혀 없다. 사실 해머가 "관료적 다원주의" (bureaucratic
plur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다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著者と 마찬가지로 그도 黨의 최고기관이 정책결정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정책문제에 관해 국가적, 지역적 또는 자방적 次元에서 정책결정에 대한 制度的인 參與와 協議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오스본은 "많은 외부집단 또는 그들의 見解를 관여시키는 것은 정책과정에 대한 黨의 支配에 결코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利點이 될 수도 있음"을 통찰력있게 부언하고 있다. (p.204)

"黨統制의 合理化" (rationalization of party control) 라는 支配的인 命題에 관해서는 레인만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레인도 심지어 蘇聯共產黨을 執權黨 (ruling party) 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黨以外的 機關이나 社會勢力이 蘇聯政策에 대해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영향력에 관한 認識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共產黨은 社會 및 經濟生活에서 준수되어야 할 「이데올로기」를 천명하고, 投入이 행해지는 政治体制의 構造와 形態를 만든다. 그러나 投入을 聚合하고 전문적인 產出機能을 수행할 수 없는 黨의 無能力 때문에 黨의 政治權力은 쇠퇴하게 되고 다른 機關의 權力이 증대되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國家行政体制이다.

(pp. 224-225, 230, 233 이하 참조)

레인과 그밖의 著者들간에 존재하는 이와같은 差異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지만, 讀者들에게는 이것이 여섯著者들간에 존재하는 가장 주요한 근본적인 (아마도 유일한) 意見의 不一致로 보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問題에 관해 여섯著者들간에 중대한 見解差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즉 蘇聯政治發展에 대한 레인 및 스탈린의 상대적인 영향력, 1953以後의 蘇聯政治体制가 보여준 持續性과 變化性, 蘇聯体制가 가지는 "러시아의 性格"의 정도, 「이데올로기」의 役割, 全体主義모델의 유용성, "集團"政治 (group politics)의 본질, 蘇聯政策의 合理性과 效率性, 蘇聯共產黨의 적응능력, 最高指導者

의 統治技術과 充員의 实例, 강압과, 통제의 統統性, 反体制要因의 중요성, "네탕드"의 意味와 "收斂"의 가능성등이 그것이다.

확실히, 여섯著者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다소간 相異한 입장을 취하며, 때로는 讀者가 선택할 수 있는 代案을 제시하기도 한다. 레인과 다른 著者들간의 見解차는 몇가지 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各著者들의 사려깊은 結論들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르세타르의 마지막 章은 分析家가 어느정도 자신의 理論的 定向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各自가 채택한 "모델"은 스스로 제기한 문제와 스스로 도달한 結論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섯著者들은 蘇聯研究에 있어서 주요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심각한 意見의 不一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주로 強調點이 다르다든지, 具體性의 정도 또는 「뉴앙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다. 개인적으로, 筆者는 蘇聯政治分野에 관한 이들 著書를 어떤 同質的인 것으로 보기에 는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나 주제 또는 문제점들에 관해서 더욱 많은 論爭이 제기될 것을 환영하고 있다.

筆者는 蘇聯政治体制를 연구하는 西方學者들간에는 중요문제에 관해서 전혀 見解差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¹²⁾ 그러나 筆者는 이들 가장 최근의 一般的인 研究에서보다도 西方의 專門誌나 專攻研究文獻에서 蘇聯政治에 관한 보다 광범한 해석과 의견의 不一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大學生들은 다른 곳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보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著書들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事實의 情報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스탈린 以後 時代의 變化에 관한 주요문제나 論議에 관해서는 후(Jerry Hough), 스킬링(H. Gordon Skilling), 그리피스(Franklyn Griffiths),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프로스(Sydney Ploss), 자물리(Tibor Szamuely) 등의 著書들을 선택하여 竝讀 比較함으로써 가장 명료하고 포괄적인 이해

가 가능할 것이다.⁽¹³⁾

蘇聯政治體制과 社會에 끼친 레닌과 스탈린의 상대적인 영향력등과 같은 많은 問題를 보다 깊이 理解하려면, 反體制人士들의 文獻(예컨대, 솔제니친, 메드베데브(Roy Medvedev), 사하로프(Sakharov), 아말리크(Amalrik), 듀바(Dzyuba)등)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V. 結論的 考察

이상에서 살펴본 새로운 여섯 著書는 모두 상당히 훌륭하며,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筆者의 평범한 結論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大学生이나 一般讀者에게 불가결한 것도 아니다.⁽¹⁴⁾ 蘇聯政治體制에 관한 戰後 一世代 내지 二世代의 研究中 몇가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當時 그들은 競爭者를 갖고있지 않았고 그 主題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은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상당히 많은 새로운 革新的인 또는 思考를 啓發시켜주는 情報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著書들도 어느정도 그러한 機能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著書에 반영된 바와 같이 政治學에 끼친 "行態主義革命"의 주된 영향은 概念的인 명료성(conceptual clarity)의 증대에 있는 것이지, 창조적인 巨視理論이나 中範圍水準의 理論化, 또는 새로운 研究方法論 또는 資料蒐集技法의 實驗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어떤 概念이 그러한 概念을 활용하는 命題와 論議에 대한 理解와 평가를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러한 概念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데는 확실히 보다 큰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蘇聯體制에 관한 대부분의 最近 西方著書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석 그리고 非傳統的인 接近方法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¹⁵⁾

核心的인 主題를 추구하는 著者는 거의 없으며, 암스트롱과 르세타르와 같은 단지 2~3명의 著者만이 그들의 主題에 대해 비교적 個人的인

(대로는 極端的인) 接近法을 취하고 있다. 일부 著者は 批判的인 思考를 자극시키려는 소망때문에 서로 相異한 理論이나 解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蘇聯政治에 관해 정확하기는 하지만 흔히 익숙해진 情報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讀者들은 意味와 意義를 부여할 수도 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筆者가 이들 새로운 西方의 여섯 著書가 기존의 著書에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一般讀者가 그것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各自의 教育목적을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르세타르의 研究는 러시아 政治社会史와 그것이 蘇聯時代에 미친 影響에 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바그훈은 蘇聯의 政治文化, 그 중에서도 兒童이나 成人의 政治社会化를 통해 다양한 下位文化를 再形成하려는 党的 努力에 관해 특히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머의 研究는 일차적으로 共産党과 그 人物에 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의 特技는 정치학도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암스트롱의 分析은 現代에 있어서 对内外政策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研究와 마찬가지로 民族問題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오스본의 研究는 政治機構에 대한 관심의 초점으로부터 다소간 이탈하고 있는데, 그대신 특히 경제 및 사회관계 분야에서의 政策選擇과 그 結果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레인은 政治社会学者로서 社会的 分化和 계층화, 家族, 教育制度 등과 같은 主題에 대해서 상당한 注意를 쏟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여섯 著書들은 各著者의 특수한 専攻分野에 속하는 기본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평범한 結論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大學課程의 教育에서 蘇聯共産党的의 주요기구와 그 구성, 政治權力의 본질에 力점을 두고자 할 때는 아마도 바그훈이나 해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政策選擇과 党的의 政策決定過程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는 암스트롱, 오스본, 또는 르세타르를 채택하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忠告가 될 것이다. 경제 및 사회정책의 본질과 그것이 蘇聯社会에 미친 影響을 강조하기로 할 때는 레인이나 오스본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현명할 것이다. 政治文化와 社会化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바그

훈이나 아마도 르세타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蘇聯外交政策을 다루고자 한다면, 오스본의 著書는 피해야 할 것이다. 一次資料의 발췌를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레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現代의 蘇聯政治에 중점을 둔 著書를 원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르세타르보다 암스트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또한 간결한 歷史的 背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스트롱보다 레인이나 르세타르가 좋다.

蘇聯國內政治에 관한 大學課程에는 바그훈의 改正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筆者는 알았다. 그러나 筆者는 다른 教材들도 시험해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최신의 研究나 오래된 著書도 계속 시험할 것이다. (필자는 암스트롱과 해머를 자기 다른 課程에서 실험적으로 이용해보고 있다) 그런데 바그훈의 著書는 筆者의 학생들에게 討論이나 비판적 思考를 생생하게 자극하고 상당한 事實情報을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예컨대, 바그훈 著書의 뒷부분에 있는 우수한 圖表)⁽¹⁷⁾ 그러나, 이러한 選択은 이 課程의 많은 參考文獻中 筆者의 選好에 극히 따른 것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蘇聯政治는 黨「리더십」의 觀點으로부터 가장 잘 소개될 수 있다는 筆者의 見解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그훈 著書의 최대취약점은 蘇聯에서의 政權문제에 관한 論議이다. (예컨대, 權力획득을 위한 투쟁과는 구별되는 權力의 使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훈의 研究는 마이어, 샤프로, 터커 (Robert C. Tucker), 린든 (Carl Linden) 의 탁월한 研究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다른 著書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암스트롱이나 해머가 될 것이다. 또한 보다 광범한 觀點을 위해서 혹은 앞의 일부 著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레인, 오스본, 또는 르세타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컨대, 蘇聯政治體制에 관한 西歐의 최근 研究는 政治學과 蘇聯地域 研究의 많은 長短點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評價된 이들 새로운 여섯 著書는 오늘날 西歐의 蘇聯學에서 論爭보다는 合意가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 合意의 程度는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印象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같다. 네 부분의 이들 著書들은 유사한 概念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모두 동일한 主要事件이나 傾向의 重要性을 강조하며, 蘇聯에 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知識의 결함을 인정한다. 이들은 모두 主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대강 합의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問題를 제기하고, 극히 유사한 結論에 도달하고 있다. (아마도 예외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들 著者들은 모두 冷戰의 先入見이나 특정한 유형의 資料를 부적합하게 강조하는 것과 같은 過去의 "偏見과 失手"를 회피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추세가 좋은지, 나쁜지, 또는 필연적인지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여부는 讀者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가지 意見이 하나의 教材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여러 冊을 比較함으로써 가장 잘 평가되는 것인지는 別個의 문제다. 어쨌든, 蘇聯 政治論의 初心者는 그 主題에 관해 비판적이고 현명하며 창조적으로 思考할 수 있고, 그 主題의 複合性을 보다 잘 理解하며, 이 分野의 研究가 가지는 매력과 拉절을 보다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자극받기 위해서 보다 多樣한 「아이디어」, 接近方法 및 解釈을 접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註)

1. Barrington Moore, Jr., *Soviet Politics - The Dilemma of Power* (New York : Harper & Row, 2nd ed., 1965) ;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2nd ed., 1965). 또한 Julian Towster, *Political Power in the USSR, 1917 ~ 1947*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8)을 참조.

2. Barrington Moore, Jr., *Terror and Progress-USSR* (New York: Harper & Row, 2nd ed., 1966)

3. John N. Hazard,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th ed., 1968).

4.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 USSR (New York : Viking Press, 1964). 또한

Zbigniew Brzezinski, Ideology and Power in Soviet Politics (New York : Praeger, 2nd ed., 1967).

5. Alfred Meyer, The Soviet Political System (New York : Random House, 1965).

6. Alfred Meyer, "The Soviet Political System," in Samuel Handel and Randolph Braham (eds), The USSR After 50 Years (New York : Knopf, 1967), pp. 41以下

7. John A. Armstrong,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 Praeger, 3rd ed., 1974) : Frederick Barghoorn, Politics in the USSR (Boston : Little, Brown 2nd ed., 1972) : Darrell Hammer, USSR : The Politics of Oligarchy (Hinsdale, Ill : Dryden Press, 1974) : David S. Lane, Politics and Society in the USSR (New York : Random House, 1971) : Robert J. Osborn, The Evolution of Soviet Politics (Homewood, Ill : Dorsey Press, 1974) : John Reshetar, Jr., The Soviet Polity :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U.S.S.R. (New York : Dodd and Mead, 1971). 또한 Roy D. Laird, The Soviet Paradigm : An Experiment in Creating a Monohierarchical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1970) : Robert Wesson, The Soviet Russian State (New York : Wiley, 1972) 를 참조.

8. 암스트롱의 특별한 關心은 관료제와 民族問題이며, 바그후른은 政治文化·社会化·反体制要因이다. 해머는 정치[엘리트]와 法律, 레인은 러시아 革命史와 政治社会学, 오스본은 社会政策과 都市政治, 그리고 르세타르는 蘇聯共產黨과 民族問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9. 또한 Richard Gripp, Patterns of Soviet Politics (Homewood, Ill : Dorsey Press, 2nd ed., 1967) 을 참조.

10. 筆者는 "通常的" (Conventional) 이라는 말을 記述的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경멸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11. Leonard Schapiro,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5) ; Derek Scott, *Russian Political Institution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4th ed., 1969).

12. 이러한 見解差의 몇가지를 강조한 論文은 Roger Kanet,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and Soviet Politics : Recent Western Interpretations," (1974년 美国政治学会年例集회에서 발표한 논문, Chicago, September 1, 1974)

13. Jerry Hough, "The Soviet System : Petrification or Pluralism?" *Problems of Communism*, XXI, 2 (March-April 1972), pp.25-45 ; H.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in Communist Politics," in H.Gordon Skilling and Franklyn Griffliths (eds.), *Interest Groups in Soviet Politic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p.3-45, 379-416 ; Franklyn Griffiths, in *ibid.*, pp.335-377 ; Zbigniew Brzezinski, *Between Two Ages* (New York : Viking Press, 1971), pp.123-193 ; Sydney Ploss, "New Politics in Russia?" *Survey*, No89 (Autumn 1973), pp.23-35 ; Tibor Szamuely, "The USSR Since Khrushchev," *Survey*, No72 (Summer 1969), pp.51-59. 물론 이 目錄은 공식적인 蘇聯資料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14. 예컨대, 蘇聯의 對外政策의 분야에서, Adam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 Soviet Foreign Policy, 1917-73* (New York : Praeger, 2nd ed. 1974)을 빼놓고는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상상하기 힘들다. 또는 대학원과정에서 Vernon Aspaturian, *Power and Process in Soviet Foreign Policy* (Boston : Little, Brown, 1971)을 빼놓을 수 없다.

15. L.G. Churchward, *Contemporary Soviet Government* (New York : American Elsevier, 1968) ; Frederick Schuman,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 Crowell, 2nd ed., 1967).

16. 이러한 論評은 筆者가 현대 蘇聯政治에 관한 최근의 一般의 研究中 가장 통찰력있고 知的인 것으로서 Roy A. Medvedev, On Socialist Democracy (New York : Knopf, 1975)을 생각하는 理由를 다소간 설명해준다. (同書는 Ellen de Kadt에 의해 번역 편집됨). 同書는 知的으로 자극적이며, 그 主張을 뒷받침하는 신선한 증거로 가득차 있다. 한마디로, 同書는 本論文의 序頭에서 열거한 모든 기준에 거의 부합된다.

17. "資料提示", "批判的 思考의 배양", "창조적 사고의 배양" 등에 관한 基準에 커다란 강조점을 두고 比較政治分野의 教科書를 비판한 分析으로서 는, Norman Furniss, "Comparative Government Texts : Problems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8, No 1 (March 1974), pp. 105-127을 참조.

18. Alfred Meyer, Leninism (New York : Praeger, 1962) ;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Vintage Books, 2nd ed. 1971); Carl Linden, Khrushchev and the Soviet Leadership, 1957-196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6).

19. Alexander Dallin, "Biases and Blunders in American Studies on the USSR", Slavic Review, Vol. 32, No 3 (September 1973), pp. 560-576; 그리고 John Armstrong의 答, ibid., pp. 577-587. 크게 반대되는 見解는 Lev Navrozov, "Stalin Under Western Eyes", Commentary, Vol. 56, No 5 (April, 1974), pp. 66-70을 참조.

☆ 달린의 論評

호프만은 蘇聯政治에 관한 최근의 著書들물 현명하고 박식하게 그리고 사려깊게 論評하였다. 그는 그가 例로 들은 各著書의 能力을 높히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需要者에 대한 그의 案内는 뚜렷한 區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특정한 어떤 著書를 추천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못함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本人은 그러한 著書들이 蘇聯体制의 해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類似하다는 그의 認識에 찬동하지 않는다.

그러한 類似性이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우리는 결국 事實的 資料, 登場人物 및 事件年代에 관한 類似性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資料接近에 관해 똑같은 制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典型的인 教材는 체제와 과정에 강조를 두는 상당히 전통적인 編輯(年代順이든 主題順이든 혹은 양자의 결합이든)에 따른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호프만教授가 實體, 概念, 方法論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寄与를 한다는 것은 出版業者들이 安定된 讀者를 확보하고 利潤을 추구할 수 있는 教材에서보다는 專門的인 定期刊行物의 論文이나 專攻研究에서 보다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가 검토한 著者들間에는 (물론 전반적인 學界內部에서도) 接近法과 假定에 있어서 근본적인 差異가 존재한다는 것이 本人의 생각이다. (이것은 마치 호프만이 그의 評價를 검증 또는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本人도 마찬가지다). 사실, 많은 著者들은 최소한 조잡한 형태일지라도 스스로 代案的인 解釈을 제시하고 있다. 르세타르의 마지막 章은 서로 다른 여섯개의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레인은 6章에서 「蘇聯社會에 관한 批判論들」을 논의하고 있다. 오스본은 序論 및 結論에서 많은 代案的 理論과 解釈을 분석하고 있다. 확실히, 이 著者들은 똑같은 것을 主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蘇聯의 動機와 政策決定에 대한 「이데올로기」役割과 같은 항구적인 문제를 예로 들때, 암스트롱과 마이어, 르세타르와 레인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問題가 아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共產主義的인가?」라는 質問은 미묘한 함정이 될 수 있지만, 共產主義者들이 가지고 있는 信念과 認識의 실제적인 役割에 관한

評價는 蘇聯체제의 本質인 特徵을 연구하는데 核心이 되는 것이다.

"連統性과 變化"에 관한 끝없는 論爭에서도 그와 같은 多量한 見解가 있을 수 있다. 일부 著者들에게는 비잔티움이나 타타르 또는 모스크公國의 文化가 모두 레닌主義者들의 本質적인 先祖가 될 수도 있으나, 다른 일부는 發展모델과 動員概念에 기초한 보다 簡潔한 說明을 기꺼이 수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은 構造·機能主義的인 假說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호프만이 발견했던 것보다 더 큰 効用性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부 著者들은 두가지 接近方法의 諸要素를 잘 結合하고 있다.

蘇聯時代에 있어서의 連統性과 變化를 補充하는 問題도 역시 西方學者들을 근본적으로 分렬시키고 있다. 일부 學者들은 스탈린 以後 時代가 (소위 짐머만 (William Zimmerman)이 말하는 "本質論者"의 論議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出發點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 학자는 可能한 選擇의 범위를 점차로 증대시키는 協商 또는 政治的 多元主義의 기초를 마련하는 變化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1920 년대에 관한 關心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 교적 근래에 관한 것보다도 新經濟政策에 관한 資料가 더욱 많이 歷史家에 의해 발견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1920 년대가 政治學者들에 게 보다 중요한 解答을 제시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스탈린主義의 根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環境的 要因인가? 一個人의 「퍼스낼리티」인가? 政治體制인가? 러시아 政治文化인가? 아니면 上部構造上的 偶發的 事件인가? 스탈린은 레닌의 適法한 후계자인가? 스탈린主義는 變異인가 아니면 반역인가? 「볼셰비키」内部에 스탈린主義의 보편적인 代案이 존재했던 것인가? 다시 말해서 스탈린이 權力을 強化하는 기간동안 볼셰비키 「엘리트」들은 "多元的" (pluralistic)이었던가? 이것들은 단순히 안이한 學者의 思考의 문제도 아니며, 또 分派的인 유대主義 (talmudism)의 관심도 아니다. 이에 대한 解答은 蘇聯의 經驗에 關한 評價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또 샤피로에서 바그혼까지 터커에서 무어까지, 마이어에서 암스트롱까지의 모든 著者가 제시하는 解答은 全範圍에 걸치는 것이다.

수 많은 다른 문제 예컨대 정치적 참여의 문제 장애에 관한 모호한 展望의 評價와 같은 특수한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즉 役割의 分化와 世代的 變化를 강조하는 "發展的" 樂觀主義 (developmental optimism) 와 強壓과 統制의 持續, 또는 官僚制와 革命以後의 保守主義가 갖는 압박에서 야기되는 悲觀主義가 대립되는 것이다. 全體主義라는 낡은 문제조차 아직 未解決의 상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의 일부 학자들은 全體主義라는 말의 사용에 수반되는 定義上的 訓練, 內包된 概念, 政治的 原始主義 (political positivism) 조차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의 학자들은 아무런 양해없이도 "全體主義" 를 계속 운운하고 있다. (비록 호프만은 가장 敵對的인 說明일지라도 브레즈네프時代의 정치과정을 거의 "전체주의" 라고는 할 수 없는 用語로써 묘사하고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지만). 蘇聯의 政治 또는 社會內의 多元主義에 관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學界를 分裂시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해보기로 하자 호프만은 어떠한 쪽을 지지하든 비록 그것이 그 質的 價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고 점잖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으며, 그 根源은 蘇聯政治의 本質에 있다. 사실, 黨과 國家機關의 關係를 상술하거나 地方黨 (raikom) 의 機能을 요약하는 것은 거의 흥미가 없다. 教育學的 견지에서 보면 制度나 法令으로부터 人間과 政策으로 관심을 옮길 때 (그것이 숙청이든, 指導者이든, 또는 "黨性" 과 "專門性" 의 對立 스탈린과 트로츠키, 호루시초프와 그의 反對者, 蘇聯과 中共의 대결이던간에) 비로소 實感을 갖게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풀림들은 上·下層을 막론하고 蘇聯政治體制를 매우 날카롭고 이해력 있게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이고도 주요노력을 쏟아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반적인 추세가 蘇聯市民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은 蘇聯市民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또 그것이 오늘날의 蘇聯市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할 時期가 왔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蘇聯의 現實을 理解하기 위한 장차의 研究에 있어서 社会史, 政治社会学, 社会心理学등에 관심을 돌린다면 앞으로 놀라운 研究의 革新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蘇聯政治의 分析틀 : 比較·歷史的 脈絡

I. 概念 및 定義의 問題

알몬드 (Gabriel A. Almond) 와 포웰 (G. Bingham Powell) 은 그들의 共著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에서 「모든 政治体制의 特徵을 설명할 수 있는 分析圖式의 開發을 모색하였다.¹⁾」 本考는 그와같은 分析틀의 開發이라는 目的에 유념하면서 体制의 특수한 諸屬性이나 性格에 共通된 尺度와 範疇를 적용함으로써 蘇聯型의 政治体制를 광범한 一般論이나 分類法속에서 다루어보고자하는 하나의 試圖이다. 물론 筆者가 바라는 實際의인 比較分析은 高度로 中央集權의이고 集團主義의인 (collectivist) 政体和 多元主義의이고 競爭的인 西歐民主政体를 區別해주는 明白한 相異點을 적당히 왜곡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本考에서 試論하고자하는 接近方法은 이데올로기의인 또는 組織上의 差異가 지니는 重要性을 低評價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差異를 초월하여 体制가 內外的인 環境으로 부터 야기되는 壓力과 挑戰에 對應하면서 그 形態와 構造를 維持하는 共通된 특징과 過程에 留意하고 있다. 諸政黨, 政府, 또는 國民들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스타일의 政治行態는 指導者의 選出, 國家政策의 形成, 支持의 動員, 公共秩序의 維持 등과 같은 보편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相異한 方法으로 나타난다.

☆ 이것은 바그혼 (Frederick C. Barghoorn)의 Politics in the USSR (Boston: Little Brown, 2nd ed., 1972) 中 第一章 "Analytic Framework: Soviet politic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Contexts" (pp. 1 ~ 19) 를 本書의 취지에 맞게 약간 修正, 編譯한 것이다. 바그혼은 1941年 Harvard 大學에서 博士學位를 받았고 1941 ~ 47 年 國務省에 勤務하였는데 1942年 11 월부터 1947年 3 月까지 蘇聯大使館에 봉직하였다. 그는 또 1947 年이래 현재까지 Yale 大學校 政治學科教授로 在職해오고 있다. 그의 著書로는 또 The Soviet Image of the United States; Soviet Russian Nationalism; The Soviet Cultural Offensive; Soviet Foreign Propaganda 등이 있다.

蘇聯과 같은 政治體制를 상세히 分析하기 위해서는 體制의 독특한 歷史的 發展을 통해서 형성된 特性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蘇聯體制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蘇聯의 一次資料를 利用함으로써, 또 個人的인 經驗의 뒷받침에 의해서 蘇聯體制的 특수성을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筆者는 또 共產主義體制에 관한 다른 專門家들, 특히 專門家的인 識見과 폭 넓은 眺望(perspective)을 훌륭히 綜合하고 있는 學者들의 卓見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作業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원용되고 있는 構造, 機能的인 說明 또는 政治文化論이나 體系理論의 主要한 用語들을 定義해 보아야 하며 둘째로 우리는 스탈린以後의 蘇聯體制를 現代政治體制的 一部類로 다루는데 있어서 全體主義概念이 어느정도 有用性을 갖는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以前 帝政러시아와 蘇聯(전자와는 매우 다르지만 역시 歷史的으로 連結되고 있는 政治的 後繼體制라고 할 수 있는)間的 복합적이고 矛盾된 諸關係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 理論的인 틀의 構成

政治文化는 蘇聯政治를 分析하는 理論的인 틀의 가장 基本的인 要因이 되고 있다. 버마(Sidney Verba)의 말과 같이 政治文化는 「政治體制的 性格에 관한 基本的인 信念」을 가르키는 것이다. 알몬드와 포웰은 政治文化를 「態度, 信念, 價值 및 技術」로 이루어지는 「政治體制的 心理學的 次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²⁾ 政治文化를 構成하는 期待, 態度 및 價值를 해석하고 受容하는 것은 (그 強度(intensity)나 密度(Coherence)에 있어서) 全社會 構成員들간에, 특히 多樣的인 人種的, 宗教的, 職業的 下位文化

(subculture)를 갖는 社会成員들간에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³⁾
 蘇聯과 같이 急激한 社会的, 政治的 變化를 경험한 國家에서는 長期間
 동안 革命的인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들(이들 중에서 새로운 政治엘리트가
 充員된다)과 傳統을 고수하고 그들의 後孫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도록
 主張하는 사람들(특히 年老한 層)간에 이데올로기의, 政治的, 또는 文化
 的인 균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察은 특히 두
 렷한 職業이나 人種 또는 宗教的 部類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支配者들은 그러한 部類의 사람들이 是 信念이나 價
 值가 「革命」의 內容이 되는 經濟的, 文化的 또는 政治的인 變革을 實
 現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革命的인 政治文化를 신속하고 効果的으로 培養하려고 努力함에 있어서
 새로운 엘리트는 國內外的 反動分子들을 우려하여 매우 多樣한 政治的
 動員化 技術을 利用하는 경향이 있다. 넬(J.P. Nettle)은 그와같은
 政治的 動員化가 여러가지 多樣한 形態로 나타나며 近代的인 政治秩序가
 갖는 特有的인 것이라고 보았다.⁴⁾ 그러나 動員化는 특히 共產國家와 몇몇
 新生國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상 大度的이며 高度로
 中央集權化되고 調整된 形態를 띠고 있다. 특히 새로운 엘리트의 主要
 人物들간에는 支配者의 內密文化(esoteric culture)가 형성되며 그러한
 文化속에는 라이트(Nathan Leites)의 用語를 빌리자면 「行動準則」
 (operational code)과 같은것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⁵⁾

존슨(Charlmers Johnson)도 人類學者 왈라스(Anthony Wallace)의 用
 語를 援用하여 어떤 社会的 革命的인 결과로 초래된 政治秩序속에서는 새
 로운 엘리트가 一定한 「目標文化」(goal culture)에 찬성하며 가능한
 한 그리고 必要的인 어떠한 手段을 써서든지 그것을 確固히하고 補完하러
 고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와같은 手段은 특히 革命的인 體制強化段階
 初期에 있어서 매우 強壯의이고 操作的인 形態를 보여주는 것 같다.⁶⁾

그러나 일단 革命엘리트에 의해서 賦課된 革新的인 文化패턴은 점점
 새로운 制度로 正統化된다. 蘇聯에서 이와같은 현상이 야기돼 왔다는
 사실은 蘇聯의 出版物들이 「革命傳統」이라는 表現을 자주 使用하고 있

다는 사실에 의해서 시사되고 있다. 사실 오늘날 蘇聯의 政治文化는 가장 保守的이고 安定된 것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安定性이라는 것은 不安한 技術的, 知的 또는 情緒的인 變化期의 安定이 모두 그렇듯이 진정한 安定이라기보다는 表面上으로 보기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有名한 社會科學者는 「오늘날 相互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 世界에 있어서 完全合意의 外樣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는 鐵의 帳幕이나 竹의 장막이 필요하다」⁷⁾는 재미있는 表現을 하고 있다.

1960年代初부터 蘇聯의 正統的이고 支配的인 政治文化는 점점 反體制 知識人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왔다. 蘇聯에서 나타나고 있는 「反文化」(Counter-culture) 現象은 결코 同質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대부분이 확고하게 組織化된 것도 아니지만 비교적 世界同胞主義的인 (cosmopolitan) 觀點을 갖는 部類의 사람들이나 外國의 準拠集團(reference group)과 비교적 밀접한 關係를 갖는 部類의 사람들로부터 야기되는 것 같다. 科學者, 作家, 藝術家 또는 유대인이나 우크라이나인, 에스토니아인과 같은 非러시아系 人種集團의 사람들 특히 그중에도 젊은층이 反體制的인 下位文化를 形成하고 있다. 蘇聯의 體制批判者(dissenter)들은 世界的인 知的 潮流에 접촉해 있다. 蘇聯의 既存 信念體系나 政策에 대한 그들의 많은 批判속에는 蘇聯體制는 그가 성취한 科學的, 經濟的 成果에도 불구하고 社會에 대한 부담이 돼왔다는 信念이 깔려있다.

蘇聯의 支配的인 政治文化는 支配엘리트가 누리고 있는 政治的 独占(political monopoly)을 運營하는 일련의 原則들을 대변하거나 또는 그러한 政治的 独占을 合理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支配的인 政治文化의 옹호자들은 教育이나 커뮤니케이션體制를 統制하고 있으며 그러한 政治文化를 보편적인 眞理나 知識의 창고라고 表現할 것을 고집한다.

그들은 政治的인 選擇에 대해서 부케난(James M. Buchanan)이 個人主義的 接近方法과는 對照的인 것으로 特徵化하고 있는 「眞理判斷」(truth judgement)的인 接近方法을 取하고 있다. 부케난은 「그와같은 接近方法은 보다 더 能率的인 方法으로, 正確히 選擇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專門家」나 官僚들에게 決定을 맡기는 것이 最善이라는 主張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⁸⁾

政治文化라는 概念은 政治体制의 기초가 되고 있는 心理的 動態를 가리키는 것이다. 構造(structure)라는 概念은 알론드와 포셀이 지적하고 있듯이 「政治体制을 構成하고 있는 注目되는 諸活動」 즉 「서로 組織的으로 연관해 있는」⁹⁾ 役割裝置, 예컨대 指導者와 官吏의 役割裝置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構造의 根源이나 特徵, 그리고 그 作動이나 目的은 그것이 수행하는 機能과 따로 떼어 놓고서는 理解할 수 없는 것이기때문에 우리는 機能(function)이라는 것을 또 定義해야 한다.

機能이라는 것은 社會學者들이나 自然科學者들 또는 科學哲學者들이 매우 다른 견해를 제시해온 複合的인 개념이다. 알론드와 포셀이 파슨스(T.Parsons)와 같은 社會學者들에 의해서 개발된 機能에 관한 解析을 政治分析에 적용한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政治体制가 機能하는 세가지 기준, 즉 能力(capability), 轉位過程(conversion process), 그리고 体制維持와 適応(system maintenance and adaptation)을 확인하고 있다. 能力 또는 遂行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 体制는 對內外的인 決定이나 政策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혹은 보다 덜 規則的이라든지 強制的이라든지, 分配的이라든지, 對應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轉位機能은 政治的인 投入을 產出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利益表明(interest articulation) 또는 要求 形成(demand formation)의 방식

② 構造的인 매카니즘이나 文化的 規範속에서 行動의 方向으로 즉 이스톤(David Easton)의 용어를 빌린다면 「價値의 權威의 配分」(authoritative allocations of value)으로 유도하는 利益 集合(interest aggregation), 또는 要求의 配合과 變形

③ 法令制定(rule making)

④ 法令適用(rule application)

⑤ 法令判決(rule adjudication)

⑥ 政治的 커뮤니케이션

이중 法令制定, 法令適用 및 法令判決機能은 傳統的인 政治學의 用語로 표현되는 立法, 行政, 司法의 範疇에 對應하는 것이다. 그러나 機能의인 概念들은 傳統的인 用語나 概念과는 대조적으로 特定制度(細部에 있어서)는 매우 다를수도 있다. 보다는 기본적인 諸過程에 유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機能의인 用語는 比較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¹⁰⁾

셋째로 들 수 있는 政治體制의 機能은 體制의 維持와 適應이다. 이와같은 機能들은 政治社會化나 政治的 充員에 의해서 수행되며 또 이러한 政治社會化나 充員을 통해서 政治體(polity)의 成員들은 政治文化에 의해 規定되는 知識, 態度 또는 技術을 習得하고, 適切한 政治的 役割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¹¹⁾

蘇聯과 같은 體制에 있어서의 政治社會化는 묵시적이라기 보다는 明示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蘇聯과 같은 體制에 있어서의 政治學習은 특별히 訓練되고 또 政權當局에 의해서 認可된 사람들의 指示에 따라 行해지는 過度하게 그리고 高度로 組織化된 活動인 것이다. 英國이나 美國과 같은 體制에서는 「政治體制內的 類似한 役割이나 對象에 대한 態度에 영향을 주는 非政治的인 態度」가 共產主義體制에서 보다는 더 큰 역할 수행한다. 共產主義體制에서는 그 過程이 直接的이고 明白히 規定되고 있는데 反해서 英國이나 美國과 같은 體制에서는 그것이 보다 間接적이고 산만하며, 우연적이다.¹²⁾

發展途上의 政治體制(蘇聯型的 體制, 특히 政治主導下의 工業化를 完成하기 以前의 蘇聯體制은 이 潮流로 볼 수 있다)에서는 과거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社會化 또는 再社會化(resocialization)가 부분적으로 大衆의인 參與나 動員化와 같은 手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蘇聯에서는 사실상 權力獨占을 누리고 있는 政治指導者들이 勞動節, 革命記念日行使와 같은 祝祭나 儀式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現代的인 電子通信手段을 利用함으로써 全國的인 범위의 政治的 景觀(political spectacle)을 形成할 수 있으며 學校나 新聞과 같은 다른 社會化 또는 動員化 機構의 影響을 크게 강화, 심화해준다.

· 이상에서 말及된 諸機能은 相異한 政治體制, 相異한 發展段階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수행된다. 많은 學者들은 蘇聯體制와 다른 體制 특히 西歐 民主體制에 의해서 遂行되는 機能의 多樣性을 강조하면서 알몬드의 모델에 관해서 建設的인 批判을 加해왔다. 릭비(T. Harry Rigby)는 알몬드의 接近方法을 철저히 채택하고 있다.

비록 릭비가 批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보다는 體制의 能力이나 發展과 같은 問題에 비교적 관심을 덜 두었던 알몬드의 初期 模型(paradigm)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批判은 體制의 能力이나 發展의 問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以後의 模型에도 타당한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러한 模型을 蘇聯型的 體制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릭비는 대부분의 蘇聯研究家들 처럼 蘇聯에서는 政治權力이 지극히 集中化되었고 그 行使가 광범위하며 또 動態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蘇聯과 같은 體制에서는 社會化나 充員이 알몬드가 열거한 機能以外에도 秩序(國內外的인) 維持機能, 正當化(legitimation)나 一體化(identification)機能 또는 法令이나 政策의 適用機能등의 遂行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릭비는 政治的 動員化는 물론 政治的인 先導(Political initiation), 權力的 具現(realization), 權力的 確保(appropriation)나 展開(deployment)를 포함한 일련의 變革 또는 適應의 機能을 確認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蘇聯 政治體의 動態的, 發展의 性格을 강조한다.¹³⁾

샬리트(Robert S. Sharlet)는 參與(Participation)의 概念을 再定義함으로써 利益表明(interest articulation)(個人이나 集團에 의해서가 아니라 黨에 의해서 主導되는)이나 社會化, 動員化 또는 政治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機能들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실상 그는 共產主義政治體制內에서의 參與라는 것을 經濟的, 政治的 發展段階의 主要한 從屬要素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發展의 諸段階를 工業化以前段階, 工業化段階, 工業化以後段階로 区分하고 있다.

샬리트에 의하면 「이러한 變化의 문제는 再構成된 社會, 經濟的 環境속에

서 個人의 社会的 責任이 擴大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參與의 궁극적인 목표는 「民主的인 體制에서와 같이 自律的인 個人이 아니라」 새로이 登場하고 있는 共產主義社會의 政治的, 社会的 規範을 內面化하는 「새로운 人間型」을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⁴⁾

이와같은 릭비나 샬리트의 觀點은 알몬드와 포우웰에 의해서 開發된 接近方法을 창조적으로 蘇聯에 적용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機能的 接近方法은 융통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에는 分別力이 있어야 한다. 機能的인 接近方法은 모든 關係된 行為의 全般的 調和의 本質的인 樣態에 주목하며 總체적인 패턴을 구성하는 個別的인 諸行為들은 그러한 總체적인 패턴의 存続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機能的일 수도 있고 逆機能的일 수도 있다. 그러나 諸機能的 遂行은 歷史的인 環境에 따라 매우 多樣하며 광범위하다. 그리고 물론 諸機能은 서로 聯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機能遂行의 變化는 다른 機能的 遂行方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規制能力的 감소와 같은 能力的 變化는 論理上으로 利益表明機能的 遂行에 變化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蘇聯體制에 있어서 이와같은 規制能力的 變化는 스탈린의 死亡以後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스탈린以後 蘇聯에 있어서 이와같은 規制機能的 變化는 以前까지 抑壓돼왔던 諸要求의 制限된 表明을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스탈린時代의 警察이나 保安機構에 의해서 利用되었던 法令適用方式을 덜 機能的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까지 政治體制에 대한 機能的 分析의 몇가지 側面을 論議해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諸政體의 主要한 行為들을 分類하고 說明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 政治體制의 기본적인 概念을 간단히 定義해 보아야 한다. 알몬드와 포우웰이 지적한 바와 같이 政治體制에 관한 定義의 政治的인 側面은 「正當한 物理的 強制力의 使用 또는 使用威脅에 영향을 주는 모든 相互作用」과 관계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統治制度나 最高位의 指導者, 또는 政府機關內에서나 政府機關을 통해서 活動하는 共產黨의 指導的인 幹部가 포함된다. 사실 政治體制의 概念속에는 「政治的인 側面을 갖는 모든 構造」¹⁵⁾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政治적인 것인가에 관한 어떤 승인이 존재한다고 할 때 政治体制에 대한 적절한 定義는 없을까? 이스톤(David Easton)에 따르면다면 그와같은 質問에 대한 解答의 추구는 「政治体制가 자신을 維持하기 위한 管理手段으로 利用하는 典型的인 対応方式과 아울러 政治体制의 生活過程(life processes) (이것은 体制의 存続을 위해서는 不可欠한 本質的인 機能이다)을 해명해 줄것」이다.¹⁶⁾ 이스톤은 부연하여 「政治体制란 그를 통해서 諸價值가 權威적으로 社會에 配分되는 相互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스톤에 따르면 「政治生活의 基本的인 變數는 諸價値의 配分과 權威體(authorities)에 의해서 이루어질 配分에 대한 服從의 相對的인 頻度이다」 이와같은 이스톤의 分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인들은 要求와 支持의 投入(inputs), 政策의 算出(Outputs), 補還(feedback) 또는 過去의 政策產出로 벗어진 結果에 대한 情報(이러한 情報을 利用함으로써 장차의 適的인 產出이 이루어질수 있다) 등이다.

이스톤은 다른 最近의 理論家들처럼 政治体制은 國內的(또는 社會內的인) 環境과 國際的(또는 社會外的인) 環境으로부터 유래하는 諸壓迫이나 壓力의 影響을 받으며 또 그에 対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革命的인 政黨 또는 政權의 指導者들, 특히 마르크스, 레닌主義政黨이나 政權의 指導者들은 대부분 國際的인 環境속에서 帝國主義勢力의 作用이 体制의 強化나 變容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強박한 認識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即時에 全世界를 통할 수 있는 電子通信時代에는 모든 政治体制들이 軍事的인 安保나 이데올로기의 影響과 관련된 外的인 環境과의 相互作用이라는 미증유의 複雜한 問題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體系理論에서 使用하고 있는 또하나의 重要한 用語인 下位體系(subsystem)에 관해서 보다 確實한 定義를 俵두어야 한다. 下位體系라는 것은 社會體系를 構成하는 部分이다. 下位體系들은 各自의 종속돼있는 보다 「上位의」體系가 갖는 目標나 價値와 關係된 調節을 수행한다. 파슨스(Talcott Parsons)學派의 接近方法에 따르면 政治的인

下位体系는 「目標成就」(goal attainment) 機能을 수행하며 經濟的인 下位体系는 「適應」(adaptation) 機能을 수행한다.¹⁷⁾ 諸下位体系가 상대적으로 高度하게 分化, 專門化되어 그들의 機能役割이 쉽게 다른 生活分野와 交替될 수 없는 특수한 訓練, 特殊한 立場이나 態度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러한 下位体系는 自動的 (autonomous)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美國에서는 政治的인 下位体系나 經濟的인 下位体系가 상대적으로 自動性이 있다면 蘇聯에서와 같이 專門化나 分化가 더약한 경우는 下位体系가 상대적으로 自動性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엄격히 區別하기는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나 蘇聯에서 下位体系의 自動性이 貧弱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蘇聯共産黨은 政治黨員을 전략적으로 모든 機關이나 組織을 命合할 수 있는 要職에 배치함으로써 政治, 經濟, 文化 등 모든 生活를 支配하고 있다. 더우기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共産黨内에서는 最下位水準에서도 公式的인 自動性은 물론 非公式的인 自動性마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共産黨과 社會内の 다른 組織, 예컨대 政府와의 關係에서도 그와같은 自動性의 결여는 마찬가지이다.¹⁸⁾

政治文化라는 概念은 語意上, 다소간의 難點이 있긴 하지만 政治体系 概念과 더불어 상당한 長點을 가지고 있다.

政治文化나 政治体系와 같은 概念範疇들은 比較分析의 道具가 되기 때문에 政治体系들을 相互 關聯시 키는 것 뿐만 아니라 特定 政治秩序의 特殊한 屬性에 대한 認識도 가능하게 해준다. 政治文化의 概念은 歷史學 또는 人類學의 洞察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政治文化의 概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政治社會의 現在狀況을 過去の 經驗의 產物(그러나 이것은 動態的이며 進化하는 것이다)로 인식하게 해준다. 政治文化가 일종의 縱的인 (diachronic) 또는 發展的인 (developmental) 概念이라면 政治体系는 同時的 (synchronic) 또는 橫斷的 (Crossectional)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에게 政治現實 (here and now of politics) 에 관한 주요한 定向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 分析的 道具의 配合은 우리가 政治体系를 相互 依存的인 諸要因들의 지속적인 패턴으로 보도록 고무해준다. 政治体系는 生存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없는 環境의 壓力이나 그로부터

기인하는 緊張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蘇聯型的 體制에서는 政治體가 變으로 環境에 대해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

政治文化的 接近方法, 構造, 機能的 接近方法 또는 體系的 接近方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蘇聯에서 반세기 이상이나 黨·國家的 支配가 유지돼왔다는 사실과 또 그러한 蘇聯의 將來에 대한 展望에 관해서 積절한 問題意識을 갖게하는데 도움이 된다. 政治文化的 持續성과 變化에 관한 問題는 러시아의인 마르크스主義를 形成하고 그것을 蘇聯에 適用하게 기여했던 帝政러시아時代 專制政治의 重要한 諸側面으로 우리의 注意를 끌고 갈 것이다.

體系的 概念은 政治體의 持續能力和 變化能力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體系라는 것은 內·外的인 壓力에 성공적으로 對抗함으로써, 또는 體系的 環境으로 부터 由來하는 諸壓力이나 緊張에 대응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반드시 體系的 基本的인 構造나 實際를 포기하거나 제거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떤 變更을 加함으로써 持續한다기 보다는 꾸준히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體系는 고유한 속성(identity and distinctiveness) 즉 過去와 未來를 一貫하는 特殊한 패턴을 갖는 것이다.

어떤 體系的 部分들이나 機能들간에는 相互依存性이 있다는 관념을 政治에 適用해 볼 때 그것은 蘇聯 政治體系, 특히 最高指導層內에서의 共産黨의 機能變化가 어떻게 政治리더쉽의 充員, 政府의 行政活動, 文化政策, 對外關係 등과같은 體系的 諸側面に 影響을 미쳐왔으며 또 그와같은 體系的 諸側面に 의해서 共産黨의 役割이 어떻게 影響을 받아왔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III. 蘇聯體制的 類型化

몇년전까지만해도 대부분의 歐美政治學者들은 蘇聯型的 體制를 支配하여 全體主義라는 用語를 使用하였다. 全體主義라는 말은 아직도 政治人이나

言論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用語나 概念은 蘇聯의 政治, 특히 스탈린以後時代의 蘇聯政治에 관한 思考를 해명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혼란시키고 있다. 全体主義라는 말은 대충 單一政黨에 의한 社會의 支配, 극단적인 強制와 테러, 또는 西歐民主主義에서 市民들의 個人的이고 私的인 문제로 간주되는 일들을 政府가 간섭하는 것 등을 意味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 用語는 흔히 戒물과 같이 생긴 악마의 同意語와도 같이 감정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프리드리히 (Carl J. Friedrich) 와 브레킨스키 (Zbigniew K. Brzezinski) 는 1956年 全体主義政治를 묘사하는 아주 완벽하고 포괄적인 公式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全体主義體制는 다음과 같은 6가지 特徵을 갖는다.

① 社會內的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수동적으로나마 따라야 하는 人間存在의, 모든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原理로 이루어진 어떤 公式의인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人類의 어떤 完全하고도 窮極의인 狀態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社會에 대한 否定과 새로운 社會建設을 위한 세계정복을 골자로 하는 未來期約의인 (Chiliastic) 主張을 포함하고 있다.

② 典型的으로 獨裁者 1人에 의해서 指導되고, 全体人口中 比較的 적은 比率의 사람들 (10% 以內)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광적으로 그리고 의문의 여지없이 이데올로기에 헌신하는 그리고 모든 手段方法을 통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일반적으로 수락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單一政黨이 존재한다. 이러한 政黨은 階序的, 과두적으로 조직돼 있으며 官僚的인 政府組織에 대하여 우월한 位置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얽혀있다.

③ 黨 指導者를 위하여 黨을 지원 (또는 감독)하고 길으로 들어난 政權의 敵對者들 뿐만 아니라 住民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階級에 대해서까지 탄압을 가하는 테러적인 警察統制體制가 존재한다. 秘密警察은 現代科學이나 科學的인 心理學을 體系의으로 利用한다.

④ 黨 또는 黨에 봉사하는 幹部의 手中에 効果的인 모든 大衆傳達手段에 대한 統制權이 技術的으로 거의 완전히 獨占돼 있다.

③ 모든 効果의인 武裝鬭爭手段에 대한 統制權이 기술적으로 거의 完全하게 独占돼있다.

④ 대부분의 結社나 集團活動을 포함한 以前의 獨立의인 團體들에 대해서 官儀的 調整을 행사함으로써 經濟에 대한 中央의 統制와 指示가 이루어진다.¹⁹⁾

全体主義라는 용어와 관련된 諸概念이나 分析들은 스탈린以後의 蘇聯이나 東歐共產主義體制, 특히 유고를 理解하는데 그렇게 유용한 것이 못된다. 全体主義모델(엄격한 意味에서는 모델이라고 할 수도 없다)은 強制的 役割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全体主義를 확인해주는 特徵들간의 關係를 뚜렷히 구명해 주지 못하며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共產主義體制的 能力 또는 機能遂行에 있어서의 중요한 變化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全体主義모델의 非適切性이 方法論的인 欠点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흥미있는 과제이다. 全体主義모델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經驗的인 資料로 검증하는 노력과 分析目的上 定義的인 영역과 經驗的인 영역을 區別하려는 노력이 不充分하였으며, 또, 公式를 수립하는데 使用한 用語의 意味內容(implication)이나 西歐學者들이 히틀러나 스탈린에 의해서 자행된 테러에 대해서 갖는 道德的인 反挽心을 体系的으로 熟考하는 노력이 결여돼있었던 것이다.²⁰⁾

점점 全体主義라는 것은 어떤 類型的인 政治體制를 모사하기 보다는 한 獨裁者가 緊急措置가 없는 解體의 危機에 처하게 될 社會를 統合하고 動員化하는 어떤 歷史的인 狀況(historical situation)을 설명하는 말이 되고있다. 우리가 레닌主義에서도 시사되었지만 스탈린을 통해서 충분히 發展된 蘇聯의 諸實踐과 觀點들을 全体主義라고 본다면 오늘날의 蘇聯은 아직도 全体主義的인 支配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全体主義의 다이내미즘이나 硬直性은 상당한 정도로 通常的인 慣習이나 儀式과 같은 日常事(business)로 代置돼 왔다.

學者들간에는 조만간 全体主義의 一般的인 概念속에 반영되고 있는 共產

主義體制에 關해서 意見의 一致를 볼 것 같지 않다. 아마 당분간 우리는 共產主義體制的 여러가지 다른 側面에 대해서 각각 다른 用語를 선택 적용하는 어떤 절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蘇聯 또는 다른 共產政權의 政治文化는 高度로 이데올로기적이고, 選良主義的(elitist)이며, 服從-參與的(subject-participatory)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달(Robert A. Dahl)이 제의한 두가지 次元, 即 政治的 反對 또는 競爭에 해당되는 公共의 爭議(public contestation)와 政治的 決定作成에의 參與와 같은 것에 대한 接近度(access) 또는 포용성(inclusiveness)을 기준으로 蘇聯體制와 다른 政治體制를 比較하고 싶다면 우리는 蘇聯體制를 포용적인 支配體制(inclusive hegemony) 말을 바꾸면 公開적이고 合法的인 反對는 거의 存在하지 않으나 共產黨의 감독을 받는 광범위한 參與가 政治指導者들에 의해서 主導되고 있는 政體(polity)로서 범주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²¹⁾

만약 우리가 기존의 비교적 安定的인 制度的 現實을 설명하는 用語를 찾한다면 아마 릭비의 國家-黨體制(State-Party System)라는 개념이 가장 좋을 것이다. 릭비는 國家-黨體制를 「어떤 中央集權化되고 가장 먼저 自發的 組織(黨)이 政治權力을 独占하고 黨官僚體制를 國家官僚體制的 階位에 두면서 社會內的 모든 機構나 結社를 黨리더십이 決定한 目的的達成을 위해서 展開시키려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²²⁾ 또 다른 學者들은 蘇聯型的 體制를 설명하기 위해서 反對가 없는(oppositionless) 體制, 唯一的인(monist) 體制, 獨裁的인(monocratic) 體制라는 用語를 제의해왔으며 이것들도 그런대로 長點을 가지고 있다.²³⁾

IV . 歷史的 脈絡

時間과 空間의 規則性, 過去와 現在의 連續性, 因果關係와 같은 것은 歷史的인 研究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간단

하거나 帝政러시아의 政治体制와 蘇聯体制間的 交叉点이나 類似点, 差異點들에 관해서 설명해야 한다.²⁴⁾ 우리는 歷史的 必然性이라는 決定論의 敎訓을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數世紀에 걸친 帝政러시아의 政治的 經驗과 약 半世紀間 계속된 共產主義支配間的 關係를 公正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帝政러시아의 發展經驗과 중요한 政治的 選擇은 旧러시아의 支配者나 臣下들은 물론 1917年 10月革命을 통하여 權力을 잡게 된 레닌이나 스탈린과 같은 革命家들의 世界觀이나 精神的 倫理 (ethos)에 가지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지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政治指導者들과 그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한 사람들은 그들의 政治的 비론을 恒久化하기 위해서 광대한 權力을 利用한다. 만약 우리가 政治的 發展의 途程을 数学的 確率理論을 설명하기 위해서 使用하는 막대그림표에 비유한다면 革命以前時代의 支配的인 權威主義의 行態 때문에 政治的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한 蘇聯의 代案들이 絶對主義的이고 專制的인 偏向을 갖게되는 확률은 더욱 커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틀속에서 보면 旧專制政治를 斷罪한 레닌도 1918年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살해된 最後의 正統的인 러시아 절대주의의 대변자 니콜라스 2세 (Nicholas II) 만큼이나 充實한 러시아의인 絶對主義의 産兒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피로의 말대로 레닌은 「스탈린을 낳았다」 립비는 러시아 (帝政러시아와 蘇聯을 통털어서)의 政治發展을 西歐와 비교하면서 北西歐와 北美에서는 主要한 社会的 調整方式 (mode of social coordination)이었던 慣習과 伝統이 契約 (Contract)으로 代置되는 경향이었는데 반해 東歐에서는 命令 (Command)에 대한 의존성이 契約的 또는 市場的 社会, 政治体制와는 다른 일종의 組織的인 体制의 發展을 유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²⁵⁾

西歐의 自由로운 學問的 伝統이나 마르크스主義의 學問的 傳統을 막론하고 市場經濟나 資本主義, 또는 政治的 多元主義, 市民的 自由 등과 같은 民主主義의 諸特徵은 中産階級 또는 브르조아지의 政治的, 知的, 文化的 優越성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帝政러시아에서는 이와같은 브르조아라는 社会階層이나 그러한 계층의 精神的 倫理

(ethos)가 거의 미개발된 상태에 있었다. 세튼·와손(Hugh Seton Watson)은 帝政러시아 末期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에 대하여 西歐의인 概念範疇를 적용하여 브르조아지, 또는 하나의 순수한 中産階級을 운위한다는 것은 아직 非現實的인 얘기였다. 러시아의 官吏나 商人, 또는 인텔리겐차는 공동된 精神的 倫理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 러시아의 資本家들은 歐洲 또는 北美 資本家들의 思考方式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政治的 權利에 관해서는 無關心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텔리겐차는 歐洲의 브르조아지가 갖는 諸價值에 대해서 反抗, 拒否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대부분 그들은 …… 專制政治의 原理 그 자체는 단호히 反對하고 있다고 自信하고 있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反對하고 있었던 것은 專制政治 그 자체라기 보다는 기존 社會體制에 봉사하는 專制政治였던 것이다.²⁶⁾

1945년에 西方으로 亡命한 한 思慮깊은 러시아宗敎史家의 先覺的인 觀察속에서도 세튼·와손과 비슷한 판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過去는 지나친 桀驁論을 不許하는 것 같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歐洲에서 가장 專制的인 君主國家였다. 그의 비교적 短命했던 立憲政權은 불과 17년간 지속했을 뿐이며, 그의 民主主義는 具體的으로 實現됐다기 보다는 단순한 原理의 憧憬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생명을 유지한 것은 단 6개월뿐이었다. 人民들은 그들의 意志와는 反對로 또 얼마간 鬪爭도 해보았지만 결국 帝政으로 부터 벗어나자마자 또 하나의 새로운 暴政에 굴복하고 말았다. 帝政러시아는 새로운 學問과 비교하면 自由의 化身처럼 생각될 정도이다.²⁷⁾

이와같이 帝政러시아나 蘇聯의 政治文化가 다같이 多분히 絕對主義, 敎條主義, 操作性(manipulativeness)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또 그 만큼 情報, 研究, 表現의 自由, 또는 어느정도의 政治的 自由에 대한 열망이 항상 존재해왔다. 帝政러시아는 宗敎裁判所의 判官이며,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와 니콜라스 2세(Nicholas II)의 정치고문이었던 포베도노체프(Konstantin Pobedonostsev)와 같은 正敎의 代表的인 敎條

主義者뿐 아니라 레닌과 같은 急進의인 非妥協主義者도 만들어냈던 것이다. 帝政러시아時代에는 또 歷史家이며 政治家였던 밀리우코프 (Paul Milyukov) 와 같이 탁월한 自由立憲主義者도 있었다. 브레즈네프와 코시킨時代의 蘇聯에는 포베도노체프보다도 더 잔악무도한 문화적 감시자들이 많았지만 또 한편 作家 솔제니친 (Alexander Solzhenitsyn)이나 核物理學者 사하로프 (Andrei Sakharov) 와 같은 自由의 勇士도 있다. 帝政러시아時代나 蘇聯時代를 막론하고 正統性 (Orthodoxy) 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統制社會라는 아주 不利한 條件下에서는 통상 억압되고 無力化된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라고는 하지만) 西歐의인 「브르조아」의 영향에 감염되기 쉬운 個人主義, 懷疑主義, 經驗的 合理主義 世界同胞主義와 같은 非正統的인 思潮에 대항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더 좋은 環境에 처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帝政러시아와 蘇聯의 政治文化가 보여주는 類似性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된다. 특히 1894년 강력한 反動君主였던 알렉산더 3세 (Alexander III) 가 사망한 이후 帝政러시아는 점점 심화되는 一體感의 危機 (identity crisis) 로 고민하였다. 蘇聯도 지금 그와같은 一體感의 危機를 겪고 있다고 본다면 비교적 初期段階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帝政時代의 絶對主義는 그 遂行能力보다는 虚飾에 있어서 蘇聯 共產主義의 메시아니즘의인 性格과 類似하였다. 帝政러시아의 많은 政治 엘리트나 인텔리겐차는 西歐의인 文化나 政治모델을 찬양하면서도 한때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쇠퇴한 正教나 專制政治 또는 民族主義와 같은 것에 여전히 집착하는 등 精神分裂症의인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帝政末期 많은 러시아知識인들이 民族的 증거의 결핍으로 괴로워했던 상황은 마치 오늘날 低開發國家들의 知識人들, 또는 어느정도 까지는 西方의 先進工業社會 知識人들도 겪고 있는 고민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帝政러시아時代와는 대조적으로 蘇聯의 政治엘리트는 비교적 自信感에 차 있으며 눈에 띄게 獨善的이다.²⁸⁾

더우기 蘇聯체제의 能力은 帝政러시아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스탈린의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發展計劃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動員된 人民들에게 加功할 희생을 강요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상당한 分配能力(distributive capability)을 갖게 하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能力을 기반으로 한 지난 10~15년간의 生活水準 向上이 蘇聯國民들간에 體制에 대한 支持를 증대시켜주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⁹⁾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體制에 대한 支持의 增大를 가능하게 해준(적어도 物質的으로 나라) 蘇聯의 經濟的, 技術的 革命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帝政러시아가 많은 政治的, 社會的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經濟的 發展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카르포비치(Michael Kar-povich)와 같은 亡命한 러시아人學者들에 의해서 강조됐으며 브레즈네키에 의해서 특히 강조되었다.³⁰⁾ 확실히 蘇聯이 帝政러시아보다 월등했던 것은 보다 많은 財貨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能力의 增大라는 점에서 보다는 효율적인 社會化나 動員 또는 強制的 프로그램에 입각한 規制能力(regulative capacity)이라는 측면에서 인 것이다.

帝政러시아의 政治文化나 行憲과 蘇聯의 그것간에 존재하는 많은 相異點들 중에서 특히 흥미있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蘇聯市民과 外國人(外國의 共產主義者도 포함하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蘇聯 또는 外國의 共產黨指導者들이나 官吏들간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극도의 行政的 統制를 받고 있다. 蘇聯이 外部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檢閲과 감시를 강화하며 소위 帝國主義者들의 反蘇宣傳으로 야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戰爭을 계속 비난하는 것은 國民들의 國內外여행을 통하여 外國의 思潮와 生活方式에 接近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했던 帝政러시아時代의 事實과는 鮮명한 對照를 이루는 것이다.

蘇聯體制는 50여년에 걸친 生存과 強化 또는 發展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그의 業績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방면에서 러시아의인 또는 비잔틴의인 過去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그의 強력에 대해서 간단히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르시초프以後의 官僚化되고 儀式化된 과두체계가 보다 人道的이고 多元的인 體制로 變容 또는

조속히 質質하리라는 기대나 심지어 社會主義의 技術主義化와 같은 관점은 非現實的이다. 오히려 蘇聯內의 反體制知識人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나 체코의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實驗을 軍事力으로 저지한 후르시초프以後의 諸般措置는 그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蘇聯과 西方間의 팽팽한 國際的 영향력 경쟁이 조속히 完化되리라는 전망은 蘇聯의 自由化에 대한 전망보다도 더욱 어려운 얘기인것 같다.

蘇聯과 西方間에 單純한 戰術的 平和共存이 아닌 建設的인 協力關係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수십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蘇聯體制은 環境的인 壓力에 편리하게 적응하면서 그 本質的인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適應은 근본적인 變化로 유도될 지도 모른다. 불셰비키의 世界觀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個人的인 경험의 상처를 입은 世代가 사라짐에 따라 그리고 특히 社會가 점점 複雜化됨에 따라 레닌主義는 점점 不適合한 綱領이 될 것이다. 오늘날 蘇聯國民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帝政러시아나 스탈린時代의 기억이 무겁게 자리잡고 있긴 하지만 스탈린死亡以來 對內外的인 긴장이 부분적으로나마 完化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면에서는 보다 改善된 蘇聯의 將來를 展望할 수 있게 한다.

<註>

①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1966). 이밖에도 蘇聯 政治分析을 위해서는 政治行為分析에 사이버네틱스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도이취(Karl W. Deutsch)나 이스톤(David Easton)의 政治体系分析方法 특히 이스톤著,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1965)의 分析方法을 援用할 수 있다. 라스웰(Harold D. Lasswell)이나 달(Robert A. Dahl)의 著書에서 찾아볼 수 있는 洞察力도 역시 참고가 된다. 또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1963); Barrington Moore, Jr., *Terror and Progress* (Cambridge, Mass., 1954); Zbigniew K.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USSR* (New York, 1964) 등과 같은 主要한 소비에톨로지의인 研究들을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Lucian W. Pye and Sydney Verba,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1965), p. 518.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 23 參照. 그리고 政治文化의 意識的, 感情的, 評議的인 次元과 傳統主義나 편협주의로 부터 分化, 特化, 보편주의로 誘導되는 文化的 世俗化를 통한 政治文化의 發展代案에 관한 論議는 同書 pp. 50 ~ 63 參照.

③ Easton, *Systems Analysis*, 11, 12, 13 章은 政治体制의 세가지 主要한 「目標」 또는 水準, 즉 權力集團(authorities), 「政權」(regime), 및 「政治共同体」(political community)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下位文化라는 用語는 文化라는 用語처럼 人類學에서 빌려온 것이 며, Pye and Verba,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p. 526, 532 ~ 34에서 ৰি바에 의해 使用되고 있다.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 23에서는 下位文化를 「特殊集團에 內在하는 특수한 性向」(special propensities)으로 規定하고 있다.

④ J.P. Nettl, Political Mobilization(New York, 1967), 특히 5.6章.

⑤ Nathan Leites, The Operational Code of the Politburo (New York, 1951). 라이트의 接近方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그의 A Study of Bolshevism(Glencoe, Ill., 1953)을 参照.

⑥ Chalmers Johnson, Revolutionary Change(Boston, 1966), p.84 또 그의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Calif., 1970)을 参照.

⑦ Margaret Mead, Culture and Commitment(New York, 1970), p.60.

⑧ James M. Buchanan, "An Individualistic Theory of Political Process," in David Easton, ed.,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Englewood Cliffs, N.J., 1966), p.35.

⑨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p. 21 ~ 22.

⑩ 以上은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p.14, 28 ~ 30과 Easton, Systems Analysis, pp. 117 ~ 52, 348을 要約. 再構成한 것이다.

⑪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p.24, 47. 社會化에 관한 보다 충분한 論議는 Richard E. Dawson and Kenneth Prewitt, Political Socialization(Boston, 1969) 参照.

⑫ 以上の 論議는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p.65 ~ 66에 기초한 것이다.

⑬ T. Harry Rigby, Communist Party Membership in the U.S.S.R., 1917 ~ 1969(Princeton, N.J., 1968), pp.18 ~ 44. 리비는 알몬드나 포우웰의 三分法과는 달리 蘇聯体制의 7가지 機能을 열거하고 있다.

⑭ Robert S. Sharlet, "Systematic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st Systems" and "Concept Formation i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st Studies: Conceptualiz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Frederic J. Fleron, Jr., ed., *Communist Studies and Social Sciences* (Chicago, 1969), pp. 207 ~ 12. and 244 ~ 53 參照. 또 Sharlet 의 評論,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g Country," *Journal of Developing Areas* 2 (June 1968), pp. 270 ~ 76 參照. 그리고 政治社會化와 蘇聯의 政治的, 經濟的 發展의 特徵이 帶은 強制的인 近代化와의 相互關聯性에 關해서는 Frederick C. Barghoorn, *Soviet Russian Nationalism* (New York, 1956) 및 同著者의 論文, "Prospects for Soviet Political Development: Evolution, Decay, or Revolution," in Kurt London, ed., *The Soviet Union* (Baltimore, 1968), pp. 77 ~ 118. 그리고 Jeremy A. Azrael, *Managerial Power and Soviet politics* (Cambridge, Mass., 1966) 등을 參照.

⑮ Almond and Powell, *Comparative Politics*, p. 10.

⑯ Easton, *Systems Analysis*, p. 17.

⑰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 1951). 參照

⑱ 샬리트는 그의 "Systematic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st Systems"에서 「共產主義 政治體制」가 갖는 「決定的인 특징」의 하나는 共產主義體制가 「自動的인 下位體系를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⑲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1956), p. 9.

브레진스키는 그후 헌팅톤과의 共著 *Political Power: USA/USSR*에서 「全體主義」라는 用語의 使用을 포기하였다.

⑳ 以上の 說明은 부분적으로 Frederic J. Fleron, Jr., "Soviet Area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Soviet Studies*, 19 (January 1968), pp. 313 ~ 339; reprinted in Fleron,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pp. 1 ~ 33 및 Susan McCarthy, *Analyzing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Countries: A Review of Some Theoretical Problems* (未刊論文, Yale University,

January 1971)의 全体主義의 用法에 관한 分析的 研究에 따랐다. 全体主義概念을 擁護하는 사람들은 주로 스탈린治下의 蘇聯과 赫魯雪夫治下의 獨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샤피로(Leonard Shapiro)는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Survey, No.73 (Autumn 1969)에서 獨裁者가 敎理를 解析하는 權威를 갖으며 그에게 「法秩序가 從屬되고」 市民들에게 「不斷한 動員化의 熱狂이 부과되는 것등을 포함하여 다섯가지의 「外形」(contour)을 갖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最高指導者 1人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로웬탈(Richard Rowenthal)은 마이쓰너(Boris Meissner)와의 共編 Sowjetische Innenpolitik,

Triekraefte Und Tendenzen(Stuttgart, 1968)에서 蘇聯에서는 1960年代 後半까지도 全体主義的인 制度가 유지되었으나 蘇聯共產黨은 이제 더 이상 社會를 전반적으로 支配하고 購造할 수 있는 動力을 갖지못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그는 또 기존의 組織 또는 情報에 대한 黨의 独占은 黨指導者가 社會的인 勢力을 形成 또는 創造하기 보다는 점점 그에 対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結果로 부분적으로 침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그의 論文, "The Theory of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Issue of Totalitarianism," in R. Barry Farrell, ed., Political Leadership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Chicago, 1970), pp. 17 ~ 27에서 蘇聯 또는 다른 共產主義 政體의 進化過程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官僚制化(bureaucratization)나 儀式化(ritualization)를 지향하는 그들의 發展은 여전히 全体主義라는 用語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1 Robert A. Dahl, Polyarchy(New Haven, 1971), pp.1 ~ 9
 22 Righy, Communist Party Membership in the U.S.S.R., p.2.
 23 자세한 것은 Ghita Ionescu, The Politics of the European Communist states(London, 1967); George Fischer, The Soviet System and Modern Society(New York, 1969); Frederic J. Fleron, Jr.,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Comparative Politics 1(January 1969), pp.228 ~

44를 各各參照.

24 蘇聯과 帝政러시아와의 閉聯性 또는 繼續性에 관해서는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h.1; Frederic C. Barghoorn, *Soviet Nationalism*(New York, 1956), Ch. 6; Brzezinski and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USSR*, pp. 24 ~ 34; 및 Hugh Seton Watson, *The Russian Empire*(London, 1967) 등을 參照.

25 T. Harry Rigby, "Traditional, Market and Organizational Societies and the U.S.S.R.", *World Politics* 16(July 1964), pp. 539 ~ 57; reprinted in Fléron,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pp.172 ~ 73.

26 Seton Watson, *The Russian Empire*, p.538.

27 G.P. Fedotov, "Russia and Freedom", in Hans Kohn, ed., *The Mind of Modern Russia*(New York, 1962), p.258에서 引用.

28 이와같은 觀察은 Bernard Pares, *Russia and Reform*(London, 1907) 중 특히 2, 5, 17章을 참고할 것. 케난(George F. Kennan)은 그의 *The Marquis de Custine and His Russia in 1839*(Princeton, N.J., 1971)에서 니콜라스 1세時代의 러시아와 스탈린治下의 蘇聯, 또는 브레즈네프와 코시긴時代의 蘇聯間에는 특히 러시아인과 外國人과의 접촉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놀랄정도로 변한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9 蘇聯의 生活水準向上과 最近 蘇聯의 重要動向의 相互關係에 관한 적절한 資料와 說得力있는 觀察로는 Zew Katz, "Some Sources of Stability of the Soviet System"(Cambridge, Mass., 1970, 未刊論文)을 參照.

30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Past and Future", *Encounter*, 34(March 1970), pp. 3 ~ 16 參照.

蘇聯体制의 危機：共產主義와 發展

産業革命과 民族主義革命의 複合的인 結果로 야기되던 社會的 激變狀況의 所産인 맑스主義는 우리 世代의 根本的인 世력을 理解하고 解明하는데 있어서 獨특한 知的 道具를 提供했다. 맑스主義는 人類歷史上 특히 비참했던 時代의 産物인 동시에 또 그러한 時代에 對한 對應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世界의 現實에 對한 가장 훌륭한 洞察을 보여 주었다. 즉 맑스主義는 政治的 行爲에 對해서 강력한 倫理性을 부여해 주는 한편, 낡은 工業化以前 社會의 諸制度에 對한 지속적인 攻擊의 基礎를 마련해주고, 民族間의 질서가 漸增하고 있던 時期에 國際主義의 旗幟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蘇聯은 맑스主義理論을 最初로 實踐에 옮긴 國家로써 今世紀에 있어서 가장 影響力있는 思想體系의 旗手, 또는 近代의 人間이 當面한 主要한 「딜렘마」들을 解決하기 위한 社會的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蘇聯共產主義는 一種의 保守的이고 官僚主義化된 原則이 되고 있다. 工業化가 매우 뒤져 있던 社會에 맑스主義 原則을 가장 광범위하게 適用한 中國에서는 共產主義가 人種의 民族主義와 「이데올로기」의인 正統主義(fundamentalism)를 묘하게 複合시킨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보다 先進된 西洋에서는 以前의 「이데올로기」의인 敵對者들과 協力함으로써 자신의 「이데올로기」의인 主體性(identity)을 흐리게 할 때에만 共產主義가 중요한 意味를 갖지만, 東洋에서는 熱狂的인 民族感情과 自己確認 속에서 意圖的으로 「이데올로기」

☆ 이것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Between Two Ages: America's Role in the Technetronic Era* (New York: Viking press, 1970) 中 第三部 「Communism: The Problem of Relevance」(pp. 123 ~ 193)를 編譯한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콜럼비아大學校 政治學教授이며 同大學 共產主義問題研究所長으로 재직하였으며 國際政治와 共產黨研究에 관한 많은 著述을 發表하여 斯界의 世界的 權威로 널리 알려져 있다. 現在는 美國 카터大統領의 安保担当 特別補佐官으로 在職하고 있다.

의인 戰鬪性을 강조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現代共產主義는 普遍的인 「휴메니즘」에 對한 謨스主義의 「프로메디우스」의인 期約(promethean commitment)에 공헌해 왔던 것이다.

共產主義가 普遍的인 眺望으로서 成功하지 못한 不運은 그것이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있다. 共產主義가 진정한 國際主義의 動機가 되기에는 時期的으로 너무 이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當時에는 人類가 各 民族의 自我意識에 눈을 뜨는 狀況이었고, 通信을 위한 技術手段이 制約되어 普遍的인 眺望을 形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共產主義는 工業化된 西洋에게는 너무 빠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民族國家建設을 통하여 民族主義와 國家改良主義가 人道主義의 要請에 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共產主義는 工業化 以前의 東洋에게는 너무 빠른 것이었다. 東洋에서는 共產主義가 잠자고 있는 大衆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鏡像으로 기여하였으며, 점점 大衆들 속에서 過激한 民族主義를 자극하였다.

共產主義는 西洋에서는 너무 빠른 것이었고, 東洋에서는 너무 앞질러온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定着의 계기를 찾을 수 있었던 곳은 西洋도 東洋도 아닌 中間의 러시아에서 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共產主義의 失敗나 成功, 또는 그 特殊한 性格을 理解하기 위해서 普遍主義의인 것처럼 보이는 原理와 매우 特殊한 유라시아民族의 遺産이 50여년 동안 결합돼 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共產主義의 實際는 주로 러시아가 만들어 온 것이다. 中國의 共產主義가 現代인에게 唯一한 可能性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適切한 模型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비록 中國共產主義의 몇가지 側面(예컨대 소위 禁慾主義, 外觀上的 不斷革命, 또는 「이데올로기」의인 戰鬪性)은 不滿에 찬 感傷의 西歐知識人들에게는 구미가 당길지 모르나 先進된 工業社會文明의 諸問題點을 안고 있는 人們에게는 中國社會의 「모델」이 거의 아무런 指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人們들은 中國이 아직도 자신의 後進性 克服을 위한 鬪爭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가까운 주변 국가들과의 紛爭속에서 政治的 不安을 겪으면서도 謨스·레

인 主義를 점차 中國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하나의 革命的 象徵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社會的 心理的 諸危機에 對處할 수 있는 實效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中國의 「모델」은 몇몇 後進國家의 革命的 「엘리트」들에게 색다른 암시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中國은 그들에게 國民의 기강이나 「이데올로기」적인 心身, 또는 近代化를 위한 大대의인 社會的 努力의 集中 등과 같이 매력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側面에서도 中國의 「모델」은 將來에 대한 案內者로서의 意志나 意圖로써만 適切性을 갖는다는 것이지, 共產主義가 어떻게 近代性的 諸問題에 對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解答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問題에 대해서는 蘇聯의 經驗에서만 解答을 찾을 수 있다.

一. 스탈린主義의 「파라독스」

스탈린은 이제까지 蘇聯歷史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蘇聯을 支配하였고, 또 그의 이름은 하나의 統治體系, 또는 共產主義建設을 위한 어떤 特殊한 接近方法을 代辨하는 말이 되고 있다. 스탈린의 役割이나 그의 遺産을 간과하고서는 共產主義가 現代世界에서 차지하는 役割을 검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더구나 蘇聯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스탈린의 遺産은 바로 蘇聯의 現存 制度나 그 制度의 運營方式으로 代表된다. 스탈린이 死亡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蘇聯內의 改革論議가 스탈린主義의 打破問題를 臚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스탈린의 遺産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음과 같은 事實로 충분히 남득이 간다. 즉, 오늘날 소비에트 國家體制나 社會는 政治的 「엘리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歷史上 未曾有의 社會革命으로 創造된 것이라는 점이다. 暴力과 많은 희생을 수반했던 그 革命을 1917년에 「볼셰비키」가 權力을 장악한 것과 혼동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 혁명은 「볼셰비키」가 權力을 장악한 이후 10년이 경과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蘇聯社會가 政治指導者들의 「이데올로기」的 熱望을 反映하여 再編되는 過程에서, 특히 1930~40년間に 그와같은 社會革命은 새로운 소비에트 國家를 具現하기 위해서 적어도 650만 人命*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 이에 대한 가장 상세한 統計는 Robert Conquest의 *The Great Terror* (New

York, 1968)을 볼 것. 그의 결론에 따르면 1936~38 년간에만도 실제로 약 100 만명이 처형 되었고(J. 529), 적어도 200만명 이상이 수용소에서 死亡했으며(p. 532) 거기에서 農業集團化期間中에 희생된 人命으로 적어도 350만이 추가되고 있다. (p. 533) 著者自身の 계산으로는 1937~38년에만도 共産黨의 240 만黨員中 85만명이상이 숙청되었다(The Permanent Purge, Cambridge, Mass., 1956, pp. 98~110). 주목해야할 점은 그와같은 희생자의 數를 더 높게 잡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現在の 蘇聯政治 「엘리트」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그와같은 革命이었으며 맑스主義에 입각한 最初의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고 궁극적인 共産主義를 達成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도 바로 그와같은 혁명이었다. 또한 새로운 社會의 創造와 불가분의 關係를 갖는 工業의 發展을 위해서 그와같이 特殊한 性格의 革命이 필요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스탈린의 革命인 것이다.

스탈린主義의 必要性

스탈린主義에 관해서 우리는 “必要性”의 問題를 “不可避性”의 問題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과거를 되돌아 보는데 있어서 不可避性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았던 것보다는 실제 일어났던 것에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법이다. 맑스主義的인 權力은 專制政治의 傳統, 知的 欲求不滿, 그리고 강력한 「메시아니즘」(messianism)의 성향으로 형성된 특수한 러시아적 環境에 최초로 뿌리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스탈린主義는 “불가피”하게 됐던 것이다. 그 결과로 맑스主義의 一部分이 다른 것의 희생위에 강력히 추진되게 됐다. 맑스主義를 러시아에 適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맑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와 「볼셰비키」黨을 창건한 것은 레닌의 功績이거

의 天才性에 의한 것이다.

러시아 맑스主義 運動 내부의 경쟁자들에 대한 레닌의 勝利, 더우기 낡은 專制秩序의 와해에 따른 그의 權力장악은 맑스主義의 非西歐化 (de-westernization)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西洋의 民主主義의 潮流에 대한 東洋의 專制主義的 性向의 勝利였다. 레닌이 教條主義의 信念, 暴力, 陰謀活動, 그리고 黨에 대한 個人的 全面的인 服從을 강조하고, 동시에 異端에 대해서는 不寬用과 偏執狂의 猜疑心(이점은 맑스의 行動에서도 어느정도 볼 수 있다)을 보여준 것은 그가 活動하고 있던 러시아의 잔혹한 전체주의적 전통을 反映하는 동시에 그가 그와 같은 專制主義的 傳統을 擴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탈린이 最高指導者로 등장한 사실 (특히 그에 의한 전체정치의 東洋의 「스타일」이나 雰圍氣¹⁾)은 勞動者들의 「勞組意識」(trade union mentality)을 의심하고 農民들의 惰性和 保守主義를 증오하는 「엘리트」集團으로서의 黨이라는 레닌의 黨概念에 의해 促進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反對派의 不容이나 黨에 대한 복종의 강요는 그와같은 전통을 利用하여 예상되는 反對派나 경쟁자들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속달된 行政手腕을 갖는 獨裁者의 出現을 용이하게 했다.

샤피로(Leonard Schapiro)나 도이처(Issac Deutscher)는 전적으로 見地가 다른 입장이지만(이들은 물론 레닌主義나 스탈린主義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스탈린이 그의 權力을 확립하기 위해서 黨內 反對勢力을 不許했던 것은 레닌主義의 교훈이며, 이 때문에 스탈린主義가 可能했다고 보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²⁾ 설사 레닌이 스탈린의 등장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黨內에서 스탈린에 反對하는 有力한 勢力의 出現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主義의 必要性에 관한 問題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

것은 스탈린主義의 方式(그리고 그러한 方式에서 비롯된 스탈린主義體制)이 社會主義革命을 效果의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工業化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나 하는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다. 실사 스탈린主義가 하나의 政治體制로써 “不可避”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蘇聯을 近代化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자행한 어마어마한 조선 人民의 人間의 犧牲이 필요했었다는 결론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와같은 희생은 스탈린主義體制를 유지하는데 필요했었을 것이다.*

* 社會主義에로의 進歩가 촉진될수록 계급투쟁은 심화된다는 스탈린主義理論(이것은 階級鬭爭이 敵對的인 계급의 存在에서 기인한다는 개념과는 모순되지만 비밀경찰의 「테르」를 合理化해준다.)은 스탈린의 政策的인 利害 또는 權力의 利害를 便利하게 해주는 機能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立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論議의 영역을 이탈하는 것이며 결국 스탈린의 權力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탈린主義의 手段이 이용되어야만 했다는 論法이 될 것이다. 그러한 論法에는 어떤 異議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나 蘇聯邦內의 기타 非러시아系 民族들을 近代化 또는 工業化 하기 위해서 스탈린主義方式이 꼭 必要했을까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解答을 주지 못한다. 그와같은 問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의 正當性(즉 現 蘇聯「엘리트」의 權威나 權力)은 지난날이 本質的으로는 영광스럽고 英雄的인 業績이나, 다만 一部同志들에 대해서 스탈린이 저지른 非行으로 약간의 상처도 없지 않다고 주장해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61년 제 22차 蘇聯共產黨大會中에 스탈린의 잔인한 罪狀을 매우 상세하게 一般大衆에게 폭로하였으나 후르시초프以後의 蘇聯指導者들은 스탈린의 非行을 最少化하는 한편 1930年代의 業績을 역설하는 경향을 띠게됐다. 이와같은 사실은 黨은 始終 正當하게 行動하며, 따라서 黨이 權力을 要求하는 根據는 그것이 過去나 現在를 막론하고 本質的으로

오류가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데 있다는 意味를 함축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이 蘇聯政治體制的 道德性和 普遍性を 主張하고 있는 것도 그와같은 立場이라고 볼 수 있다. 蘇聯社會의 變革形態에 관한 問題도 역시 비록 間接적이긴 하지만 現 支配階의 正當性에 대한 問題인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蘇聯「모델」의 國際的 妥當性問題, 특히 小數의 官僚「엘리트」의 手中에 權力을 集中시키는 레닌·스탈린主義的 方式의 適否問題가 된다. 蘇聯이 1968年의 체코事態를 야기시킨 것이나, 또는 中共에 대해서 黨官僚의 優位를 손상시킨다는 理由로 “文化革命”을 공격한 사실, 그리고 黨의 優越性에 대한 幻想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고를 계속 비난하고 있는 것등은 모두 아직 蘇聯의 「엘리트」가 그들의 政治的 「모델」에 대해서 얼마만큼 意味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例이다. 이와같은 國內的인 利害關係와 對外的인 포부의 연결은 스탈린主義的 變革方式이 낭비적이고 잔인하며, 더욱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닐 뿐더러 不可避한 것도 아니었다는 맑스主義者들이나 非맑스主義者들의 發言에 대해서 蘇聯이 매우 신중질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유를 說明해주고 있다.

그러면 스탈린에게는 다른 代案이 없었던 것일까? 적어도 몇몇 러시아 사람들은 (맑스主義者나 非맑스主義者를 막론하고) 스탈린이 追求한 것보다는 物質的으로나 道德的으로 적은 代價를 지불하고 러시아의 近代化를 達成할 수 있는 方法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1917年의 革命 以前까지만 해도 러시아 學者들은 祖國의 近代化計劃을 構想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重要한 것으로는 아마 1918년 完成된 모스크바工科大学(Moscow Institute of Technology) 學長인 그리네베츠키(Grinevestkii)教授의 研究일 것이다. 그는 數十年間에 걸친 러시아 國家發展計劃에 관한 體系的인 論박을 제시했었다. 그의 研究에 대한 한 有益한 分析²⁾에 따르면 그리네베츠키는 計劃的인 國家的 施策을 提供했을 뿐 아니라, 그후의 蘇聯 計劃立案者들 보다도 더 價格指標나 利潤基準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네

베츠키는 “그와같은 價格指標나 利潤基準을 무시하고 樹立된 蘇聯計劃立案者들의 計劃과 거의 모든 경우 優先順位나 政策, 심지어 特定 投資選擇에 있어서 까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사실 初期五個年計劃에서 蘇聯의 計劃立案者들이 채택한 最優先의인 것들, 즉 電氣化, 工業 및 人口의 東方移轉, 水力發電의 開發, 運河의 建設 등등은⁴⁾ 그리네베츠키가 구상한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蘇聯의 計劃立案者들(그중에는 그리네베츠키의 舊同僚였던 사람들도 數名이 포함되 있다)은 蘇聯의 工業化가 “암스·레닌主義의 堅固한 礎石”에 立脚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네베츠키의 研究에 많이 依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政策決定 過程과 보다 많이 價格指標나 利潤基準에 의존할 것을 주장한 그리네베츠키의 方式을 거부하긴 하였지만 사실상 그의 目標를 채택했던 것이다.

共産黨內部에서도 蘇聯工業化를 위한 또다른 代案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부하린(Bukharin)이나, 소위 말하는 “右翼反對派”로부터의 提案이었다. 그들은 그리네베츠키와 마찬가지로 農民들의 生産意慾을 높여주기 위해서 積極적인 誘引措置를 취하고, 都市民들에게도 工業化의 짐을 一部 負擔시킬 것, 또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工業化를 위한 時間表를 좀 지연시키는 政策을 옹호했다. 그들은 특히 스탈린이 農民들로부터 剩餘農產物을 걸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手段이었던 性急한 階級 集團化에 反對하였다. 그들의 그와같은 反對는 당초 부하린이 農業政策에 대해서 強경한 反對의 立場을 취해오던 트로츠키(Trotsky)에 의해서까지도 지지를 받게 되었다. 트로츠키는 1930年경 數百萬의 富農(kulak)들을 虐殺하는 것은 非道德的인 “蠻行”이며 그와같은 行爲는 全社會를 強制와 暴力의 惡循環에 빠뜨려 결국은 共産主義에 대한 不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結論하였다.⁵⁾ 보다 最近에 와서는 매우 親蘇의인 폴란드 共産黨指導者 고물카(Wladyslaw Gomulka)의 發言이 蘇聯의 귀를 더

을 거슬리게 했을 것이다. 고물가는 1961년 11월 23일 演說을 통해서 農業集團化는 “無法的 狀態와 社會主義의 合理性의 파괴가 證明하고, 恐怖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와같은 條件下에서 個人崇拜 즉 스탈린 崇拜가 成長하는 過程의 發端”*이라고 規定했던 것이다.

*農業集團化가 急速한 工業化를 용이하게 促進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經濟學者들간에 論爭點이 되고 있다. 그러나 集團化를 위한 非正常的인 殘忍性이 投資에 기여할 수도 있었던 農業資源의 急速한 減少를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論爭의 여지가 없다. “農業總生産은 1928년의 124(1913年을 100으로 할 때)에서 1933년에는 101로 떨어졌으며 1936년에는 겨우 109에 머물고 있다. 한편 畜産物도 1928년의 137에서 1933년에는 65로 떨어졌다가 1936년에는 96으로 緩慢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1930年代를 통하여 곡물생산은 1913년 이전의 수준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그 以下였다. (Deutscher, The Prophet Oatcast, London, 1963, P. 99) 蘇聯의 한 農業問題專門家は 당시에 대한 最近 蘇聯의 反省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고 있다. “보다 많은 곡물과 通貨의 準備, 그리고 보다 能率의 으로 社會化된 部門의 存在는 政府의 재량 權을 더욱 크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工業化計劃을 全面的으로 붕괴시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家畜數의 극심한 減少나 不足한 資本中의 莫大한 部分을 단순한 損害의 보전에 投入해야 하는 필요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不足한 行政의 資質의 많은 부분을 統制와 강압을 위한 機關에 묶어 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929~30 年間の 大대의인 農業集團化가 없이도 蘇聯政府가 權力을 維持할 수 있었을까 하는 問題에 대해서 經濟學者가 여러말 하기 곤란한 일이지만, 非 스탈린의인 蘇聯政府도 그와같은 것은 훌륭히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J.F. Karcz, “Thought On the Grain Problem”, *Soviet Studies*, April 1967, pp.429-30). 따라서 비록 農業集團化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農産物의 商品化 比率이 적었다 하더라도(또는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보다 많은 總産出中의 보다 적은 部分이 商品化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절대적 意味에서는 더 많은 供給을 의미할지 모른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탈린主義로 因해서 러시아의 建築이나 詩,

또는 科學의 分野에서 전례없는 創意性을 보여주던 時代가 종막을 보게 됐다는 사실이다. 1920年代 革命直後の 狀況에서 러시아는 自覺과 奮發의 生動感에 넘쳐 있었다. 여기에 스탈린主義의 大々의인 恐怖政治와 「이데올로기」的인 教條性은 警戒과 體制에 대한 順應의 精神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이데올로기」의 領域에 있어서도 맑스主義는 知的인 後退를 의미하는 敎理問答(catechism)으로 格下되었고, 스탈린의 “辨證法 및 史的 唯物論”(Dialectical and Historical Materialism) (1938)은 그를 위한 典據가 되었다.

비록 道德的으로나 物質的으로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蘇聯의 發展은 다른 어떤 社會와도 比擬 不可의 目標을 達成한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는 또 다른 論爭點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그와같은 問題는 內的으로 現蘇聯 體制의 歷史的 正統性과 特別한 關聯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社會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 蘇聯의 立場과 關係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은 東歐의 몇몇 經濟史家들과 西歐의 經濟史家들에 의해서 論議돼 왔다. 西歐 經濟史家中에서도 로스토우(Walt Rostow)는 近代化를 위해서 스탈린主義가 이룩한 功績에 대해 아마 가장 날카롭고도 否定的인 道勸을 건넰 사람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共產主義者는 一次大戰以前의 20여 년간에 工業發展에 있어서 “이미 도약(take-off) 단계에 도달한 경계를 물러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스탈린은 後進國家 近代化의 設計者라기 보다는 近代化를 完成한 建築家였다.”⁶⁾ 더우기 로스토우는 1860年代에 시작된 美國의 工業化와 1880年代에 시작된 蘇聯의 工業化는 그 「패턴」이나 速度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⁷⁾*

* 鋼鐵, 石炭, 石油, 電力의 分野에서는 美國의 全體的인 成長率보다 러시아가 좀 높았다. 反面 輕工業이나 運輸業에 있어서는 美國이 훨씬 앞섰다.

블랙(Cyril Black)도 그의 러시아 近代化에 關한 研究에서 많은 資料를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50년간을 통해서 볼때 一人當 經濟社會的 指數에 있어서 蘇聯의 相對的인 順位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입수할 수 있는 비교적 制限된 資料로써 判斷하는데 蘇聯은 1917년 이래 一人當指數에 있어서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한 나라도 추월하지 못하고 있다. 즉 現在 一人當指數에 있어서 蘇聯의 上位에 있는 19~20개국은 1900년이나 1919년에도 역시 높은 水準에 있었다. 이태리의 一人當國民總生産은 지금은 蘇聯 바로 다음의 낮은 水準에 있지만 50년 전에는 높은 水準이었다."⁸⁾ 블랙의 比較에는 蘇聯처럼 戰火로 황폐화하고 광범한 經濟復興을 수행해야만 하는 나라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社會, 經濟的 發展을 比較研究하는 다른 學者들도 역시 國家들을 等位化하는 圖式을 고안해 내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대체로 오늘날 蘇聯의 位置는 1920년대 中葉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는데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⁹⁾ 블랙은 다른 社會들도 실질적으로 낮은 代價로 러시아와 같은 成果를 달성했다는 總括的 結論을 내리고 따라서 過去에 關한 한 蘇聯의 大前提에 대해서 疑問을 제시하고 있다.*

* 宇宙開發, 兵器, 또는 工業의 全般的인 成長度에 있어서 蘇聯의 業績은 높이가 평가할만 하다. 더우기 蘇聯은 教育, 大衆文化, 社會的 서비스 部門에 있어서 뚜렷한 進歩를 가져왔으며 强차 發展을 위한 확고하고도 광범위한 科學的 基礎를 마련했다. 蘇聯은 10만人當 醫師의 數에 있어서는 先進諸國中에서 第一位이며, 一人當年間 社會保障費에 있어서도 首位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asic Statistics*, Brussels, 1967, pp. 131, 153).

또 社會, 經濟的 發展에 關한 한 蘇聯은 여러가지 면에서 比較的 平均的인 社會라는 생각을 환기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앞에서 引用한 블랙의 研究는 教育, 通信, 公衆保健등의 分野에서 다른 國家들과 比較하여 蘇聯의 位置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入收可能한 情報에 의하면 蘇聯의 教育은 1960년 현재로 124個國中 39位, 新聞配布率은 125個國中 26位, 平均

壽命은 79個國中 13位를 보여주고 있다.)

近代化의 程度를 보여주는 指標으로써 비행기의 利用度, 라디오, 電話, 自動車의 保有, 高速道路, 컴퓨터등에 있어서 蘇聯은 보다 先進된 諸國中에서 低水準에 있다. 따라서 21개 先進國家들에 (이중에는 EEC, EFTA 국가들과, 그리스, 터키, 핀란드, 스페인, 美國, 캐나다, 日本이 포함된다) 비교해 볼 때 蘇聯은 電話保有에 있어서는 20位, 라디오에 있어서는 16位, 乘用車에 있어서는 20位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蘇聯이 컴퓨터와 같은 보다 復雜한 分野에서는 뒤져있는 사실은 주목된다. 1968年의 推定으로는 美國이 약 5~7만대의 컴퓨터를 使用하고 있으며 그중 國防省, AEC(原子力委員會), NASA(航空宇宙局)에서 使用하는 것은 불과 10% 정도인데 (Paul Armor, "Computer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 Automation, and Economic Progress," *The Outlook for Technological Change and Employment*, Appendix Vol. I to National Commission on Technology, Automation and Economic Progress, *Technology and the American Economy*, Washington, D.C., 1966, pp.220~223) 그에 상응하는 蘇聯의 非國事用 컴퓨터使用數는 2~3천으로 대충 日本이나 西獨 또는 英國의 數字와 같은 것이었다. (Richard V. Burk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Eastern Europe*, RAND memorandum, Santa Monica, Calif., August 1969, pp.8~9의 肉關적인 推定을 참조.)

이와같은 一般化는 工業化過程의 重要側面으로써 鋼鐵生産의 成長을 比較研究함으로써 이끌어 낼 수 있다. 注意를 要하는 것은 蘇聯의 經濟學者들은 政治指導者들과 마찬가지로 蘇聯工業化의 중요한 指標으로써 종종 鋼鐵生産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쿠로우스키(Stefan Kurowski)는 그에 關한 研究를 共產國家 폴란드에서 發表한 바 있는데, 스탈린治下에서 蘇聯의 강철生産은 世界一次大戰以前 러시아의 급속한 工業化 보다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增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와같은 成長率은 다른 國家들, 특히 日本의 상응하는 급속한 工業化段階와 필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상세한 比較를 제공하고 있다.*

* 쿠로우스키는 1870년 이후의 成長率을 기준으로 해서 1914~20년과 러시아

의 강철 생산 증가는 1100만톤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9년 소련강철생산은 기껏 1914년水準이며, 1935년에는(스탈린의 6개년계획이 끝난후, 이 기간은 1914년 부터 1920년과 같은 것이다) 126만톤에 도달했다(Stefan Kurowski, *Historyczny Proces Wzrostu Gospodarczego*, Warsaw, 1963, pp.132~133.)

쿠로우스키는 1928~40년간과 1950~62년간 日本과 蘇聯의 成長率을 매우 상세히 비교하고 있다. 또한 그는 成長率에 있어서 뚜렷한 規則性을 發見하고 있다. (pp.134, 138, 175)

보다 일반적으로 1780~1970년간에 걸쳐 數十個國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比較分析을 통하여 쿠로우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강철이나 철광의 生産의 加速化는 社會體制나 政治體制와는 거의 아무런 關係가 없으며, 生産의 促進은 技術革新에 起因한다는 統一된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이와같은 結論은 당연히 當局의 분노를 자극하였다.¹¹⁾ 왜냐하면 그와같은 論議는 蘇聯의 過去之事에 있어서 核心的인 問題點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帝國의 平定

러시아人民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의 理想으로서의 共產主義에 대하여 스탈린主義는 不心要한 악몽이 돼왔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全世界에 걸쳐 하나의 위장된 神의 은총으로써 知識人들에게 안타까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蘇聯은 廣大하고 豊富한 國土와 유순하고 매우 創意性있는 國民을 가진 國家로써 또 강력한 帝國的 傳統을 계승하고 있는 國家로써, 그리고 戰爭과 國策에 숙련된 社會로써 스탈린의 存在에 關係없이도 美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世界列強의 先頭에 登場하도록 運命지워져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傳統과 힘의 使用可能度에 의해서 분

가피하게 자극되는 야심을 가진 러시아가 一次大戰後 오랜 停滯와 非能率의 구렁텅이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蘇聯이 아닌 다른 어떤 러시아가 出現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自由主義이든 社會主義이든 간에 民主的인 러시아는 現實的인 代案이 되지못했을 것 같다. 차라리 그때에는 社會的으로 광범위한 궁핍과 無秩序, 또는 혼란속에 있었기 때문에 專制政治로부터 民主主義에로의 획기적인 도약(民主主義의 育成期間이 없는)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강력한 民主的 傳統을 가지고 民主的 發展을 위한 매우 有利한 環境下에서 機能하였던 國家에서도 民主主義 體制가 失敗하였었다. 그러한 時代에 國民的인 分裂과 階級갈등, 相軋하는 「이데올로기」의 主張과 비참한 生活狀態에서 시달리고 있던 一次大戰後의 러시아가 民主主義體制를 효과적으로 制度化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以前의 수십년간에 걸친 工業化, 文字解得力의 普及, 戰爭의 經驗등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러시아 人民들의 大大的인 政治的 자성을 염두에 둘 때 公公然한 國粹主義와 帝國主義的 獨裁政權 以外에 다른 어떤 代案이 없었을 것 같다. 다른 大國들(獨逸, 日本, 美國)의 경우는 비슷한 政治的 發展의 段階에서 經濟的 팽창과 결부되어 侵略的이고 「다이내믹」한 帝國主義가 發生하였던 것이다. 팽창주의적인 民族主義는 大衆動員과 高勢(심지어 侵略的인) 對外政策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러시아는 外國投資의 도움을 얻고 있었으며(經濟的인 投資國은 후에가서 政治的인 敵國이 되는 것이 資本主義 時代의 特徵이었다*), 近代化를 向하는 國수주의적 獨裁에 의해 지도되고 있었으므로 帝國主義的인 또는 民族主義的인 「에너지」의 폭발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그와같은 에너지의 暴發은 國內的 희생을 보다 줄이고 世界에 대한 위협을 보다 증대시키는 方向에서 러시아의 世界的 強大國化를 초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蘇聯經濟의 初期成長段階에서 西歐가 參與하고 있던 뚜렷한 증거는 Antony C. Sutton의 *Western Technology and Soviet Economic Development, 1917~1930* (Stanford, Calif., 1968) 參照. 그는 “1917~30년간 蘇聯經濟의 發展은 기본적으로 西歐의 技術援助에 의존했다”(p.283)고 주장하고, “적어도 工業構造의 95%가 그러한 원조를 받았다”(p.348)고 했다.

이와같은 觀點은 좀더 속고해 볼 가치가 있다. 스탈린은 맑스·레닌主義와 蘇聯(특히 러시아)의 民族主義를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大 러시아 國家의 傳統, 開拓精神, 國民의 抱負, 非러시아系 소비에트民族들의 文明開化에 대한 러시아의 使命 등에 대한 강조가 점증함에 따라 蘇聯共產黨은 점점 物理的인 變質을 가져왔다. 즉 黨은 러시아나 유대, 폴란드, 발틱, 또는 코카사스 출신의 「코스모폴리탄」的 또는 國際主義의 定向을 가진 知識人의 혼성集團에 의해 지배돼 오던 것이 주로 러시아인과 農民出身으로 黨官僚(apparatchiki)가 된 약간의 우크라이나인에 의해서 지배되게 됐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蘇聯의 政治體制가 그들 자신의 社會的 進出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政治的 權力的 根源이 되고 있었다. 그들의 體制에 對한 忠誠心은 傳統的 社會에 있어서 카톨릭教會에 대한 많은 農村出身 敎職者들(이들은 대개가 次男以下로 農地를 상속받지 못했다)의 忠誠心과 다를 바 없었다. 그와 같은 것은 知的인 忠誠心이라기 보다는 制度的인 忠誠心이었다. 「이데올로기」는 그들에게 統合的인 知的 眺望을 제공하였지만 以前의 國際主義의 知性을 가진 知識人들처럼 動機나 行動의 主된 源泉이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蘇聯엘리트는 심지어 자신들을 국제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옹호자라고 믿고 있을 때에도 保守的인 民族主義者에 不遇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自身の 利害關係에 따라 行動할 수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진정한 國際主義者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國際主義者의 試金石은 蘇聯에 대한 忠誠心이라고 한 스탈

린의 유명한 格言이 蘇聯民族主義와 共產主義의 國際主義間에 야기된 緊張의 理想的인 쇄소책이었다. 브레즈네프가 1968년에 체코占領을 說明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와같은 格言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같은 狀況의 累積된 結果가 스탈린이후의 蘇聯에서 볼 수 있었던 動機와 行爲의 결합 「패턴」이다. 그것은 종종 馬스主義의 倫理的 普遍主義를 「씨니칸」하게 利用하는 國家的 考慮에 의해 左右되었다. 그러나 馬斯主義의 倫理的 보편주의도 蘇聯에 대한 國外的 同情을 動員하고 蘇聯 젊은이들의 理想主義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政權에 대한 지지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역시 維持할 필요가 있었다. 蘇聯은 그의 東歐 諸위성국을 약탈하였고, 또 中國에 대한 그들의 財政的, 技術的 援助가 政治的으로 아무런 利得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蘇聯人民들은 순진하게 (그들이 종종 訪問者들에게 不平을 하듯이) 蘇聯이 共產主義의 連帶性에 대한 의무감의 一部로써 東歐諸國과 中國에 援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더우기 스탈린에 의해서 行해진 國內的 暴政과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한 教育效果(비록 초기에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大衆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하더라도)는 방증한 民族主義에 대한 일종의 억제의 작용을 하였다. 最初 스탈린의 「테로」政策과 「이데올로기」的으로 誘導된 社會的 變化는 人民들을 당혹시키고 종종 그들을 소외시켰다. 1936~38년간에 있었던 蘇聯의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知的인 高位層 指導者들에 대한 前例없는 大屠殺은 蘇聯社會의 活力을 감퇴시켰다. 文字 그대로 數十萬의 재능있고 訓練된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에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國際主義의 原則은 實際로 종종 무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大 러시아 民族主義의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억제되었다. 國內的으로 그와같은 國際主義原則은 스탈린의 非 러시아系 知識人수층에도 불구하고 非러시아系 諸民族들을 蘇聯內에 維持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國際的인 面에서 볼 때 그와같은 國際主義는 蘇聯

指導者들로 하여금 폴란드나 핀란드, 심지어는 다른 東歐諸國까지도 蘇聯에 加盟하는 것을 反對하도록 고무하였다. 한때 유고는 스스로 蘇聯에 加盟할 것을 자원했으며, 후사크(Gustav Husak)를 포함한 슬로바키아 共產黨도 똑 같은 제의를 하였었다. 그와같은 것은 보다 더 傳統的인 民族主義者였거나 또는 汎슬라브의 指導者였더라면 뿌리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유혹인 것이다.

따라서 遊說的으로 말하면, 蘇聯의 「이데올로기」가 비록 大衆들의 民族主義에 의해서 強化되고 심지어 그에 의해서 支配됐다고 할지라도(특히 二次大戰以後), 스탈린主義의 共產主義의 歷史的 機能은 러시아 人民이 강렬한 民族主義的(어쩌면 帝國主義的)覺醒을 경험하는 段階를 억제하고 再規定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大衆의 民族主義를 강요하여 말로만이라도 國際協力과 모든 人民들의 平等, 그리고 人種主義의 백척을 내세우도록 하였다. 막스主義는 러시아에게 世界的인 革命의 原理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倫理的 關心으로 부터 由來하는 普遍的인 觀點을 注入해주었다. 그러한 倫理的 關心은 물론 西歐의 宗教的인 또는 自由主義的인 傳統에 의해서 자극된 倫理的 關心과는 다른 것이다.

스탈린主義는 그가 달성한 不朽의 業績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의 人間的, 情緒的 資質을 弱화시켰다. 따라서 스탈린以後의 러시아는 결국 帝國主義를 밀쳐버린 아주 새로운 強大國으로 世界共同體에 편입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특별히, 專制的인 共產主義 모델을 창조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다른 共產黨들도 그러한 모델에 대해 복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스탈린은 共產主義의 分解過程을 재촉했을 뿐 아니라 보다 先進된 西歐(西歐는 맑스가 歷史的 變革을 위한 條件이 가장 성숙되었다고 본 원래의 地域이다)가 共產主義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現代의 支配의이며 決定的인 힘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던 時期에 共產主義가 지닌 매력울 크게 감소시켰던 것이다.

二. 官僚制化的 問題

蘇聯共產黨은 하나의 독특한 業績을 가지고 있다. 즉 蘇聯共產黨은 現代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革命的 原理를 世俗化된 社會的, 政治的 敎理(orthodoxy)로 바꾸어 놓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와같은 敎理는 말로는 革命的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保守的인 것이다. 高度로 中央集權化된 政治體制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의인 立場을 굳힘에 따라 發展을 저해하게 되고, 점점 蘇聯社會의 要求에 不適合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와같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라는 것은 아주 다른 時代에 대한 對應이었던 것이다. 都市的 近代性的 諸要素가 農村의 後進性和 밀접히 관련돼 있는 蘇聯社會는 더이상 젊은 活力을 動員하여 급속한 革命的 變化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대신 西歐資本主義의 높은 消費水準과 경쟁하는데 급급해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狀況에서는 無意味한 19세기적 原理를 具現하고 있는 政治體制에 蘇聯社會가 계속 從屬하는 것이 歷史的인 正當性, 社會的인 效用성을 갖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正當化가 점점 어렵게 된다. 러시아의 工業化 中期에 수립된 蘇聯의 政治體制가 이제와서는 加一層의 國家的 進歩를 위하여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그와같은 政治體制는 러시아를 社會的으로는 工業브르주아이고(industrial-bourgeois), 政治的으로는 獨斷的 權威主義(dogmatic-authoritarian)인 形態속에 묶어놓는 것이다. 蘇聯이 진정한 의미의 近代社會가 되기 위해서는 工業化를 強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政治形態의 基本的인 前提나 構造들이 變更되어야 한다. 「테크네트로닉」時代(technetronic age)에 있어서

높은 個人的 관심이나 또는 광범위한 社會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公式的인 「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의 處方以上으로 來日에 관한 보다 妥當한 비결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黨과 社會의 關係

한때 蘇聯의 政治體制와 社會는 革命的인 關係(revolutionary relation)에 있었다. 一人의 意志에 의해서 굳어지고 결과적으로 그에게 從屬한 政治體制는 강력한 工業化의 推進과 大衆教育을 통하여, 近代化와 「이데올로기」적으로 誘導되는 새로운 社會的 制度나 社會的 關係를 결부시킴으로써 급진적인 社會的 變革의 過程을 부과하였다. 사실 蘇聯社會에 있어서의 政治體制가 갖는 機能은 탐스가 다음과 같이 묘사했던 歷史에 대한 資本家들의 주요한 役割과 필적할 만하다. “價値의 自己增殖에 血眼이된 資本家は 生産을 위한 生産을 위해서 人類를 무자비하게 虐殺한다. 그리하여 그는 社會內 生産力의 發展을 강력히 추진하고, 한단계 높은 社會形態, 즉 모든 個人的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發展을 指導原理로 하는 社會를 위한 唯一한 現實的 基礎를 形成하는 物質的 條件을 創造한다”

國內의 革命的 變化는 支配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的 要求를 실현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權力을 위태롭게 했을지도 모르는 外國에서의 革命的 모험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支配엘리트는 미숙한 「이데올로기」적 情熱이 타락하는 것을 걱정하였으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역시 강압적이었다. 一國社會主義論(이것은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에 대한 스탈린의 유명한 對答이다)은 현실적인 革命家들의 순수한 「이데올로기」的인 情熱과 새로운 官職에 대한 그들의 욕심을 결합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情勢에

밖은 名案이었다. 一國社會主義論(Socialism in One Country)은 새로운 支配者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데올로기」적인 獨善과 地位를 保障해주었던 것이다.

더 根本的으로 그러한 새로운 “一國家” 概念은 社會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政治體制가 갖는 特殊하고도, 革新的인 역할을 規定하였다. 政治體制는 目標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社會的 變化의 主要한 動力源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所望된 形態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政治的 支配者들(이들은 그와같은 과정에서 官僚的 行政家로 변한다)의 公的인 期待를 反映하게 됐을때 社會的 變化의 氣勢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1952년 末 스탈린은 「이데올로기」 또는 政治的 指導에 의한 社會的 變革이 더욱 要求되고 있다는 견해를 시사한 적이 있다. 以後 후르시초프도 여러번 政治體制間의 관련에 있어서 새로운 政策의 內容을 注入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후르시초프는 한 때 蘇聯의 農村을 소위 “農業都市”(agricultural cities)로 만드는 劇的인 再建을 제의한 바 있다. 그는 나중에 蘇聯社會가 궁극적으로 社會主義로부터 共產主義로 移行한다는 명제와 관련시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目標를 規定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와같은 社會革新의 努力이라는 것이(이것은 1961년 채택된 新黨綱領 속에 黨의 理念追從者들에 의해 설명돼 있다) 고작 1980年代에 가서 蘇聯人民이 누릴 수 있는 物質的 便利를 추가한 購買目錄(shopping list)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후르시초프는 다시 주의를 黨內에 돌려 黨의 役割을 再規定한다는 概念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것이다. 1962년에 그는 갑작스러운 개혁을 추진하여 사실상 黨組織을 農業問題를 전담하는 조직과 工業問題를 전담하는 조직의 두 部分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生産이란 매우 주요한 측면이다……共產主義의 建設을 위해서 주요한 것은 經濟이며, 生産이고, 또 人間生活을 위한 物質的, 精神的, 財

貨를 創造하는 鬭爭이다.”¹²⁾

후르시초프의 改革은 黨을 本質的으로 管理中心의 상이한 두 「하이ера키」로 轉換하는 모형을 감행한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理由때문에 그 改革은 1964년 후르시초프의 失脚後, 그의 後繼者들에 의해서 즉각 原狀態로 복귀하였다) 政治體制와 社會間의 關係가 逆機能化했다는 사실에 대한 認識을 反映한 것이었다. 또 그것은 政治體制가 社會를 위하여 더이상 새롭고, 그럴듯한 「이데올로기」의 目標을 規定해주시 못할 때, 이제까지 着實한 成長을 위해서 技術的, 工業的 手段을 획득해 온 蘇聯社會의 보다 日常的인 運營上의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서 體制自體의 改革이 不可避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후르시초프는 黨이 새로운 役割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認知하고 必要的인 改革을 위한 準備을 하였던 것이다.

守勢的인 敎理

후르시초프의 後繼者들은 그의 見解를 거부하고 그대신 比較的 작은 部分의 調整(主로 經濟計劃이나 經濟的 統制에 있어서)을 채택하고, 동시에 「이데올로기」의인 敎理의 絶對적인 必要성과 보다 활발한 「이데올로기」的 敎養을 再強調하였다. 후르시초프以後의 政權下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的 目標을 規定하거나 政治機構에 대해서 크게 손을 대는 일이 없다. 그 결과 蘇聯의 社會相이나 對外問題 또는 將來의 問題나 現代共產主義의 性格에 關한 公式的인 見解를 볼 때, 거기에서는 人間을 둘러싼 문제나 새로운 등장하고 있는 世界共同體의 一員으로써 蘇聯의 個別的 條件에 關涉되는 새로운 問題點들에 대해서는 거의 認識되지 못하고 있다. 곤란한 문제들은 간단히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쓸어치운다.

국내적인 면에서 볼 때, 蘇聯은 이제 社會主義的 建設을 完了하고 共產主

義社會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當面한 問題는 본질적으로 體制의 能率을 改善하는데 필요한 手段의 問題라는 것이 일반적인 公式見解가 되고 있다. 蘇聯의 體制는 公式的으로 그 기본적인 전제나 조직에 있어서 世界에서 가장 先進되고 正當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蘇聯에 있어서 어떤 生活領域의 社會經濟의 發展이 뒤져있는 것은 二次大戰의 破壞 때문이거나 아니면 革命 以前政權의 失敗 때문이라고 한다. 先進된 都市社會에서의 個人的 疎外問題에 관해서 論한 (社會主義社會에서의 反유타主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修正 맑스主義思想家들의 著述은 蘇聯의 狀況을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惡意에 찬 中傷이라는 이유로 一蹴되고 있다. 蘇聯에서는 世代의 問題가 없는 것으로 애기되고 있으며 단지 최근에 와서야 都市犯罪의 問題가 단순한 革命以前時代의 遺産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아기된 現象으로 論議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은 「이데올로기」적인 訓練을 재강조, 확대하려는 집요한 노력속에서 表現되었다. (이를 통해서 蘇聯社會를 政治體制와 統合하는 주요한 手段이었던 強制的 감소가 부분적으로 보상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력은 사회적 각 방면에 광범위하게 확대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특히 새롭게 科學者의 社會가 주목을 받게됐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認定되고 있다. 즉 “黨이나 人民들은 科學者들이 科學技術 發展의 創造者, 組織者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政治的 人民 또는 共產主義의 大義에 봉사하는 積極的인 闘士가 될 것을 期待한다”¹³⁾는 것이다. 더우기 거기에는 科學者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無關心(ideological indifference), 더욱 악질적인 것으로는 技術官僚(technocrat)를 近代社會의 當面한 指導者로 생각하려는 科學者들의 傾向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表現하고 있다.¹⁴⁾ 科學者들은 자신을 “超階級的인 「휴머니스트」”(super-class humanist)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階級鬭爭, 또는 人民과 밀접히 關聯시켜 자기를 確認하도록 반복하여 경고를 받아왔다.¹⁵⁾ (바로 그러한 경고로 미루

어 우리는 蘇聯 科學者들의 態度를 알 수 있다.)

「휴머니즘」의 問題는 특히 微妙한 問題가 왜온 것처럼 보인다. 맑스主義의 核心의인 關心事였던 「휴머니즘」은 스탈린主義나 現蘇聯體制에 대한 批判의 出發點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現代科學의 非人間化 可能性은 現代世界에 있어서 「휴머니즘」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하는 問題에 대해서 새롭게 緊迫性을 제공하고 있다. 主要한 「이데올로기」關係, 雜誌에 나타— 一聯의 주요 論文들속에 權威있게 說明되고 있는 公式의 見解는 그 문제에 關係 아주 明白하다. 즉 “社會主義는 人間에 의한 人間의 擄取를 根絶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人道主義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남은 것에 대한 끈질긴 투쟁속에서 非常한 努力의 대가로 새로운 社會의 建設을 달성할 때, 역시 人道主義이다. 또 그것은 個人的 完全한 發展을 위한 條件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社會가 한 個人的 活動이나 그의 勞動規律을 統制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 그리고 社會全體의인 利害를 위해서, 또는 特定한 個人에 대한 共產主義의 教育을 위해서 個人들에게 社會主義가 부여하고 있는 自由의 남용을 禁하고 무책임한 人民들이 社會主義社會의 規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또 反社會主義勢力의 反對를 탄압하는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人道的인 것이다.”⁶⁾ 이와 같은 論議는 “소위 ‘永遠한’ 價値, 즉 自由, 民主主義, 휴머니즘, 個人的 尊嚴……과 같은 것은 「브르조아지」들이 大衆을 현혹하고 우롱하기 위한 武器이며”⁷⁾ 스탈린主義의 問題라는 것은 애초부터 당치도 않은 것이라는 主張*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왔다.

* “現在도 ‘스탈린主義’라는 망령된 말을 사용함으로써 社會主義建設過程에서 이룩한 성과를 비방하려는 음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탈린主義’라는 망령된 用語는 無定見한 사람들을 翕박하고, 政治的인 착고한 態度나 革命的인 性格 또는 「이데올로기」의인 非妥協性, 맑스主義에 대한 一貫된 忠告와 같은 것들이 바로 ‘스탈린主義’라는 思想을 유포시키기 위해서 使用되고 있다.” (D.I. Ches-

nikov, "Aggravation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Struggle and Contemporary Philosophical Revisionism," *Voprosy Filosofii*, No. 12, 1968).

以上과 같은 見解는 널리 強調되고 있는 「이데올로기」重視의 一端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즉 現實을 바로 파악하려면 「이데올로기」의 인 眺望이 절대적으로 緊要하며, 오직 科學的 共產主義(蘇聯의 指導者들이 定義하듯이)만이 現實에 대한 精確한 眺望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科學的 共產主義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命題는 아니지만, 蘇聯의 水準 높은 學術雜誌나 「메스미더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인 타락(ideological erosion)이나 一般의 工業社會類型의 出現, 또는 先進諸國 政治體制의 새로운 官僚的 政治엘리트 現象에 관한 西歐理論을 攻擊하는 것과 관련돼 왔다는 점에서 얼마간 새로운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蘇聯의 批評은 西歐의 理論들이 科學的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뿐 아니라, 政治的으로도 有害하며, 아마 共產主義를 붕괴시키려고 계획적으로 考察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體系的이고 要領있게 文獻을 다룬 蘇聯의 批判은 L. Moskvichev, "The 'De-ideologization' Theory: Sources and Social Essence," *Mirovai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a*, No. 12, 1963을 參照할 것.

蘇聯의 見解에 따르면, 蘇聯 맑스主義의 「이데올로기」의 인 進化나 타락, 또는 說「이데올로기」化를 論하는 修正 맑스主義者들이나 西歐理論家들은 基本的으로 소비엘트 權力の 「이데올로기」의 인 基盤을 붕괴시키려는 政治的 戰略에 從事해 왔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점에 있어서 著者는 특히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 예를들어 E. Modrzhinskaya 教授의 "Anti-Communism Disguised as Evolutionism" (*International Affairs*, No.1, Moscow, 1969)을 參照할 것. 그는 西歐의 社會學的 著作속에서 "社會主義를 전복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的 手段"을 準備하고 있는 노력들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와같은 理論들中에는 Walt Rostow (잘 알려진 美國의 反動政治家이며 社會學者)에 의해서 展

開된 經濟發展段階說, 프랑스의 反動的 政治評論家며 社會學者인 Raymond Aron이 主唱하고 있는 單一工業社會論, 收斂理論, 그리고 以上の 모든 理論들을 적용하는 笠石(Capston)의인 것으로 문렘비아大學 共產主義問題研究所長 Zbigniew Brzezinski가 가장 상세하게 論述한 進化理論 등이 있다. ……

進化理論의 主要한 特徵은 지난 數年間 Brzezinski의 著述에서 나타나고 있다. ……進化理論의 特徵으로 매우 주목되는 것은 바람직한 變化的 連鎖(desirable sequence of change)이다. 즉 그의 이론은 收斂論者들이 示唆하는 것처럼 經濟的 變化가 政治的 變革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부터 政治에로의 變化가 社會經濟的 體制的 變化를 主導한다는 것이다.” (p.16)

蘇聯의 學者들은 蘇聯體制와 西歐, 특히 美國 體制간의 “收斂”에 관한 理論을 특별히 배겨해 왔다. 蘇聯의 觀點에서 보면 西歐思想家들은 社會的인 또는 政治的인 本質의 問題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皮상적으로 近代 工業社會의 外面的인 特徵에만 焦點을 맞추었기 때문에 蘇聯體制(프로테타리아 獨裁의 表現으로서 共產黨에 의해 支配되는)의 主要한 要素를 過少評價하고 있었던 것이다. 蘇聯側의 批判中 어떤 점은 전혀 理論的 長點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西歐의 收斂理論도 어떤 점에서는 新資本主義의 決定論과 妙한 接近을 보여 주고 있다) 共產主義體制的 特殊性을 主張하고 立證하는데 그와같이 많은 知的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蘇聯의 過去가 人類의 政治的 進化라는 큰 潮流의 一部가 아닌 아주 獨特한 未來와 連結되고 있다는 概念에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보여준다.*

* 이와같은 強調은 “今世紀 남은 마지막 3분지 1의 문제점”에 관한 重要 分析속에서 “맑스레닌主義는 觀念을 事實과 調和시킬 필요가 없다고 主張한데 이 르러서는 喜劇에 가까운 公言을 誘導하고 있다.” 著者는 (확실히 매우 진지한 태도로) “最近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의 布告에 따르면 20세기의 모든 훌륭한 革命的 事件은 레닌主義와 결부돼왔다”고 부연하였다. (V.A. Chepravov, Izvestia, August 18, 1968).

그것은 또 蘇聯體制가 오늘날 蘇聯以外的 다른 모든 地域의 人間들을 괴롭히는 危機狀況과는 無關하다는 論議를 可能하게 해주며, 蘇聯共產主義者들에게 그러한 諸危機에 대한 相異한 「이데올로기」間的 對話에 參與할 責任을 면케 해준다.

對外問題에 關한 蘇聯當局의 解釋도 비슷한 知的 硬直性을 特徵의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말은 蘇聯의 指導層이나 엘리트들이 本質의 事實이나 發展에 對해서 그릇된 情報를 갖고 있다거나 無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世界情勢에 關한 蘇聯의 公式의이거나 知的인 報道의 水準은 크게 改善되었고, 事實의 誤報(미리 「이데올로기」적 立場에 맞도록 꾸며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關한 蘇聯의 學術專門誌들이나, 歐州共同市場에 關한 分析, 또는 體系의인 美國研究를 發展시키려는 노력들은 단순한 「이데올로기」的 公式를 탈피하여 地域的 發展에 대한 깊은 理解를 重視하고 있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國際問題에 關한 어떤 蘇聯의 學術雜誌는(예컨대 *Mirovai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a* (世界經濟와 國際關係)) 그 體系性이나 文獻, 또는 學問의 패기에 있어서 西歐의 一級雜誌들과 比肩할만 하다. 또 「世界經濟 및 國際問題研究所」와 같은 專門研究機關들은 빈번히 政策的 諮問에 應하고 있으며, 政策決定過程을 한층 高度化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광범위한 現實에 關한 蘇聯의 概念들은 最高指導者들의 發言이나 學術雜誌等に 表現되고 있듯이 基本的으로 獨斷的이다. 거기에는 基本的인 前提로 社會主義世界와 資本主義世界(또는 善과 惡) 間的 敵對라는 「마니」教的(Manichaen) 二分法의 概念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두 世界間的 戰爭이 「宿命的으로 不可避」하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核武器의 파괴성은 平和共存의 必要性을 지시하고 있지만(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考慮, 예컨대 中·蘇紛爭과 같은

것 때문에 보다 緊密한 協力關係가 戰術的으로 要望되고 있다), 現實의 基礎는 여전히 두 體制간의 경쟁이라고 말한다. 즉 “모든 면에서 人間의 社會生活에 영향을 끼치는 空前의 規模와 暴力을 수반하는 鬭爭 가운데서 오늘날 두개의 敵對인 社會, 經濟體制는 서로 싸우고 있다. 그 두 敵對者는 바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다.”¹⁸⁾는 '것이며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 따라서 現代의 國際問題를 分析하는데 야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 蘇聯의 分析家는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競爭의 結果는 우연을 배제한다. 勝敗는 必然의인 것, 다시 말해서 不可避하게 歷史의 法則에 支配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競爭에서 敗背는 오직 한번으로 끝난다. 거기에는 「리턴매치」도 再試合도 設想전도 없다”(Kh. Momjan, *The Dynamic Twentieth Century*, Moscow, 1968, pp. 107~108)

蘇聯의 分析家들은 누가 勝利者가 될 것인가를 確信하고 있다. 그와 같은 主題는 모든 중요한 演說이나 外交政策分析 또는 國際問題에 관한 學術的 論評에서 一貫되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것들을 단순히 敎理에 服從하는 儀式的 行爲로 誤解하거나, 狂信的이고 고집이 센 好戰性의 表現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와 같은 문제의 重要性은 「이데올로기」적인 틀이 보다 直接적이고 正確한 政策判斷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틀은 蘇聯의 指導者들로 하여금 短期的으로 好戰性을 후퇴시키도록 할지는 모르나 그들 자신이 和解나 安定을 目的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制約한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것은 歷史를 流動적이고 辨證法的인 것으로 보는 共產主義的 見解를 否定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諸問題에 대한 蘇聯의 公式的인 分析方法是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現代는 世界的인 社會主義體制의 出現에 의해 支配되고 있다. 社會主義의 出現은 重要한 變化의 힘으로써 社會主義革命의 速度를 促進시킬뿐 아니라 帝國主義者들의 反擊을 성공적으로 저지해 준다. 따라서 戰爭은 이제 不可避한 것이 아니며 두 體制, 특히 蘇聯과 美國間에 平和的 競爭은 可能하다. 그러나 그러한 競爭의 궁극적인 結果는 共產主義體制에 內在하는 歷史的 優越性을 考慮할때 이미 運命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戰爭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第三世界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많은 分野에서 보다 積極的인 協력이 추구돼야 한다. 어떤 地域에서는 이미 平和의 方法에 의해 社會主義로 移行할 수 있는 條件이 마련돼 있다. 보다 後進된 어떤 地域에서는 暴力的인 革命이 必要할지 모르나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毛澤東主義나 카스트로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戰術的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蘇聯의 權威있는 分析家들은 보다 先進된 資本主義國家들 內部에 심각한 危機의 징조를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政治的인 危機는 이틀레던 10년이나 20年 前보다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危機는 단지 一周邊에서가 아니라 帝國主義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資本主義國家들 內에서 일어나는 社會的, 政治的 危機는 이제 財政的인 위기를 심화시키고 帝國主義陣營의 經濟狀態 全般을 惡化시키는 條件下에서 蔓延되고 있다.”¹⁹⁾

그들은 西歐知識人들間에 急進主義가 增大되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중요한 要因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중의 대다수가 (二次大戰以前의 急進主義者들과는 달리) 이제는 “보다 積極的인 進歩勢力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蘇聯側의 觀點에서는 그와같은 것들이 先進된 資本主義世界의 內的인 危機를 더욱 深化시키는 것이며, 第三世界에서 일어나는 變化나, 심지어 革命的 봉기보다도 더 重要한 要因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美·蘇間의 競爭뿐이다. 따라서 重大한 戰

略上の問題는(당장의 戰術的인 考慮는 차치하고) 어떤 주어진 行動路線이 世界的인 共產主義運動을 前進시킬 것인가의 如否가 아니라 그것이 美蘇間의 均衡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 즉 蘇聯에 有利할 것인가 不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蘇聯의 政策樹立家는 蘇聯의 利害와 國際的 運動의 利害間에 아무런 矛盾을 느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데올로기」의 으로는 共產主義와 아무런 關係도 없는 反美勢力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特定問題에 關해서 美國과 和解를 追求하는 것을 「이데올로기」의 으로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蘇聯은 그들의 순수한 國家的 利害를 「이데올로기」的인 主張과 결합시켜 主觀的으로 同一視하고 있으며, 또 그에 따라 一定한 目標를 志向하는데 있어서 戰術上의 柔軟性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있다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冷笑的이라고 순진하게 判斷하는 것은 禁物이다.

蘇聯의 指導者들은 「이데올로기」的인 對決에 關해서 “歷史發展의 現段階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에 「이데올로기」的인 鬭爭이 매우 尖銳化하고 있는 것으로 特徵된다”는 見解를 밝힌 바 있다. 이와같은 結論은 1968年 4月 소련 中央委員會에서 公式的으로 表明되었다.²⁰⁾ 이와같은 見解는 그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의 役割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國際問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競争은 점점 격화하고 있다는 命題로 體系化되었다. 특히 1968年 8月 蘇聯의 체코占領事態는 그와같은 命題들이 더욱 擴大解釋되는 계기가 되었다. 蘇聯은 當時 체코의 國內的인 變化가 共產主義를 社會民主主義로 變質시키려는 中극적 目標를 가지고 있는 西方側의 “平和的 介入”(peaceful engagement) 政策에 의해 선동된 것이라고 명백히 主張하였다. 蘇聯의 筆者들은 그와같은 政策을 西方側의 새로운 “平和的인 反革命”(peaceful counter-revolution) 戰略이라고 불렀다.²¹⁾

두 對立하는 「이데올로기」體系간의 계속적인 對決에 關한(또는 오늘의 現實은 그와같은 二分法의 立場에서 理解될 수 있다는 概念에 대한) 그와 같은

強調는 國際共產主義內에서의 蘇聯의 役割이나 現代共產主義 自體에 대한 蘇聯側의 解釋方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中·蘇紛爭이나, 소비에트 權威의 衰退, 또는 한 共產主義國家에 대한 다른 共產主義國家의 軍事의 侵略으로 초래된 士氣의 상실 등에 의해서 國際共產主義運動 內部에 큰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蘇聯指導者들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의해 指導되는 單一한 運動이라는 正統의 概念을 계속 며받들어 왔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共產黨이 참여하는 “團合會議”를 開催하려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종종 團合을 阻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獨斷的 解釋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反對되는 主張을 하는 共產黨을 破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우리 世代의 世界的 過程에 관한 內容이나 方向을 밑바닥부터 表現해 줄 수 있는 社會理論이나 敎說은 하나 뿐인 맑스·레닌主義이다. 오직 하나의 哲學만이 歷史發展의 現段階가 갖는 矛盾을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共產主義者들은 항상 레닌主義를 단순히 러시아의인 敎說이 아니라 國際的인 맑스主義의 敎說으로써 생각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F. Konstantinov, “Marxism-Leninism: A Single International Teaching” *Pravda*, June 14, 1968).

이와같은 見地에서 蘇聯의 理念追從者들은 “毛澤東思想은 俗物哲學이며, 종종 無政府主義的, 概念論的 折衷主義에 흘러서 맑스·레닌主義 哲學과는 아무런 共通點이 없다”고 주장한다. (A. Rumyantsev, *Writing in Kommunist*, No. 2, 1969). Rumyantsev나 Konstantinov는 蘇聯의 指導의 理念追從者이다.

그 結果는 修正主義者들이나 中國共產主義者들에 대하여 反復하는 罪의 意味뿐 아니라, 새로운 革命的 實踐이나 共產主義國家의 진보적인 發展을 敎理學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知的 能力을 점점 상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西歐 젊은이들의 反抗에 대한 蘇聯의 態度가 그 좋은 例다. 蘇聯은 西歐 젊은이들이 既存 共產主義 指導體制를 수락할 姿勢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들이 蘇聯의

官僚主義에 비판적이었을 때, 즉각 그들에 대해서 맹렬한 敵對의 態度로 돌변했었다. 특히 마르크제(Marcuse)는 勞動階級의 革命이라는 階級的 概念을 버리고 青年과 知識人의 역할을 지나치게 強調했다고 공격을 받았다.*

* 이와같은 공격은 종종 이상한 形態를 취하였다. 모스크바放送 解說家인 Valentin Zakharov는 마르크제와 브레즈네키가 1968년 '체코 反革命'을 組織하는데 CIA를 도와서 같이 參與했다는 테마를 가지고 放送프로그램의 모든 時間을 채웠던 일이 있다(Radio Moscow, August 19, 1969).

사실 蘇聯의 理論家들은 先進諸國에서의 學園內의 소동이 갖는 잠재적인 革命的 效果에 대해서 신중히 評價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카스트로主義者들의 革命이 직접 계발 活動으로 突入했을 때, 既存의 親蘇派共産黨은 그것을 反對하였고 모스크바는 이들을 지지했었다. 여기서도 역시 蘇聯은 都市에 基盤을 갖는 黨 主導下의 프롤레타리아 革命모형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체코의 政治指導者들이 러시아적인 特殊條件의 產物인 레닌主義는 今後 체코共産主義의 發展을 위해서 最適의 指針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기 시작했을 때 蘇聯의 反應은 그와같은 逸脫을 非難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蘇聯共産黨은 말로는 社會主義로 가는 길은 多種多樣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獨斷的인 普遍主義의 概念, 즉 蘇聯의 經驗만이 기본적으로 보편 타당하다는 의미에서의 普遍主義 개념에 집착해 있는 것이다.

未來의 展望

이와 같은 硬直性은 將來에 대한 蘇聯人들의 思考를 條件지우고 制約한다. 西方에서는 未來에 대한 研究가 流行되어 널리 行해지고 있다. 그와

같은 未來의 研究들 속에는 社會的인 豫測, 또는 보다 批判的이고 規範的인 論議를 技術的인 透影(technological projection)과 연결시키려는 體系的인 試圖들이 포함되고 있다. 거기에서는 特別 人間의 問題와 關聯하여 科學的 發見이 갖는 哲學的 意味가 심각한 論議의 對象이 되었다. 「테크놀로지」가 갖는 政治的 意味도 역시 學者들이나 또는 政治的 指導者들의 注意를 끌기 위해 되었다. 사람들은 맑스主義思想 자체가 未來志向의인 것이라는 점에서 蘇聯이 그와같은 問題에 대한 研究나 分析에 있어서 당연히 앞서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事實은 그렇지 못했다.

未來研究에 대한 蘇聯의 體系的인 努力은 第23次黨大會에서 이루어진 高位層의 決定에 의해 推進되었다. 처음에는 그와같은 研究를 目的으로 몇몇 機關에 專門研究團이 만들어지고(예컨대 소비에트·아카데미의 “社會·技術的 豫測團”) 또 蘇聯의 學者들이나 知識人들을 組織化하는 많은 非公式集團이 만들어졌다. 1966년에는 科學의 將來를 다룬 特殊한 年鑑이 發刊됐는데 第一卷은 蘇聯內外學者들의 寄稿로 이루어지고 있다.²²⁾ 蘇聯學者들은 또 美國을 포함한 西方側의 類似研究團體들이나 研究刊行物들과 유익한 접촉을 갖고 있었다.

蘇聯學者들은 주로 技術的, 經濟的 豫測分野에 있어서 內容있는 業績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1964年 蘇聯의 哲學雜誌, *Voprosy Filosofii*는 “科學的 技術革命과 그의 社會的 結果”라는 主題에 관한 일련의 論文들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그것들은 獨特한 蘇聯式의 經濟的, 技術的 展望만을 제외한다면 全體적으로 豫測의 方法論, 科學的 爆發的 發展과 關聯한 科學的 組織問題, 「사이버네틱스」의 役割, 美蘇間 科學的 發展과 計劃에 관한 比較分析등과 같은 主題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매우 유익한 연구들이었다.²³⁾

이러한 努力과는 對照的으로 豫想되는 技術的, 經濟的 變化와의 相互作用에 초점을 맞춘 政治的, 「이데올로기」的인 研究나 哲學的 研究는 놀랄만큼 적었다. 蘇聯의 知識人들이 그와 같은 두가지 問題間의 不可避한 相互關

聯性을 認識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와같은 論議에 관해서 蘇聯에서 刊行된 것으로는 西方側 文獻에 대한 批判的 評價에 局限되고 있다.

* 科學者이며 小說家인 한 蘇聯人은 「이대올로지」의인 形式을 떠난 한 文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즉, “未來는 樂觀主義, 非合理的인 希望, 또는 坎坎한 絶望등과 같은 모든 感情과 마주치게 된다. 未來는 「히스메리칼」한 幻想이나 正確한 計算이라는 兩者에 의해서 危脅을 받고 있다. 未來를 褻瀆하여 간단히 파멸시키며 또 未來를 後退의 方向으로 돌려, 原始的 洞穴로 만들려는 試圖가 행해지고 있다. 未來는 되살아 났다. 오늘날 우리는 未來를 심각하게 그리고 思慮깊게 研究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以前의 人間歷史에 있어서 오늘날 같은 때는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未來는 現在에 依存하며 새로운 接近을 要求하고 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危機들로 充만해 있다. 그러한 諸危機는 그릇된 自由의 概念뿐 아니라 個人에 대한 그릇된 理念과 關係가 있다.” (Daniil Granin, “And Yet……,” *Inostrannia Literatura*, No. 1, Moscow, 1967.)

이와는 대조적으로 蘇聯 科學아카데미 思想研究所가 펴낸 *Socialism and Communism* (全五卷)은 共產主義下 蘇聯社會의 構想에 대한 총괄적인 研究속에서 科學革命에 의해 社會의 緊張이 야기된다는 分析을 피하고 있다. 거기에는 한결같이 幸福한 未來만이 表現되고 있다.

그와같은 “評價들”도 매우 조야한 것으로(특히 黨理論誌 *Kommunist*에 나타난 것을 보면) 非難에 관한 것 뿐이다.*

* 그중 특히 유치한 것으로는 Aron이나 Fourastie등을 批判한 G. Gerasimov, *The Falsifiers of the Future*(*Kommunist*, No.2, 1968)를 參照. 또는 著者の 論文, “America in the Technetronic Age”를 攻擊한 Yuri Zhukov의 많은 論文을 參照할 것. 蘇聯의 論評家들은 다음과 같은 著者の (“America in the Technetronic Age”) 見解에 화를 내고 있다. 즉,

“世界는 이제 큰 變革의 前夜에 있다. 그와 같은 變化는 그 歷史的 結果나 人間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프랑스 革命이나 볼셰비키 革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劇的인 것이다. 長期的 眼目에서 볼때 프랑스혁명이나 볼셰비키 革命은

단지 人間條件의 表皮를 핏는 것에 不過했다. 그러한 革命은 社會內 權力 또는 財產分配의 變化를 야기시켰지만 個人的, 社會的 存在의 本質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비록 生活(個人的인 生活이든 組織的인 生活이든간에)의 外的(주로 政治的인) 形態는 變更되었다 하더라도 生活 그 자체는 以前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 그와같은 革命의 使徒들에게는 놀라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2000년에 가서는 로베스피에르나 레닌도 온건한 改革主義者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른 雜誌들, 특히 世界經濟研究所의 機關誌에서는 보다 신중함(그러나 역시 기본적으로는 否定的인) 評價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評價들은 西歐的인 政體가 더이상 工業化의 資本主義의 段階로 規定될 수 없는 새로운 脫工業化 形態로 進化할 수 있다는 可能性, 또 그와 같은 새로운 工業化以後의 形態가 資本主義體制와 關係되는 個人的 疎外와 剝削의 危機를 극복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리라는 것에 대해서 肯定的인 立場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一部 폴란드 共産主義者들(물론 그들은 共産主義「이데올로기」에 充實하다)이 비판적인 立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우리는 現代獨占資本主義內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技術革命이 그러한 獨占資本主義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明確한 解答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共産主義理論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관찰하고 있다. 즉 ①共産主義理論은 現代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에 關한 概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②共産主義理論은 先進된 西方側과 比較할 때 점점 열세를 보이고 있는 共産主義經濟의 技術的 問題를 直視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③共産主義理論은 아직도 社會主義가 科學的 革新의 能力을 立證해야 한다는(비록 그것이 工業的 後進性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는 그 폐기를 證明했지만) 사실에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④共産主義理論은 世代間 矛盾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런 思想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²⁴⁾

한 루마니아 共產主義者는 그의 광범위하고도 思慮깊은 論文속에서 “技術·科學革命을 위한 马克思主义理論의 必要性”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근 西方側은 科學·技術革命의 本質 및 그러한 科學技術革命이 갖는 社會나 人間과의 關係에 관한 理論의 研究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우리는 아직 科學·技術革命에 관한 統一되고 一貫性있는 马克思主义理論이 存在한다고 말할 수 없다.”²⁵⁾

한마디로 말해서 蘇聯의 政治思想은 장차 蘇聯體制 自體의 政治的, 「이데올로기」的 進化에 관한 體系인 理念을 發展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歷史的 條件下에서의 世界革命過程에 대해서도 體系인 理念을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비단 異端의 知識인이 非公式的이거나 “地下的인” 形態를 취하도록 역제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蘇聯 马克思主义者들 내에서 開放的이고 創造的인 政治·「이데올로기」論爭이 不在했기 때문이다. 蘇聯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理論的인 思想과 實踐의 相互作用으로 形成되는(스탈린의 權力이 최고조에 이르기 이전처럼) 것이 아니라 官僚的인(즉 職業的 黨官僚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獨占되는) 解釋過程의 產物이다. 「이데올로기」는 黨中央委員會 事務室에서 나온다. 그 事務室에서는 政治局에 제출되어 集團의 同意를 얻지 않은 委員會의 報告와 職員들의 手중에 있는 報告를 基로 해서 「이데올로기」를 作成한다. 政治的 過程을 통해서 그 內容이 決定되는 「이데올로기」가 純理論的,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分裂的인 問題를 미리부터 안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知的인 創造성과는 아무 關係가 없이 官僚主義的인 命命의 性格을 다분히 갖는 것이다.

逆說的으로 思想에 대한 官僚主義的 不毛性은 革命的인 美辭麗句와 象徴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일단 革命的 敎理는 러시아의 民族의 利益에 매우 민감한 既得權益의 옹호자들과 매우 밀접하게 결부됐기

때문에, 革命的 상징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피난처를 찾으려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것은 하나의 敎理가 知的인 衰退의 과정을 걸을 때 나타나는 共通된 現象이다. 즉 實踐이 점점 訓誨를 이탈할 때 象徵과 美辭麗句는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公式이나 主張을 凍結시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인 制約이 점점 意味를 잃게 될 경우에도 知的인 革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結果는 「이데올로기」的 發展의 中止,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의 衰退(erosion)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化石化(petrification) 狀況이다. 결국 맑스主義思想은 蘇聯의 밖에서나 重要的 意味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現代 蘇聯生活의 灰色風暴은 빅토리아朝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Lincoln Steffens는 1920年代 初期 蘇聯을 방문했을 때, “나는 未來의 世界에 갔다는 기분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生動하고 있었다.”고 감탄했었다. 오늘날 蘇聯에 갔다 돌아온 여행자들은 異口同聲으로 “나는 過去의 世界에 갔다는 느낌이다. 그 社會는 하나의 概念이다.”라고 말한다.

來日에 대한 「비전」은 점점 무의미하고 空虛한 宣稱으로 타락하고 있다. 蘇聯의 將來에 대한 그들의 公式的인 展望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全世界의 主導的인 革命勢力은 맑스·레닌主義思想으로 무장하고, 歷史的 樂觀主義를 가득히 채워 來來를 向해 行進할 것이다.”²⁵⁾

三. 蘇聯의 將來

오늘날 중요한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蘇聯이 언제 스탈린主義의 遺産을 清算하느냐 하는 것이다. 스탈린主義를 清算하지 않고는 蘇聯의 指導者들이 그들 社會의 問題를 精確히 진단한다거나 오늘날의 知的인 또는 國際的인 「딜레마」속에서 蘇聯을 적절히 對處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와 같은 스탈린主義의 清算이 바로 社會主義나 맑스주의의 포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老朽化되고 官僚主義化한 權力의 「이데올로기」를 反映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權力에 의해 支持되고 있는 政治體制를 現代의 人道主義 또는 普遍主義 무드에 더욱 精確한 것으로 轉換시킬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一部 反共主義者들은 남득이 잘 안가는데 얘기일지 모르지만, 人類의 平和는 蘇聯이 西洋의인 맑스主義 傳統으로 復歸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다 해서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맑스主義 傳統으로의 복귀는 보다 東洋의인 레닌主義나 스탈린主義를 變更시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맑스主義로부터의 訣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蘇聯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인 變化는 不可避하게 社會, 經濟의인 變化와 밀접한 關聯을 갖게될 것이다. 그러나 社會經濟의 變化가 「이데올로기」의 變化를 左右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맑스主義의 分析들은 共產主義政治를 理解하는데 最高로 不適合하다. 왜냐하면 共產主義體制에서는 실제 政治의 上部構造가 經濟的 基礎를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에 있어서 政治의 變化는 보다 技術的 定向을 가진 새로운 社會的 엘리트의 出現에 의해 必然的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政治

의變化는 權力の座에 있는 職業的 黨官僚들의 內的인 性格 또는 世界觀의 變化나 그와 같은 政治엘리트들이 蘇聯의 國內問題 處理에 어느정도 成功하느냐에 더욱 影響을 받게될 것이다.

國內的 딜레마

蘇聯의 國內的인 問題들은 經濟的, 技術的인 能率과, 政治的, 「이데올로기」的 逸脫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제기되는 것 같다. 今後에도 蘇聯의 經濟가 계속 成長할 것이라는 점에는 疑問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美國이나 蘇聯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事態가 일어나지 않는 한, 兩國間의 絶對的인 格差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다음과 같은 計算이 可能하다. 美國의 GNP는 年 3.5%로 증가한다고 가정할때 1985년에 가서 1.5兆 달러이상인 된다. 만약 美國의 GNP成長率이 1960年代의 水準을 유지한다면 1980년에 벌써 1.7兆 달러가 된다. 한편 蘇聯의 GNP는 5%로 비교적 高率의 成長을 한다고 가정할때 1985년까지 고작 8000억 달러 이하에 머물 것이다. 만약 더 높은 7.5%의 증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1985년에 가서 약 1.1兆 달러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絶對的인 갭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1965~85年間은 상당히 갭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蘇聯指導者들은 1961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黨綱領 가운데 1970년까지 蘇聯의 工業生産은 美國을 앞지를 것이라고 公約한 바 있었다. 분명히 그와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經濟成長은 아마 政治 엘리트의 「이데올로기」的인 野心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充分치 못할 것이며, 더구나 그것은 證증하는 社會的 要求를 만족시켜 주기에 부족할 것 같다. 社會的인 要求는 西歐와 比較하여 蘇聯의 主要部門이 非正常的으로 時代에 뒤져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실질해집에 따라 더욱 擴散해갈 것이 틀림없다.

蘇聯의 後進性은 특히 農業部門에 있어서 현저하다. 農業生産性은 지난 數十年間 대부분의 先進國家에서 심지어 최근에는 몇몇 後進國家에서도 비약적인 上昇을 보여 주었다. 農業에 있어서 蘇聯과 같은 나라는 없다. 蘇聯은 점점 農業의 生産性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야 약간의 上昇勢를 나타내고 있다. 蘇聯의 農村人口는 低水準의 雇用, 低水準의 報償, 低水準의 生産性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蘇聯에 있어서 農業問題는 긴급히 해결해야할(또 이데올로기의으로도 重要視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蘇聯 農業의 技術的인 後進性은 勞動力의 分配에서 反映되고 있다. 勞動力의 分配라는 점에서 蘇聯은 先進地域보다 훨씬 뒤져 있다.) (表9) 참조)

農業보다는 좀더 發展된 工業部門을 볼 때, 宇宙開發이나 兵器와 같은分野에 있어서 蘇聯의 科學이 達成한 상당한 業績 때문에 그와 같은 發展이 近代的인 工業社會의 要求에 不適合하다는 側面이 감추어지고 있다. 蘇聯은 研究나 開發을 위해서 (실질적인 費用에 있어서의 差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美國과 거의 같은 支出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⁷⁾ 더우기 蘇聯의 科學關係 人力의 數는 놀랄만한 速度로 增加되어 이제 美國과 맞먹을 정도이다. 많은分野에 있어서(특히 物理學의 경우) 蘇聯의 理論的 業績은 단연 首位를 차지한다.

그러나 科學分野에 있어서의 蘇聯의 努力은 社會 經濟 全般에 걸친 기여라는 면에서 볼 때 相對的으로 미미한 것이다. 蘇聯의 指導者들은 最初의 宇宙開發成功을 가지고 재빨리 「이데올로기」의인 宣傳에 이용하여 共產主義의 優越性을 立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美國이 달 着陸에 成功한 後로는 소리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蘇聯은 西歐와의 競爭關係에서 世界市場에 經濟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技術的으로 先進된 產品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을 뿐더러 基本的인 國內消費의 要求도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비교적 初步的인 工業部門이라고 할 수

있는 自動車生産에 있어서도 蘇聯은 外國의 援助(現在 이태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었다.²⁹⁾ 秘密軍事研究가 다른 經濟分野와 엄격히 유리돼 있다든지, 科學研究者들이 産業과는 거리가 먼 研究機關에 集中돼 있다는 사실은 全般的인 研究의 發展이 아니라, 오직 軍事目的을 위한 發展이었다는 것, 또 發展을 위해서 상당한 지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蘇聯 아카데미 會員인 V. Trapeznikov는 蘇聯에서는 研究員의 98%가 研究所에 근무하는데 反해 美國의 研究員은 60%가 직접 關聯産業에서 근무한다고 推定하였다. 그는 蘇聯에 있어서 研究上的 發見中 거의 切半이 開發에 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Pravda*, January 19, 1967).

또 蘇聯 아카데미 會員인 V.M. Glushkov가 1968년 5월 15일자 *Komsomolskaia Pravda*誌와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할 것. 여기서 그는 '體制管理者'를 조속히 養成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體制管理技術에 있어서 美國이 훨씬 앞서 있으며 蘇聯은 比較가 되지 않는다고 슬피하였다. 그는 또 美國의 先例를 引用하여 蘇聯의 管理者들을 定期的으로 再教育시킬 것을 역설했다.

「컴퓨터」, 「트랜지스터」, 「레이저」, 「플자」, 「프라스틱」 같은 부문에서 蘇聯은 확실히 뒤져 있다. 또 管理技術, 勞使關係, 心理學, 社會學, 經濟理論, 「시스템」分析和 같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分野, 예컨대 宇宙開發이나 一部の 軍事的 研究開發 또는 鐵鋼産業의 重要한 一部에서는 技術的으로 매우 發展돼 있다. 그러나 많은 工業分野, 특히 消費財 分野에서는 西歐의 主要國家들과 比較해서 技術的으로 훨씬 落後돼 있다…….

蘇聯과 西歐를 다같이 研究한 結果로 얻어지는 印象은 蘇聯이 美國과 比較하여 몇몇 優先工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分野에서 技術的으로 뒤져있으며, 또 많은 主要工業分野에 있어서 技術的으로 西歐工業國家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cience Policy in the USSR*, pp.9, 496).

國際原子力機構(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研究에 따르면, 1954年 核에너지의 平和의 利用을 最初로 수락한 蘇聯은 1969년에 와서 美國과 英國에 의해 추월당했으며 1975년까지는 美國, 英國, 日本, 캐나다, 스웨덴,

獨逸 보다도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가서 蘇聯의 原子에너지 平和利用 에가와트數는 美國의 약 14분의1이 될 것이다. (*Power and Research Reactors in Member States*)

Burks가 제시한것처럼 “西方側의 科學技術發展曲線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 즉 合成 섬유, 「프라스틱」, 核에너지, 「트랜지스터」, 計數型「컴퓨터」, 電子復寫, 「테이저」 등은 서로 關聯된 發展을 계속할 것이다. 西歐의 技術이 보다 復雜化됨에 따라 그와 關聯된 東歐의 再生時間 지체는 더욱 커질 것이다. 西歐의 技術을 모방하는데 所要되는 時間을 2~15年으로 잡을 때 東歐의 市場에 처음으로 나타난 製品의 약 半은 西歐側에서 볼 때 時代에 뒤진 것이 될 것이다. 「컴퓨터」의 경우 蘇聯에서는(東歐가 아니라) 技術模倣期間이 2~10年이나 된다.” (Ricard U. Burk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Eastern Europe*, Santa Monia, Calif., August 1969, p.3).

蘇聯政府는 이와같은 狀態를 改善하기 위해서 1968年에 科學的인 研究와 開發을 促進시키고 管理能力을 改善하기 위한 目的으로 一聯의 改革에 착수했다. 黨中央委員會는 1968年 10월 特別決議(“科學機關의 作業能率向上 및 科學的, 技術的 業績의 國民經濟를 위한 利用促進에 關한 措置에 對해서”)를 채택했다. 同 決議는 蘇聯의 研究나 開發問題에 대해서 심히 批判하고 直接 產業에서 일하고 있는 研究者들의 地位를 純粹科學研究機關에 雇용돼 있는 科學者들과 똑같이 올려줄 것, 產業工場에다 研究實驗所를 설치할 것, 그리고 技術革新에 대해서 報償을 실시할 것등을 골자로 하는 一聯의 改革을 指示하였다. 蘇聯아카데미 會員인 Trapeznikov의 말을 빌리면 “그 決議案에서 重要한 點은 科學技術的인 「아이디어」나 提案에 關해서 競爭의 原理를 수립한 것이다.”²⁹⁾

그와 같은 改革들이 과연 創意的이고, 社會에 有益한 革新과 適應을 갑자기 가져오기에 충분할 것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蘇聯의 科學者들은 創造性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自由로운 討論과 論爭의 분위기, 그리고 설사 그중에 이주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의 自由로운 開陳”³⁰⁾이 必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要因은 꾸로커

社會全體의 「이데올로기」의인 또는 制度的인 組織과 關係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간의 組織上 整備만으로는 改善될 수 없는 것이다. 「蘇聯의 科學政策」(Science Policy in the USSR) (1969)이라는 題目下에 이루어진 OECD (經濟協力 開發機構)의 研究는 蘇聯의 改革努力에 비해 相對的으로 그 社會經濟的 成果가 놀라운 정도로 미약했다는 사실을 統計的 資料에 의해 상세히 밝혀 주고 있다. 이와같은 OECD의 研究는 「이데올로기」的, 政治的 中央集權化는 기껏 잘해야 변덕스러운 科學政策을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아주 잘못되면 破局的인 科學政策을 초래한다는 見解를 강력히 뒷받침 해 준다.*

*後者の 경우에 해당하는 實例의 하나로 Lysenko事件과 그 事件이 蘇聯의 生物學에 끼친 파멸적인 악영향을 들 수 있다. 그 事件에 대한 자세하고도 유익한 說明은 蘇聯科學者 Z.A. Medvedev의 著書, *The Rise and Fall of T.D. Lysenko* (New York, 1969)에 잘 돼있다. Medvedev의 上記 著書는 蘇聯에서 執筆되었으나 出版이 不許되어 美國에서 刊行되었다.

今後에도 蘇聯은 특히 國際的인 威信을 높여줄 수 있는 宇宙探究나 國防研究에 關聯된 科學分野에서 주목할만한 科學的 功績을 成就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蘇聯의 軍事的인 技術도 역시 美國과 어깨를 나란히 發展할 것이며, 어떤 分野에서는 美國을 능가할 것이 틀림없다. 이와같은 것은 經濟的 資源이나 科學的 才能을 集中的으로 動員하는 저돌적인 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蘇聯의 組織的인 構造는 그와같은 計劃을 推進하기에 아주 딱 맞는 것이다. 그러나 重要한 問題는 蘇聯의 科學이나 產業管理能力이 國內的인 進步와 國際的인 地位向上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科學的 革新을 蘇聯社會에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遠大한 科學的, 經濟的 改革에 대해서 反對하는 勢力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주로 官僚的인 黨 엘리트(특히 「이데올로기」分野의)와 分權化에 따라 主要研究機關의 非軍事的 用途로 轉換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軍部의 一部 高位層이다.

黨官僚의 上層部는 아직도 스탈린時代의 잔재들이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숙청중에 출세한 사람들이다. 역설적으로, 西歐的 思考로는 잘 납득이 안가지만 管理엘리트도 역시 反對派의 一部이다. 現在 蘇聯의 管理層 世代는 고도로 閉鎖的이며, 位階的인 體制에서 活動하도록 訓練됐기 때문에 보다 더 分權化되고 競爭的인 體制가 필연적으로 지니게 될, 보다 큰 個人的인 모험을 두려워 한다. * 經濟改革를 提議한 것은 대부분이 理論的인 經濟學者들이었다.

* 더우기 Jeremy Azrael이 그의 *Managerial Power in Soviet Politics*(Cambridge, Mass., 1966)에서 說得力있게 主張했듯이, 다음과 같은 점을 認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職業的인 專門化는 社會的 政治的 多元主義를 초래하지 않고도 達成될 수 있다. 技術者나 管理者들은 적어도 그들이 經濟的 役割의 當事者로서 갖는 ‘客觀的’ 利害關係만큼 起議的이고 이데올로기적 또는 政治的인 約束에 의해 統制될 수 있다. 그들의 그와같은 ‘客觀的’ 利害關係는 民主的이거나 技術官僚的인 것이 아닌 政治體制에서도 대부분 (完全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만족를 찾을 수 있다. 한편 政治權力的 極大化를 志向하고 있는 사람은 설사 그의 行動이 매우 重要한 희생을 必要로 한다고 하더라도 經濟的 效用의 增大를 志向하는 사람에 대해서 支配的인 立場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p.175).

知的自由的 問題는 그것이 보다 政治 또는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인 관계에서 考慮되도록 促求한다. 1960년대나 1970년대 初盤에 蘇聯에 있어서 根本的이고 異端的인 反體制運動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히 判斷하기는 어렵다. *

* 여기서는 手段的이고 正統的인 逸脫(instrumental, orthodox dissent)과 根

本적이고 非正統적인 異端(fundamental, unorthodox dissent)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局外的 觀察者들은 종종 兩者를 혼동하여 手段적인 逸脫分子들까지 그들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모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英雄化한다든가, 그들에 대한 政府의 寬容을 레닌主義나 스탈린主義적인 전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결별하고 있는 정후로 해석하고 있다.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Yevgeny Yevtushenko이다. 그의 “異端”은 실제 內容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手段적인 逸脫을 의미했다. 그는 보다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인 體制의 基礎가 再檢討되고 修正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政治體制와 社會와의 關係를 보다 調和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와는 對照的으로 Alexander Solzhenistyn이나 Pasternak의 作品은 現政治體制의 歷史적인 前身에 대한 회의심을 더욱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當局의 보다 완강한 탄압을 받게 된 것이다.

1968年 末 *Problems of Communism* 誌는 二號에 걸쳐 反體制적인 蘇聯知識人들의 地下出版物, 呼訴文, 檄文등을 실는데 紙面을 할애하였다. 그것들은 따로 出版版 우크라이나 知識인들이 祖國의 탄압에 저항하는 文畧들²⁾과 같이 매우 깊은 感動을 주는 것이다. 그와같은 出版物은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중심으로 하여 積極적이고 集團意識이 강한 知識人 그룹이 存在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한 그룹속에는 간혹 蘇聯 政治엘리트 出身, 특히 스탈린治下에서 處刑됐던 우수한 共產黨員의 子弟들이 포함돼 있다. 그와같은 反體制運動者들은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에서 公開 또는 非公開의 裁判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蘇聯이 체코를 占領했을 때 個人的인 危險을 무릅쓰고 그와같은 抗議를 敢行했던 것이다.

知識人들의 正統적인 體制批判者들은 현재 比較的 小數의 孤立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그러한 狀態로 存續할 가능성이 많다. 19世紀에 있었던 그의 先輩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당분간 광범위한 人民의 支持를 끌 수는 어려울 것 같다. 蘇聯의 大多數 都市人口(그들이 農村으로 부터 移動해온지 한 世代밖에 지나지 않았다) 차라리 單純하고

內面化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에 立脚한 하나의 社會的 「오소독스」에 의해 改造되었고, 最近의 生活向上에 그대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기 그들은 社會的 出身身分이나 思考方式에 있어서 知識人보다는 차라리 黨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蘇聯은 여러부문에서 近代化를 成功시켰지만 여전히 無知한 人口를 大量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브르조아적인 향락을 熱望하면서도 한편으로는 社會主義的 美辭麗句에 도취해 있다. 그러한 사람들간에는 모든 特權을 腐敗로 생각하며, 黨內的 政治界 엘리트나 管理的인 엘리트 또는 知識人에 대해서 다같이 反對하는 강력한 '不滿' (소박하고 原始的이며, 종종 正當한 근거가 있는 말하자면 그 자체가 一種의 傳説과 같은 힘이다)의 要因이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知識人은 특히 不利한 狀況에 있다. 왜냐하면 知識人은 여전히 人民에 대해서 傳説的인 罪惡感을 짊어지고 있어야 하며 大衆操作의 끈은 黨의 手中에 있기 때문이다. (Sidney Monas, "Engineers or Martyrs: Dissent and the Intelligentsia," *Problems of Communism*, September October 1968, p.5).

특히 危殆로운 反體制의 現象은 蘇聯內 非러시아系民族들의 證證하는 動搖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蘇聯問題를 研究하는 美國學者들은 그와 같은 現象이 갖는 政治的 意味의 重要性을 無視해 왔다. 그러나 蘇聯의 2억 4천만 住民中의 約 半이 非러시아系이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自己 固有의 文化的 傳統, 言語, 領土, 歷史에 대한 愛情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非러시아系 知識人들은 (거의가 蘇聯體制下에서 成長했지만) 반드시 分離主義的 態度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점점 自己主張을 強化하고 있다. 그들은 蘇聯의 政策決定에 대한 參與의 增大와 더 많은 經濟的 分配를 要求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化(Russification)에 대하여 점점 의심을 갖게 됐다. 그와 같은 러시아化는 어느정도 모스크바 政府에 의해서 意圖的으로 推進된 것이나, 한편 그것은 역시 工業化 또는 近代化의 當然한 結果이기도 하다. 그러한 問題에 대한 蘇聯의 公式的인 論議나 地方의 民族

主義의 危險에 대한 蘇聯側의 攻擊은 다같이 蘇聯 指導層의 不安이나 우려를 表示해주는 것들이다. 사실 近年에 와서 많은 非러시아系 知識人들이 裁判을 받거나 刑罰을 받았다. 당분간 蘇聯政府는 民族主義的 諸傾向을 比較的小數의 知識人社會에 局限시키는데 成功을 見우긴 했으나, 非러시아系 黨幹部들의 態度는 애매한 경향으로 發展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의 規模로 보아, 또 民族主義는 彈壓하던 許容하던 하나의 流行의 경향을 띄고 있는 事實을 考慮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게된다. 즉 蘇聯은 그 政治的인 結果로 美國의 人種問題보다도 한층 더 심각한 民族問題에 봉착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科學者들 社會內에서 높아가고 있는 「이데올로기」的 不滿은 더욱 직접적인 黨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蘇聯의 卓越한 核物理學者인 사하로프에 의해서 쓰여진 너무나 잘 알려진 宣言(西方側에서는 1968年 中半에 出版됐다³²⁾)은 처음에 蘇聯科學者들간에 回覽되어, 그들의 論評에 따라 加筆修正을 것이 틀림없다. 사하로프에 대한 그후 蘇聯當局의 反應이 間接的인 形態를 띄고 그의 이름을 직접 言及하거나 보통명과 같이 그의 同僚들에 의해 署名된 公的인 非難聲明을 發表함으로써 攻擊하지 않은 것은 政府가 直接的인 對決이나 公開的인 論議를 회피하는 것이 有益하다고 생각했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그 文書는 「이데올로기」的인 正統性(orthodoxy)을 계속 保有할 수 있는 權利에 대한 挑戰인 뿐 아니라 그에 代身할 수 있는 未來의 「비전」을 제시하는 試圖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蘇聯의 現實에 대해서 痛烈한 批判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사하로프의 主要한 前提는 다음과 같은 그의 主張으로 要約된다. 즉 그는 “世界的인 諸이데올로기나 諸民族들이 兩立할 수 없다는 어떤 敎說도 다 狂氣이며, 犯罪行爲이다”라고 한다. 그는 知的 自由에 대한 어떠한 制約도 단호히 거부하고, “官僚的 寡頭體制의 化石化된 獨斷主義와 그러한 支配體制가 愛用

하는 武器, 즉 「이레올르기」의 인 檢閱」을 非難하고 있다. 그는 “黨中央機關과 黨官僚”의 意志에 대한 知的 服從을 拒否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그러한 黨官僚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의 특수한 利益이 아닌 眞正한 勞動階級全體의 利益을 表現해 준다는 保障을 누가 하겠는가?”*

* 사하로프는 蘇聯社會의 뿌리 깊은 後進性, 즉 當局의 田園的인 생각이 간파하고 있는 狀態를 批判하면서, 蘇聯人口의 45% 또는 蘇聯市民中 약 1億 1萬名이 해택받지 못한 生活을 하고 있다는 意外의 事實을 밝혀주고 있다. 그는 이와같은 事實을 美國과 比較하고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美國人口의 약 25%가 貧困의 문턱에 있다. 反面 蘇聯人口中 管理者 그룹에 속하는 5%만이 美國의 管理者들과 맞먹는 特權을 누리고 있다.” 이와같은 말은 蘇聯에서 상당한 社會的 不平等이 存在한다는 事實을 意味한다.

社會的 平等의 達成이란 바로 蘇聯側이 오래도록 主張해왔던 主要內容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하로프의 觀察은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사실 蘇聯의 統計나 보다 最近에 와서 나타난 社會學的인 諸研究은 高等教育의 경우, 「화이트칼라」官吏들의 子弟가 勞動者나 農民의 子弟보다 훨씬 큰 機會를 갖는다는 事實을 確認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0年代 後半에 모스크바大學 學生의 75%가 官吏의 子弟였고, 20%가 勞動者, 5%가 集團農場農民의 子弟였다. 同期間동안 人口構成은 官吏가 20%, 勞動者가 48%, 農民이 31%였다. (Kulturnaia Revoliutsia 全集, Mosow, 1967, p.151參照)

收入水準에 있어서도 상당한 不公平이 存在하고 있다. 1969年 現在 蘇聯의 最低賃金은 약 月 65달라였다.

사하로프의 主題는 오늘날 우리의 世代는 國際的 協力の 增進을 要求 또는 不可避하게 하고 있으며 (核戰爭을 회피하고, 飢餓와 人口過剩, 公害問題로 제기된 人類의 危機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와같은 協力は 결국 現在の 相異한 政治的 社會的 體制가 점점 收斂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美國經濟의 生産力에 비추어 美國에서의 革命은 (第三世界에서의 革命과는 對照的으로) 勞動者들에게 利益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今世紀末까지의 長期展望을 다음과 같은 4段階의 發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제1단계에서 共產主義國家, 특히 蘇聯은 보다 더 民主的 國家로 될 것이며 一黨獨裁의 스탈린主義 遺産을 극복할 것이다.

② 제2단계에서는 美國이나 다른 “資本主義”國家들이 國內의인 變化에 영향을 미치고 平和共存政策을 채택하게 될 改革家들에 의한 體制轉換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③ 제3단계에서는 第三世界의 問題에 對處하고, 軍縮을 促進하기 위한 美·蘇의 大대의인 努力이 나타날 것이다.

④ 제4단계에서는 기타 未解決된 世界問題들이 광범위한 國際協力の 기반에서 處理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사하로프의 見解들은 다소간 理想主義的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런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사하로프의 견해들은 一部 새로운 蘇聯知識人이나 科學者엘리트들의 世界觀이 官僚들의 그것과 얼마나 對照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意味를 너무 誇張할 필요는 없다. 大多數의 蘇聯內 文字解得人口는 물론, 多數의 知識人들에게 까지도 그의 論旨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知識人들이 集中돼있는 곳(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브, 아카데미고로도크, 아브닌스크 등)에서는 非正統的 見解가 어느정도 광범위하게 流布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곳에서도 政府가 最少限의 形式的인 正統敎理(orthodoxy)를 強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은 行政的 壓力을 行使할 準備가 돼 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 黨이 通信手段을 獨占하고 公式的인 「이데올로기」를 注入시키려는 광범위한 努力을 기울이며, 점점 民族主義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念頭에 둘 때 아직도 世界 또는 蘇聯社會에 대한 政府側의 見解는 대부분 蘇聯市民의 基本的인 情報나 解釋의 源泉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政治發展의 代案

蘇聯에 있어서 政治的 發展의 가능한 代案(alternative paths)들은 以上の 考察에 비추어 評價되어야 한다. 分析目的上 그와같은 代案들은 몇가지로 制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以下の 論議에서는 「이데올로기」와 黨의 役割에 關心을 集中하여,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다섯가지의 發展形態는 ①寡頭支配의 化石化(oligarchic petrification), ②多元主義的 進化(pluralist evolution) ③科學技術的 適應(technological adaptation) ④戰鬪的 正統主義(militant fundamentalism), ⑤政治的 解體(political disintegration)로 要約될 수 있다.

寡頭支配의 化石化는 黨의 支配的인 役割이 유지하고, 本質的으로 教條的인 性格을 갖는 「이데올로기」를 堅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事實上 아무런 變化도 없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黨이나 「이데올로기」는 다같이 社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革命的인 關係에 있지 않으며, 黨은 주요한 革新을 企圖하지 않으면서 社會에 대한 統制를 유지한다. 또 여기에서는 특히 「이데올로기」的 教養(indoctrination)과 「이데올로기」的 逸脫에 대한 抑制가 강조된다. 여기서 政治的 리더쉽은 集團指導體制로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意圖的으로 이뤄지는 變化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主要한 選擇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이 결과 國內的으로는 革命的 슬로건으로 분장된 保守政策을 추구하는 化石화된 官僚制支配가 나타난다.

多元主義的 進化는 유고슬라비아 共產黨과 같이 黨이 보다 덜 一石的인(monolithic) 性格으로 전환하며, 教條的인 레닌主義나 스탈린主義傳統이 쇠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黨은 一般黨員間에 「이데올로기」의 討論을(비록 그것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더라도) 허용하고, 黨의 教理的인 發表나

聲명을 絶對的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黨의 役割은 하나의 支配者로써 보다는 하나의 道德的, 「이데올로기」의 격려자로써 부각되며, 國家나 社會 자체가 革新이나 變化의 보다 重要的 因子로 된다. 黨史의 대부분은 以上과 같은 「패턴」과 너무나 反對되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主要한 經濟團體나 知識人團體로부터의 지속적인 壓力 때문에 黨리더쉽은 근본적인 分裂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逆說的으로 黨官僚體制가 그와같은 政治的, 「이데올로기」的인 多元主義를 受容할 수 있도록 對備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한지드자(예컨대 Tito같은)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科學技術인 適應이란 官僚的, 敎條的인 黨이 技術官僚(technocrat)의 黨으로 轉換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科學的인 專門知識, 能率, 또는 訓練이다. 이미 Ulbricht 治下의 東獨에 나타났던 것처럼 黨은 最新의 技術로 訓練되고, 社會統制를 위해 「사이버네틱스」와 「컴퓨터」를 利用할 줄 알며, 蘇聯의 安保및 工業成長을 위해서 科學的인 革新을 추구하는 科學的 專門家를 흡수한다. 民族主義社會와 國家間을 연결시키는 基本的인 統合原理로써 「이데올로기」的인 「도그마」에 代置된다. 보다 靚고 技術的으로 定向된 軍部指導者들이 이러한 패턴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다. 政治的 리더쉽은 寡頭支配에서와 같이 集團指導體制를 存續시켜 黨, 國家, 軍部, 經濟指導者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聯立(Co-alition)의 形態를 취할 공산이 크다.

戰戰的인 正統主義는 「이데올로기」的인 熱情을 再燃시키려는 노력을 수반하며, 그와같은 「이데올로기」的인 熱情의 再燃을 위해서 政治體制와 社會間의 보다 더 革新的인 關係를 필요로 한다. 이때 共產主義를 向한 前進이라는 概念은 새로운 實用的 內容(pragmatic content)을 보장해야 하며, 政治的으로 誘導되는 社會的 變化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實際的인 情性을 타과할 수 있는 實力行使가 요구될 가능성이 많다. 蘇聯體制의 硬直된 官僚的 構造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록 스탈린主義的 方法이라

는 걸음을 갖더라도 高度로 中央集權화된 「리더십」, 「이데올로기」의인 戰鬪性, 外部 世界에 대한 보다 더 敵對의인 態度 또는 毛澤東의 文化革命과 類似한 어떤 것을 必要로 한다.

政治的 解體의 경우는 支配엘리트의 內部的인 침체, 그러한 支配層內 여러 主要한 集團들의 自己主張 增大, 軍部內의 分裂, 青年 또는 知識人들간의 反抗, 그리고 非러시아系 民族間의 公共然한 不平等을 보여준다. 政治體制와 社會間의 矛盾이 深化되기 시작할 때는 人民의 要求를 滿足시켜주지 못하는 不振한 經濟成長에 의해서 더욱 심각한 危機를 야기시킨다. 化石화된 「이데올로기」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더이상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體制에 대해서 調和있는 行動을 위한 一貫된 價值體系를 제공하지 못한다.

現在 蘇聯社會의 權力配分 狀態를 基準으로 해서 앞으로 약 10년후를 展望해 볼 때, 蘇聯의 指導層이 직면하고 있는 政治經濟的인 諸問題의 性格이나 現代 蘇聯의 社會的 發展패턴에 비추어 蘇聯의 指導層은 官僚主義的 化石化와 技術的 適應間의 中間的인 均衡을 추구할 것 같다. 그와같은 結合은 엘리트의 利益이나, 社會的 正統性的 要請, 그리고 美國과의 世界的 경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諸條件들을 다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最適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短期的으로는 多元主義로의 發展이 「이데올로기」의 見地에서 반드시 보다 더 完화된 體制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1964~69년간은 오히려 그와는 正反對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가까운 將來에 蘇聯 政治體制는 蘇聯社會를 民主化하려는 意志와 權力을 가진 사람을 指導層으로 끌어올릴 것 같지 않으며, 社會도 밑으로부터의 民主化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團結力이나 集團의 壓力을 缺하고 있다. 체코의 經驗이 보여준 바와 같이 밑으로부터의 民主政治化는 構造와 經濟構造를 다같이 改革하려는 計劃的인 努力에 있어서 知識人, 勞動者, 또는 學生들과 指導層의 어떤 一部를 連結시켜주는

有機的인 過程이 있어야 한다. 더우기 그와같은 過程은 民主的인 傳統에 의거하거나 (체코의 경우처럼), 아니면 政治的인 便利보다는 法律的 規範이 優先한다는 입장을 수락함으로써 그러한 傳統을 創造해야 한다. 蘇聯共產主義에 있어서 이와같은 것들은 전혀 새로운 政治概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 체코 學者는 체코의 스탈린主義 經驗을 論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떠한 形態를 막론하고 政治裁判의 再發을 막는 可能한 方法中의 하나는 政治概念의 變化이다. 그와같은 政治概念의 變化는 새로운 政治體制의 탄생과 직결된다. 나는 政治的 裁判期間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違法的 諸要素나 違法性的 確固한 基盤을 포함하지 않는 政治的 概念을 생각하고 있다.”

(K. Kaplan, “Thoughts about the Political Trials,” *Nova Mysl*, No. 8, 1968)

더나아가 非러시아系 民族의 問題도 역시 蘇聯의 民主化를 방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多數를 占하고 있는 大러시아人들은 民主化가 非러시아系人民들을 자극하여 自治를 擴大하고 獨立의 希望을 불어 넣어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蘇聯社會의 發展이나 現支配엘리트의 利害關係에 비추어 1970年代에는 有力한 民主的 聯立體制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短期的으로는 多元主義的 進化보다는 一人獨裁下의 戰鬪的인 正統主義가 더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戰鬪的인 正統主義도 역시 일반적으로 만연돼있는 무기력한 타성이나 一人支配의 再現을 가로막고 있는 黨寡頭體制的 集團의 抵抗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와같은 一人支配에 對한 壓力은 國內的인 혼란이나 外國으로부터의 중요한 危脅에 當面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하고 훌륭한 指導者라면 그와같은 狀況을 적절히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現在 蘇聯의 官僚制는 個人的인 才能을 제거하여 없애버리는 方法으로 形成돼 있다. 그것은 이제 더이상 個人的인 勇

력과 豊富한 實績을 진작하는 革命的 政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正統主義의 代案을 無視할 수는 없다. 특히 全般的인 體制의 化石化로 초래될 政治的 解體에 대처하는 唯一한 代案이 됐을 때 더욱 그러하다. 當面한 諸問題에 적절히 對處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無能力으로 부터 초래될 國內的인 부패, 美國을 따라가려는 科學競爭의 지속적인 失敗, 그리고 國家의 統一에 대한 內部的인 諸危脅 등은 「이데올로기」의 無關心을 增大시키는 가운데 國際的인 安保上的 危脅과 결부되어 엘리트들간에 正統主義의 發作을 촉발시킬 수 있다. 그와같은 發作은 쇠퇴하고 있는 政治的 信念의 특징적 現象이다.

正統主義나 政治的 解體나 하는 選擇의 問題는 中·蘇戰爭에 의해서 突發的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 그와같은 中蘇戰爭은 불가피적으로 蘇聯體制에 주요한 緊張을 부과해 줄 것이다. 그러한 戰爭에서 비록 蘇聯이 急速한 勝利를 거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막대한 經濟的 희생이 뒤따를 것이며 戰後 오랫동안 反격될라 活動을 벌여야 한다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戰爭이 長期化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蘇聯政權의 패배를 의미하며, 따라서 支配層內의 不平分子들에 의해 政權이 전복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戰爭의 勝敗야 어떻든간에 中·蘇間의 大戰爭은 蘇聯內에 好戰性과 不安感을 조성하여, 一人支配를 要求하는 壓力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政權의 解體를 誘發하게 될 것이다. 1970年代 初期의 一般的인 情勢로 미루어 볼 때 現在의 多數 年老한 高位黨官僚(1969年 現在 黨中央委員會 委員들의 平均 연령은 60세를 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아마 바티칸이나 中國 指導部를 제외하고 世界에서 가장 高齡의 政治指導者일 것이다), 舊軍將星(이들중 一部는 高位政治指導者들 보다 高참의 黨歷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黨理論家에 의한 지속적인 支配로 寡頭의 支配가 化石化될 전망도 없지 않다. 이와같은 寡頭의 聯立은 蘇聯의 政治的 엘리트뿐만 아니라 社會的 엘리트도 代表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에서의 權力은 資本

主義下에서 富의 關聯을 갖는 特典, 즉 特權이나 便宜 또는 威信과 똑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支配階級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지배층도 保守化되어 그들의 地位를 위협하는 變化에 抵抗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더우기(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蘇聯의 中間階級은 高度로 官僚主義化되었고 거의 모두 政治的, 社會的, 立場에 있어서 보다 더 保守的인 國家官吏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또는, 農民出身으로부터 단 一世代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이 階級은 物質的 利益의 增大는 바랄지 모르나 큰 政治的 變化는 願치 않는다. 이들은 리더쉽內 保守主義의 基礎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專門的 엘리트나 科學的 엘리트의 上層部는 너무나 비대해졌고, 매우 높은 教育水準을 달성하고, 民族主義的 野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現狀을 維持하는 패턴에는 滿足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政治的 安定에 關心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社會的인 革新을 이룩해야 하는 國內·外的 要請을 認識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 이 階層은 政策決定者와의 接觸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專門家를 要求하는 政策分野에서는 一種의 團體交涉에 의한 非公式的 參與를 보여주고 있다. 蘇聯 科學아카데미의 機關紙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最近에는 심지어 最上級水準에서까지 政府機關의 作業에 참여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科學者들의 數가 增加해 왔다. 그들은 經濟分野에서 生産을 組織하고 計劃作成을 指導하기 위해서 더욱 자주 參與하도록 요청받아야 한다.”” 그들의 革新的인 影響은 점점 증가해가고 있는 科學的 革新의 重要性에 대한 政治的 認識이나, 美國과의 國家的인 競爭意識, 그리고 젊은이들과 보다 科學的으로 定向된 軍部指導者들의 民族主義的, 安保的 熱望과 더불어 이미 寡頭的 支配의 化石化와 科學技術의 適應의 形態를 融合하는 하나의 새로운 形態인 “技術電子的 共產主義”(technetronic Communism)의 建設을 기도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 이와같은 過程에서는 科學的 活動이나 서비스業에 종사하고 있는 專門家(專門의 中等教育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서)의 總數나 技術이나 科學의 分野에서 活動한 背景을 가진 政治엘리트의 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政治的인 表現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 부터 1966년 기간동안 前者는 714,000명에서 2,741,000명으로 증가했다(*Science Policy in the USSR*, p.679). 뒤셔(George Fischer)는 後者가 蘇聯共產黨(CPSU) 中央委員의 젊은 委員數中 支配的인 그들을 이루고 있음은 보여주는 資料를 가지고 있다(*The Soviet System and Modern Society*, New York, 1968 pp.125~34). 美國의 政治엘리트들에게는 法律的 素養이 큰 자격이 되듯이 技術的 能力(technical competence)은 蘇聯政治엘리트에게 점점 중요한 資格로 인정되고 있다.

이점에 관해서 울브리히트(Ulbricht) 治下 東獨의 實例는 특히 참고가 될 것이다. 루마니아에서는 一部 共產主義者들이 科學革命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러한 科學革命은 普遍性的 原理에 기초한 새로운 理論的 體系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³⁴⁾

그러나 울브리히트는 科學的인 革新을 레닌·스탈린主義의 「이데올로기」的 傳統과 밀접히 결부시키려고 노력했다. 울브리히트治下의 東獨에서는 政治的 리더십이 고도로 中央集權化되고 「이데올로기」的 逸脫者는 단호히 억압되었다. 동시에 울브리히트는 다른 어느 共產主義指導者 보다도 더욱 힘주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社會體制的 發展, 특히 그 중에서 全般的인 經濟體制的 運營이라는 것은 점점 科學的인 「리더십」의 問題가 되고 있다……우리들은 人民에 의해서 그리고 人民을 위해서 複雜한 諸程過과 「시스템」을 意識的으로 그리고 科學的으로 統制하는 方向을 指向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네틱스」를 利用하고 있다.”³⁵⁾ 고 했던 것이다.

1960年代 後半을 통하여 東獨의 指導層은 下級的 「이니셔티브」와 效率的인 統制와 調整을 결합시키기 위한 經濟的 管理의 合理化에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다. 七次黨大會(1967年 4月)는 여러 部分的인 體系와 全體的인

經濟體系間的 關係에 대한 一般의인 概念을 發展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東獨은 다른 어느 共產主義國家보다도 더욱 많이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나 作動研究(operational research), 또는 電子工學的 資料處理(electronic data processing)를 이용하였다. 二年後인 1969年 4月 政治局員 하거(Kurt Hager)는 中央委員會 總會에서 東獨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단 健全할 뿐 아니라 “정확히 計劃化돼 있다”(correctly programmed)고 자랑삼아 보고하였다. 그는 당시 그와같은 文句를 자주 반복하였었다.

그와 같은 “正確한 計劃”에 맞추어 黨은 黨員들에 대하여 專門知識의 重要性을 강조하였고,³⁶⁾ 科學과 産業을 밀접히 연결시키기 위한 教育制度의 改革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改革에 따라 大學이나 工藝學校들은 産業, 工場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새로운 ‘綜合科學學校’(Sciences Combines)로 바뀌었다. 예들들어 드레스덴 工科大學은 근처의 라메베르그 「폼푸타」工場과 공동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教育機關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都市나 같은 地域에 있는 基幹産業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改革過程에서는 學生들의 參與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學生들은 그와같은 改革路線에 따라 많은 建設的 提案을 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教育過程에 있어서 맑스·레닌主義 教養은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와같은 맑스·레닌主義를 科學的인 社會豫測과 결합해야 할 必要性에 특히 力點을 두었다.

“社會主義國家의 指導人士에게는 黨의 決定을 보다 훌륭하게 수행하게 해 줄 수 있는 複合的인 知識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것은 長期的인 社會豫測에 기초하여 社會主義經濟管理研究所, 社會科學研究所, 칼·맑스黨大學 기타 研究所와의 共同作業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1969년 4월 29일 獨逸社會統一黨 中央委員會 書記 兼 政治局員인 호벡커(Erich Honecker)가 한 演說). 호벡커의 演說은 現代社會의 電子工學의 特徵을 강조하며, 「이데올로기」의인 問題를 相對的으로 無視하는 점에서 注目된다.

1960年代 末에와서 東獨은 가장 큰 戰禍를 입었던 한 社會로부터 「이데

올로지」的으로나 經濟的으로 가장 先進된 科學指向의 共產主義國家로 變하였다. 러시아 革命 이후 50년이 경과하면서 레닌·스탈린主義「이데올로기」는 프러시아의 紀綱(discipline)이나 獨逸의인 科學의 能率성과 결합되어 이 東歐諸國에 대하여 하나의 模範이 되는 東獨共產主義로 발전했다.

그러나 蘇聯에서는 또 다른 考慮에서 그와 비슷한 速度로 政治體制의 “技術主義化”(technologization)가 추진될 것이다. 예컨대 蘇聯은 동독에 비해 훨씬 더 큰 나라며, 統함이 곤란하고 보다 더 많은 社會, 經濟的 落後分野를 가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蘇聯의 共產黨은 過去 50여년의 支配를 통하여 자신의 傳統과 「이데올로기」의인 「스타일」을 發展시켜왔다. 따라서 實사 黨官僚에 의한 技術習得이 장려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黨員間에 技術的 「오리엔테이션」이 發展되는 것에 대한 抵抗이 계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技術的 關心의 高潮는 「이데올로기」의 重要性을 흐리게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³⁷⁾ 더우기 앞으로 中·蘇間의 紛爭이 심화된다면 安保的 要因이 政策決定에 미치는 역할이나 軍部가 政治過程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경향을 띄게 될 것이다. 그와같은 경우 寡頭支配의 化石化와 科學技術의 適應의 융합형태(「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科學技術의 專門知識을 결합시키려는 노력)는 1970년대를 통하여 現在의 共產黨獨裁를 共產主義의 執政官寡頭支配(Communist praetorian oligarchy)로 변모시킬지도 모른다.*

* 이와같은 見解는 유고의 一部 觀察者들에 의해서도 指摘되고 있다. V Stanovcic는 유고 共產黨中央委員會 機關誌(週刊), *Komunist* (1968年 9月 26日 日字)에서 現在의 蘇聯體制는 점진적인 自由化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으며, 따라서 蘇聯體制는 “論理的으로는 보나파르트의인 支配形態로 發展하여 管理者, 軍部 그룹이 社會의 ‘組織者’ 또는 ‘路線設定者’(line prescriber)로써 役割할 것 같다”고 했다.

生命力的 問題

그러면 이제 과연 그와같은 政治的 發展이 蘇聯으로 하여금 當面한 政治的, 經濟的인 「딜레마」들의 解決을 용이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와같은 問題에 대한 回答은 豫測 그 자체 보다도 더욱 思辨的인 것이 되기 쉽다. 全般的으로 「이데올로기」的인 正統性和 技術的 革新을 결합시키려는 試圖는 漸增하는 民族主義와 軍部に 依存함으로써 지탱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知的, 科學的 創造性을 助長하는 環境을 마련하게 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그와 같은 試圖는 오히려 黨의 理念追從者(ideologue)와 技術官僚(technocrat)의 對立을 초래하여 國內的인 矛盾을 야기시킬지 모른다. 이러한 推理는 특히 經濟的 分權化의 問題가 經濟的 理由에서 점점 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理由에서 우려시되고 있다는 복잡한 양상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 결국에 가서는 잠정적인 妥協이 이루어 지느냐(브레즈네프 體制가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아니면 重點이 어느 한곳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지는 급격한 政策變化를 보일 것이냐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緊張은 政治體制와 社會間의 間격을 넓히게 될 것이다. 즉 政治體制는 國內的인 「딜레마」에 적절히 對應하지 못할 것이며 蘇聯國家의 「이데올로기」的인 또는 制度的인 性格이 現代的 妥當性을 갖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再評價를 要求하는 社會的 壓力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스페인이나 유고, 멕시코, 또는 폴란드가 1960년대 後半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激動이 蘇聯에도 파급될지도 모른다. 蘇聯의 學生數는 1960年代 期間을 통하여 倍로 增加되고(1958年~1965年 期間 77%가 增加했다), 그렇게 되면 蘇聯도 學生들의 騷動을 회피할 수 없을 것

같다. 1970年代末에 가서는 性的革命이 蘇聯의 都市中心部에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黨理論家들은 그와같은 現實을 기존의 公式的인 慣習과 調和하는 方法을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諸要因들은 現在 孤立돼있는 「이데올로기」的인 反體制主義者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社會的 基盤을 마련해 줄 것이며 동시에 非러시아系 知識人들의 自己主張이 증대되어 더욱 더 政治的, 社會的 緊張을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蘇聯體制的 權威主義的인 性格을 감안할 때, 모스크바의 大學生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大學에 휘날리게 될 赤旗는 콜롬비아나 스펀브의 하늘에 펼쳐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政治的 意味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스탈린 以後의 世代에 속하는 政治的 指導者가 政治舞臺에 登場하려면 빨라도 1980年代 初까지는 가야 할 것이다. 1980년에 가서 45세가 될 大望의 指導者라면 스탈린이 死亡한 때 18세였으며, 蘇聯에서 실제로 非스탈린化가 시작됐을 때는 21세였다. 비록 이 새로운 世代가 그들보다 10년 내지 20년 年上의 政治指導者들(現在 Polyanski, Shelepin, Semichastny, Tolstikov 등)에 의해서 봉쇄되었던 權力에의 接近 通路를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中央委員會의 바로 下級の 指導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뿐이다. 今後 새로운 世代를 成熟시킬 보다 격동적인 國內外 環境이나 그들의 높은 教育程度, 또는 隣接 東歐諸國의 보다 柔軟한 性格등을 考慮할 때 앞으로 등장하게 될 政治 엘리트는 社會的 發展을 위해서 政治權力을 高度로 集中化할 必要가 있다는 概念에 보다 덜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완고한 政治的 寡頭制는 多元主義體制로 進化하는 것에 대해서 抵抗할 것 같다. 政治的 多元主義로 導入하기 위해서는 어느 時點에 가서 蘇聯을 競爭的인 諸理念에 대해서 開放하고, 個個의 蘇聯市民들에게 自由로운 讀書을 허용하며, 黨의 「이데올로기」的 統制水準을 緩和하는 한편 政策決定을 分權化하여, 權力을 社會에 分配하는, 말하자면

事實上 體制全般의 主要한 變化를 必要로 하는 의도적인 결정이 요구될 것이다. 重要한 政治的 變化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經濟的인 또는 技術的인 調整에 수반되는 意圖치 않은 結果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유고나 1968年以前의 체코에서처럼 어느 時點에 가서 政治엘리트가 계획적인 政治的 改革들을 단행하기 위한 決意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國內的인 침체상태로부터 야기되는 봉기를 막고 또 社會民主主義나 혹은 國內的인 反體制 勢力을 統制할 수 있는 새로운 獨裁(後者が 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1980年代의 蘇聯을 견딜 수 있는 보다 가능성있는 패턴은 多元主義的인 進화와 科學技術的인 適應을 結合시키는 方向으로 이루어지는 어중간한 變化일 것이다. 이러한 變化의 패턴은 主要한 利益集團의 上層部間 聯立을 代表해주는 權威主義的인 政府가 여전히 存在한다는 점에서 制限된 의미에서의 政治的, 經濟的인 多元主義가 허용되고 科學技術的인 能力이 매우 강조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西歐的인 맑스主義傳統으로 복귀하는 出發點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느리고도 조심스러운 出發일 따름이다.*

* 여기서는 프랑스 革命이 브르조아 民主主義로 進화한 것과 소위 蘇聯社會의 非브르조아화가 비슷한 政治的 結果를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비슷한 것으로 類推하려는 一般的인 경향을 잠깐 재검토 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와같은 類推는 두 革命間의 많은 현저한 差異點을 간과하고 있다. 프랑스 革命은 合理主義的이고 理想主義的인 知的 傳統과 非能率的인 絕對主義에 의해서 形成된 環境속에서 일어났다. 러시아 革命은 絕對主義的이며 專制的인 政治環境에 反抗하는 知的 狂信主義와 理想主義(utopianism)가 先行되었다. 프랑스 革命은 理想主義的이며 高度로 非組織化된 專門職의 中產階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불셰비키」 革命은 高度로 職業的이며 「이데올로기」的이고 訓練된 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프랑스의 革命家들은 比較的 短期的인 執權期間 때문에 프랑스 社會를 근본적으로 再組織할 時間을 갖지 못하였으나 「불셰비키」들은 특히 스탈린 治下에서 全社會組織을 근본적으로 分解하고 再編成하여 광범위한 產業革命 또는 都市革命을 推進하였다. 프랑스의 中產階級은 革新的이고 知的으로 不安定한 階

있었으나 蘇聯의 새로운 中産階級은 빅토리아 風の 保守的인 「오소독스」였다.
프랑스 革命의 相續者인 나폴레옹은 敗北했으나 스탈린은 勝者였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세계에 대한 蘇聯의 態度가 根本적으로 修正되리
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가 될 것이다. 變化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變化는 매우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 더우기 「이데올로기」의 흔적
을 反映하는 것으로 都市的인 中産階級の 民族主義에 의해 강화된 美國과
의 競争意識이라는 요인은 비록 美蘇間의 協力增大가 人類의 生存이라는
기본적인 命題에 의해 要求되고 있다는 점을 蘇聯이 점점 認識하게 됨에
따라 緩和될지도 모르나 支配的인 것으로 存續될 것 같다. 中·蘇紛爭도
역시 二重의 相互矛盾되는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즉 中·蘇紛爭은 蘇聯
으로 하여금 西쪽(유럽)에서의 安全과 平和를 希望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한편 國內으로는 安保에 대한 關心이 높아감에 따라 보다 保守的이고
民族主義的인 立場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쇠퇴하면서 民族主義가 강화되는 「페
턴」으로 발전한다면, 蘇聯이 가까운 장래에 世界革命을 武力的으로 推進한
다든지, 아니면 世界的인 協力政策을 積極적으로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
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광범위하고 長期的인 眺望에서 보다는
短期的인 方便으로 規定되는 애매한 「페턴」을 취하리라는 것이다. 그와같은
文脈에서 볼 때 蘇聯은 가까운 將來에 國內적으로 知的 創意나 實驗을 開
放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現代共產主義의 社會, 經濟的 「모델」
로써 蘇聯이 갖는 魅力, 다시 말해서 人類의 想像力을 知的으로나 道德的
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은 아마 계속 쇠퇴의 길을 걸게 될 것이다.

四. 分派的 共產主義

우리 世代에 있어서 普遍性을 갖는 「이데올로기」運動은 多元的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運動에 어차피 多元的인 것, 다시 말해서 急激한 變化와 分化된 世界的 條件 또는 그로부터 초래되는 流動的인 知的 雰圍氣에 對應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데올로기」의 內容이 高度로 一般化되어 있어야 하며, 實際的이기 보다는 倫理的이고, 民族主義的이기 보다는 人道主義的이야 한다. 요컨대 普遍的인 共產主義는 어느 정도로 多元的인 共產主義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國際的으로 多元的인 共產主義는 또 불가피하게 國內的으로도 多元的인 共產黨의 發生을 촉구하는 壓力을 유발시킬 것이다.

多元的인 共產主義는 現存하지 않으며, 또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共產主義的 普遍主義는 共產主義의 教條主義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共產主義는 初期工業化 段階의 世界的 條件을 規定하려는 抽象的 理論이나 또는 權力을 追求하는 多樣的인 知識人 「그룹」들의 政治的 表現속에서만 教條主義와 普遍主義가 兩立될 수 있었다. 各國에서 權力을 追求하는 知識인들이 일단 權力을 장악하고 나면 教條主義는 自國의 權力的 利害關係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世界를 보는 새로운 支配者들의 自然的인 性向과 應化되기 시작하였다. 教條主義는 이제 더이상 普遍的인 抽象的 次元이 아니라 國家的 實踐의 次元에서 作用함으로써 共產主義로부터 分派主義(Sectarianism)로의 轉換을 용이하게 하였다. 각각의 分派는 제각기 자기들의 視點이 眞正으로 普遍的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黨內의 기강을 수립한다.

蘇聯은 普遍的인 共產主義로부터 分派的인 共產主義로 轉換한 最初의 國

家였다. 그러나 그와같은 轉換過程은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共產黨과 심지어는 權力을 장악하지 못했더라도 보다 確固한 기반을 수립하고 있는 共產黨들 間에서도 自然發生的으로 發展되었다. 相互矛盾된 主張이나 比방, 때때로 일어나는 野合, 또는 顯在的, 潜在的인 諸葛藤의 結果로 現代共產主義는 人類의 民族만큼이나 多様な 「모자이크」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³⁸⁾ 分派의 共產主義는 世界의 知的 分裂을 증시시키기는 커녕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共產主義進化의 諸局面

國際的 運動으로서의 共產主義의 進化過程은 最初로 蘇聯에서 共產主義 國家를 탄생시킨 이래 크게 四段階로 區分해 볼 수 있다. 一段階는 대체로 1920年代와 1930年代에 해당되는데, (특히 蘇聯社會에 있어서 「이데올로기」的인 再編이 進행된 1930年代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段階는 共產主義의 移植(transplantation) 段階라고 부를 수 있다. 資本主義的 工業化라는 西歐의 特殊한 條件에 對應해서 나타난 共產主義, 다시 말해서 本質的으로 西洋的인 共產主義原理는 러시아의인 環境에 移植되어 그 環境이 要求하는 政治的 必要에 맞추어 再定義되었다. 이와같은 移植過程에는 輸入된 「이데올로기」를 土着化하고, 또 그와같이 再適應시킨 「이데올로기」를 敎條化하는 일들이 수반됐던 것이다.

土着化(domestication)란 特殊한 러시아의 條件으로부터 유래되는 諸形式이 (레닌이나 스탈린이 말한 것처럼) 점점 原理를 침식하여 結果적으로는 전혀 편협된 생각들이 敎條的으로 普遍化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敎條化(dogmatization)는 대체로 맑스主義가 移植된 環境의 社會的 未熟性이나 專制性.³⁹⁾ 또는 高位黨理論家들의 自의적인 個人的 성격, 그리고 새

로운 共產主義者 엘리트의 權力慾에서 기인하였다. 새로운 共產主義者 엘리트는 그들 스스로 맑스가 社會主義的 支配를 위한 基礎로 보았던 것, 즉 西歐에서의 資本主義的 發展이 만들어준 것과 같은 확고한 「프로레타리아」的 基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第二段階는 대체로 1930年代, 또는 부분적으로 1940年代에 해당되며 特殊한 蘇聯의 共產主義의 普遍化(universalization)가 活發히 推進되는 段階라고 부를 수 있다. 이 段階에서는 蘇聯以外 共產黨들의 스탈린화(Stalinization)를 보여 주었다. 즉 東歐에 대해서는 蘇聯式의 共產主義가 強制로 輸出되고(forcible export), 中國, 韓國, 越南에서는 보다 東洋的인 레닌主義的 맑스主義 適用이 自然發生的으로 擴大(spontaneous expansion)되었다. 모스크바를 中心으로한 國際的 共產主義는 各國의 特殊事情이 考慮되지 않은 채 蘇聯의 經驗이 그대로 모방되었다. 사실 蘇聯은 「이데올로기」와 地域的 條件사이에 存在하는 큰 罅 때문에 一體的인 共產主義를 더욱 강력히 主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事態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民族的인 共產主義 指導者集團들은 점점 適應을 要求하는 國內的 壓力에 당면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民族的 指導者들 자신도 그들의 必要나 利害關係와 蘇聯의 規定이나 要求가 서로 유리되고(divergence)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第三段階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第三段階는 1950年代 國際共產主義가 特殊化(particularization)하는 狀況으로 規定할 수 있다. 이 段階에서는 유고에서 完全한 自主路線이 나타나고 (크게 보아 이것은 유고 공산당이 스스로의 努力을 통해 權力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폴란드에서 部分的인 自主의 主張이 대두하는가 하면, 루마니아에서도 그와같은 自主路線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段階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中共이 점점 獨自的인 共產主義敎理를 實踐하고, 동시에 여타의 革命的인 共產主義政黨에 對하여 그들의 經驗이 지닌 意志와 妥當性을 —

般化하려는 경향으로 흐르게 된 점이다.

1960年代는 國際共產主義 歷史에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었다. 이 段階에서는 敎理가 相對化(relativise)되는 過程間의 公然한 緊張關係가 支配的인 現象이었다. 蘇聯指導層은 統一을 위해서 처음에는 證하는 多樣性을 容認할 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즉 1960년대 초기만해도 蘇聯은 公公的으로 그들의 指導權 主張을 포기하고, 共通된 一般路線의 必要性을 高집하지 않았다.⁴⁰⁾ 1960年代 後半에 들어서 蘇聯은 정반대로 方向轉換을 하였다. 그와 같은 方向轉換은 아마도 敎理의 相對化가 「이데올로기」의 타락을 촉진하는 第一段階이며 그로부터 全體의인 統一이 이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政治的 實質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 같다. 1968年 체코의 政治的 事態發展이나 中共의 緊요한 挑戰은 蘇聯指導者들의 態度를 分派主義로 轉換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蘇聯指導者들로부터 그들 자신에 의해서 規定된 어떤 共通의 法則에 대해 絕對的 普遍性을 다시 主張하게끔 하는 촉매적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했던 代價가 바로 스스로 다른 立場을 主張할 수 있었던 그러한 共產黨들이 상호 「이데올로기」의 非難에 의해서 그러한 立場을 내세웠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特殊主義(particularism)는 1960年代를 通하여 世界主義(ecumenism)를 지향하는 단계로 가는 대신 第四段階인 현재의 分派主義(sectarianism)로 형태를 바꾼 것이다.

따라서 1970年代 初期에 와서는 共產主義의 統一性이란 아무런 實質的 意味가 없다.*

* 이러한 現實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一部 西方側의 保守的인 學者들은 “共產主義의 外交政策”云云하며 共產主義「이데올로기」가 더이상 統一된 世界的 支持를 動員할 수 없다는 見解에 대해서 批判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Hans Morgenthau, *A. New Foreign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1969. p.32를 參照할 것. 1965년 Morgenthau 教授는 아마도 비슷한 理由에서 越南戰爭은 中蘇의 和解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主張했을 것이다.

西歐의 共產黨들은 점점 蘇聯의 모델이 不適切하다는 부정적 태도를 증대시킴으로써 大衆들의 支持를 求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이탈리아나 프랑스 共產黨指導者들은 그들의 政黨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投票者들로 하여금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수립될 共產主義政府는 蘇聯의 모델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確信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東歐의 執權共產黨들도 계속되는 蘇聯의 壓力에도 불구하고 國內의 必要에 맞도록 조용한 調整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점점 蘇聯의 모델로 부터 이탈해가고 있다. 中國 共產黨은 獨自의인 共產主義를 實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蘇聯의 共產黨은 진정한 共產黨이 아니라고 公言하며, 蘇聯에서는 資本主義가 復活하고 있다고 告發하기까지 한다.

체코의 民主化를 탄압하려는 1968年 蘇聯의 決定은 國際共產主義의 運命에 특히 큰 영향을 끼쳤다. 만약 당시 蘇聯의 指導者들이 本質적으로 스탈린主義의 모델을 따르고 있던 체코의 自由化를 許用했었다면 유럽의 共產主義는 民主化를 向한 크고, 매우 중요한 一步를 내딛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체코의 民主化는 蘇聯을 포함한 다른 共產國家들에 대해서 重大한 영향을 끼쳐 결국 그러한 國家들 內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誘發시켰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蘇聯이 체코에 介入하기로 決定한 가장 큰 理由가 바로 그것이였다. 당시 프랑스 共產黨의 政治局員이었던 Roger Garaudy가 蘇聯指導者들은 스탈린主義의인 社會主義모델에 너무 집착해 있는 관적으로 보다 더 先進된 社會의 條件에다 社會主義를 適應시키려는 어떠한 試圖도 社會主義 自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렇기 때문에 本能的으로 체코의 民主化를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틀리는 얘기가 아니었다.

民主化라는 것은 蘇聯指導者들의 教養이나 世界觀과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체코占領은 失手라기 보다는 차라리 스탈린主義體制的 論理的 歸結이었다.“¹⁾

個人的 自由(旅行, 言論, 出版의 自由)를 許容하는 共產黨에 의해서 統治되는 民主的 체코가 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西歐共產黨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西歐의 共產黨들로 하여금 보다 急速한 國內의 民主化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도록 고무했을 것이며, 또 投票者들에 대한 그들의 인기를 높일 수 있게 했을지 모른다. 그와 같은 事態는 바로 共產主義 歷史에 있어서 一大 轉換點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보다 先進된 西歐에서는 共產主義의 民主化가 進행됨에 따라 共產黨이 技術 電子的 挑戰을 人道主義的으로 處理하는데만 專念하게 됐을 것이다. 反面 第三世界에서는 當面하고 있는 後進성과 社會的 條件의 缺陷에 대한 격렬한 反動으로 戰鬥의 이고, 보다 革命的인 共產主義가 誘發됐을지 모른다. 따라서 蘇聯이 체코事態를 방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蘇聯이 당분간 硬直되고 高度로 官僚化된 體制를 지속하리라는 것을 시사할 분이나 아니라고 많은 分派의 共產主義가 등장하여, 제각기 普遍的인 福音의 代辦者라고 主張하리라는 展望을 아울러 갖게 한다.*

*蘇聯의 代辦者들은 종종 民主化된 체코는 이미 共產主義國家 체코는 아닐 것이며, 그렇게 되면 共產黨은 權力을 잃게 되리라고 主張해왔다. 이와같은 말은 그것이 증명될 수 있었건 없었건 간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체코에서는 실제로 共產黨 以外的 다른 政黨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체코에는 그와같은 새로운 政黨이 出現할만한 社會的 基礎이나 人物이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1968年 당시 체코인이나 슬로바키아 사람이 가진 支配的인 態度는 레닌主義나 스탈린主義가 아닌 보다 民主的이고 多元的인 共產黨을 贊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蘇聯의 論議도 몇가지側面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할 가치가 있다. 체코의 民主化에 對한 蘇聯의 非難은 民主主義와 蘇聯式 共產主義가 여전히 兩立할 수 없다는 것을 認定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것은 人民의 意志에 대한 부리길은 官僚的의 심을 反映하는 것일 뿐 아니라, 聯蘇의 官吏들이 現代에 있어서의 政治的, 社會的 平等의 問題, 또는 “테크네트로리革命” 時代에 적합한 새로운 휴머니즘의 探究와 같은 問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갈 수 있는 能力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東歐共產主義의 將來

1970年代나 1980年代에 가서 共產主義는 점점 多樣化하여 國際的인 運動이나 普遍的인 「이데올로기」의 一部라는 의미는 퇴색되고 特定한 地域的 條件에 융합될 것 같다. 그 결과로 東歐에서는 共產主義的이라기 보다는 “社會主義 파시스트”(Social Fascist)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당할 어떤 政權, 다시 말해서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規範으로 부터 離脫하려는 黨員을 除名함으로써 教條主義를 強化하는 支配政黨이 出現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政黨의 中·上層 엘리트는 民族主義的 성향이 매우 강하며, 公式的인 「이데올로기」— 특히 國家至上權(paramountcy of state)에 대한 信仰—가 부지불식간에 몸에 배어 社會的 政治的으로 保守的인 성향을 갖는 第一世代의 中產階級 官吏들로 形成될 것이다. 또 그러한 엘리트들은 “時代에 뒤진” 知識人이나 휴머니스트를 경멸하며, 「이데올로기」에 대해 中立的 立場을 취하는 기술적 專門家와 제휴하면서 軍部의 支持를 얻어 統治를 수행할 것이다. 蘇聯은 물론 東獨, 어쩌면 폴란드나 불가리아도 위에서 말한 “社會主義的 파시즘”의 範疇에 가까운 것으로 될 것 같다.*

* 여기서는 中央유럽의 「파시즘」이 주로 都市에서 發展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예를 들어 1937년 당시 헝가리의 Arrow Cross黨은 黨원 中 50%가 工業勞動者, 12%가 專門 職業人이나 自營業者였으며 農民은 8%에 불과했다. 당시 農民은 全人口의 半을 약간 넘고 있었다. (Istvan

Deak, "Hungary", in *The European Right*, Eugene Weber and Hans Rogger, eds., Berkley, 1965, pp.396~97).

그러나 그러한 政權들이 安定될 것 같지는 않다. 支配엘리트들은 점점 하는 冷笑主義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점점 分裂의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派閥이나 陰謀, 또는 個人間的 反目이 國內政治過程을 支配하며, 그러한 政治過程은 明確한 憲法的 節次를 缺하고 있다. 現存하는 政治的 制約下에서 社會는 더욱 不安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體制에서는 科學·技術 分野의 充分한 革新이 不可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욱기 새로이 擴大된 學生世代는 大學을 떠나 權力을 要求하기 시작하고 있다. 1968年의 騷亂은 1970年代에도 反復될 것 같다. 만약 西歐가 不滿에 찬 東歐人들에게 하나의 社會의 매력이 되고 있는 狀況에서, 또 모스크바 內部에 政治的 脆弱性과 分裂이 存在하는 狀況에서 그와같은 騷亂이 야기된다면, 다음에 올 東歐의 不安한 情勢는 단순한 國家的 범위가 아니라 地域全體의 범위에서 폭발할 것이다.

유고에서는 雜多한 民族間 分裂의 可能性이(특히 티토死後) 장차 不安의 主原因이 되고 있다. 그와같은 民族分裂은 國家를 維持하려는 軍部가 타를 유발할지도 모르고, 그에 가서는 蘇聯의 支配層도 유고의 軍事政權과 關係를 改善하기 위해 重要한 努力을 기울일 것 같다. 만약 그러한 危險(그 可能性이 농후하다)이 政治的 技術이나, 계속적인 經濟成長으로 극복된다면 유고는 계속 多元的 패턴으로 進化돼갈 것이며, 西方과의 關係를 보다 緊密히 하여 歐州共同市場에 準會員國과 같은 地位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유고는 多黨選舉를 實驗하기까지 하여, 國有와 私有에 關한 古典的 爭點에 대해서 점점 理論的인 立場을 후퇴시킬 것 같다 *

* 유고의 보다 先進된 階層間에는 벌써부터 私의 經濟部門의 擴大를 저지하는 강력한 感情이 存在하고 있다. 가장 私有財產을 反對하는 것은 敎育程度가 가

장 낮은 화이트·칼라 勞動者集團이다. (Zagreb Vjesnik, December 24, 1968. 收錄된 輿論調查 參照).

유고의 理論家들은 벌써부터 多黨體制가 共產黨 權力獨占의 政治의 쇠퇴를 회피하는데 필요한 「메카니즘」이라고 공공연히 主張해왔다. 그들은 “異質의 인 理念이나 反對되는 見解를 認定하지 않고, 一切의 知的 動搖를 許容하지 않는 폐쇄적인 合理的 體制보다 더 不合理한 體制는 없다⁴²⁾”는 점을 경고해왔다.

그와같은 유고의 事例는 체코나 헝가리와 같은 보다 發展된 東歐國家 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질지 모른다. 또 궁극적으로는 現在 東歐를 터 중에서 가장 獨立心이 강한 루마니아에게도 똑같은 結果를 가져다 줄 지 모른다. 체코나 헝가리는 內的으로 계속 조용한 民主化의 길을 추구하여 결국은 獨立을 지향할 것 같다. 루마니아는 社會生活이나 政治生活에 있어서 人民의 參與를 점점 증대시켜 감으로써 그의 獨立을 확고히 해갈 것 같다. 以上의 三國은 점점 高度로 中央集權化된 蘇聯의 「모델」대신 混合經濟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증대시켜가고 있다. 더우기 최근 체코의 社會學者들은 체코社會를 “社會內에서 가장 急速히 增大되고 있는 集團” 즉 「인테리겐차」가 決定的 役割을 담당하는 社會로 轉換시키 자고 提唱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들 견해에 의하면 그와같은 社會變 質은 필연적으로 「프로레타리아」獨裁” 概念의 修正을 강제하는 것이다.⁴³⁾ 헝가리 社會學者들도 점점 分權化되는 헝가리 經濟모델이나 점점 증가하 고 있는 「인테리겐차」의 意味를 論議하면서 역시 “社會생활의 광범위한 부 분(政治나 文化를 포함한)에 걸친 포괄적인 社會改革”이라는 方向에서 社會主義를 再定義한 것을 主張해 왔다.⁴⁴⁾

더우기 東歐諸國은 東歐「블럭」과의 밀접한 關係를 지속하고 西方側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배제함으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科學的인 落後狀態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다. <別表10>을 참조.)

그와같은 우려는 東獨도 가지고 있다. 東獨의 技術的인 發展은 점점 西方側 市場에 接近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東獨政權의 科學, 技術的인 成功은 종래의 政治的 「오리엔테이션」과 緊張關係를 야기시키고 있다.

西歐에서는 官僚化되고 엄격한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스탈린主義 共產主義가 점점 社會的, 政治的 妥當性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革命의 象徴은 이미 「이데올로기」的으로 보다 流動的인 活動家(activist) 그룹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로 既存의 共產黨들은 그들의 正統敎理(orthodoxy)를 最少化하고 憲法的 節次에 順應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政治的인 生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같다. *

* 심지어 그들은 既存의 國家制度에 參與하기까지 한다. 이탈리아 共產黨의 熱性分子가 共產黨幹部로 하여금 나폴리 大衆의 苦境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보다 革命的인 態度를 촉구하기 위해서 쓴 感動的인 記錄이 있다. (M.A. Maciocchi, *Lettere dall'interno del PCI a Louis Althusser*, Milan, 1969參照) 그녀는 日記中에 勞動者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黨官僚들로 하여금 勞動者들의 타락된 生活條件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그녀의 努力을 적고 있다.

現代의 高度로 세련되고 多元化된 共產主義權力이 西歐의 投票者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은 금후에도 西歐共產黨들에게 根本的인 問題點으로 남게 될 것 같다. 더우기 西歐共產黨들이 제시한 實用的 政策은 西方側이 共產主義國家들 보다 앞서 社會的 革命이나 技術的 革命을 경험했다는 사실로써 그 意義가 더욱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共產黨은 工業社會로부터 電子技術社會로 移行하는데 따르는 緊張을 利用하여 效果의 行動基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正統的 敎理를 弱화시키게끔 되었다. 그들의 一部 理論家들은 이미 共產黨을 再定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左派를 포함하여, 엄격한 意味에서는 「이데올로기」

的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또 그 官僚의 構造에 있어서 확실히 레닌主義의이 아닌 전혀 새로운 共產黨을 모색해 왔다. 그와 같은 改革論者들이 保守的인 黨指導者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한 西歐共產黨들은 여전히 分派的 共產主義로 그리고 政治的으로 孤立된 狀態로 머물렀으며, 反面에 改革論者들이 支持를 얻는데 성공한 만큼 西歐共產黨들은 教條的이고, 統合的이며, 排他的인 웅대한 「비전」으로 계속돼온 19세기적인 「이데올로기」의 傳統을 完화하는 方向으로 움직여 왔다. *

*前者的 경우는 프랑스 共產黨을 예로 들 수 있다. George Lichtheim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만약 오늘날 프랑스에 있어서 맑스主義原理가 수행하는 역할을 公式化해 본다면 오늘날 맑스主義原理는 미래에 대한 革命的 「비전」으로 부터 永久不變한 것처럼 보이는 現在에 대한 批判的 思索으로 바뀌었다고 要約해서 말할 수 있다.” (George Lichtheim, *Marxism in Modern France, a Study by the Research Institute on Communist Affairs, New York, 1966, p.169*).

後者的 경우는 이탈리아 共產黨에 해당된다. 이탈리아 共產黨의 경우는 黨理論家의 한사람인 G. Amendola가 黨理論誌인 *Rinascita*의 1964년 가을號에 發表한 한 論文을 통해서 새로운 廣意의 黨概念을 發展시켰다. 그는 同論文을 통해서 共產主義도 社會民主主義도 아니며 「이데올로기」에 구애되거나 黨幹部에 의해서 左右되지도 않는 새로운 左派 單一政黨을 창설할 것을 主張했다.

그와같이 낡은 19세기의 비전은 더이상 새로운 科學革命이나, 共產主義者를 今時代의 反體制勢力으로 취급하고 있는 學生, 知識人들의 革命을 포용할 수 없는 것이다. 西歐共產黨들이 새로운 事態에 어떻게 對處하던 간에 그들은 이제 더이상 革新的이거나 革命的인 것이 될 수 없다는 根本적인 事實만은 변함이 없다.

中國과 世界革命

共産主義는 西洋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東洋, 보다 一般적으로 말한다면 第三世界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 것이었다. 맑스가 생각했던 社會主義와는 달리 東洋의 共産主義는 國際化하고 人道主義化하는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좋게 말한다면 강력한 民族的 近代化와 社會的 擄取에 對한 革命的 抵抗을 고무하는 것이며, 가장 나쁘게 말한다면 專制的인 狂信이나 大衆的 탄압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됐다. 東洋의 共産主義는 權力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西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共産主義의 長點을 자주 宣傳하였고, 不平等이나 社會的 不正義 또는 外國의 支配에 對抗하는 鬥爭期에는 파괴주의적인 行動을 일삼았다. 權力을 장악한 以後 東洋의 共産主義는 극단적인 탄압과, 狂信, 그리고 강력한 民族主義의 性格을 띄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東洋의 共産主義는 특히 人民主義의 民族主義를 자극하는데 있어서 西洋의 공산주의 보다 훨씬 중요한 세력으로 역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十分 理解가 간다. 第三世界의 大衆들에게는 미처 그들이 政治的으로 작성되기 前에 共産主義가 들어왔었다. 따라서 第三世界에서 共産主義가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새로운 民族的 自覺의 對外的 表現과 國內의 內容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때 뿐이었다. 共産主義는 國內外的으로 人民들의 熱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 方法으로 工業化에 全力을 集中함으로써 보다 先進된 西洋에 대한 劣等感을 야기시켰다. 사실 그와 같은 理由 때문에 第三世界의 共産主義는 人種主義에 특히 취약했다. 人種主義는 白人帝國主義의 쓰디쓴 遺産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民族主義를 共産主義로 感染시켰던 것이다.⁴⁵⁾ 그러나 人種主義는 가장 原始的이며 不合理的한 動機

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人種主義에 의해서 補強되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는(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어디서나) 그 普遍性이나 合理性을 缺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가 「이데올로기」의 으로나 制度的으로 世界的인 妥當性을 갖는 것이나 하는 問題에 대한 또 다른 挑戰은 中國共產主義의 勝利에 의해서 제기 됐다. 中國共產主義는 蘇聯共產主義에 對抗하여 現代의 唯一한 純粹共產主義라고 主張하는 한편 그러한 主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國內的으로 革命的인 行動을 斷行해오고 있다. 1950年代 後半의 “大躍進運動”이 있은지 數年 後에 일어난 1960年代 後半의 “文化革命”은 支配政黨의 官僚主義的인 停滯와 「이데올로기」의 硬直化라는 위험스러운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考案된 것이었다. 中國人들은 蘇聯共產黨이 이미 그와같은 硬直化의 피해자가 돼버렸다고 公言하고 있다. 文化革命(이것은 大躍進運動의 社會, 經濟的인 大改革과 맞먹는 知的인 改革이다)은 계속적인 革命을 對內外的으로 表現하기 위해서 企圖된 것이었다. 그러나 文化革命의 全般的인 效果는 1963년 후르시초프가 蘇聯共產黨에 대해서 行한 것과 같은 改革을 中國共產黨에 실시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 즉, 黨을 철저히 解體함으로써 中國經濟도 똑같이 붕괴됐던 것이다.⁴⁶⁾

中國共產主義는 黨의 權威를 손상하는 것과 동시에 毛澤東의 個人的인 支配와 役割을 格上시킴으로써 어차피 傳統的인 共產主義의 主流로부터 (革命指導의 地理的인 中心은 해가감에 따라 프랑스로부터 獨逸로, 獨逸로부터 러시아로, 러시아로부터 다시 中國으로 移動해왔다는 中國의 論理에도 불구하고) 이탈하게 되었다. 더욱이 스탈린이 拔群의 個人的인 名聲과 唯一한 執權共產黨이라는 指導力을 가지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毛澤東은 그의 正統性主張에 대해서 是非를 하고 敎理上의 誤謬를 지적하는데 急急한 수많은 執權共產黨들과 相對해야 했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의 普遍性에 대한 中國의 國際的인 主張은 弱化되고 中國共產主義

義者들의 革命的 威信이나 中國共產主義가 後進性을 극복하기 위한 關係에서 보여준 否認할 수 없는 뚜렷한 業績을 손상하게 됐다.⁴⁷⁾

中國共產主義가 共產主義의 「모델」이 되기에는 中國自身の 特異한 性格 때문에 매우 복잡한 問題가 있었다. 中國共產主義者들은 단순한 한 國家에 서가 아니라, 包括的이고도 세련된 文明을 代表하는 廣大한 社會에서 權力을 장악한 것이다. 그와같은 文明은 매우 特殊한 것일 뿐만 아니라, 中國自身이 中心이 되는 世界秩序概念을 오래도록 간직해온 것이다. 비록 맑스主義思想의 歷史的, 또는 普遍的 範疇가 中國의인 틀에 同化되어, 그 延長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中國人의 文化的, 言語的, 또는 人種的 特異性은 자연히 中國共產主義를 他國에 輸出 한다거나 他國의 共產主義와 競爭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해왔다.

더우기 종종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稱해온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中國人들은 傳統的으로 熱熱한 布教者의 情熱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와같은 布教者의 役割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布教의 傳統은 말할 것도 없고 個人的인 性向과 文化的, 또는 哲學的 因緣, 심지어 種族의 血緣關係가 필요한 것이다. 유럽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敎가 그 布教的 熱情에도 불구하고 中東의 이슬람敎 만큼 아시아에 對한 傳道에 成功을 거두지 못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人種의 호소력은(이것은 분명히 피부색에 根據하는 것이나 「이메올로기」의으로는 白人과 帝國主義를 同一視함으로써 正當化된다) 中國 傳道者와 外國大衆間에 다리틀 놓아줄기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같은 人種의 호소력도 中國의 民族主義나 文化的 支配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겨리된 地域에서나 效果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아시아 보다는 아프리카가 中國의 長期的 目標로는 더욱 有望한 곳이 될지 모른다. 이상과 같은 생각들은 中國이 遂行할 수 있는 世界에 대한 革命的 역할의 한계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中國의 極端的인 言辭나 저돌적인 武裝計劃(이

에 대한 中國의 意圖 또는 能力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다)보다는 中國이 이제 어느정도 自足的인 文明民族國家가 됐다는 사실이 더욱 重要的 것이다. 中國의 國力은 해가 갈수록 더욱 成長할 것이며 더불어 隣接諸國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美國이나 蘇聯을 위협할 수 있는 中國의 能力도 더욱 커질 것이다.⁴⁶⁾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中國이 반드시 戰鬥的인 世界的 革命過程의 積極的인 指導者가 되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와는 正反對로 中國의 革命的 業積을 過去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中國은 그 자신을 歷史的으로 妥當한 革命的 「모델」로 내세우기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革命家들은 中國의 援助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아마 그러한 援助를 받는 者들로 하여금 中國이 普遍的인 使命을 가지고 있다고 納得시키기가 容易해지기는 커녕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주 論議돼 온 것처럼 당분간은 共產主義가 第三世界에 대해서 政治的安定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經濟發展이나 社會的 近代化를 추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을 제공해줄 것 같지는 않다. 실사 中國이 長足的發展을 하여 年 5%의 착실한 GNP成長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가서도 中國은 역시 世界的으로 볼 때 貧國속에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中國의 人口다. 팽창하는 中國의 人口는 國力の 要因이 되기보다는 社會的 經濟的 「딜레마」의 규모를 擴大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 蘇聯의 經濟的 經驗도 역시 第三世界에 대해서 妥當性을 가질지 의문이다. 蘇聯의 經驗에 대한 分析에서 시사되는 점은 工業化가 반드시 非常한 強制的 手段이나 社會階級的 物理的 破壞에 의해서 얻어지는 推進力으로 부터 誘導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하다. 즉 蘇聯의 工業化는 약 30년간의 工業化以前의 發展期間을 가졌던 社會에서 시작되었으며, 他國에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天然資源과 勤勉順從하는 人口(그러나 人口過剩은 아니다)를 袞택받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一次大戰

前까지만 해도 確實한 統計資料와, 비교적 잘 訓練된 技術幹部, 또는 初步的인 末來開發計劃(앞의 "스탈린主義의 파라독스"參照)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유리한 諸條件은 오늘날 近代化나 工業化를 企圖하고 있는 第三世界國家들의 그것과 比較가 안되는 것이다. 中共이나 古巴(古巴의 경우는 카스트로가 政權을 잡았을 당시 비교적 發展된 狀態였다)가 持續的인 成長과 政治的 安定의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을런지는 확실치 않다.

外來的인 간섭없이 權力을 장악한 共產主義國家들(蘇聯, 中國, 古巴, 유고, 알바니아, 越盟)중에 大대의인 테로나 난폭한 權力鬭爭없이 지속적인 經濟成長, 社會的 近代化, 그리고 政治的 安定을 達成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유고 뿐이다. 그러나 유고도 상당한 外國의 財政的 援助를 필요로 했다. 共產主義諸國 특히 그중에서도 原始的인 共產國家의 經濟發展 實績은 良好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일부 非共產國家들의 實績보다 떨어져 있다. 대부분의 共產主義 政治體制는(유고, 越盟, 古巴를 제외하고) 종종 政治的 不安을 겪어왔으며 그러한 政治的 不安은 蘇聯의 介入을 통해서 진압돼야만 했었다. 이와같은 共產主義的 發展의 業績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좋게 말해서 長短이 半半이며, 共產主義者만이 効果的인 近代化의 觀念을 發見하고 있다는 主張을 正當化하기에는 不滿이 많다.*

* 이점에 관해서는 共產主義者가 支配하는 國家들과 非共產主義的 近代化엘 리프에 의해 支配되는 國家들간에 유익한 比較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폴란드, 스페인, 이태리, 루마니아, 유고, 스페인, 체코, 스웨덴, 헝가리, 오스트리아, 南·北韓, 南北越南, 또는 中國·印度間的 比較가 가능하다. 이와같은 比較에서는 현저한 差異點보다는 어떤 共通性 같은 것을 더욱 많이 보여 주고 있다. 差異點들은 近代化를 추진하지 않는 非共產國家와 比較했을 때 더욱 현저하다.

第三世界國家들은 近代化나 工業化를 達成하기 위한 效果的인 革命的인 方法 무엇인가를 解答을 찾지 못하고 있다. 大戰爭에 의한 荒廢를 겪어

많은 國家에서 土着의 共產主義가 政權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나라 쿠바 뿐이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土着의인 共產主義가 權力을 장악한 것은 그들이 大戰爭期間 國家機關이나 經濟의 完全한 破壞를 경험한 후 共產主義者들이 뒷 收拾을 맡게 됐을 때였다. 그럼에도 1917年以來 共產主義者들의 革命記錄은 失敗의 연속이었으며, * 폴란드나 헝가리, 또는 루마니아에서 共產主義를 확립시킨 것은 蘇聯軍隊였다.

* 共產主義者들에 의한 革命的 努力中 비교적 중요한 것만 들어 보아도, 헝가리에서는 1919年, 폴란드에서는 1920年, 獨逸에서는 1918年과 1923年, 中國에서는 1927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1947年, 그리스에서는 1948年, 인도네시아에서는 1949年과 1965年, 볼리비아에서는 1966年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國家들에서는 大衆의 人民主義의 民族主義(populist nationalism)와 성급한 知識人들의 國家主義(statism)에 호소함으로써 個人的이고, 高度로 民族主義며, 심지어 人種主義의인 共產黨이 權力을 장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카우츠키(John Kautsky)는 그의 研究書, *Communism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에서 “共產黨의 勢力은 經濟發展이 最低의 段階에 있을 때 가장 약하다가,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점점 강화되어, 經濟發展이 꽤 높은水準에 이르렀을때 絶頂에 도달했다가 經濟發展이 最高水準에 이르면 急速히 衰退한다”⁴⁹⁾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一般論을 第三世界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共產主義는 經濟發展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자마자 쇠퇴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예를들어 共產黨의 政權장악은 그 中間의인 段階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같은 政權의 장악은 正統의이며 公式的인 共產黨에 의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일부 國家들에서는(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共產黨들이 이미 既存의 社會體制에 同化돼 있다. 成功的인 革命家들

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共產主義者라고 稱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성숙한 中産階層의 知識人들이나 青年將校, 또는 學生들로 조직되는 느슨한 聯合勢力이 될 지도 모른다. 그들은 教條的인 「이데올로기」 또는 普遍的이라고 말하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대신, 보다 急進主義나 民族主義 또는 人種主義와 같은 보다 막연하고 感情的인 動機에 따라 움직일 것 같다. 共產黨들은 확실히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勞動者들을 組織化하고 民族主義에 작성된 農土없는 農民들을 革命的인 軍隊로 만드는 일에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 大學內에서 소요하는 學生이나 知識人들을 「이데올로기」的으로 또는 組織的으로 統制하지는 못하고 있다. 學生이나 知識人들에게는 毛澤東, 또는 레닌보다 화는(Fanon)이나 부메디엔, 또는 볼리바나 게바라가 더욱 적당한 「심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올 革命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國家的인 共產主義의 세력을 강화해준다거나 人類의 知的인 統一을 向한 進一步를 기약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革命勢力이 보여주고 있는 「이데올로기」的으로 보다 感情的이고, 덜 訓練된 性格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광범한 諸傾向과 步調를 같이 하고 있다. 初期工業社會의 諸條件은 知的인 또는 組織的인 統合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혼잡하고 動態的인 世界都市는 어떤 特定한 思想體系나 價値體系를 전파하고, 그 기반위에서 世界的인 획일적 社會秩序를 창조하려는 目的을 갖는 中央集權的인 國際組織을 위해서는 有利的인 환경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狀況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獨一性이 아니라 多元主義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社會的인 諸價値나 制度를 동시에 急進的으로 또는 急速히 革新하는 진정한 의미의 革命的인 봉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機會는 그렇게 많지 않다. 現代에 있어서 兩次大戰에 의한 심각한 파괴를 겪지 않고 달성한 진정한 의미의 土着的인 國內革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나 맥

시코 또는 큐바의 革命뿐이다. 여타국가에서는 비록 가장 非能率的인 社會體制 또는 政治體制라도 轉覆活動에 대해서만은 높은 抵抗力과 頑強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경우 社會的 惰性만으로는 단편적인 수습만이 가능하며, 그렇다고 그와같은 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急進的 改革을 추구하면 頑強한 抵抗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때 蘇聯의 理論家들은 共產主義的인 人民民主主義로 移行하는 過渡的 段階로 民族的 民主主義라는 概念을 云云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벤발라, 고울라르(João Goulart), 카셈(Kassem), 키터(Modibo Keita), 파판드로(Papandreou), 응크루마 및 수카르노의 政權이 전복됨에 따라 蘇聯은 보다 더 長期的이고 점진적인 革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同時에 中國이나 큐바 사람들은 多樣한 게릴라戰 方式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와같은 게릴라戰 方式은 종종 地域 共產黨들의 公公然한 批判에 直面하였다.*

* 그와같은 批判은 베네주엘라 共產黨總書記 Jesus Faria에 의해서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그는 헝가리 共產黨機關紙, *Nepszabadsag* (1968. 2. 17일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經驗에 비추어 볼 때 大衆들은 以前의 武裝鬭爭方式을 포기하고 있다……400만의 人民들이 選舉運動에 參與하고 있다. 우리들은 역시 그러한 選舉運動에 참여함으로써 그 人民들을 더 잘 우리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大衆들의 剛志를 考慮하지 않고 어떠한 代價를 지불해서라도 武裝鬭爭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極左그룹들은 또 하나의 失手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그들은 스스로 더욱 孤立化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두가지 경우에 다같이 공통되는 것은 다같이 古典的인 革命理論이 점점 妥當性을 잃고 있다는 것, 그리고 共產主義가 社會的인 特殊主義(Particularism)에 종속돼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社會的 特殊主義는 「이데올로기」的 教條主義와 결합될 때 分派主義를 意味

하는 것이다.

分派主義는 普遍主義를 否認하는 것이다. 共產主義가 人類歷史上 最後의 위대한 統合의 敎理에 대한 信仰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一部 共產黨들은 既存의 國家制度에 參與함으로써 現實을 創造한다기 보다는 그 現實에 적응해가고 있다, 一部 共產黨들은 第三世界內의 人種主義나 강렬한 民族主義에 영합함으로써 現實을 再構成하기 보다는 現實에 굴복하고 있다. 以上の 두가지 경우는 모두가 다 固有性을 상실하고 있다. 그와같은 固有性의 상실은, 일단 잃고 난 다음에는 다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맑스主義者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人類의 集團的 意識을 넓혀주고 社會的 進歩를 위해 大衆을 動員하는데 공헌한 共產主義가 人道主義와 國際主義를 결합하려는 本來의 目標을 達成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즐거워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註〉

1) 스탈린性格의 洞察을 위해서는,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New York, 1962 와 Svetlana Alliluyeva, *Twenty Letters to a Friend*, New York, 1967 을 참조.

2) Leonard Schapiro, *The Origin of Communist Autocracy*, London, 1953 및 Isaac Deutscher, *The Prophet Outcast*, London, 1963 을 참조.

3) Leon Smolinski, "Grinevetskii and Soviet Industrialization," *Survey*, April 1968, p. 101. 또한 Smolinski의 分析에 대한 Alec Nove의 批判的 論評과 Smolinski의 回答(*Survey*, Winter-Spring, 1969)을 참조.

4) Smolinski, p. 109.

5) Deutscher, pp. 100—115.

6) Rostow, p. 66.

7) Rostow, p. 95. Warren Nutter가 만든 상세한 表를 보기 위해서는 pp. 96—97 참조. 여기서는 소련 工業生産의 몇개의 分野에서 볼 수 있는 持續的 遲滯가 美國의 生産과 比較되고 있다.

8) Black, "Soviet Society: A Comparative View," in *Prospects for Soviet Society*, pp. 42—43.

9) Black, pp. 40—42에서 이들 研究家의 發見과 그 結論에 도달하는 根據에 대해서 有益한 要約을 제공하고 있다.

10) Stefan Kurowski, *Historyczny Proces Wzrostu Gospodarczego*, Warsaw, 1963, p. 335에 실린 매력적인 累積表 참조.

11) *Trybuna Ludu*, July 8, 1963와 *Nowe Drogi*, No. 8, 1963을 참조.

12) 1962년 11월19일의 演說.

13) N. Sviridov, "Party Concern for the Upbringing of the Scientific-Technical Intelligentsia," *Kommunist*, No. 18, p. 38.

14) P. Demichev, "The Construction of Communism and the Goals of Social Sciences," *Kommunist*, No. 10, p. 26.

15) E.G.R. Kosolapov and P. Simush, "The Intelligentsia in Socialist Society," *Pravda*, May 25, 1968.

16) D.I. Chesnokov, "Aggravation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Struggle and Contemporary Philosophical Revisionism," *Voprosy Filosofii*, No. 12. 이 貴重한 論

文은 現代 修正主義의 意義와 現代 맑스主義의 一般의 狀況을 論하고 있다.

17) D.I. Chesnokov, "Current Problems of Historical Materialism," *Kommunist*, No. 6, 1968. p. 48. 또한 G. Smirnov, "Socialist Humanism," *Pravda*, December 16, 1968.

18) G. Khromushin, "Sharpening of World Ideological Struggle,"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 12, 1968.

19) T. Timofeyev, "The Leading Revolutionary Force," *Pravda*, Dec. 24, 1968. Timofeyev는 소련科學「아카데미」의 國際勞動者階級運動研究所 所長이며, 소련科學「아카데미」의 通信會員이다.

20) *Pravda*, April 11, 1968.

21) S. Kovalev, "On 'Peaceful' and Non-Peaceful Counterrevolution," *Pravda*, Sep. 11, 1968.

22) 소련 "未來學"의 有用한 資料는 소련學者 I. Bestuzhev-Lada, "Les Études sur l'avenir en URSS," *Analyse et Prevision* (Futuribles), No. 5, 1968의 報告書가 있다.

23) 例를 들면, A.D. Smirnov, "Socialism, the Scientific-Technological Revolution and Long-Range Forecasting," *Voprosy Filosofii*, No. 9, 1968 및 I.G. Kurakov, "Forecasting Scientific Technological Progress" 그리고 M.K. Petrov, "Some Problems of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the Epoch of the Scientific-Technological Revolution," *Voprosy Filosofii*, No. 10, 1968, 또한 V.G. Afanasev, *Nauchnoe Upravlenie Obshchestvom*, Moscow, 1968을 참조.

24) "A Discussion: The Problems of the Unity of the Communist Movement," *Zolnierz Wolnosci*, Jan. 21, 1969. 특히 S. Trampczynski의 寄稿論文 또는 J. Urban, "Hands Close to Pulse," *Polityka*, June 9, 1969.

25) *Contemporanul*, Jan. 3, Jan. 10, 1969에서 V. Roman의 것. Roman은 루마니아政府의 前閣僚이며, 中央委員會委員으로써 教授이자 訓練을 쌓은 技師이다. 그는 科學·技術革命에 관한 著書を 몇개 썼다.

26) Cheprakov, *Izvestia*, August 18, 1968.

27) C. Freeman and A. You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in Wester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OECD, p. 13. 또한 OECD의 철저한 研究인 *Science Policy in the USSR*, 1969를 참조.

28) 다른 例에 關해서는 *Science Policy in the USSR*, p. 95를 참조.

29) *Izvestia*, Oct. 28, 1968.

- 30) 「아카데미」會員 P.L. Kapitsa, *Komsomolskaia Pravda*, Jan. 19, 1968.
- 31) *Problems of Communism*, July-August and Sep-Oct., 1968. 또한 U. Chornovil, *The Chornovil Papers*, New York, 1968.
- 32) *The New York Times*, July 22, 1968 에發表된 「텍스트」.
- 33) *Vestnik Akademii Nauk*, No. 3, 1966, p. 138.
- 34) V. Roman, "For a Marxist Theory of the Technical-Scientific Revolution," *Contemporanul*.
- 35) Walter Ulbricht, "The Significance and Vital Force of the Teachings of Karl Marx for Our Era," 「팸플렛」, Berlin, May 2, 1968.
- 36) Peter C. Ludz, *Parteilite im Wandel*, Cologne, 1968 을 참조.
- 37) 例를 들어, P. Demichev, "The Construction of Communism and the Goals of Social Science," *Kommunist*, No. 10, 1968, p. 26 의 警告를 참조. 黨官僚로서의 經驗과 技術의 能力的 融合이 더욱 必要하게되는 傾向에 대해서는, George Eischer, *The Soviet System and Modern Society*, New York, 1968 의 詳실한 論議를 參照.
- 38) Richard Lowenthal, *World Communism: The Disintegration of a Secular Faith*, New York, 1966 의 詳실한 一般的 考察을 참조.
- 39) 이와 관련된 示唆의 論文, Henry L. Roberts, "Russia and the West: A Comparison and Contrast," *The Slavic Review*, March 1964 를 참조.
- 40) *Kommunist*, Oct 1963 (특히 p. 26) 의 聲明書를 참조. 이 聲明書는 國際運動에 있어서 絶對的 路線을 主張하는 中國의 概念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國際運動에 있어서 一般路線의 概念을 분명히 拒否한 中國指導者에게 1963년 7월 朝鮮首腦部가 보낸 書翰을 참조. 이 時期는 拙著, *The Soviet Bloc: Unity and Conflict*, rev. ed., Cambridge, Mass., 1967 에서 分析되었다.
- 41) Roger Garaudy, *Pour un modèle français du socialisme*, Paris, 1968, pp. 148-49.
- 42) D. Susnjic, *Kujizevne Novine*, March 2, 1968. 多數政黨體制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見解의 有益한 要約를 보기 위해서는, 1967년 10월 6일 및 1968년 5월 21일 字의 RFE 의 研究報告書를 참조. 이 두개는 이 問題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思考의 發展을 要約하고 있다.
- 43) 「체코」의 知識層 成長에 관한 資料와 그것의 意味에 대한 論議에 대해서는 Z. Valenta, "The Working Class and the Intelligentsia," *Nova Mysl*, Feb. 1968 을 참조.

44) 대단히 思慮깊은 A. Hegedus의 論文, "On the Alternatives of Social Development" 및 "Reality and Necessity" *Kortars*, June, July 1967 을 참조. 이것에 대한 保守的 反應에 대해서는, P. Varkonyi, "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Socialist Society," *Kortars*, Nov. 1968 을 참조. 한층 保守的인 反應조차도 이러한 論議의 바람직함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소련이나 기타 保守主義的 共產國家에서 최근에 發刊된 것보다 더욱 열렬한 것이었다.

45) 이와 관련하여, 美國黑人的 革命的 役割이라는 問題에 대해 中·蘇간의 흥미 있는 論爭에 관해서는, R.A. Remington, "Revolutionary Role of the Afro-American: An Analysis of Sino-Soviet Polemics on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American Negro,"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M.I.T., October 1968 을 참조.

46) Tang Tsou,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The China Quarterly*, April-June,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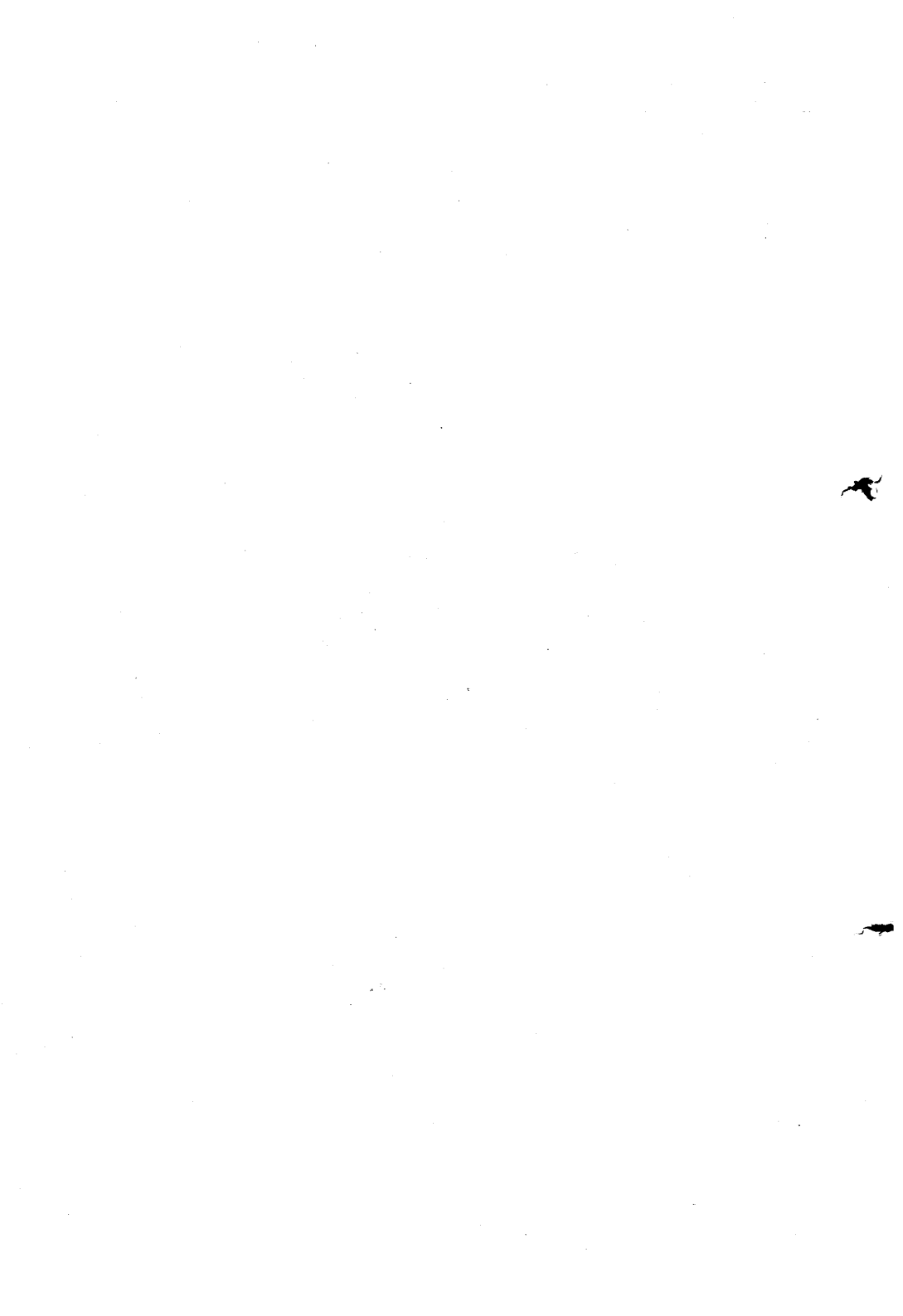
47) Alexander Eckstein, *Communist China's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New York, 1966.

48) O.E. Clubb, *Twentieth Century China*, New York, 1964, pp. 413-24 또한 Ping-ti Ho and Tang Tsou, eds., *China in Crisis*, Chicago, 1967 을 참조. 보다 一般的인 論議에 관해서는, J.K. 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1968.

49) John H. Kautsky., p. 187.



附 錄 I :



共產主義比較研究方法論序說

우리는 오늘날 한 사람의 社會科學徒로써 또는 한 사람의 민주국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똑같이 공산주의(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제도 등)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하지만 認識論上的 문제, 즉 사실과 규범의 영역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한계에 접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 世代가 당면하고 있는 철학적 또는 存在論的 딜레마,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와 억압, 정치적 正當性과 非正當性, 개인적인 권익과 공동체적인 권익에 대한 선택 또는 가치 판단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이 그야말로 하나의 완전한 과학을 지향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노력 속에 그 위치를 정립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우리의 공산권 연구가 被我 간의 입장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엄연한 한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편견과 독단, 또는 그로부터 비롯된 오해의 폐단에서 구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동안 현실적인 요청, 즉 정책적 수요나 학문적인 관심에서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체계에 대한 수 많은 전문가가 배출되고 또 그들에 의해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量産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서 연구방법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공산권 연구가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문제의식과 무관할 수 없다는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本稿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히 최근 10년 간 서방측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공산주의국가 연구에 관한 方法論的 省察과 공산주의국가 연구를 사회과학과 接合시키려는 의욕적인 시도들을 검토해 보는데 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새로운 학문적 노력들

☆ 이것은 1977년 1월호 「北韓」紙에 發表한 것을 옮긴 것이다.

이 아직은 연구 전략이나 연구 방법의 모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나 意義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접어두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의 내용은 文獻的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것이 초가 될 것이다.

I . 共產主義 比較研究의 背景

지난 10여년 간은 歐美 학계의 공산권 정치 연구분야에서 革命期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60년대 중반 이래 歐美 정치학계에서는 공산권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탐색하는 연구 방법론의 해신과 경험적인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開拓的인 연구가 개별적인 연구가에 의해서 또는 협동 연구를 통해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학문적 노력은 「공산권 연구의 科學化」라는 과제로 규정해 볼 수 있거니와 이제 공산 국가의 정치 분석을 比較政治學의 광범한 관심 속에 포함시키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정립으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즉, 오늘날 이른바 공산권 諸國의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 제도 또는 과정을 「다양한 발전」이라는 셋팅속에서 다루는 「比較共產主義論(Comparative Communism)」은 그와 같은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比較的 어프로치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데는 터커(Robert C. Tucker)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공산주의 자체의 分化와 다양한 발전, 축적된 지역연구의 성과, 현대 사회과학이 개발한 풍부한 모델이나 개념 등이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60년대에 들어서서 中·蘇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東歐 공산주의와 蘇聯 간의 乖離가 露呈됨에 따라 종래 스탈린 시대와 같은 一石柱的(monolithic)인 조직이나 이데올로기를 갖는 국제체제로서의 공산주의라는 관념은 크게 퇴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 자체의 변화, 즉 「多中心的 共產主義(Polycentric Communism)」의 출현은 바로 공산권 내의 동질성보다는 공산국가들 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종래까지 스탈린 치하의 蘇聯 체제를 典型으로 하던 전체주의 개념은 그와 같은 공산국가들 간의 分化나 변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比較的 觀點을 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비판받게 되었다.

한편 60년대에 와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보게된 比較政治學은 공산권 연구분야에서도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政治學의 科學化」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전해 온 行態主義的 어프로치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研究戰略(research strategy)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연구를 극복하는 經驗的 理論化와 공산국가 정치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기약하게 해주었다. 아울러 比較政治學의 광범한 관심은 세련된 개념이나 모델을 공산국가 정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선정이나 多面的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공산주의의 비교 연구를 고무해준 이상과 같은 두가지 배경 이외에도 또하나 지적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연구 환경과 관련된다는 문제이다. 사실 종래까지의 공산권에 대한 연구는 冷戰이라는 정치적 상황, 또 그에 따르는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관에 의해서 크게 제약되었던 것이며, 연구자 자신도 知的인 보수주의의 입장에 安住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체제 간의 교류와 개방의 증대는 새로운 資料源의 개척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被我 간에 대한 보다 냉정한 이해의 필요성과 함께 연구자 자신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II. 全体主義 모델 是非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종래까지 공산권 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전체주의 모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종래의 전체주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의 全体性, 엘리트 지배, 단일한 정치 목표, 명령의 통일성, 효율적인 강제력에 주목하여 西歐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反感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이다. 그에 따르면 전체주의 체제는 전체적 이데올로기, 1인의 독재자에 의해서 영도되는 단일 정당, 고도로 발달된 비밀경찰, 매스컴·전투 무기·경제 조직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比較政治學者들은 이와 같은 전체주의 개념이 현대의 공산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분석 개념으로서 적당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주의 모델의 첫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시간적(또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모델이라는 점이다. 즉, 전체주의 모델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을 準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공산권 내의, 새로운 변화나 分化와 같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하자면 靜的인 抽象型이라는 것이다.

전체주의 모델의 또 다른 결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그것이 非민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善惡의 가치 판단이나 대결의 感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주의 개념의 이데올로기 介入性은 물론 冷戰倫理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다.

전체주의 모델은 또 그것이 比較的인 분석 개념으로서도 活用性이 적다는 점이 또하나의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전체주의 모델은 같은 범주로 취급되는 나찌나 파시스트 정치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구별해 주지 못하며, 공산주의 체제 간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고, 공산주의 체제와 서구 민주주의 체제 또는 근대화 정치체제 간의 유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전체주의 모델이 갖는 有用性을 옹호하는 학자도 없지 않다. 이들

은 공산주의가 여전히 전체주의의 속성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運
 念型」으로서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현실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상대적인 범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산주의 체제는 아직도 리더십의 높은 이데올로
 기 指向性을 보여주며, 강력한 통제가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多元主義의이
 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모델은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 문
 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결점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론
 모델로 대체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큰 異意가 없는
 것 같다.

Ⅲ. 共產主義 体制의 類型化

공산권 연구를 比較政治學 또는 현대 사회과학과 接合시키려는 노력은
 크게 나누어 공산권 연구를 위한 경험적 자료의 부족을 「거대한 理論
 化 (grand theorizing)」로 비약시키려는 방향과, 한편으로는 야심적인 연
 구 과제를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비교 분석의 기술을 세련시켜 나가는
 방향의 두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째의 방향, 즉, 새로운 이론 모델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종래의 전체
 주의 모델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포함한 현대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再定義하고 類型化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컨대 터키는 공산주의 체제와 파시스트 체제, 그리고 민족주의 一黨
 体制까지 포함하는 一黨 주도 하의 혁명적인 대중운동 체제를 「運動政
 權 (movement regime)」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포괄
 되는 정치 체제들 간의 유사성과 아울러 이데올로기나 계급적 기반, 혁
 명적 정치의 동기, 혁명적 다이내믹즘 등의 차이와 같은 것에 주목하였
 다.

한편 앵터(David E. Apter)는 「動員体制(mobilization system)」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앵터가 정의하고 있는 「動員体制」는 階序的 권위, 국가 목표의 神聖不可侵性, 手段的 가치와 目標的 가치의 중복성, 내피과 절제의 강조, 미래지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위기와 긴장의 분위기 하에서 私人的 가치가 용인되지 않고 「政治的 宗教(political religion)」화한 이데올로기의 표방 밑에 모든 사회생활이 政治化된 체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앵터의 공식은 존슨(Chalmers Johnson)에 의해서 관료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援用되고 있다. 힌튼(Harold C. Hinton)이나 타운센트(James Townsend)도 그와 같은 개념을 중공의 정치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運動政權 모델이나 동원체제 모델은 혁명 단계의 공산체제만을 추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나 다양성을 해명하는데 미흡하며, 체제의 類型化와 분석 기술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의 명료함이 결여되고 實益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그와 같은 모델의 약점이 「확립된 一黨体制(established one party model)」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체제의 변혁, 강화, 적응 등과 같은 「혁명의 제도화」 또는 혁명의 進化 단계와 관련시켜 혁명 이후 단계의 一黨体制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공산주의 체제의 발전을 근대화 정치 모델 속에 포함시켜 보고자 하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카우츠키(John H. Kautsky)는 공산주의 체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는 假定에 도전하며 공산주의 체제들 간의 相異性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공산주의 체제를 다른 모든 정치체제가 견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발전의 차원(비록 그것이 똑같은 속도, 똑같은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나 非공산주의 국가(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간에는 相応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유익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근대화 체제」와 「근대화 이후(postmodernization) 체제」로 範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이밖에도 또 先進(공업화 이후의) 공산주의 체제, 예컨대 소련과 같은 체제는 西歐 체제와의 공통된 특징과 유사성을 증대해 가리라고 보는 收斂論的 假定이나, 「근대화 이후 체제」에 관한 모델, 예컨대 「多元主義 체제(pluralistic system)」 모델이나 「參與的 체제(participatory system)」 모델과 같은 것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론 모델들은 미래에 대한 假想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方法論的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든 이상과 같은 비교 모델들은 모든 공산주의 체제가 독특한 범주로서 정립될 수 있는 同質的 圈域으로 고착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独特性을 부인하는 주장의 배경에는 종래의 전체주의 모델이 범한 지나친 單純化의 과오나 이데올로기적. 宣傳的인 관점에 대한 반발,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들 간의 相異性이나 공산주의 체제와 非공산주의 체제 간의 相似性에 대한 인식이 드러워져 있다.

물론 공산주의 체제들 간에는 고유한 공통적 특징이 존재한다.

예컨대 공통된 이념적.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든지, 財貨나 생산양식 또는 사회제급이나 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갖는다든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또는 命令經濟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 반대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같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치체제는 다같이 지도자와 추종자가 있고 체제 내의 갈등이나 경쟁 또는 조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의 明示가 있게 마련이다.

또 공산주의 체제나 非공산주의 체제를 막론하고 형식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 집행은 매우 유사하며 投入이나 產出機能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공산주의 체제 연구에 생소한 西方의 이론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와 문제점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관점에 서지 않고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체제 간의 비교와, 수직적. 수평적 비교)의 眺望이나 이론적 분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IV . 共產主義 研究의 科學化 努力

두번째의 방향, 즉 공산주의에 관한 比較研究 戰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는 미국의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의 共產主義 比較研究 企劃團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협동연구 결과를 들수 있으며, 영국 학계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산주의 비교연구의 새로운 시도를 꼽을 수 있다.

우선 ACLS의 共產主義 比較研究 企劃團은 1965년 조직된 이래, 수많은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한 협동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방법의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① 共產體制의 정치적 변화, ②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테러 문제, ③ 유럽 공산주의와 아시아 공산주의의 비교, ④ 공산주의 체제의 근대화 문제, ⑤ 과학기술 혁명이 공산주의 국가에 끼친 영향, ⑥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문화 연구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참고로 이러한 연구계획의 결과로 출간된 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Chalmers Jonson(ed.), Change Communist System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②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③ John Wilson Lewis(ed.) Peasant Rebellion and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④ Donald L.M. Blackmer and Sidney Tarrow(eds.), Communism in Italy and F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⑤ Mark G. Field(e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Countries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⑥ Frederic J. Fleron, Jr., (ed.), Technology and Communist Culture. (출간 예정).

⑦ Robert C. Tucker(ed.), Communism and Culture (출간예정).

한편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긴 하지만 주로 개별적인 연구 또는 集合的인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트리스카(Jan F. Triska) 교수에 의해서 주도된 東歐統合研究 Triska(ed.), Integ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in Eastern Europe(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와 이오네스쿠(Ghita Ionescu) 교수를 중심으로 영국 내 소련, 東歐 전문가들이 참여한 東歐의 정치, 사회과정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트리스카의 연구는 비교적 통일적인 연구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치적 통합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東歐 共產國家 간의 정치제도 비교보다는 국제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오네스쿠의 연구 팀은 폴란드의 사회적 집단, 戰後 체코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계층, 체코 改革運動期에 있어서의 정치적 집단 형성 등에 관한 三권의 연구 결과를 출간하고 있으며 東歐에 관한 八권의 연구서 출간이 계획 중에 있다.

이밖에도 공산권 연구방법론, 특히 공산주의 비교연구에 관한 방법 논의는 공산주의 비교연구 企劃團의 주도 하에 출간한 공산주의 비교연구 보고서(Newsletter on Comparative Studies of Communism)의 논문들과 教材用으로 編著한 몇권의 책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미국에서 출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Jan F. Triska(ed.), Communist party-States(New York: Bobbs-Merrill, 1966).

② Frederic J. Fleron, Jr.(ed.),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Chicago: Rand McNally, 1969).

③ Roger E. Kanet(ed.), The Behavioral Revolution and Communist Studies(New York: Free Press, 1973).

④ Lenard J. Cohen & Jane p. Shapiro(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Anchor Books, 1974).

한편 영국에서 나온 공산주의 비교연구 방법론에 관한 대표적 저서는 다음과 같다.

① A.H. Brown, *Soviet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Macmillan, 1974).

②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s* (London: Macmillan, 1972).

이 가운데 특히 브라운의 저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소련 연구방법, 특히 行態主義의 적용 시도를 검토하면서 方法論의 배타성은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새로운 공산주의 연구방법에 관한 대부분의 著述들은 통일적인 방법론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고 개별적인 연구방법의 모색 노력을 집합시킨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공산주의 연구에 관한 새로운 방법 논의가 시도와 모색의 단계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比較共產主義論」은 초기의 의욕과 기대와는 달리 体系的 학문 분야로 확립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가는 다소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법의 추구라는 목적은 최근의 많은 공산주의 연구 결과 속에 훌륭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노력은 부단히 계속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V . 結 論

이상에서 공산주의 연구와 사회과학, 특히 比較政治學과의 接合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근래 歐美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공산주의 연구의 科學化」라는 주제와 관련된 방법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또

그러한 연구방법상의 논의 가운데 공산주의 연구와 比較政治學의 연결에 있어서 장점과 아울러 문제점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歐美의 현대 비교정치 이론이나 개념 또는 접근방법이 相異한 문화·體制의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를 갖는 공산주의 (특히 아시아 共產主義)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문화적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시킨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공산권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자료 부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접근의 隘路이다. 물론 최근 사회과학의 보다 세련된 분석 기술은 자료의 활용도를 提高시켜 주고 있으나 근본적인 자료의 빈곤은 一般化나 類型化에 있어서 지나친 추상론에 흐르는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比較政治學이 공산주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공산주의 비교 연구는 종래 個別記述의인 지역 연구가 갖는 두 가지의 결점을 제거해 주었다.

즉, 그러한 연구 방법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연구 관심을 확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硬直한 이데올로기적 先入觀에 의해 제약되었던 편협한 연구를 지양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보다 광범한 概念的인 틀 또는 이론 모델의 제시가 바로 그와 같은 편견을 전적으로 배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앞에서 제기한 공산주의 연구와 사회과학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즉 입장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과학과 입장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스턴(D. Easton)이 喝破한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 즉 後期

行態主義의 도전을 음미해보게 된다. 지식인은 역사적 역할이라는 責務를 포기했을 때 단순한 기술자에 불과하다. 본질은 기술에 앞서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민주국가의 社會科學徒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자」, 「사회주의적 실천에 대한 비방자」라는 마르크시스트들의 毒說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더이상 「冷戰의 용사 (Cold Warrior)」일 필요도 없지만 또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脫政治的인 政治學徒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蘇聯브레즈네프政權의 背景分析

- 二五次 蘇聯共產黨大會를 中心으로 -

一. 序 論

共產國家에서는 으레 黨大會가 지난 것들을 總決算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사가 돼오고 있다는 점에서 黨大會는 과거에 대한 評価와 동시에 將來에 대한 展望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現 리더십의 成功과 團結을 찬양하고 그들의 새로운 정책적 강령이나 계획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현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모든 곤란한 爭點들은 가리어지기 마련이다.

一九七六年 二月二四일부터 三月四일까지 一〇여일동안 전국의 代議員 四, 九八三명과 그들 발표대로 九六개국 一〇三명의 外國共產黨 및 勞動者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第二五次 소련 共產黨大會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大會는 대내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는 西方國家들에 비하면 상당한 經濟的 成長을 이룩한(그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五年간의 年平均 성장률은 五·二%이다) 소련體制의 優越性과, 대외적으로는 기왕의 太陽政策이 가져다준 소련의 世界的 地位에 대한 自信心을 선전하는 한편 그와같은 政策을 주도해온 現 브레즈네프政權의 安定과 健在를 과시하였다. 이렇듯 이번 黨大會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政策葛藤이나 획기적인 政治的 變化를 感知할 수 있는 뚜렷한 징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체기를 이제 十二년째로 접어드는 브레즈네프政權의 과거와 將來, 더 나아가서는 소련體制의 連續性과 進化라는 관점과 연결시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 이 것은 1976년 4월호 「北嶽」誌에 發表한 論文을 轉載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政治的 事件이나 그 배경에 대한 立體的인 理解를 求하고 소련政治의 表面속에 감추어진 秘密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爲인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이번 二五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사실들을 놓고 그와같은 사실을 형성해온 배경과 그것이 지니는 未來의 意味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앞으로 브레즈네프政權이 당권하게될 內外的 狀況에 대한 평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들이 대내적으로는 政權 또는 體制的 次元의 變化,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세계적 역할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二. 새로운 黨 리더쉽構造

이번에 새로 선출된 政治局과 書記局의 면모는 한마디로 브레즈네프의 개인적인 權力기반강화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政治局에는 七五년 四월에 失脚된 것으로 확인된 셀레스트와 폴리안스키의 탈락에 따라 候補委員이었던 로마노프와 우스티노프가 진출하여 一六명으로 채워졌고 書記局은 二명이 새로 보강됨으로써 十一명이 되었다.

한편 政治局 候補委員에는 알레메르 아세르바이잔共和國 黨 第一書記가 새로 선출되고 二명이 正委員으로 진출함에 따라 六명이 되었다.

이와같은 새로운 黨리더쉽의 改編은 우선 政治局員 一명의 탈락을 제외하면 新任幹部 三명의 充員과 旧 幹部의 거의 全員 留任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물론 現브레즈네프체제의 安定성을 내면해주는 것이다. 브레즈네프는 七一年四월 二四次 黨大會에서 政治局員 四명을 보강한 이래 五年간 五명의 政治局員과 六명의 候補委員, 三명의 書記를 교체해왔다.

현재 소련의 黨 리더쉽構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레즈네프의 執權 初期까지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브레즈네프가 一九六四年 흐루시초프政權을 제승할 당시 政治局과 書記局은 각각 十二명이었다. 그중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것은 브레즈네프를 포함해서

政治局에 六명, 書記局에 三名 뿐이다. 이 중 六四년부터 政治局과 書記局的 직책을 겸해온 사람은 브레즈네프 자신과 브레즈네프 執權初期부터 그의 지지자인 교령의 수솔로프, 단 두명뿐이고 쿨라코프가 六五년 八月부터, 키릴렌코가 六六년 四月부터 政治局과 書記局的 직책을 겸해오고 있다.

브레즈네프는 執權당시 흐루시초프나 스탈린과는 달리 유일한 政治局員과 書記局員의 겸직자이었다.

당시 그와같이 政治局員과 書記局員을 겸직하고 있던 다른 사람으로 수솔로프, 포드고르니, 셀레핀 등이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브레즈네프는 우선 書記局을 통하여 黨 中央委員會를 장악하고 다시 政治局의 構成을 변화시키는 조직적 전략을 취하였다. 서기국 내에서도 브레즈네프는 一九六五年 九月 포드고르니를 書記職으로부터 추방하는 한편 六七년 九月에는 셀레핀의 서기직을 박탈하고 七五년 四月에는 아예 그를 정치국원직에서마저 추방하였다. 이제 브레즈네프는 黨 內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는 확고한 기반과 위신을 누리고 있다.

브레즈네프의 개인적 權力基盤의 강화에 대해서는 專門家들의 評價는 구구하다. 이에 대한 論議들은 대체로 1人支配→集團指導體制→1人支配公式를 적용하려는 권력순환론(circular-flow-of-power theory)의 입장과 寡頭制의 化石化(oligarchic petrification)論者로 大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前者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例는 權力承繼의 危機(succession crisis)에 잠정적으로 나타나는 「安定된 寡頭支配」(stable oligarchy)가 第一書記(또는 書記長)의 權力強化에 따라 一人支配(personal rule)를 지향하게 된다고 보는 러쉬(Myron Rush)와 集團指導體制는 政治的 보스(political boss)가 나타남으로써 유일한 指導者에로의 귀환(return to a dominant leader)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후(Jerry Hough)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後者の 例로는 集團指導體制는 黨 優位를 유지하고 黨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革新이 없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고수하게 되는 寡頭支配

의 완성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브레즈네키 (Zbigniew Brzezinski) 나 個人的 支配 (personal rule) 와 集團의 支配 (collective rule) 가 一的인 것이 아니라 共存인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지도자와 寡頭體制가 병존할 수 있는 상황. 예전대 「한정된 1人支配 (limited personal rule) 」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호드네트 (Grey Hodnet) 등을 들 수 있다.

브레즈네프는 이번 黨大會 報告를 통하여 새삼 黨中央委員會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二四차 黨大會 이후 二一五회에 걸친 政治局會議과 二〇五회에 걸친 書記局會議 개최 성과를 들어 集團指導를 찬양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브레즈네프는 아직도 얼마간은 國家機關 또는 企業에 대한 黨 統制強化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黨 官僚와의 妥協과 調和가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政治局과 書記局的 명단발표가 알파벳順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일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一九六六년 二三차 당대회 때는 최초로 政治局員의 명단이 알파벳順으로 발표된 적이 있다. 또 지난 一九七一年 二四차 당대회에서는 처음 라디오放送 발표는 알파벳順이 아니라 序列 또는 기능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순서로 명단이 발표되었다가 다음날 신문에는 알파벳 순으로 명단이 발표되었었다. 이러한 조치는 共產國家内の 권력 서열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한 外國관측통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의식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 黨內권력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의 새로운 리더쉽改編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黨幹部의 노쇠화현상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브레즈네프의 後繼體制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번에 새로 政治局員으로 승진한 로마노프나 書記局的 新人起用은 리더쉽內에 다소의 世代交替를 고려한 듯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 브레즈네프자신을 포함해서 현재의 핵심적인 중요간부들은 대부분이 次期黨大會까지는 7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한 후계자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따르면 次期 党大会이전에도 後繼競爭을 위한 党内權力鬭爭이 심화될
가능이 충분히 있으며 그에 따를 不安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三. 兄弟党 관계의 破境

소련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二五차 소련共産党大会에는 九六개국으로
부터 一〇三명의 共産党 및 勞動者党대표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와 같
은 숫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숫자상으로는 지난
一九六六년 제二三차大会때에 참석했던 「兄弟党」(fraternal party)
대표 八八명, 一九七一年 제二四차大会때의 一〇一名 보다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숫자는 실제 내용상으로 二三차 党大会의 경우, 非共産党대표
가 十二명, 二四차 党大会의 경우는 二二명이나 되었던 것으로 확인했
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번 大会에 참석한 인원중에도 다수의 非
共産党 대표가 포함돼 있을 것이 틀림없다.

어쨌든 소련으로서의 이와같은 많은 兄弟党들의 들러리가 党的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소련共産党的 지도력을 과
시하는 쇼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희망은 소련이 党大
會이전에 유럽共産党會議을 개최하려던 노력이 지연됨에 따라 더욱 간절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大会를 통하여 소련은 그와같은 회
망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大会를 전후한 이탈리아·프랑스·영국·스페인 등 西歐共産党들이 잇따
른 脫소宣言과 유고·루마니아와 같은 東歐共産党들의 獨自路線추구는 兄
弟党關係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물론 이와같은 兄弟党關係의
분열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유럽의 네델란드 共産党和 아이
슬랜드 共産党은 一九六九년의 모스크바世界共産党大会부터 反소獨自路線을
내걸었다. 특히 兄弟党관계가 두드러지게 악화된 것은 一九七一年二三차
党大会때 이다.

二三차大会에는北傀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共産党들(中共·뉴질
랜드共産党·태국共産党·버마共産党·말레이시아共産党·인도네시아共産党·필
리핀共産党)이 불참하였으며, 西歐의 이탈리아共産党·스페인共産党·프랑스

共産黨과 東歐의 루마니아 共産黨·유고 共産黨 및 日本과 오스트랄리아 共産黨들이 명등과 자주·내정불간섭에 입각한 兄弟黨 關係를 주장하고 中共批判同調에 정면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번 二五차大會에서는 이와같은 脫소主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유고는 『共産主義運動의 平等·獨立·責任』을 요구하고 루마니아는 『자유스럽게 자기의 政治路線과 戰略·革命戰術을 발전시킬 權利』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共産黨들은 『共産主義가 부르주아의 권력제도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집권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태진전은 共産主義내의 「才二의 分裂」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브레즈네프는 이번 黨大會 基調演說을 통하여 이와같은 西歐共産黨들을 가리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포기를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는 者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소련이 이와같은 共産主義내의 분열에 다른 理論論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관심거리이다. 소련은 이제 西歐共産黨들의 非도그마化와 아시아 共産主義의 이데올로기적 強度에 다같이 대응할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모색해야 하는 二重 고역을 짊어지게 되었다.

四. 未完의 課題

브레즈네프는 이번 黨大會 報告에서 다시 準備중인 新憲法問題에 언급하고 이제까지 『憲法草案을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얼마간 더 시간을 두고 작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브레즈네프는 지난 七二年 十二月 소聯邦結成 五〇주년기념식 연설을 통하여 『이번 二五차 黨大會에서 草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소련의 新憲法 制定問題는 이보다 더 역사가 길다.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一九五九년 二一차 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一九三六년의 스탈린憲法の 개정을 제외하면서부터 이다. 흐루시초프는 一九六一년 二二차 黨大會에서 소련사회의 발전단계, 즉 「전면적인 共産主義 건

실기」에 맞추어 새로운 憲法을 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흐루시초프가 新憲法의 기본적 내용으로 강조한 것은 『① 社會民主主義를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며, ② 勞動人民의 민주적 자유와 권리 및 사회주의적 合法性의 엄격한 준수를 강력히 보장하고, ③ 다른 國家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원칙, 즉 相異한 체제를 가진 국가들간의 평화 공존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제의는 一九六二年 四月 最高소비에트의 승인을 얻어 그 자신이 의장이 되는 憲法委員會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당시 同 委員會는 브레즈네프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一九六四年 그의 失脚時까지 新憲法을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브레즈네프執權후 一九六四年 十二月에 있었던 最高소비에트는 憲法委員會 議長에 브레즈네프를 선출하였으나 그 후 이 문제는 별 진전이 없었다. 브레즈네프 자신이 新憲法制定 문제를 제기한 것은 一九六六年 六月에 와서였다. 同年 十二月 五日자 <프라우다>紙는 制憲節을 기념하는 사실을 통하여 브레즈네프가 一九六六年 十一月 블셰비키革命 五〇주년까지 新憲法草案을 완성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어 十二月말에 열린 最高소비에트는 새로운 三〇명의 憲法委員을 개선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五年간이나 新憲法制定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一九七二年 十二月 브레즈네프는 소련聯邦 결성 五〇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新憲法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브레즈네프 憲法」구상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당시 브레즈네프는 이러한 新憲法構想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프롤레타리아 獨裁國家는 점점 社會主義國家로 발전해 왔다』고 말하고 이제 새로운 憲法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브레즈네프의 黨 大會報告로 미루어 보아 브레즈네프가 구상하고 있는 新憲法의 주요내용 속에는 이제까지 강조해온 사회주의적 民主主義의 더 높은 발전이나 국가적 과제의 定義, 共產主義의 건설, 경제적 지도의 原則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憲法속에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 黨大會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소련은 西方측의 소련 體制 비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였다. 브레즈네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결함이나 곤란은 우리가 더 잘 안다. 우리는 그러한 결함을 착실히 극복해 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이론상으로만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알고 있다. 참다운 民主主義는 社會主義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브레즈네프의 新憲法계획은 또 지연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현 最高指導層내에 新憲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일 것이다. 브레즈네프는 新憲法에 대한 꾸준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사리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것은 브레즈네프의 개인적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소련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蘇聯指導層의 變遷 (1964.10 ~ 1976.3)

<政治局員>

(1976년 현재)

성 명	在職期間	現 職 責 (연령)
안드로포프	73.4 ~	KGB議長 (61)
브레즈네프	64년이전~	書記長 (69)
그 레 치 코	73.4~(76.5(사망))	國防相 (72)
그 리 신	71.4 ~	모스크바市 黨 才一書記 (61)
그 로 미 코	73.4 ~	外相 (66)
키 릴 렌 코	64년이전~	組織담당書記 (69)
코 시 긴	64년이전~	關係會議議長 (首相) (72)
코 즐 로 프	64이전~64.11	
클 라 코 프	71.4 ~	農業問題담당書記 (58)
쿠 나 예 프	71.4 ~	카자크 黨 才一書記 (64)
마 주 로 프	65.3 ~	才1 副首相, 工業相 (61)
미 코 얀	64년이전~66.4	

성명	在職期間	現職責 (연령)
벨 세	66.4 ~	黨 統制委員會 議長 (77)
포드고르니	64이전 ~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長 (73)
폴리안스키	64이전 ~ 76.3	
시체르비츠키	71.4 ~	우라크라이나 黨 才1書記 (58)
셀 레 뵤	64.11 ~ 75.4	
셀 레 스트	64.11 ~ 73.4	
스베르니크	64이전 ~ 66.4	
수 슬 로 프	64이전 ~	思想담당書記 (73)
올 로 노 프	64이전 ~ 73.3	
로 마 노 프	76.3 ~	레닌그라드 黨 才1書記 (53)
우스티노프	76.3 ~	國防相 (68)

< 政治局候補委員 >

성명	在職期間	現職責 (연령)
안드로포프	67.6 ~ 73.4	
메 미 체 프	64.11 ~	文化相 (58)
예프레모프	64이전 ~ 66.4	
그 리 신	64이전 ~ 71.4	
쿠 나 예 프	66.4 ~ 71.4	
마 세 로 프	66.4 ~	벨로루씨안 黨 才1書記 (58)
마 추 로 프	64이전 ~ 65.3	
므 차 바 나 켄	64이전 ~ 72.12	
포노마레프	72.5 ~	非共產國家黨關係담당書記 (71)
라 쉬 도 프	64이전 ~	우즈베크 黨 才1書記 (58)
로 마 노 프	73.4 ~ 76.3	
시체르비츠키	65.12 ~ 71.4	

성명	在職期間	現職責 (연령)
셀레스트 솔로멘체프 우스티노프 알리예프	64이전~64.11 71.11~ 65.3~76.3 76.3~	러시아소비에트 社会主义聯邦 共和國 (RSFSR) 首相 (62) 아제르바이잔 党 才1書記 (52)

< 書記局 >

성명	在職期間	現職責 (연령)
안드로프프 브레즈네프 베미체프 돌지크 일리체프 카미토노프 카투세프 키릴렌코 코즐로프 클라코프 포드고르니 폴리아코프 포노마레프 루다코프 셀레윈 솔로멘체프 수슬로프 티토프 우스티노프 지미아민 체르빈코	64이전~67.6 64이전~ 64이전~74.12 72.12~ 64이전~65.3 65.12~ 68.4~ 66.4~ 64이전~64.11 65.9~ 64이전~65.12 64이전~64.11 64이전~ 64이전~66.7 64이전~67.9 66.12~71.11 64이전~ 64이전~65.9 65.3~ 76.3~ 76.3~	書記長, 國防安保담당 (69) 重工業담당 (52) 幹部담당 (61) 共産團 關係담당 (46) (69) 農業담당 (58) 非共産國 党 關係담당 (71) 思想담당 (73) 軍需産業담당 (68) 프라우다編輯長 (?) 中央委總局長 (?)

蘇聯의 外交政策決定過程 分析

一. 序 論

오늘날 社會科學의 세련된 科學的 資料處理方法과 풍부한 理論的 挑戰은 外交政策에 관한 分析能力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一國의 外交政策決定에 관한 완벽한 理論이나 分析 모델은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한 나라의 外交政策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양보할 수 있는 安全線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우리는 어느 한 나라의 外交政策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통상 행위자(actor)·가치(또는 목표)·정보·선택·환경·결정과정·결과와 집행·결과 등과 같은 諸 側面을 검토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外交政策의 諸 측면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하나 하나가 서로 독립적인 變數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긴밀한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그러므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다.

특히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理論의 援用과 多面的인 이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크레믈린의 결정은 「秘密의 상자」라고 표현되고 있듯이 政策決定의 구조나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자료가 심히 제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에서는 黨과 國家機關간의 복잡한 기능적 중복성, 黨·國家관계의 불안정성, 제도적 통로와 절차가 무시되는 자의적 경향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合理的인 政策決定(rational policy-making)을 추적하기 어려운 정책결정 과정의

☆ 이 글은 1976年 11月号 「國際問題」誌에 發表한 論文을 轉載한 것이다.

특수성 때문에 아스파투리안 (Veron V. Aspaturian)은 어느 하나의 理論的 틀 만으로 소련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접근방법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註①).

60년대 중반부터는 스탈린 이후의 소련체제 변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국의 少壯學者들 간에 소련研究에 社會科學的 方法을 적용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소련의 정책 결정을 종래까지 크레믈린노지스트 (Kremlinologist)들이 강조하던 「1人의 決定 (one man decision)」이나 權力鬭爭의 측면보다는 「조직적인 過程」(organizational process) 또는 「決定의 合理化 (rationalization of decisionmaking)」라는 맥락에서 究明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대두되었다(註②). 이들은 아직도 다양한 어프로치와 기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자료의 制約 때문에 어떤 통일된 개념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또 그 方法上的 타당성 證明이 유보되고는 있지만 소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하여 편견 없는 합리적 視角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장점을 평가받고 있다.

정책결정의 합리화라는 개념은 制度的 기준 (institutional criteria)이라는 기초 위에서 보다 폭넓은 社會的 決定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켈리 (Donal R. Kelley)의 설명을 빌리면 그와 같은 정책결정의 합리화는 근대화·사회적 分化·기능적 專門化·사회문제의 복잡화 등의 결과로 나타나며 ① 決定이 합리적·기술적인 기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② 결정을 지배하는 요인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의미가 후퇴하며, ③ 결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숙련을 쌓은 사람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것이다(註③).

本稿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構造 (context of decision-making)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分析모델의 평가나 선택, 또는 제시보다는 이상에서 언급된 前提와 問題意識 속에서 소련의 외교정책이 형성되는 구조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主가 될 것이다.

二. 黨의 政策決定 構造

소련 외교정책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黨과 국가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人的 또는 機能上的 중복성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역할의 分業을 보여주고 있지만 黨의 優位性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련에서는 理論적으로 黨大會가 최고의 黨 政策결정 기관이다. 그러나 사실상 2천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黨大會가 政策問題를 효과적으로 토론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黨中央委나 政治局의 결정을 추인하고 공식화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 더우기 현재 5년에 한번 열리게 돼 있는 黨大會이고 보면 黨代會의 정책결정 기능은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스탈린 治下에서는 18次黨大會(1939年)와 19次黨大會(1952年)간에 무려 13년간이나 黨大會의 소집이 없었다는 점만 보아도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黨大會의 의미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黨中央委員會는 형식상 黨大會 休會中 黨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지시하게 돼 있으며 실질적으로 외교정책문제의 중요한 토론장이 되고 있다. 스탈린時代 以前만해도 黨中央委員會는 黨規約上 정책문제에 대한 政治局의 보고를 청취할 권한이 있었으며 수시로 外交人民委員(foreign Commissar: 현재의 外相에 해당하며 통상 黨中央委員 겸임)이나 코민테른의 高位 실무자, 심지어 黨書記長의 보고를 듣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黨中央委員會의 기능은 스탈린時代에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흐루시초프는 그의 20次黨大會 비밀연설을 통하여 스탈린이 二次大戰중에 단 한번도 中央委員會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中央委員의 약 70%를 체포·학살했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개인적인 결정이나 黨運當으로 침체되었던 黨中央委員會의 기능과 활동은 스탈린 사망이후 다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후르시초프 失脚以後 黨中央委는 소련에서 가장 권위를 갖는

중요한 정책결정기구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党中央委員會는 党政治局員・党書記・중요한 政府閣僚・構成共和國의 党 才一書記・중요한 地方党 才一書記・중요 官吏・軍將星・警察간부・重要國 駐在大使・勞組幹部・공소불 代表 등 소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党政治局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최고 당 정책결정기구이다. 党政治局은 党規約上 党中央委에서 선출하며 政治局의 결정은 집단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政治局員의 충원과 조직에 관해서는 간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뿐이며 政治局內의 토의나 투표방식은 비밀에 쌓여 있다.

호루시초프는 스탈린 死亡直後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党中央委員會를 政治局內의 반대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적이 있으나 党中央委가 政治局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政治局의 지위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三. 党内 政策그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스탈린 死後 党的 기능이 회복됨에 따라 党内 政策決定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기능적 定向을 갖는 派閥政治 (factional politics)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련에서는 그들의 党規約에 명시돼 있듯이 「党的 統一을 파괴하려는 分派集團의 형성이나 党을 분열시키려는 企圖」를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조직적 또는 사회적 기반을 갖는 파벌이나 利益集團의 존재를 공식화하기는 곤란한 일이다(註④). 그러나 실제로 소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나 정책노선 또는 問題定向에 따라 「政策그룹(policy group)」(註⑤) 또는 非結社의인 그룹(nonassociational group)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긍되고 있다. 예컨대 아스파루리안은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국내적인 경제발전을 우선시하여 국제적인 긴장완화를 바라는 온건한 국가관료,

경공업이나 소비재, 농업과 문화·과학, 소비자그룹과 對外的인 이데올로기의 의무를 강조하는 공격적이고 강경한 軍部, 중공업과 보수적인 黨아파라치키나 이데올로기 그룹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註⑥).

달린(Alexander Dallin)도 소련의 외교정책을 단순히 국내정치적인 投入(input)의 종속변수만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했지만 소련의 정책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左派的 경향과 右派的 경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다(註⑦).

左派(Left)	右派(Right)
① 目標定向(理想主義)	實用主義
② 樂觀主義	悲觀主義
③ 党性	專門性(合理性)
④ 變革	安定
⑤ 唯一主義	多元主義
⑥ 政治	經濟
⑦ 動員化	正常
⑧ 重工業	消費財
⑨ 不均衡發展	均衡發展
⑩ 中央統制經濟	市場經濟
⑪ 文化革命	傳統固守
⑫ 緊張管理	合意樹立
⑬ 辨證法的	直線的
⑭ 集權化	分權化
⑮ 暴力	漸進主義
⑯ 國際紛爭의 不可避性	紛爭의 可避性
⑰ 自律論	決定論

참고로 소련의 党中央委員會와 政治局內의 집단구성에 관한 분석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註⑧).

党中央委의 集團構成 (候補委員 포함) ※괄호안은 名目

成 員 \ 연 도	1952	1956	1961	1966	1971	1976
党 僚	103	117	158(43)	155(43)	172(43)	
国家機關經濟官僚	79	98	112(34)	136(38)	144(36)	
軍 將 星	26	18	31(10)	33(10)	33(8)	
文化·科學知識人	—	—	18	15(4)	25(6)	
경 찰	9	3	2	2(0.5)	4(1)	
기 타	19	19	9(19)	19(5.3)	25(6)	
총 계	236	255	330	360	396	416

政治局의 集團構成

成 員 \ 연 도	1952	1953	1956	1957	1961	1963	1966	1970	1975	1976
党 僚	13(5)	2(2)	4(3)	10(6)	7(3)	8(4)	6(6)	6(7)	9(6)	10(4)
国家經濟官僚	5(3)	4	4	1(2)	2	2	1	—	1	1
기 타官僚	4(2)	3(1)	3(1)	3	2(2)	2(2)	4(1)	5(1)	4(1)	(32)
軍 部	—	—	0(1)	1	—	—	—	—	1	—
警 察	2	1(1)	—	—	—	—	—	0(1)	1	1
기 타	1(1)	—	0(1)	0(1)	—	—	(1)	—	—	—
총 계	25(11)	10(4)	11(6)	15(9)	11(5)	12(6)	11(8)	11(9)	16(7)	15(6)

이상과 같은 党政治局과 党中央委員會의 집단구성에서 확인되는 것은 党僚그룹의 優位이다. 다만 1953년부터 1956年 사이에 나타난 政治局內的 국가기관 優위는 당시의 특수한 리더쉽構造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될 수 있는 사실은 党中央委의 구성은 비교적 단기적인 균형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党中央委員은 5년마다 개최되는 党大會를 통하여 선출되지만 政治局은 혁
식상 中央委員에서 선출됨으로 수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전문가·학자들의 당정책결정
참여문제이다.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부터 科學아카데미內的
小社 社會科學者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과 개념
의 문제가 제기되고 國際政治學의 새로운 出現을 보고있다〔註⑨〕.

당시 미코얀은 20次 党大會를 통하여 소련에서 資本主義國家에 대한
연구의 落後性과 「東方研究 (Eastern studies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
메리카 後進國에 대한 研究)」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가 정책결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새
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소련의 국가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련의 指導層間에 정책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오
늘날 소련의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이 政策立案의 助言者로서 또는 党政
策의 선진원으로서 외교정책 수립에 직접·간접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소련의 科學아카데미內에는
1956년 4월부터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가 설치돼 있고 현재 동
연구소의 所長으로 있는 이노젠크프 (N.N. Inozemtsev)는 1966년이래
党中央委員을 겸하고 있다.

소련指導層의 兼職現況

	党				国家機關			
	政治局	秘書司	共和国 才一秘書	기 타	閣僚	최고소 비에트 幹部	共和国 首相	기 타
브레즈네프	0	0				0		(聯邦會議對外 關係委議長)
코 시 킨	0				(議長)			
수슬로프	0							
포드고르니	0	0				(議長)		
키릴렌코	0	0						
펠레	0		(라트비아)	(黨統制 委議長)	(才1 副首相)			
마주로프	0							
쿠냐예프	0		(카자크)			0		
쉬체르비츠키	0		우크라이나					
그리신	0			(모스크바 才1書記)		0		
클라코프	0	0						
안드로포프	0				(國家安全 委議長)			
그로미코	0				(外相)			
솔로멘체프	(候補)						(R.S. F.S.R)	
메미체프	0				(文化相)			
마세로프	(候補)		(白러시아)			0		
포노마레프	(候補)	0						(民族會議對外 關係委議長)
라시도프	0		(우즈베크)			0		
우스티노프	0	0			(國防相)			
로마노프	0		(아제르바 이잔)	(레닌그라드 才1書記)				
알리예프	(候補)							

四. 國家機關의 役割

소련의 憲法上 規定으로는 聯邦最高소비에트와 聯邦閣僚會議가 대외관계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黨의 중요 인물들은 聯邦 또는 共和國政府등 국가기관의 요직을 겸하고 있다.

最高소비에트(The Supreme Soviet)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立法權을 행사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憲法上으로는 最高소비에트의 형식적인 권한이 열거되고 있으나 年2회씩 소집되어 首相이나 外相의 외교정책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이며 그 권한의 대부분을 兩院合同會議에서 선출되는 幹部會議가 행사한다. 最高소비에트는 그 會期가 실어야 10일을 넘지 못하며 가장 짧은 것은 단 67分間 열렸던 기록도 있다. 最高소비에트 幹部會議는 형식상 전쟁선포전·條約의 비준 및 제기전·外交使節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수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最高소비에트에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 내에 각각 대외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문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련이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最高소비에트의 존재는 對內的으로 국민의 대표가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대외적으로 그것은 소련이 立憲政治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선전적 의미가 있고, 셋째로 외교상의 儀典節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 소련은 1955년부터 IPU에 가입하여 議員外交를 개척하고 있다. 또 最高소비에트 幹部會議議長은 국가를 대표하는 儀典的 地位로 이용되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대외관계위원회 議長이 외교사절의 영접에 흔히 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련의 聯邦閣僚會議는 외교정책의 집행과 행정과 감독하고 대외무역을 관장하며 外國政府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외교관제의 폐기·회복, 국제회의의 참가선언, 협상대표의 선임, 最高소비에트 간부회의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정의 체결, 대외기관의 업무감독, 외교관의 임명 등 권한을

행사한다. 이와같은 閣僚會議의 기능은 실제로 閣僚會議議長(首相)과 통상 各료직을 겸하고 있는 才一副議長, 기타 數名の 副議長으로 구성되는 閣僚會議幹部회의 결정으로 수행된다. 聯邦閣僚會議의 권한은 이론적으로는 最高소비에트 幹部會議에 종속되나 실질적으로는 黨政治局에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소련의 閣僚會議議長(首相)은 통상 黨高位職을 겸한다. 歷代 소련首相의 정치적 지위는 黨內 지위의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레닌은 黨書記長과 首相職을 겸하였으며 루코프나 몰로토프는 實權없는 首相職에 머물렀고, 스탈린은 1941년 黨書記長과 首相을 겸함으로써 專制的인 1인지배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東歐나 아시아 共產國家와의 관계에 있어서 儀典的인 절차나 국제법상으로 요구되는 사항 이외에는 外務省의 관여가 最小化되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정책적·실질적인 문제가 黨的 關係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註⑩〕. 따라서 他 共產國家에 파견된 소련의 大使는 정부대표라기보다는 당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밖에도 소련의 外交官이나 海外駐在官의 정보 보고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黨에 보내지고 黨은 그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자료로 이용한다. 따라서 소련의 職業外交官은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보고나 건의 이외에는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五. 結 論

이상에서 소련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을 黨·國家機關의 關係를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것은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이 점점 專門的 技術 또는 합리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련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黨·國家關係 다시 말해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더욱 긴밀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黨內的 制度的 代表機能이 중시

되고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973년 소련에서는 그로미코外相과, 그레치코國防相(死亡) 및 안드로포프 국가안전위(KGB)의장 등 對外政策과 관계가 깊은 세 사람이 政治局員으로 승진하였다. 그로미코는 20여년이나 外相職을 유지해 온 職業外交官이며 그레치코는 직업군인이었다. 안드로포프 역시 전문적인 행정가이며 1976년 그레치코의 사망으로 國防相을 계승한 우스티노프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와같은 人事는 소련에서 實務行政的 전문가가 정책결정의 핵심에 진출한 최초의 예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註①〕(물론 1957년에 國防相이었던 슈코프가 政治局員이 된 적이 있지만 그는 職能的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인물이었으며 결국 불과 3개월만에 失脚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소련의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問題의 한 단면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註〉

- (1) Veron V. Aspaturian "Soviet Foreign Policy" in Roy C. Macridis, (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76), pp. 152-222.
- (2) Arnold L. Horelick, A. Ross Johnson and John D. Steinbruner, The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A Review of Decision-Theory-Related Approaches (Rand Corporation, 1973). 참조. 이들은 이와같은 새로운 소련 究研 경향을 총래의 「크레믈러노로지스트」와 구별하여 「소비에톨로지스트(Sovietologist)」라고 부르고 있다.
- (3) Donald R. Kelley, "Toward a Model of Soviet Decision Making: A Research Note" APSR, Vol. LXVIII, No. 2 (June 1974), pp. 701-706.
- (4) 소련 政治에 대한 이익집단 어프로치에 관해서는 (i) Gordon Skilling and Franklyn Griffiths (ed.), Interest Groups in Soviet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ii) Joel J. Schwarz, and William R. Keech "Group Influence and Policy Process in the Soviet Union" APSR, Vol. LXII, No. 3. (September 1968), pp. 840-851.

- (iii) Sydney Ploss, "Studying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Soviet Foreign Policy" *Canadian Slavic Studies*, Vol. 1, No. 1 (Spring, 1969) pp. 44-59, Reprinted in Erick Hoffmann and Frederick J. Fleron Jr. (ed),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Aldine. Atherton, 1971).
- (iv) William E. Odom, "A Dissenting View on the Group Approach to Sovie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XXVIII, No. 4 (July 1976), pp. 568-589 등을 참조.
- (5) Z.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 / USSR* (New York: Viking Press, 1963). pp. 195-198.
- (6) Aspaturian, "Inter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the Soviet System" in B. Farre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p. 230.
- (7) Alexander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XXIII, No. 2 (1969).
- (8) Aspaturian, "Soviet Foreign Policy" op. cit. p. 193.
- (9) William Zimmerman, *Sovie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56-196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 25-74.
- (10) Aspaturian, "Soviet Foreign Policy" op. cit. p. 216-217.
- (11) William E. Odom, "Who Controls Whom in Moscow" *Foreign Policy*, No. 19 (Summer 1975), p. 119-121.

蘇聯의 아시아戰略과 役割構造

一. 序 論

아시아의 三〇년 戰爭이라고 일컫는 印支半島의 오랜戰火가 불행한 종막을 내린 이후 아직도 아시아에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가운데 유동적인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아시아 질서 모색의 轉換期的 狀況은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관심의 충돌과 地域國家들의 대응 또는 능동적인 安保努力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매우 복잡한 權力政治의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아시아의 이와 같은 특수한 安保狀況 위에는 六〇년대 이래 국제정치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中·소對立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강력히 투영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최근의 아시아 정세를 美國勢의 후퇴와 中·소對決의 새로운 발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미 소련은 六〇년대 말 미국이 낸 독트린을 천명하고 越南戰의 종식과 對中共관계의 개선을 서두를 당시부터 「아시아集團安保」構想 등 적극적인 對亞戰略으로의 轉換을 시사하고 『미국이 불러간 공백을 소련勢로 채우겠다』는 의욕을 천명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印支終戰 이후 더욱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中共은 이와 같은 소련의 아시아 진출을 심각한 도전으로 경계하면서 주변 아시아국가들에게 적극적인 反소主義를 호소하고 있다. 印支終戰以後의 아시아情勢에 대한 중공의 기본적인 인식은 一九七五年 六月九일 필리핀 마르코스大統領夫人 이멜다女史가 中共을 訪問했을 때 당시 副首相이었던 鄧少平이 말한대로 「앞문으로 이리를 내물자 뒷문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는」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 地域國家들은 새로운 情勢變化와 安保狀況에 적응하기 위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스크바와 北京을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아시아地域國家들의 安保關心과 外交的 行態는

☆ 이 것은 一九七六年 六月호 「北緯」誌에 發表한 論文을 轉載한 것이다.

거트브 Melvin Gurtov) 의 말대로 「生存의 政治 (politics of survival) 」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本稿의 목적은 오늘날 이와 같은 아시아의 流動的인 秩序를 바라보는 소련의 視角과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존재와 역할을 분석해 보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淸아시아戰略이 갖는 기본적인 구조와 소련의 아시아安保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특히 소련의 아시아存在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는 中共的 要因은 어떤 것인가를 究明하는 것이 耑점이 될 것이다.

二. 소련의 淸아시아關心

소련이 아시아問題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우선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인은 安保的·戰略的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소련 스스로가 매체 아시아國家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듯이 소련領土의 三分의 二가 우랄山脈 以東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利害關係를 규정하는 불가피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이와 같은 소련의 地政學的 관심은 中央아시아 및 시베리아領土의 안전과 같은 아시아 속의 소련의 存在를 보호하는 소극적이고 지역적인 이해관계 이외에도 世界國家로서의 소련이 갖는 「地球的인 戰略 (global strategy)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소련의 아시아戰略 속에 내포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要因이나 經濟的 側面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긴 하지만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이데올로기의 관심은 中·소紛爭을 계기로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관계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安保戰略的 관심은 情勢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보여 왔다. 一九五〇년대 東西 간의 冷戰關係가 정착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美國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反共同體體制가 공고화되는 상황하에서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安保上의 選擇은 오히려 자유스러운 입장이었다. 즉, 당시 소련은 美國을 중심으로 한

反共勢力의 아시아大陸 봉쇄정책을 역이용하여 중공을 비롯한 아시아共產國家들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고 동시에 소위 反帝·反殖民主命 또는 民族解放鬭爭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로기의인 목적을 並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소련의 對아시아關係는 소극적이며 反動的(reactive)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이 시기에 소련이 아시아의 非共產國家에 대해서 外交的인 攻勢를 취한 것은 西南亞의 印度와 아프가니스탄, 東南亞의 버마와 인도네시아 정도이다. 소련이 이와 같은 아시아 第三世界國家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기도한 것은 스탈린死亡 直後인 一九五〇년대 중반부터였다. 소련은 一九五五年 六月 印度의 네루首相을 모스크바에 초청하였고, 一九五五年 말에는 후르시초프와 불가닌이 印度·아프가니스탄·버마를 巡防하며, 무역·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 외교적 노력은 美國勢의 확장에 대한 対応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 하면 바로 전해인 一九五四年 二月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大統領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이어 양국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一九五五年 九月에는 파키스탄이 이미 CENTO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東南亞에서는 西方側의 反共同盟에서 제외되고 있던 버마나 인도네시아가 소련의 중요한 外交的 目標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시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 대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의 균형을 추구해 보려는 소극적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一九五〇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中·소분쟁은 소련의 아시아政策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었고, 六〇년대를 통해서 격화된 中·소 대립관계는 소련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中·소분쟁은 소련에게 戰略的인 부담을 倍加시켜주는 것이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글로벌한 利害關係와 더불어 장대한 國境上의 軍事的 對峙와 같은 리조닐한 利害關係에 동시에 대처해야만 하는 戰略上

二重의인 고역을 안게 된 것이다. 특히 六〇년대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준 중공의 核能力은 소련의 그와 같은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해주었다.

한편 중·소분쟁은 소련에게 새로운 外交的 도전을 안겨주었다. 중·소간의 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시아地域國家들의 自主성을 높여 주었다. 이들 地域國家들은 中·소의 중간에서 상대적인 거리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지역국가들의 中立的 外交行態는 소련의 對아시아 關係에 새로운 制約要因으로 등장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소련의 對아시아關心은 중공적인 要因에 대한 의식이 축적이 되고 있으며, 이제 따라 소련은 이 지역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外交的 접근을 모색하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이 기간을 통하여 소련은 아시아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인 關心보다는 國家的인 關係를 우선시하고 심지어 日本과의 關係를 모색하는 등 아시아非共產國家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적극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六〇년대 소련의 對아시아關係는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西南亞에서 소련은 印·中國境紛爭을 계기로 중공에 대한 印·소共同戰線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소련의 성공은 파키스탄과 중공의 밀착이라는 보상을 피할 수 없었다. 東南亞에서도 소련은 버마의 內亂政權이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政權에 대하여 상당한 軍事·經濟원조를 제공하였으나 이들의 완고한 獨立路線은 소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다.

심지어 소련은 一九六五年 인도네시아 쿠데타 이후 수하르토反共政權이 등장함에 따라 對인도네시아關係가 一九五六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不運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三. 소련版 平和와 中共變數

一九七〇년대에 들어서 아시아의 國際關係는 중대한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소련은 一九六〇년대 말 닉슨·독트린으로 시사된 미국의

아시아政策变化를 하나의 도전과 기회로 전망하고 있었다. 소련의 視角에서 볼 때 七〇년대 前半을 통하여 전개된 美·中共, 美·日관계의 진전은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印支戰爭의 종결과 아시아로부터의 美國의 撤収는 하나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소련이 一九六九年 최초로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공식화했을 때 그 속에는 최소한 아시아에 美·日·中共의 樞軸이나 中共중심의 지역적 헤게모니와 같은 새로운 形態의 反赤體制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도가 있었으며, 가능하면 이 지역에 소련이 주도하는 새로운 安保體制 또는 「소련 中心의 平和 (pax sovietica)」를 수립해 보려는 의욕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對亞 관심은 七〇년대 전반을 통하여 적극적인 中共봉쇄 노력과 아시아 政治에 대한 이니시아티브企圖로 구체화되어 왔다. 예컨대 소련은 一九七〇년대에 들어서 그의 集團安保構想에 대한 아시아國家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個別國家와의 관계개선을 급속히 서둘러 왔다. 우선 소련은 西南亞에서 一九七一年 八月 印·소友好條約을 체결하는 한편 쿠데타로 집권한 다우드政權의 아프가니스탄을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간동안 소련이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外交的 관심을 기울인 곳은 東南亞이며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침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련은 六〇년대 말 이후 이 지역에서 기왕의 버마나 캄보디아·월맹과의 關係 以外에 싱가포르·말레시아·필리핀·타이 등과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복회 노력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 東北亞에서도 소련은 日本과의 平和條約 체결 교섭과 경제협력관계의 확대를 통하여 日·中接近을 견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까지 非政治的인 수준의 관계를 추구해오고 있다.

七〇년대 이래 소련의 이와 같은 아시아에 대한 외교적 침투 노력에는 중공과의 競争關係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 대한 아시아國家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급격한 親赤偏向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東南亞國家들은 소련과

의 관계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뚜렷한 中共趨向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필리핀·타이 등이 소련과의 修交에 앞서 中共과의 修交를 서둘렀던 것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中共의 적극적인 外交의 対応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아시아 國家들이 中共에 대해서 갖는 매력과 기대를 반영해 주고 있다는 측면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시아 國家들이 中共의 존재를 새롭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中共은 이와 같은 아시아 國家들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몇가지 유리한 여건을 발전시켜 왔었다. 우선 中共은 文化革命의 혼란을 수습한 九全大會를 계기로 하여 아시아 國家와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정통적인 外交(Orthodox diplomacy)로 전환해 왔다. 다시 말해서 中共이 아시아지역의 共產계열라 活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同志 對 同志」의 外交로부터 「國家 對 國家」 外交라는 실용적 입장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共產黨의 건국활동에 대한 이와 같은 中共의 支援後退는 國內政治의 안정을 희망하는 아시아 非共產國家 政治指導者들에게 호감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

한편 中共은 東南亞 國家들의 중요한 정치적 숙제로 남아 있는 華僑問題에 대해서 地域 國家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온건한 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中共은 海外僑胞委員會를 폐지하고 新憲法에서는 全國人民代表會議에서 海外僑胞代表權 条項을 삭제하고 있다. 이기 中共은 一九七一年 버마의 비원 大統領이 北京을 방문했을 때에 당시 수상 주은래를 통하여 華僑의 거주국 국법 준수와 二重國籍概念을 부정한다는 中共측의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東南亞 華僑問題에 대한 이와 같은 中共의 온건한 입장은 一九七四年 五月 말레이시아의 라자크首相이 中共을 방문했을 때 라자크·周恩來共同聲明에서 二重國籍 概念反對를 명시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중공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 요인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중공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소련에 맞먹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地域 國家들은 중공과의 새로운 交易增大 可能性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日本·필리핀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중공의 石油外交 (Oil diplomacy) 전개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四. 印支戰 이후의 形勢

아시아에 대한 中·소 간의 각축은 印支戰 以後 더욱 첨예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印支半島의 三國이 共產化됨에 따라 東南 南亞 지역에 대한 中·소간의 외교적 경쟁은 一進一退의 치열한 攻防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소련은 印支戰 이후 東南亞의 共產勢力에 대하여 새로운 위신과 영향력을 증대하게 된 하노이를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팔목할만한 침투를 보여주고 있다. 印支半島上的 하노이의 강력한 存在와 하노이·모스크바路線의 강화는 소련이 東南亞 民族解放 鬭爭勢力에 대한 제1의 지원자로 등장하게 되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중공으로서도 이와 같은 하노이·모스크바路線의 진전이 「호랑이를 키웠다가 화를 당하는 꼴」로 이 지역에서의 수세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노이를 둘러싼 中·소 간 三角關係의 미묘한 뉴앙스는 一九七五년 가을 레·두안 월맹노동당 제1서기의 모스크바·北京訪問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차이에서도 읽어볼 수 있었다.

한편 소련은 印支戰 이후 東南亞地域에 눈에 띄는 海軍力進出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海軍은 東南亞 주요 항구에 수시 입항하며 남지나해를 수시로 순항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소련이 캄란窩에 새로운 海軍基地建設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소련海軍의 東남亞進出은 印度洋과 太平洋함대를 연결시키는 戰略的 항로의 확보와 中共을 해상 봉쇄하고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存在를 과시하는 政治心理戰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東南亞 침투에 대한 중공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다. 중공은 소련에 대항해서 ASEAN 國家들의 中立化構想을 지지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국가관계 수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모색해 오고 있다.

예컨대 中共은 一九七五년 초 말레이시아와의 국교를 수립한 이후 印支戰 종결 직후인 六, 七월에 타이·필리핀과의 外交關係 수립에 성공하고 있다. 이제 ASEAN 國家 중 中共과 外交關係를 수립하지 않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싱가폴 二個國만 남게 되었으나 이들도 중공과의 관계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들과의 국교 수립은 시간문제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동남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팽창에 대항하는 중공의 이와 같은 外交的 반격이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중공의 이른바 「霸權反對」主張이 이들 지역 국가들의 中立化構想과 공통된 利害關係를 찾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중공은 一九七五년 六월 마르코스 필리핀大統領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당시 鄧小平 副首相의 환영 만찬 연설을 통하여 ASEAN 국가들의 중립화 구상이 『동남아에 平和과 中立의 지대를 건설하고 강대국의 간섭과 패권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이문제에 대한 중공과 東南亞地域國家들과의 利害一致는 一九七五년 中共·필리핀, 中共·타이 國交樹立時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霸權反對」條項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패권을 경계하는 중공은 심지어 소련勢의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시아 殘留를 묵인하는 태도까지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一九七五년 싱가포르外相이 北京을 방문했을 때 중공은 아시아의 미군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언질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一九七五년 五월六일자 Washington Post)

그러나 동남아의 장래에는 中·소爭鬪라는 요인보다는 이 지역국가들의 外交的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지역국가들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中·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정한 距離 (equidistance) 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예컨대 七五년 六월 하노이가 「동남아 공동시장」 구상을 제창하여 ASEAN 국가와의 협조를 시사한 점이든지 對美, 對日關係 설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미묘한 中·소관계의 영향권을 이탈해 보려는 의욕으로 해석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一九七五年 八月 하노이·필리핀 간의 외교관계 수립, 一九七五年 一〇월 타이·캄보디아 간의 관계개선 一九七六年 四月 말레시아·캄보디아 수교 등, ASEAN 국가들과 印支三共産國과의 관계 진전은 동남아 정세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요컨대 印支戰 이후 소련은 동남아에서 소련의 존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국가들의 외교적 自主性增大와 소련의 군사적 침투에 대한 경계심은 支配的인 영향력 수립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시아에 대한 소련進出의 한계는 서남아시아나 東北亞에서 찾아볼 수 있다. 印·파戰爭을 통하여 소련은 西南亞지역에서 비교적 안정된 영향력을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印度洋과 아프리카 東岸의 전략적 지배권을 [강압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상대적인 어드밴타지를 누려왔다. 특히 印·소關係는 소련 스스로가 印度를 가장 모범적인 아시아의 파트너로 선전해 왔듯이 소련이 추구하는 對아시아 國家關係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가 되어 왔다. 그러나 印度는 非同盟政策을 내세워 소련의 아시아 集團安保提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더욱이 최근 印度는 일방적인 對소關係를 지양하고 美國이나 中共에 대해서 보다 균형잡힌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印度는 七六년 四月, 中共과의 大使級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파키스탄과의 關係를 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印·中共關係의 이니시아티브는 역시 中공측에 있다는 사실이다.

東北亞의 경우 소련은 일관적으로 中共의 政策에 대해서 守勢的인 입장에 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소련의 중요한 外交目標은 日·중공

관제를 지지하고 日本을 그들의 集團安保構想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소련은 一九七二년 日·中共 復交 이래 日·中共의 과도한 접근을 경계하면서 평화조약 교섭과 시베리아 開發問題를 놓고 日本에 대한 外交의 이니셔티브를 기도 해왔다. 그러나 日·中共 關係의 진전을 저지하려는 소련의 외교적 노력은 日本 政治指導者들의 對中·소 等距離觀과 日本의 對소協商立場을 지원하는 중공의 적극적인 반발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中共은 소련 견제 목적을 위해서는 심지어 동북아의 美·日安保體制 지속까지도 희망하고 있으며 對日平和條約 교섭에서 「霸權條項」의 삽입을 강력히 증용하고 있다 (一九七五年 五月 一九일자 <Washington Post>).

東北亞에서 소련에게 또 하나의 外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중공관계이다. 북한의 金日成은 一九七五年 四月 中共과 東歐國家를 순방하면서 소련을 배웅했다. 당시 소련이 金日成의 訪소를 거부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그 해 九月 소련은 민스크 레슬링大會에 한국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하였다.

五. 集團安保概念의 再吟味

소련은 印支戰 이후 종래의 아시아 集團 安保體制提議를 새롭게 力說하여 주목되고 있다. 예컨대 소련은 지난 해 헬싱키의 유럽安保協力會議 직후인 八月 九일 印·소 平和友好條約 체결 四周年을 기념하는 프라우다紙 論說을 통하여 『유럽安保會議가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人民들이 帝國主義 壓制로부터 해방되는 최근의 데탕트의 진전은 아시아에 安保體制를 창설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 集團安保構想에 대한 소련의 이와 같은 새로운 관심환기는 최근 二五차 소련 共產黨大會의 브레즈네프演說에서 제시된 新平和綱領 속에 「아시아인들의 共同努力에 의한 아시아 安保의 確立」이라는 표현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은 一九六九年 최초로 아시아 集團安保體制를 提議하였다. 그러나 그 후 七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소련의 아

아시아安保問題에 관한 外交的 이니셔티브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아시아 集團安保體制의는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장기적인 戰略構想을 明示해주는 데에 필요한 어떤 概念上的 범주를 마련해 주었고, 소련은 그러한 개념속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소련 外交政策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시켜 볼 수 있었다. 차체에 소련이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 집단 안보 구상에 관한 소련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재음미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최근 아시아 集團安保構想에 대한 한 소련 理論家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의 주요한 平和攻勢路線의 하나는 지역적인 또는 보편적인 安保體制를 수립하고 國家간의 平等한 協力關係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東南亞나 全아시아大陸에 적용되고 있다.……이러한 노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찌기 소련은 一九三三년 아시아大陸을 日帝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太平洋 安保條約 체결 구상을 外交적으로 추진했었으나, 사장되어 버렸다. 오늘날 아시아의 여론은 아시아 集團安保體制를 수립하려는 소련의 구상에 대해서 점증하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하면 아시아 集團安保構想은 이미 歷史的인 반동會議에서 아시아 國家들에 의해서 지지되었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세력 특히 北京의 指導部는 集團安保構想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中國共產黨의 毛主義者들은 그들의 體제대로 集團安保構想이 중공을 포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構想은 中共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國家들이 平等하게 참가하도록 환영하고 있다. 北京의 指導者들은 아시아에서 「天下大亂」을 일으켜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고 희망하고 있다.……어떤 회의론자들은 아시아 集團安保가 완성할만한 것이긴 하지만 非現實的인 것이며 實踐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무시하고 있다.……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印支戰爭의 종결로 아시아에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가장 큰 非同盟國家인 印度는 국제적 지위를 점점 증대해가고 있으며 印·소 간의 友誼는 아시아政治生活에 점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International Affairs(Moscow, 1975.12), pp.39-44.〕

이상의 비교적 긴 引用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첫째로 소련이 구상하는 「集團安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듯이 統合된 體制(integrated system)로서의 구체적 조직이나 機構 創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것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침략적인 무력을 행사할 때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단합된 힘으로 대처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集團安保와는 ニュアンス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集團的(Collective)」이라는 말의 의미는 「多邊的(multilateral)」이라는 뜻으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雙務的(bilateral)」이라는 뜻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련의 의도는 최소한 그들이 가장 전형적인 아시아 國家關係라고 선전하고 있는 印·소條約型的 개별적인 雙務條約을 통하여 集團的인 安保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둘째로, 소련이 構想하는 아시아 安保體制는 아시아 國際關係에 있어서 漸進적인 安保를 발전시킬 수 있는 條件을 성숙시켜가는 점진적인 과정(Gradual process)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이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安保體制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소련의 利害關係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이 아시아 集團 安保構想을 中等會議 原則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非同盟 第三世界가 아시아에 대한 소련 外交의 현실적인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소련이 제외하고 있는 아시아 集團 安保體制는 처음부터 어떤 「假想的인 敵(putative opponent)」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소련이 제외하고 있는 아시아 集團 安保體制의 參加者 속에는 中共이 명백히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소련이 강조하는 주요한 침략 세력은

「西方帝國主義」(美國, 잠재적으로는 日本)일 수도 있고 中共의 霸權主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중공을 포위하려는 기도라는 중공측의 주장에 대한 소련측의 응수는 점점 중공을 아시아 안보를 파괴하려는 주요한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六.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기본적인 戰略的 關心을 歷史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투영되고 있는 中·소 對立關係의 측면을 추적하고 소련이 아시아에서 추구하고 있는 安保의 選擇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음미하였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소련과 中共은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두 세력이며, 장차 아시아의 판도는 이 두 세력 간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中·소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美國이라는 변수와 이 지역국가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선택은 美·中共關係의 進展과 地域國家들의 向背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장차 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우발적 요인은 美·中共 간의 同盟關係, 日本의 再武裝, 毛沢東의 死亡, 中·소 戰爭 등과 같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장차의 美·中共關係에 대처하는 소련의 선택은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은 中·소 國境에 대한 軍事的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毛 이후 (post-Maoist)의 中共 리더십에 기대를 거는 것이며, 또 하나는 美國과의 태당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다. 현실적으로 中·소 간의 全面戰爭은 그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中·소 간의 全面的 화해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中·소 간의 和解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고 위협스러운 世界의 兩極化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관한 한 中·소는 당분간 더욱 분열을 심화할 것 같다. 이 사이에서 지역국가들이 현실적으로 等距離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중공이나 소련의 관점에 따라서 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소敵對라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심에서 아시아政治에 대한 主導的 위치를 확보해 보려는 소련의 野心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여건이 제약을 받을 경우 일부 아시아國家들에게 選擇적으로 (Selectively) 安保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의 安保增進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컨대 소련은 中東에서, 西南亞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영향력 擴大에 성공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한결같이 大量의 軍事物資를 들여다 놓고 局地的인 紛爭을 벌려 왔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在蘇聯韓人の 法的 地位研究

I

기록에 의하면 러시아의 極東地方에 最初로 韓人이 移住한 것은 1863年이다. 당시 国内에서 經濟的 困難을 겪던 韓人들은 國境을 넘어 러시아의 빈 땅을 차지하고 農業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韓人 移民에 대해서 처음 沙俄政府의 地方 当局은 매우 好感을 갖고 있었다. 왜냐 하면 당시 러시아政府는 極東地方의 人口增加政策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韓人들은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값싼 勞動力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人들은 시베리아에 永住하기를 希望하는 韓人들에 대해서 行政的인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自立할 수 있도록 食糧을 支援하는 등 特別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後 韓人 越境者들이 급격히 增加함에 따라 러시아의 地方 行政当局은 韓人移民의 住食問題에 큰 困難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새로운 移民들에게 귀환하도록 설득하였으나 韓人들은 帰國하기 보다는 새로운 땅에 定着하기를 希望하였다.

☆ 이 것은 < Journal of Korean Affairs > 1975年7月号 (Vol. V, No 2)에 게재된 "The Citizenship Status of Koreans in Pre-revolutionary Russia and the Early Years of the Soviet Regime"과 同誌 1976年4月号 (Vol. VI, No 1)에 掲載된 "The Citizenship Status of Koreans in the USSR: Post-World War II Developments"를 編訳한 것이다.

이 글의 原筆者 긴스버그스 (George Ginsburgs)는 美国 Rutgers 大学校의 比較法學教授로 있으며 社會主義法體制와 國際法을 專攻하고 있다. 긴스버그스教授의 著書로는 Soviet Citizenship Law와 Soviet Literature on Korea 1945~1970 등이 있으며 이밖에 蘇聯의 對内外問題, 共產主義國際法, 中·蘇關係에 관한 글을 發表하고 있다.

처음은 짜르政府가 極東地方 韓人社會의 法的 地位를 規定하려고 努力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移民들의 經濟的 地位 즉 耕作할 땅을 확보한다든지 촌락을 建設한다든지, 自立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배분한다든지 勞動力을 活用하는 등의 問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東部 시베리아地方의 韓人社會는 점점 무시할 수 없는 存在로 發展하였다. 初期 移民들의 成功은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家族과 親戚 또는 그밖에 移住를 希望하는 사람들의 격증으로 새로운 移民 增加 現象을 초래하였다.

결국 이것은 짜르政府로 하여금 1888年 朝鮮政府와 特別協定을 체결하도록 자극하였다. 동 協定에 따라 1884年 以前 즉 兩國間의 最初 通商조약이 체결되기 以前에 越境한 韓人들은 러시아의 市民權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 協定의 4條2項에 따르면 金후부터 韓人이 許可없이 國境을 넘었을 때는 러시아 當局이 調査한 후, 억류했다가 送還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韓人에 대한 이와 같은 入國統制 조치에도 不拘하고 部分的으로는 合法的 節次에 의해서 그러나 大部分은 密入國의 形態로 韓人들의 越境은 繼續된다.

따라서 러시아 땅에 살고 있던 韓人移民들의 法的 地位는 똑같은 것이

긴스버그教授는 또 Social Research Council과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의 韓國研究合同委員會에서 財政的 支援을 받아 內戰中 러시아 極東地方의 韓人義勇軍에 관해서 研究한 바 있다. 긴스버그教授는 이 論文을 發表함에 있어 草稿를 읽고 批評해준 펜실바니아大學校의 李庭植教授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 論文의 內容은 帝政러시아時代로부터 볼셰비키革命, 蘇聯政權의 成立, 2次大戰의 終結, 北韓政權의 등장과 蘇·北韓關係 最近의 韓·蘇關係에 까지 연결시켜 歷史的으로 在蘇韓人의 實態와 法的 地位問題를 詳細히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韓民族의 다사다난한 러시아移民史이며, 今世紀의 한 서글픈 民族의 수난을 記錄한 一大 서사시이다.

아니었다. 그들은 세 가지 다른 部類로 区分되었다.

첫째 部類는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 즉 1884年 6月 25日 以前에 越境한 사람들이며 두번째 部類는 1884年 以後에 越境했지만 러시아 市民이 되기를 希望하고 첫째 部類사람들에게 適用되는 法的 保護를 충족시키려고 努力하는 사람들이었다. 셋째 部類는 러시아 땅에 살고는 있지만 定着한 것이 아니라 就業을 위해 越境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法的 地位는 未決狀態로 있었으며 다만 러시아 当局이 特別한 行政的 配慮로 制裁가 可能했다.) 첫째 部類에 屬하는 韓人들은 러시아인들과 똑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1893年에는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할 수 있었다. 두번째 部類는 2年 內에 그들의 財産을 처분하고 帰國하도록 되어 있었다. 當時 러시아 땅에 定着한 韓人 中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한 사람은 全體의 20 ~ 30 퍼센트 程度였다.

1910年까지 러시아의 極東地方에 살고 있던 大部分의 韓人들은 當時 韓國에 駐在하던 러시아 공사관의 비자를 받고 1844年 以後에 合法的으로 越境하여 移住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매년 러시아의 稅率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잠정적인 住民으로 취급되었다. 결국은 이들의 一部에게도 「러시아 市民이 될 資格」이 賦與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大部分은 身分이 매우 不安한 狀態에 있었으며 全體적으로 地方官署의 善處에 매여 있는 處地였다.

이와 같은 合法的인 移民 以外에도 매년 봄마다 상당수의 韓人들이 일자리를 찾아 不法的으로 越境하는 일이 繼續되었으며 그들은 大部分 일자리를 찾아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러시아 市民權을 얻은 韓人들은 러시아 領土內에서의 再配置 年度를 명시한 特殊한 住民證을 교부받고 있었으며 그 住民證에 依拠하여 모든 家族事項을 記載한 登錄表를 行政機關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明確한 職業이 없는 者 貧民, 年少하거나 (12歲 以下), 年老하여 (60歲 以上) 勞動能力이 없는 者의 移民은 禁止되어 있었다.

처음 10年間 짜르當局은 전반적으로 韓人移民에 대하여 友好的인 政策을 취하여 韓人들의 定着과 処女地 開發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韓人들에

게 경작지를 주고 또 러시아 市民權을 許容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市民權을 얻지 않은 韓人들에게 까지 國有地를 대여해 주었다. 이러한 政策路線에 따라 1898年에는 첫째 部類에 속하는 남어지 定着人들에게 모두 러시아 市民權이 許容되었다. 同時에 5年 以上 러시아 땅에 거주한 韓人들에게도 똑 같이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할 수 있는 權利가 許容되었다. 그리고 셋째 部類에 속하는 韓人들에게도 一定한 指定된 地域에서 定着할 수 있도록 勸誘 되었다. 公式的인 記錄에 따르면 1905年까지 沿海洲(Primorskaya Oblast')에 거주하던 韓人의 數는 34,399名이며 그 중 15,122名 (男子 7,930名, 女子 7,192名)이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였다.

그러나 짜르當局의 態度는 점점 變化하여 韓人移民에 대하여 非協助的이고 완고한 立場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重要的 事態발전이 배경이 되었다.

첫째로 유럽地域 러시아에서의 農業人口增加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경작지를 必要로 하게 되었고 中央政府는 이와 같은 農地壓力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地域의 가난한 農民들에게 東쪽으로 移住하여 시베리아 南部의 미개간지에 定着하도록 勸誘하였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러시아 移住 農民들은 시베리아의 경작지를 놓고 外國의 移民들과 競爭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인들은 아시아 인접국가와의 긴장이 커짐에 따라 소위 「黃禍(Yellow Peril)」意識을 갖게 되고, 따라서 아시아인들을 너무 많이 시베리아에 불러 들이는 것은 政治的으로 또는 國家 安保上 賢明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또 하나 미묘한 問題가 있었다. 즉 日本이 大韓帝國을 合併한 사실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極東地域에 거주하고 있던 韓人들의 反日感情은 매우 높았으며 그들 중에는 日人과 鬪爭하기 위한 地方의 武裝 게릴라部隊가 組織되게 되었다.

日本政府는 즉각 러시아 當局에 항의하고 그들의 國境을 統制함으로써 韓人 게릴라部隊가 侵入하지 못하게 措置하도록 要求하였다. 러시아 當局은 日本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國內 韓人들의 反日運動을

禁止하는 일련의 措置를 취하는 한편 새로운 韓人移民들의 러시아 入國을 禁止하였다.

그러나 결국 韓人 移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견해는 다시 友好的인 方向으로 전환하였다. 政治的인 自由主義派들은 韓人 勞動力이 가져다 주는 經濟, 社会的인 利點을 主張하게 되었다. 아무르地域 (Priamurskii Krai)에서는 特別히 韓人들의 定着에 友好的인 態度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1884年 以後에 越境한 韓人農民들의 相當數가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表]는 연해주 (Maritime Province)에 거주하던 韓人移民이 러시아 國籍을 취득하는 過程을 보여 준다. 연해주는 當時 시베리아 韓人社會의 中心地였다.

[表]의 統計는 正確히 확인해 볼 수 있는 情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統計를 概略적인 推定으로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경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1906年과 1909年間에는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한 韓人의 數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겠다.

① 同 期間 동안에는 韓人의 러시아 市民權 獲得이 전혀 許容되지 않았거나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許容되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당시 러시아인들 간에는 安保面에서 脆弱點을 지니고 있는 시베리아 地域에 많은 韓人들이 定着한다는데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하고 있으며 기존의 政策路線을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 해주 居住 韓人 現況

年 度	국 적 취 득 자	국 적 미 취 득 자	총 계
1906	16,965	17,434	34,399
1909	14,799	36,755	51,554
1910	17,080	36,996	54,076
1911	17,476	39,813	57,289
1912	16,263	43,452	59,715
1913	19,277	38,164	57,440
1914	20,109	44,200	64,309

(Kim Syn Khva, Ocherki po istorii Sovetskikh Koreitsev, Alma-Ata, 1965, p.42.)

② 同 期間 동안에는 出生이나 「掃化」에 따른 人口 增加를 能하 할 程度로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고 있던 韓人의 自然的인 人口減少가 移住가 竝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10~1911年間, (400餘名의 增加가 正常的인 出生率에 불과하다.) 1911年~1912年間에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러시아 市民權을 갖지 않은 韓人의 數는 繼續 增加하고 있으나 1913년에는 그 數가 현저히 減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韓·日合併 直後 日本의 強力한 國境統制措置 때문이라고 分析된다. 事實上 이 期間 동안에는 不法的인 越境者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增加趨勢였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로 1906年만 해도 러시아 市民權을 취득한 韓人과 그렇지 않은 韓人의 數는 16,965名 對 17,434名으로 比等했는데 1910年부터는 市民權을 취득하지 않은 數가 倍 以上으로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國籍을 취득한 韓人과 그렇지 않은 韓人間의 數의 差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① 1906年부터 1914년까지 公式的으로 러시아 國籍을 취득한 韓人의 總數는 16,985名에서 20,109名으로 18 퍼센트 增加했는데

② 러시아 國籍을 취득하지 않은 韓人의 數는 17,434名에서 44,200名으로 154 퍼센트 增加를 보였고

③ 1906년에 대략 比等한 本포를 보여 주었던 러시아 國籍 취득자 對 미취득자 間의 對比는 1914년에 와서는 32:68로 變化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볼때 初期 10年間에는 比較的 용이했던 韓人들의 러시아 市民權 獲得이 後에는 韓人 移民의 數가 급격히 增加했음에도 不拘하고 (연해주에서 만도 1906부터 1914년까지 合法的으로 移住한 韓人의 數가 87 퍼센트 增加했다. 실제로는 不法 入國者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增加이다.) 더욱 어려워졌다는 결론이다.

II

韓·日合併 前까지는 러시아 땅에 居住하던 韓人들의 法的 地位가 比較的 單純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國內法은 경우에 따라 韓人들의 地位를 각각 다르게 規定하고는 있었지만 技術的으로는 러시아 市民權을 가진 사람과 韓國의 國籍을 갖는 사람으로 大別되었다. 그러나 日帝가 大韓帝國을 併합함에 따라 狀況은 매우 複雜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러시아 國籍을 취득한 韓人들은 原則的으로는 問題가 없었으나 이 사람들에 대한 日本의 態度는 紛爭의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당시 日本은 滿洲地方의 韓人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中國 國籍을 取得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을 日本市民으로 取扱하여 保護權을 強要하였던 것이다. 즉 日本은 理論上으로 그들이 大韓帝國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在外的 韓人들은 당연히 日本市民이 된다는 主張이었다.

마찬가지로 1910年 以前에 大韓帝國의 여권과 正當한 러시아의 비자를 가지고 入國한 韓人들 중에서 러시아 國籍을 取得하지 않은 사람들의 法的 地位 問題도 애매하였다. 이들은 國籍없는 浪民의 신세가 되었으나 러시아 政府의 居住許可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公式的으로는 繼續 外國인으로 取扱되었다. 1910年 以前에 러시아 땅에 密入國한 大多數 韓人들은 더욱 法的 地位가 弱화된 것이 事實이었다. 그들은 國內여권의 効力정지를 방관하느냐 아니면 日本에 接近하여 새로 여권을 연장 또는 대체해 주도록 努力하느냐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느 方法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즉 그들이 새로 日本의 여권을 받는다는 것은 러시아 當局의 주목을 받고 不法移民으로 추방, 또는 送還을 당하게 될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그렇다고 또 無國籍者로 繼續 남아 있다는 하더라도 그들이 不法越境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當局의 特別한 배려의 대상이 될 가망도 없었던 것이다.

1910年 以後의 移住者들도 비슷한 問題點을 갖고 있었다. 우선 가상 되는 것은 日本 行政當局이 發行한 合法的인 여권과 러시아 公사관의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韓人의 경우이다. 이 사람들은 分明히 日本市民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러시아國籍을 取得했을 때가 問題였다. 결국 이들은 二重國籍者가 되는 것이다. 또 러시아땅에 居住하면서 日本의 女권을 받고 日帝統治에 亞합하기 보다는 차라리 無國籍者가 되고자 하는 韓人들이 問題였다. 물론 日本은 이와 같은 一方的인 國籍 포기를 묵인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 官吏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韓人들은 日本 市民임을 證明하는 女권으로 러시아에 入國이 許容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러시아 체류는 日本市民이라는 法的地位(그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를 계속 유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退去令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 以外에도 또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日本當局이 發行한 女권을 가지고 러시아에 密入國한 韓人의 경우이다. 만약 이들이 政체가 발각되어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日本 女권을 이용하려 했을 경우 이들은 日本市民으로 取扱되고 아마 不法入國者로 추방당했을 것이다. 두번째 경우는 첫째 경우와 같은 경로로 러시아에 密入國했지만 日本 當局의 女권을 포기한 韓人들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는 러시아 官吏에 의해서 日本 市民으로 간주되었지만 送還이 보류된 채 억류됐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無國籍者로 認定되어(반드시 이것이 추방을 모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권을 許容받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세째 경우는 아무런 合法的 根拠없이 러시아에 不法入國한 韓人들이다. 이들은 만약 그들이 日帝와 無關係하다는 것을 主張하면 無國籍 外國人으로 分類되어 요행히 居住權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부인할 必要도 없이 이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日本政府는 러시아 居住 韓人들을 日本市民이라고 主張하고 韓人들에 대한 保護權을 強力히 要求했던 것이다.

III

1917년의 革命은 러시아의 法體制에 극적인 變化를 가져왔으며 말할 것도 없이 市民權에 관한 分野에 있어서도 큰 影響을 받게 되었다.

1918年7月10日에 採擇된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社會主義共和國(RSFSR)의 憲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諸 民族 勤勞人民들의 연대성에 立脚해서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은 生産的인 就業을 目的으로 共和國 領토 내에 居住하는 勞動階級の 外國人 또는 他人의 勞動力을 使用하지 않은 外國人 農民들에게 러시아 市民으로서의 政治的 權利를 許容하고, 地方소비에트에게는 그와 같은 外國人들에게 加다로운 形式을 갖추지 않고도 러시아 市民權을 許容할 수 있는 權利를 認定한다.』

러시아에 居住하는 外國인들이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는 方法에 관해서는 이미 수개월 전 1918年4月5日에 공포된 全 러시아 中央執行委員會 (All-Russian Central Executive Committee)의 布告 속에 規定되어 있었다. 이러한 諸 措置에 따라서 당시 러시아 땅에 살면서 러시아 市民權을 갖고 있지 않던 韓人들, 특히 소위 프롤레타리아階層的 韓人들은 市民權을 얻기가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물론 革命 以前에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고 있던 韓人들은 自動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의 市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重要的 장애가 가로 놓여 있었다. 왜냐 하면 아시아地域의 러시아 땅에 살고 있던 韓人들 (사실 韓人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에 居住하고 있었다.)은 사실상 그와 같은 용이한 燻化節次에 따라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의 市民이 될 法律上的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革命 初期 소비에트의 權力은 아시아地域에서 기반이 매우 미약하여 白衛運動(White Guard Movement)이나 聯合國, 占領軍 주르 日本軍隊에 대하여 軍事, 게릴라의인 항쟁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行政機能은 마비되고 革命政權의 地方人口政策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블레비키와 聯合軍의 支援을 받던 白衛軍 間의 対決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 지역에 하나의 완충국가를 만들 것을 決定함에 따라 1920年 4月 6日 極東共和國 (Far Eastern Republic)이 獨立을 선언하게 되었다. 極東共和國은 처음부터 共和國 領土의 많은 部分을 점령하고 있는 白衛軍과 그를 支援하는 外國軍과 鬭爭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日本軍은 연해주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極東共和國은 新生國으로서 어느 程度의 自治權을 누리고 있긴 했지만 전 영토를 완전히 掌握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1921年 4月 17日에는 極東共和國의 憲法이 採択되었는데 그 속에는 市民權에 관한 條項을 包含하고 있었다. 同 憲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共和國의 市民權을 인정하고 있었다.

- ① 共和國의 領土內에서 出生한 모든 러시아市民.
- ② 獨立宣言 (1920年 4月 6日)時에 共和國 領土內에 居住하고 있던 모든 러시아市民.
- ③ 獨立宣言 以後 또는 憲法의 公布 以後에 入國한 者 中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市民으로 登錄되지 않은 모든 러시아市民.
- ④ 憲法 公布 以後 6個月內에 다른 國家의 市民權을 獲得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들의 外國國籍을 文書로 證明하는 發表를 하지 않은 모든 러시아市民.
- ⑤ 極東共和國의 法에 따라 帰化하는 모든 外國人.

또 同 憲法은 憲法 公布 6個月內에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또는 以前의 러시아帝國 領土內에 樹立된 어떤 다른 獨立國의 市民임을 文書上으로 證明하는 發表를 하는 者의 市民權은 배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極東共和國의 領土였던 시베리아 땅에 살고 있던 상당수의 韓人들은 自動적으로 새로운 共和國의 市民權을 얻게 되었다. 예외로 러시아 소비에트聯邦共和國이나 기타 旧帝政러시아 領土內에 樹立된 다른 國家의 市民權을 갖고 있음을 證明할 수 있고 또 그 市民權을 繼續 소유하기를 希望하는 者들은 除外되었다. 물론 그들의 權利에 대하여

무관심 또는 無知하여 期限을 넘긴 者들은 極東共和國의 市民으로 간주 되었다. 極東共和國內的 韓人中 러시아 国籍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市民權 變更이 불가능했던 者들은 極東共和國 當局이 外國人的 歸化에 관한 實際的인 立法措置를 取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보다 더 複雜한 것은 極東共和國 領土內 白衛軍이나 日本이 점령하고 있던 地域에 居住하던 韓人들의 問題였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日本軍 司令部는 그러한 韓人들을 日本國民으로 取扱하고 그들이 러시아 市民權을 가지고 있던 者이고 있지 않던가를 불문하고 保護權을 行使하였다. 白衛軍 政府는 그들이 掌握하고 있는 地域에 居住하던 韓人들의 市民權에 대해서 特別한 關心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韓人中の 一部 즉 政治·經濟的인 理由로 強力한 反共感情을 간직하고 있던 者들이나 現實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日本과 協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던 者들은 日本의 證明書를 獲得하려는 유혹에 끌리고 있었다. 이들 중 많은 者들은 日本軍의 철수 시에 따라갔기 때문에 보복을 면할 수가 있었다.

어쨌든 極東共和國 政府는 「敵」의 점령하에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發行된 모든 여권은 無効 또는 失効되 간주하였다. 1922年 日本軍隊가 撤收하고 全領土에 대한 소비에트支配가 회복된 (1925년까지 日本이 占領하고 있던 北사할린은 除外하고) 以後에도 소비에트當局은 그와 같은 前例를 適用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소비에트聯邦共和國 政府는 占領當時 白衛軍 當局에 信任狀을 提出했던 外國의 代表部가 發行한 여권이나 身分證明書, 또는 革命以後 聯邦共和國이 條約을 체결하지 않은 國家가 發行한 여권이나 身分證明書, 그리고 1918~1920年間에 舊帝政러시아 領土內 여러 곳에서 自治政府를 樹立했던 잡다한 小數民族會議나 組織들이 發行한 一切의 具申書나 許可書를 認定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內에 居住하던 韓人들이 蘇聯 歷史上 소위 「侵略期」(Interventionist Phase) 동안에 그들이 日本의 市民權을 強要當했건, 아니면 그들 스스로 日本이나 白衛

軍 政府에 야합했던 間に 蘇聯 政府에 의해서 各 以前의 狀態 (Status quo ante)로 복귀하는 것으로 認定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러시아市民 또는 無国籍者가 되었다.

한편 內戰期間 동안에는 러시아 땅의 日本人들에 對항하는 武裝鬭爭에 加담하기 위해서 尙當수의 愛國的인 韓人들이 만주 또는 韓國 땅으로 부터 러시아의 極東地方에 越境해 들어갔다. 이들 중의 일부는 中國의 市民權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명목상 日本 市民權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中國人으로도 行세하고 또 日本人으로도 行세하는 사람이 있었고 國籍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日本 兵士와 白衛軍 部隊의 韓人들에 對한 殘虐한 탄압行위가 擴大됨에 따라 東部 시베리아에 居住하던 韓人들은 시베리아의 中部地域과 北滿洲로 避難하기 위하여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러시아 땅에서 日本軍 部隊가 撤收한 後에도 韓人들의 移動은 繼續되었다. 共產主義에 對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했거나 共產主義를 두려워 하던 韓人들은 러시아 땅을 떠났다. 반대로 革命이 성공됨에 따라 아시아 各國의 革命家들은 러시아 땅을 소위 「解放」根拠地로 삼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들었다. 滿洲地方에서 抗日게릴라鬭爭을 전개하고 있던 韓人들은 러시아 땅에서 休息과 再組織, 再武裝을 위한 聖域을 求하게 되었다. 韓人 亡命者들도 러시아 땅에서 게릴라 部隊를 組織하고 國內의 日帝政權에 對항하여 유격鬭爭을 전개하였다.

IV

볼셰비키들이 시베리아로부터 外國軍隊를 모두 몰아내게 됨에 따라 極東共和國은 그 存立理由가 없어지게 되었다. 1922年 11月 15日에는 極東共和國이 公式的으로 러시아·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에 再統合됨에 따라 極東共和國의 法體制는 기존 러시아·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의

法秩序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極東共和國의 領土에서는 1918년의 憲法과 1918年 4月 5日의 布告가 다시 効力を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以後에 聯邦共和國에서 제정된 다른 法律들의 適用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1921年 8月 22日에는 人民코미사르委員會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의 布告로서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方法이 제시되었었다. 이 布告에 따르면 外國人에게 러시아 市民權을 許容하거나 또는 外國人의 市民權 請願을 거부하는 결정은 居住地의 本人에게 통보해 주도록 (거부 시는 그 理由를 명시하여) 되어있었으며 거부 결정은 소송의 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請求는 가능했다). 또 同 布告 속에는 聯邦共和國의 領土內에 居住하며 러시아 市民權을 許容받고 있으면서 다른 外國의 市民權을 清算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利害關係를 擁護할 目的으로 以前에 그들이 市民權을 가지고 있던 國家에 請願할 수 있는 權利를 剝奪하도록 規定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規定은 聯邦共和國內에 居住하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影響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었다. 사실 소비에트政府의 의도는 聯邦共和國의 領土內에서 一切의 二重國籍概念 (The Concept of dual nationality)을 否認하려는 것이었다. 러시아·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의 領土에 살고 있던 韓人들은 以前에 가지고 있던 러시아 市民權에 따라 自動적으로 市民權을 얻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同時에 日本國籍의 證明을 가진 사람도 있었으나 聯邦共和國 當局은 러시아 市民權만을 유효한 것으로 認定하였다. 이러한 措置는 물론 韓人들에 대한 日本의 保護權 主張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韓人들은 公式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國籍을 選擇할 수 있는 立場에서 있지 못했으며 따라서 러시아·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에 대해서 外國人으로서 갖는 公的 義務의 면제 등 特權을 要求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立法措置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特徵은 그 속에 러시아 市民權을 포기할 수 있는 當연한 權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

었다는 점이다. 결국 러시아市民이 된 사람은 누구도 以前의 国籍을 회복할 수 있는 權利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날 帝政러시아의 市民權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自動的으로 聯邦共和国의 市民權을 갖게 된 韓人들이나 또는 直接 滲化함으로써 市民權을 얻게 된 韓人들에게는 그와 같은 措置가 러시아市民權을 포기하고 外國 国籍을 取得하는데 있어서 (심지어 無国籍者로 되는 데도) 중요한 장애가 되었다.

여기서 또 問題가 되는 것은 러시아市民權을 갖지 않고 있던 韓人들의 法的 地位였다. 그들은 추측하건대 外國人 아니면 無国籍者로 取扱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困難했던 것은 소비에트當局이 正當한 文書상의 증거가 없이 外國人임을 主張하는 個人들의 要求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주저하는 態度를 보여주었다는 事實이다. 革命 또는 戰爭을 통하여 記錄은 없어지고 行政文書는 엉망이 되었으며 個人들은 證明書를 분실했거나 破棄시켜 버렸던 것이다. 소비에트政權은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비에트政權은 스스로 外國人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그를 입증할 만한 證書 (예컨대 여권과 같은)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外交사절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必要한 여권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러시아·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国의 市民으로서 居住許可를 받아 繼續 居住할 수 있도록 措置되었다. 한편 外國人임을 주장하는 者 중에서 그들이 제시한 證書가 애매한 경우는 진부를 確認하기 위하여 그것이 內務担当 人民코미샤르에게 보내지고 이러한 事實을 證明하는 잠정적인 具申書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것이 外國人임을 認定하기에는 不適當하다는 判定을 받게 되면 그들은 具申書를 회수당하고 聯邦共和国의 市民과 같은 一般的인 居住許可를 받게 되어 있었다.

추측컨대 러시아領土내에 居住하던 大部分의 韓人들은 外國人임을 證明할 만한 適切한 證書를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大部分은 不法的으로 러시아에 移住한 사람들로 거의 아무런 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미 効력이 상실된 證明書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새로 日本의 여권을 교부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韓人들 간의 強力한 反

日感情에 비추어 볼때 아마도 그와 같이 行動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다. 1910年 以後에 移住한 一部 韓人들은 日本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外國人임을 確認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方法을 用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大部分은 애매한 無國籍者로 남아 있기를 希望하였다.

이론상으로 볼때 이와 같은 감정적인 地位는 잠시 동안만 許容되는 것이다. 즉 그들이 外國 國籍을 證明할 수 있는 展望이 없다는 것이 分明해지면 一括의으로 러시아 市民으로 再分類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韓人들중 一部는 이와 같은 措置를 豫見하고 러시아 市民權을 獲得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日本의 여권을 尙부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以後 이러한 입법조치가 더욱 보완되었다라면 러시아 땅에 居住하던 거의 大多數의 韓人들은 簡單히 市民權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즉 韓人들에 대한 대대적인 歸化(Naturalization by Default) 措置는 생각대로 自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理由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아마 行政的인 業務量의 과다, 政治 指導者들의 소극성 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다.

V

어쨌든 1922년에는 極東革命委員會 (Far Eastern Revolutionary Committee) 內에 韓人問題를 專任하는 部署가 組織되게 되었다. 여기서 ① 韓人들에 대한 소비에트의 民族政策을 감독하고, ② 韓人들의 經濟的·法的 地位를 分析하며, ③ 韓人들의 特殊한 慣習을 正當하게 評價함으로써 러시아 極東地域에 거주하는 韓人들의 物質的 또는 文化的 發展을 圖謀하는 것을 임무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韓人問題 担当 部署의 組織은 이 地域의 러시아인과 韓人間의 關係改善에 기여하였다.

極東革命委員會의 韓人問題 担当部署에서는 1922年 12月 8日 以前の 極東 共和國 領土에서도 러시아市民權 獲得에 관한 1918年의 全 聯邦中央執行 委員會 (All-union Central Executive Committee) 布告와 1921年의 人民코미사르會議의 布告가 有効하다는 결정을 採択했다. 이와 같은 결정 에 따라 各 地方革命委員會의 韓人問題 担当部署에는 韓人들의 市民權 申 請을 調査 研究하기 위한 委員會가 設置되었다. 이 委員會는 韓人들의 모든 市民權 申請을 檢討하고 委員會의 意見과 決定을 地方革命委員會에 提出할 責任을 지고 있었다. 매우 興味있는 사실의 하나는 한 蘇聯人 作家가 內亂初期에 이미 市民權 獲得을 希望하는 韓人들에게 대량으로 市民權을 許容하도록 主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23 ~ 24年間 市民權을 申請한 韓人의 數는 니콜스키-우수리스크 (Nikolsk-Ussuriisk) 地方에서 3,401名, 스파스크 (Spassk) 地方에서 481名, 하바로브스크 (Khabarovsk) 地方에서 506名, 아무르의 니콜라예브 스크 (Nikplavsk) 地方에서 28名, 올긴스크 (Olginak) 地方에서 266名, 브라더보스트크 (Vladivostok) 市에서 4,208名으로 增加되어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의 市民權을 申請한 韓人의 總수는 11,598 名에 이르고 있었다.

1923年 8月 연해주집행위원회 幹部會議은 韓人들에게 蘇聯(USSR)市民 權을 認定하는 筋次에 관한 決定을 採択하였다. 연해주執行委員會內的 韓 人問題 担当部署는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領土에 살고 있는 以前の 韓人 계릴라들에게는 무조건 市民權을 許容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1923 ~ 24年間 2,629名의 韓人들이 市民權을 얻게 되었다. (參 考로 1925년에는 2,270名, 1926년에는 7,884名이 市民權을 얻게 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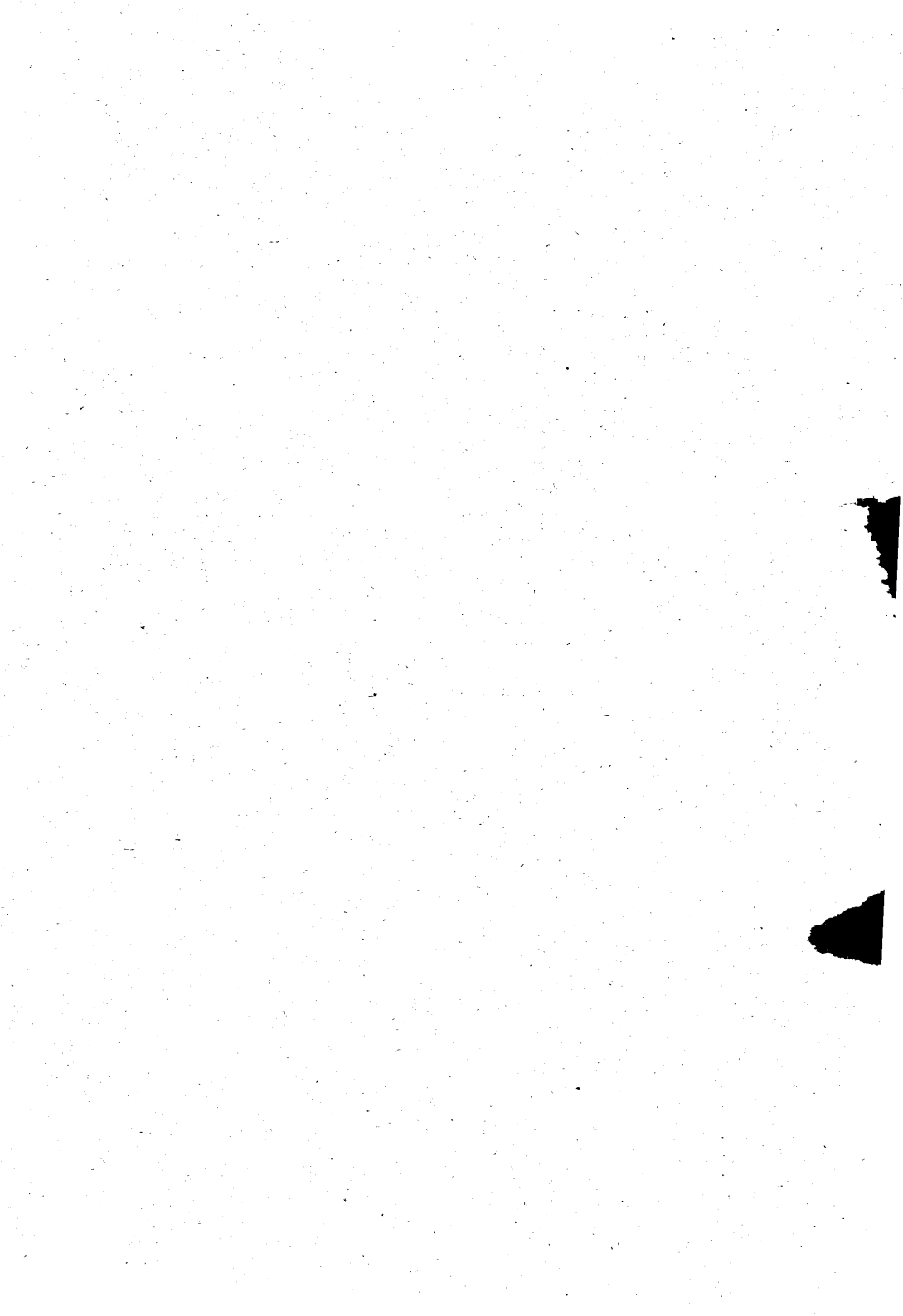
이와 같은 措置는 물론 의심할 것도 없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었다. 소비에트當局은 그와 같은 蘇聯市民權 許容이 革命을 위해 공헌한 代表的인 韓人들에게 주는 最上の 보상인 것처럼 劇化하였던 것이다. 한 편 韓人들 중에서 새로운 共產政權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고 싶어하던 사 람들은 이것을 體制에 대한 충성심을 공공연히 서약하는 기회로 이용하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韓國政府는 사할린同胞 帰還問題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態度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韓國은 이 問題를 가지고 蘇聯과의 직접협상 容의를 천명하였는가 하면 赤十字會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 하나의 큰 장애요인은 北韓의 態度이다.

北韓은 물론 이 問題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狀況이 中共 땅에 살고 있는 韓人同胞 (約 100 萬~150 萬으로 推定됨)의 問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반 이상이 家族 再結合을 위하여 韓國에 帰還할 것을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에 와서 中共은 中共에 살고 있는 韓인들이 部分的으로 日本 또는 韓國의 家族들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最近 蘇聯의 資料 (Vneshnyaya polit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ya Kitaiskoi Narodnoi Respubliki, 1963-1973 (Moscow, 1974, Vol. 2, p.146.))에 의하면 文化革命期間中에 中共內 韓人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韓人同胞들이 北韓으로 도주하였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中共 땅에 살고 있는 韓人僑胞의 問題도 南北韓間에 새로운 争点으로 부각될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내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와 監督이 절대적이었을 때는 그와 같은 措置에 아무런 마찰도 없었다. 그러나 1950年代를 통하여 北韓과 蘇聯間의 關係가 미묘해지고 韓國動亂으로 北韓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은 약화되었다.

특히 蘇聯에서 흐루시초프가 執權한 以後 脫스탈린化 運動이 전개됨에 따라 1956~58年間에 걸쳐 蘇聯과 유고·헝가리·알바니아·체코·불가리아·北韓·폴란드·몽고 間에는 각각 「二重国籍을 규제하는」 일련의 協定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큰 政治的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蘇聯이 종래까지 추구해 왔던 소위 「幹部輸出(Cadre Export)」 政策을 公式의으로 중지하려는 의도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

VII

蘇聯과 北韓間에는 1957年 12月 16日에 「二重国籍에 관한 協約」이 체결되었다. 同 協定의 서문에는 「條約締結 雙方의 領土上에 제각기 그들의 法律에 따라 自国民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利害關係이 자유스러운 選擇에 따라 二重国籍의 可能性을 일소할 것을 希望하면서」 協定을 締結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히고 있다. 雙方이 合意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協約締結雙方이 각기 자국의 法律에 依拠하여 자국국민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締約当事國中 一方의 領土에 居住하고 있는 자는 兩國 各 國의 市民權을 選擇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자로서 締約当事國中 一國의 領土內에서 継続 居住하면서도 協約 他國의 市民權을 取得하려는 자는 同國의 大使館에 市民權 選擇에 관한 신고서를 協約발효일부터 1年 以內에 제출한다.

③ 국적선택에 대한 신고서는 成年인 卷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同 協約에서 성년이라고 稱하는 자는 18歲에 달했거나 18세 미만인 자로서 혼인한 자를 가르킨다.

④ 미성년자는 양친이 동일한 국적을 취할 때에 한하여 양친의 국적을 따른다. 양친 가운데 한 사람이 조약체결 양국 가운데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거나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이 條約締結國 가운데 다른 國家의 국적을 가지거나 選擇할 境遇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의 국적은 양친의 合意에 따라 定한다. 그와 같은 합의가 없을 경우에 子女들은 條約締結 雙方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領土에 屬한 國家의 국적을 取得한다. 양친 가운데 하나가 條約締結 一방의 領土에서 살고 다른 하나가 條約締結 他方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은 양친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들의 教育을 맡고 있는 사람의 국적을 따른다.

양친이 죽고 居住地가 不明인 未成年 子女들은 協約 發효시부터 1年 期限이 끝나는 날에 그들이 居住하고 있는 領土國의 市民이 된다.

14歲以上인 未成年 子女들은 그들이 앞에서 언급한 決定의 適用을 받지 않기를 希望할때 條約締結 他方의 국적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選擇할 수 있다.

⑤ 국적의 選擇은 完全한 자유의사의 原則下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⑥ 양 條約당사국은 각기 協約 發효 1年 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6個月 以內에 條約締結 他方에게 그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名冊을 提出한다.

⑦ 協約에 따라 국적을 選擇한 사람은 그 국가의 市民으로 간주하여 지정된 期限內에 국적 取得 書類를 提出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居住하고 있는 領土國의 市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⑧ 條約締結 他方의 국적을 取得하고 나서 條約締結 一방의 領土內에서 繼續 居住하는 사람들은 外國人 대우를 받게 된다.

同 協約은 이듬해 2月1日 蘇聯邦最高會議 幹部會에서 비준되고 2月5日 모스크바에서 비준문서가 교환됨으로써 發효되었다. 이에 따라 當時 北韓에 살고 있던 蘇聯系 韓人들은 어느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北韓을 選擇할 때는 蘇聯의 市民權을 상실하는 대신 蘇聯에 대하여 法的 義務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한편 그들이 蘇聯國籍을 選擇할 때는 北韓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으로서 간주되어 모든 公職에서 물러나야 했다. 蘇聯에 居住하고 있던 韓人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쪽을 選擇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北韓에서는 그와 같은 協定締結과 더불어 蘇聯派에 대한 金日成의 대대적인 政治的 肅清이 뒤따랐다. 물론 同 協定이 특정의 政治的 人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協定の 根本的인 취지야 어떠했던간에 그것이 金日成으로 하여금 蘇聯系 韓人들간의 反對派를 肅清할 수 있는 구실과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는 一面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이상한 것은 同 協定에 第三國에 居住하면서 蘇聯과 北韓의 二重國籍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規定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그와 같은 境地에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다른 規定을 들 必要까지는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한편 당시 北韓은 對外的으로 外交的인 代表能力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問題는 蘇聯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同 協定은 또 두가지 問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첫째는 同 協定에서 國籍選擇의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二重國籍者 속에 前연 革命前의 帝政 러시아時代 또는 革命 直後에 移民한 韓人들과 그 자손들이 包含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며, 둘째는 그 속에 또 蘇聯이 2次大戰 以後에 獲得한 領土에 살고 있던 韓人들이 包含되느냐 하는 점이다.

北韓 當局은 1963年末까지 公民權의 概念을 規定하고 公民權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는 어떠한 立法措置도 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서는 1963年末까지만 해도 公民權이나 國籍을 規定하는 法的 基準이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와같은 北韓 當局의 소극적인 態度는 많은 難點을 야기시키는 原因이 되었던 것이다. 北韓 當局은 1963年 10月 9日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政令으로 國籍法을 採択함으로써 그 問題에 관한 적절한 立法措置를 취하였으나 의혹을 더욱 깊게 하였다.

同 法律에 따르면 北韓 当局은 「公民」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第1条)

① 北韓政權樹立 (1948年9月9日) 以前에 「朝鮮」의 国籍을 소유하였던 韓人과 그의 子女로서 本法 公布日까지 그 国籍을 포기하지 않은 者.

② 外國人으로서 合法的 節次에 의하여 北韓의 国籍을 取得한 者, (民主朝鮮, 1963年10月10日字 參照)

여기서 ①의 表現은 매우 애매한 것이었다. 条文대로 하면 이것은 北韓이 公式的으로 「朝鮮」의 国籍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世界 모든 곳의 韓人들은 「당연히」 北韓의 公民이 된다는 主張이었다.

이 国籍法은 처음부터 北韓의 政策的 의도를 숨겨놓고 있었다. 따라서 原則的으로 蘇聯에 살고 있던 모든 韓人들은 一方的인 認定(Unilateral Fiat)으로 北韓의 公民이 될 수 있으나 그들이 이미 蘇聯의 市民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自動的으로 「選拔」의 問題가 제기된다는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原則的인 說明이야 어떻든 그와 같은 問題에 대한 調査가 시도되었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VIII

1945年 蘇聯이 南部 사할린을 占領했을 當時 그곳에는 탄광에 고용되어 있는 約 4萬5千名의 韓人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大部分 南韓 出身이었다. 이들은 論理的으로 앞에서 언급된 1946年의 歸還協定の 對象이 되며 따라서 日人들과 같이 日本으로 撤收할 자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기회를 활용한 사람은 극소수에 不可했다. 同 協定에서 帰還이나 잔류는 義務的인 것이 아니라 自由로이 表現된 希望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당시의 狀況은 사할린의 韓人들이 지난날 日帝治下의 經驗 때문에 日本으로 가는 것을 希望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帰還이나 잔류를 選拔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

였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1967年 現在로 사할린 땅에는 約 4萬3千名の 韓人들이 居住하고 있으며 그중 65퍼센트가 北韓 國籍을, 25퍼센트가 蘇聯 國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중 10퍼센트인 約 4千名은 아직 無國籍者로 남아 있으며 日本 또는 韓國으로의 歸還을 希望하고 있다는 것이다. (J.J. Stephan, "The Korea Minority in Soviet Union", Mizan, 1971. NO.3, p.144)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檢討가 必要하다. 당시 北韓 國籍을 挾한 65퍼센트의 人口는 同時에 北韓으로 送還된 것이 아니었다.

1970年 統計에 의하면 사할린에 居住하는 韓人 人口는 35,396名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할린 韓人同胞의 北韓 送還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시 蘇聯側은 사할린 韓人들의 北韓 送還으로 繼續되는 人力不足現象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고, 北韓側도 勞動力 不足으로 사할린 韓人들의 歸還을 歡迎하지 않을 수 없는 地地였다. 이와 같은 입장 때문에 蘇聯과 北韓 間에는 그 問題에 관해서 어떤 알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北韓으로서도 사할린 韓人의 歸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態度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당시 北韓의 指導層은 外國思潮의 影響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北韓 땅에 들여 온다는 것이 社會체제를 管理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日·蘇 間에도 戰爭포로送還에 관한 交涉이 進展되었다. 1952年 8月24日 日本外相은 歸還포로의 證人자료에 立脚하여 蘇聯과 中共에 約 5萬6千名の 日人이 占有하고 있으며 그중 蘇聯에 12,700名이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蘇聯 赤十字會는 1953年 10月12日 日本人 戰爭포로 送還交涉을 위한 日本 赤十字代表團의 모스크바訪問에 동의하였고 會談 結果 11月19日에는 刑期가 滿了된 1,274名の 日人의 送還과 刑期를 남겨 놓고 있는 1,047名에 대한 刑期滿了後 送還約束에 합의하였다. 이어 1956年 12月12日 蘇聯政府는 蘇聯內에 억류된

모든 日本人의 本國 帰還을 許諾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1957年 「蘇聯과 外僑에 아직도 8,069名의 日本人이 억류되어 있으며 北韓에 2,629名,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1,392名이 占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IX

1973年 가을 日本議會 使節團을 迎送하고 蘇聯을 訪問했던 日本의 다 쿠야 다부지議員은 蘇聯 外務省 高位官吏가 그에게 만약 日本이 入國을 許容한다면 蘇聯政府는 사할린의 韓人들을 帰還시킬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 다고 공개했다. 소련은 日本이 必要한 入國許容措置를 취해 준다면 언제 든지 韓人들이 사할린을 떠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 되었으며 蘇 聯이 韓國과 外交關係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問題는 日本의 協助가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 되었다.

이와 같은 問題는 1973年 10月 다나카日本首相의 蘇聯訪問 중에 다시 제기되었다. 당시 다나카首相은 蘇聯 당국자들에게 帰還을 希望하는 사할 린거주 韓人들에게 可能한限 조속히 出國을 許可해 주도록 要請하고 帰還 을 위해 努力하는 韓人들의 名單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新 聞報道에 따르면 蘇聯의 브레즈네프黨書記長도 그 問題에 대해서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日·蘇頂上會談 종료후 發表된 共同 聲明에서는 그 問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당시 日本內 사할린韓人帰還推進委員會의 發表에 의하면 사할린에 거주하 는 韓人 中 201名이 모스크바주재 日本 大使館에 이미 帰還申請書를 제 출하고 있으며 다른 1,630名도 日本 또는 韓國으로의 帰還希望을 (그 中 1,565名은 서울을 最終 定着地로 選択하고 있다고 한다) 發表할 것 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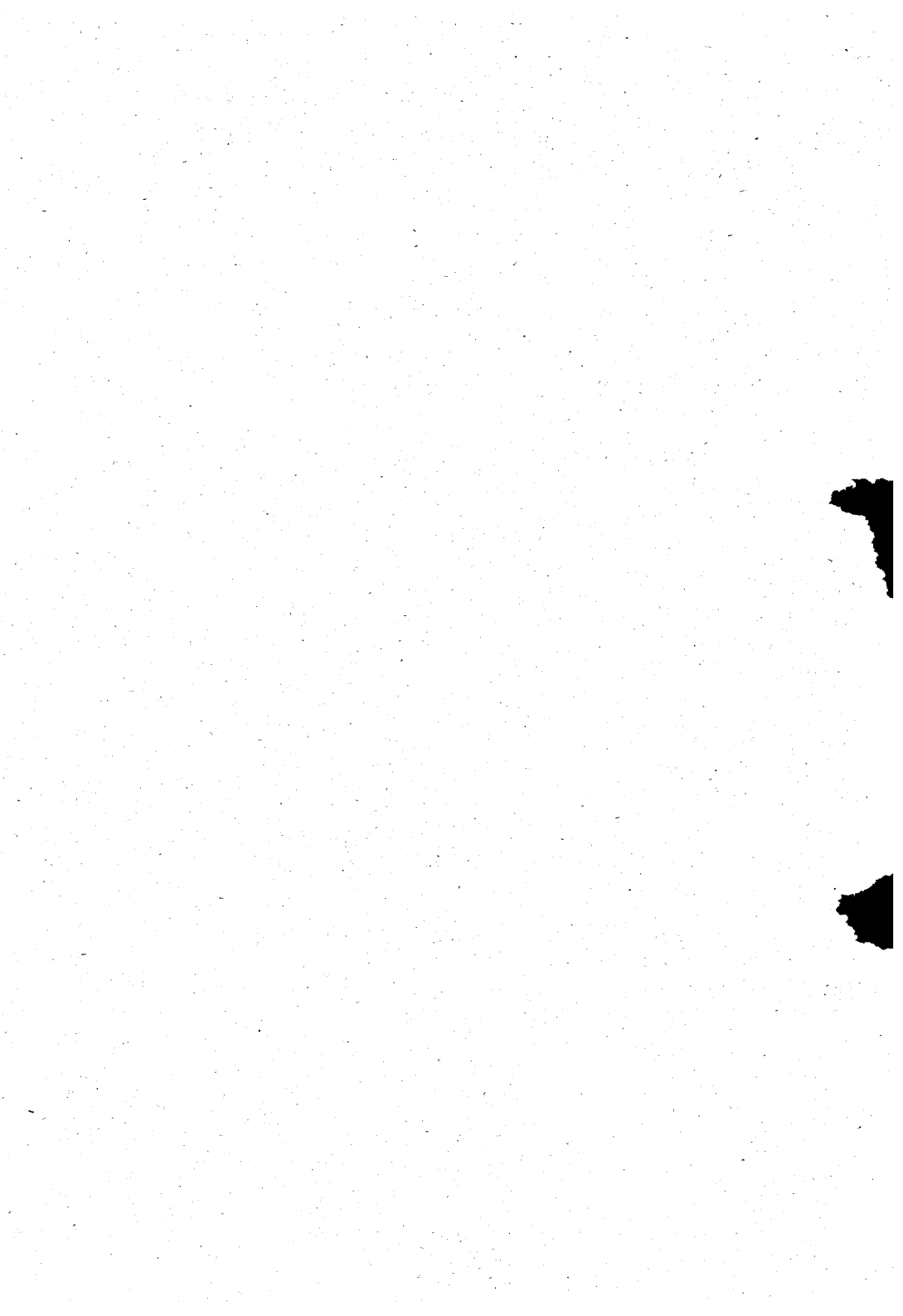
사할린 韓人이 日本을 經由하여 韓國으로 帰還하는 問題에 관해서는 日 本과 韓國 間에 별도로 交渉이 進行되고 있으나 소련의 態度는 아직 確 實한 政策的 約束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韓國政府는 사할린同胞 帰還問題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態度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韓國은 이 問題를 가지고 蘇聯과의 직접협상 응의를 천명하였는가 하면 赤十字會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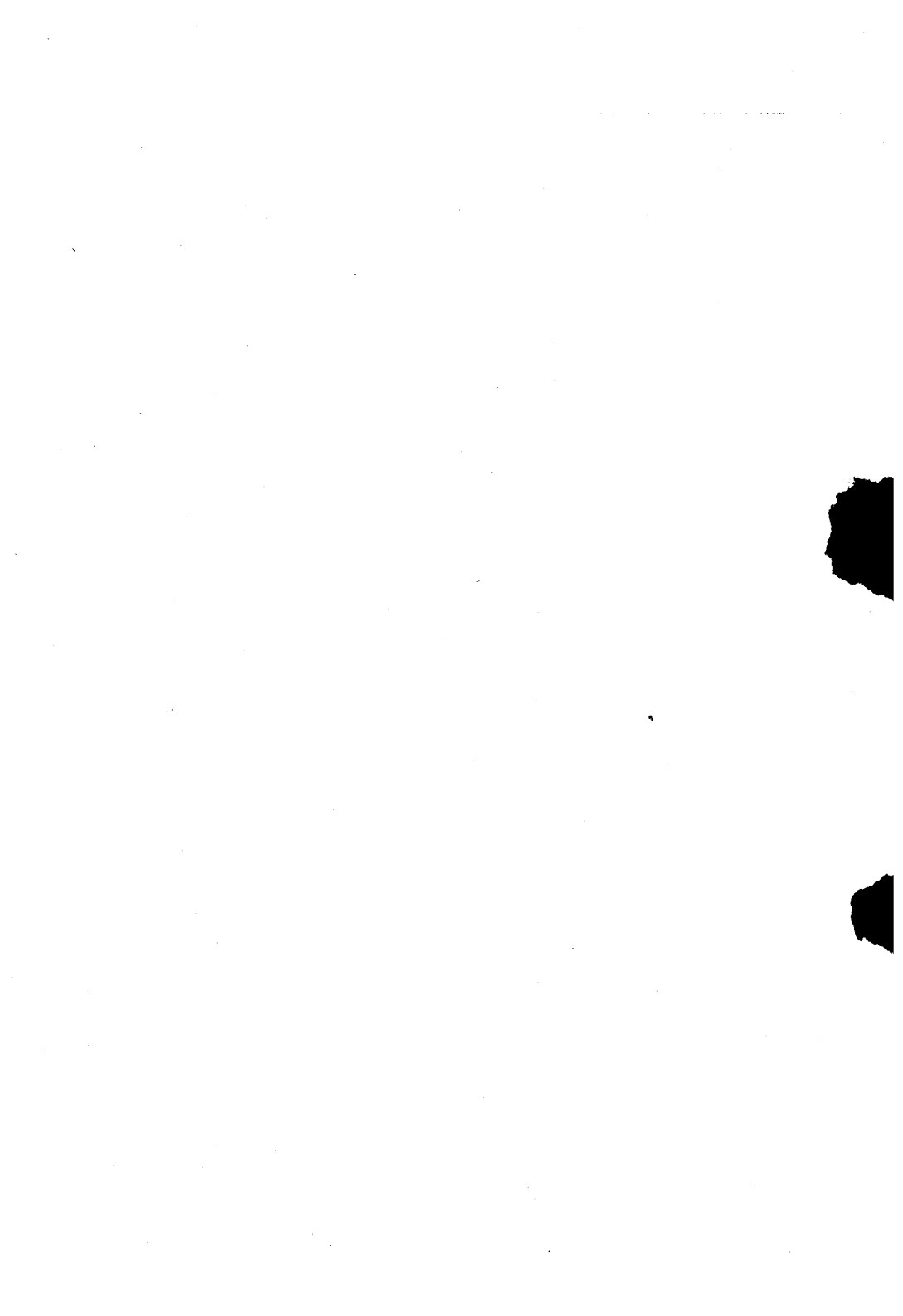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 하나의 큰 장애요인은 北韓의 態度이다.

北韓은 물론 이 問題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狀況이 中共 땅에 살고 있는 韓人同胞 (約 100 萬~150 萬으로 推定됨)의 問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반 이상이 家族 再結合을 위하여 韓國에 帰還할 것을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에 와서 中共은 中共에 살고 있는 韓人들이 部分的으로 日本 또는 韓國의 家族들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最近 蘇聯의 資料 (Vneshnyaya polit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ya Kitaiskoi Narodnoi Respubliki, 1963-1973 (Moscow, 1974, Vol. 2, p.146.))에 의하면 文化革命期間中에 中共內 韓人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韓人同胞들이 北韓으로 도주하였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中共 땅에 살고 있는 韓人僑胞의 問題도 南北韓間에 새로운 争点으로 부각될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내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附 錄 II :



<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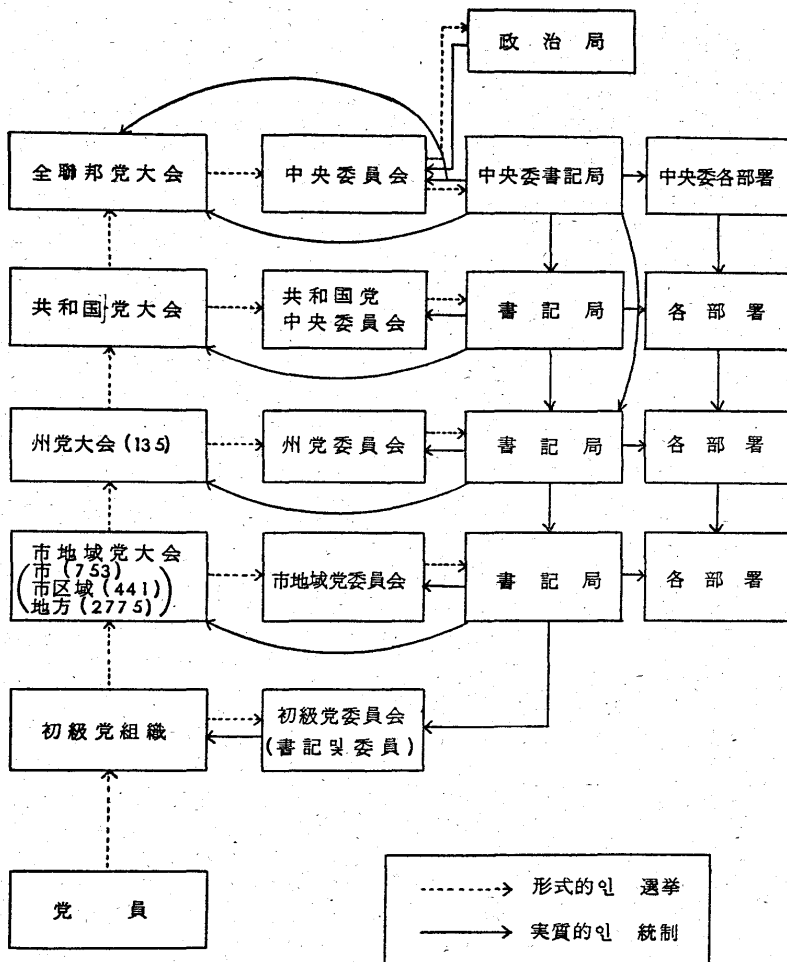
蘇聯共產黨大會略史

黨大會	代議員數		黨員數 (候補黨員)	代議員對 黨員比	期 間 (日數)	中央委員會	
	正	候補				正委員	(候補委員)
7次(1918.3.6~8) (베제르부르크)	46	58	약 300,000		3	15	8
8次(1918.3.18~23) 모스크바	301	102	313,766	1:1,000	6	19	8
9次(1920.3.29~4.5) 모스크바	554	162	611,978	1:1,000	8	19	12
10次(1921.3.8~16) 모스크바	694	296	732,521	1:1,000	9	25	15
11次(1922.3.27~4.2) 모스크바	522	165	532,000	1:1,000	7	27	19
12次(1923.4.17~25) 모스크바	408	417	386,000	1:1,000	9	40	17
13次(1924.5.23~31) 모스크바	748	416	735,881	1:1,000	9	53	34
14次(1925.12.18~31) 모스크바	665	641	643,000 (445,000)	1:1,000	14	63	43
15次(1927.12.2~19) 모스크바	898	771	887,233 (348,957)	1:1,000	18	71	50
16次(1930.6.26~7.13) 모스크바	1,268	891	1,260,874 (711,609)	1:1,000	18	71	67
17次(1934.1.26~2.10) 모스크바	1,225	736	1,874,488 (935,298)	1:1,500	16	71	68
18次(1939.3.10~21) 모스크바	1,569	466	1,588,852 (888,814)	1:1,000	12	71	68
19次(1952.10.5~14) 모스크바	1,192	167	6,013,259 (868,886)	1:1,500	10	125	110
20次(1956.2.14~25) 모스크바	1,349	81	6,795,896 (419,609)	1:1,500	12	133	122
21次(임시)(1959.1.27~2.5) 모스크바	1,269	106	7,622,356 (616,775)	1:1,600	10		
22次(1961.10.17~31) 모스크바	4,394	405	8,872,516 (843,489)	1:2,000	15	175	155
23次(1966.3.29~4.8) 모스크바	4,619	323	11,673,676 (797,403)	1:2,500	11	195	165
24次(1971.3.30~4.9) 모스크바	4,740	223	13,810,089 (645,232)	1:2,900	11	241	155
25次(1976.2.24~3.5) 모스크바	4,998		15,694,000 (候補黨員 포함)	1:3,100	10	287	139

- ☆ 1次黨大會 (1898.3 , 민스크)
- 2次黨大會 (1903.7~8 , 부릿셀 , 런던)
- 3次黨大會 (1905.4 , 런던)
- 4次黨大會 (1906.4 , 스톡홀름)
- 5次黨大會 (1907.4~5 , 런던)
- 6次黨大會 (1917.7.26~8.3 , 베제르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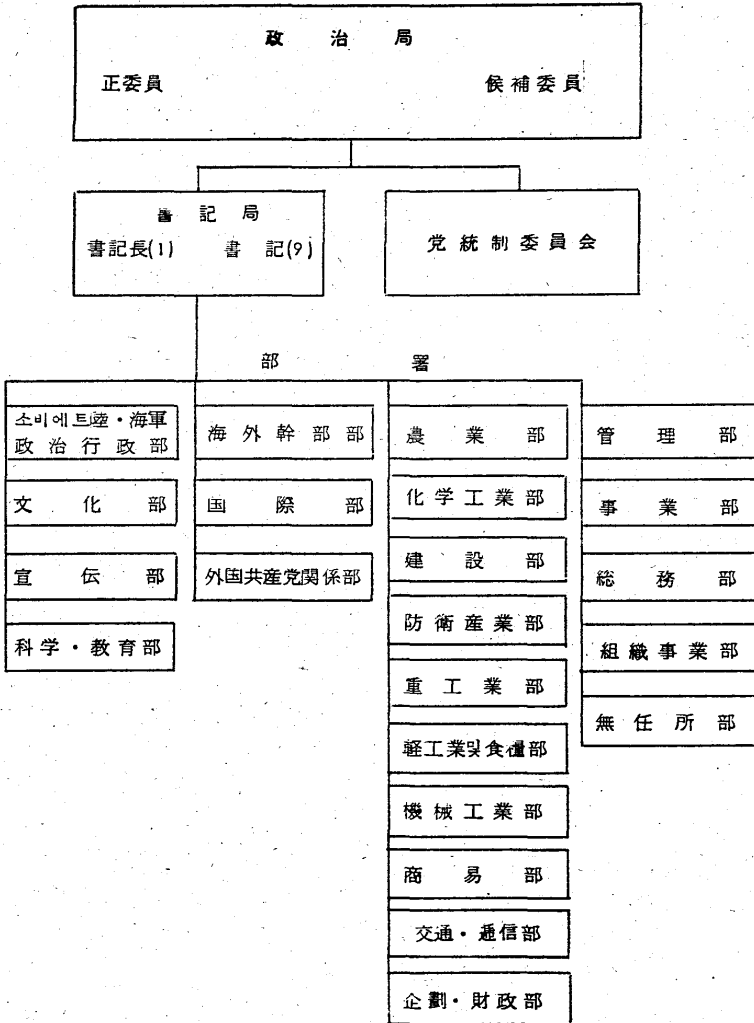
<表2>

蘇聯共產黨組織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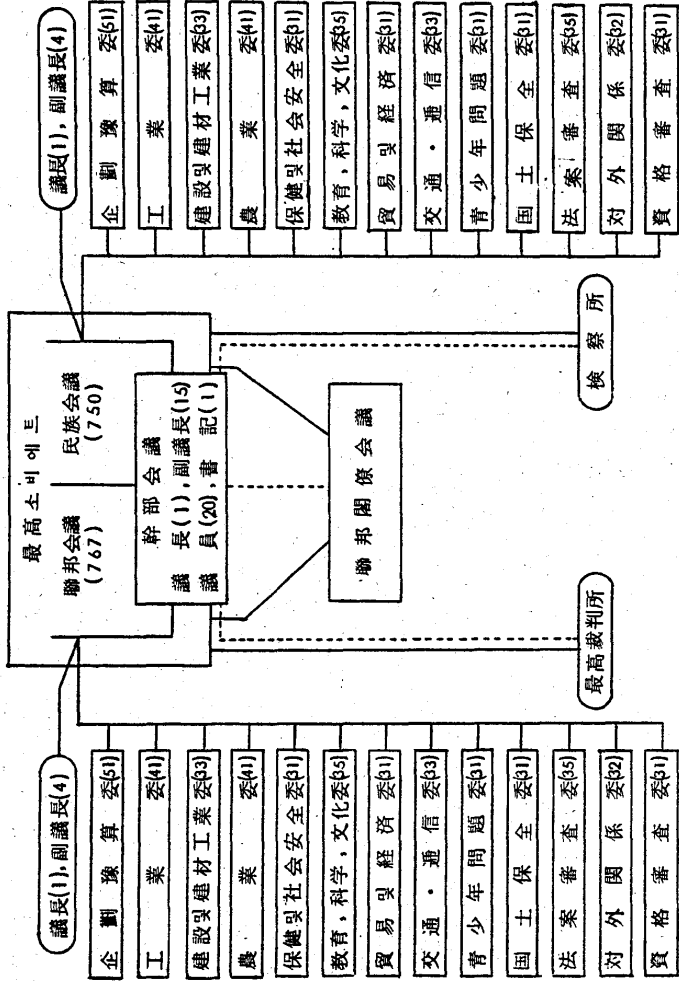
<表3>

蘇聯共產党中央委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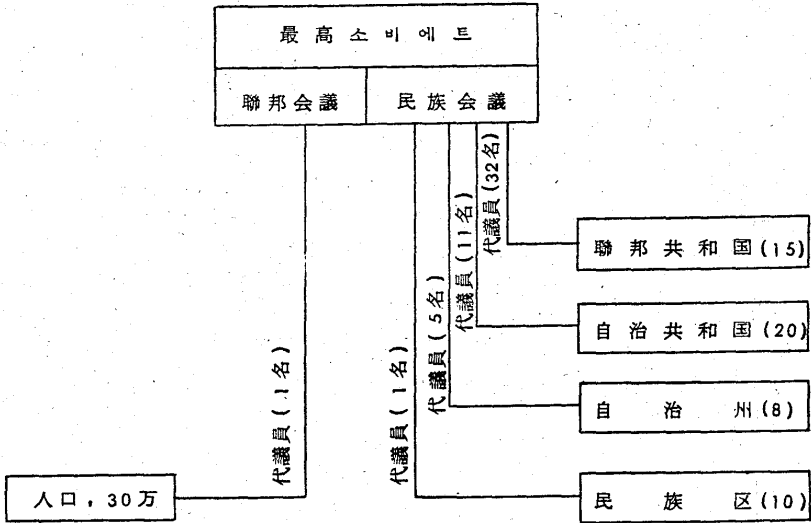
〈表4〉

蘇聯邦最高소비에트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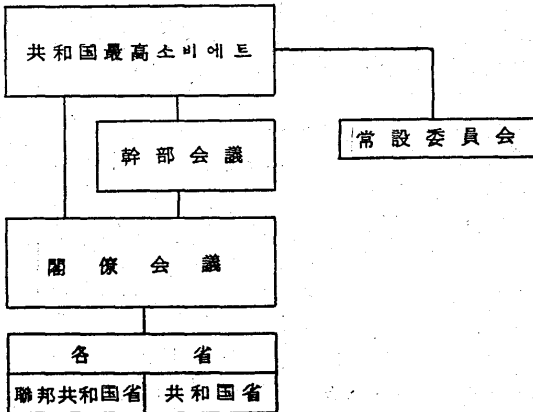
<表 5>

蘇聯邦最高 소비에트 選舉



<表 6>

共和國의 行政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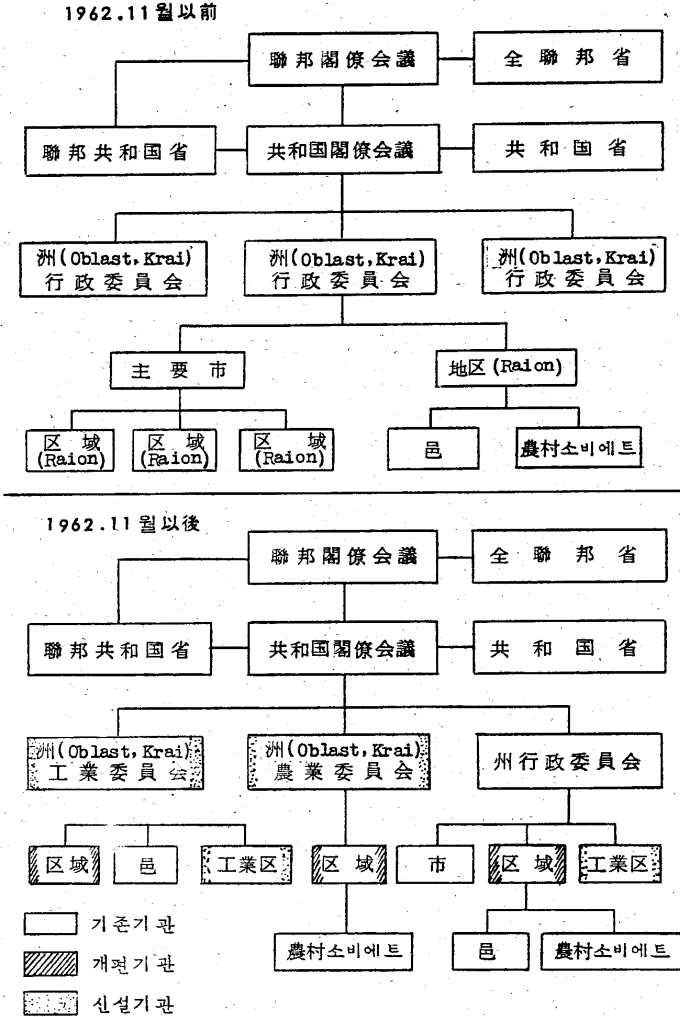
蘇聯邦 國際會議的 組織

幹 部 會 議
議 長 (1)
第 一 副 議 長 (2)
副 議 長 (9)

全 聯 邦 農 業 委 (憲法機關이 아님)	國家器材、技術供給委 (GOSNAB, 聯邦共和國)	國家建設委 (GOSSTROY, 聯邦共和國省)	JEME 委
國家科學、技術委 (全 聯 邦 省)	國家計劃委 (GOSEPLAN, 聯邦共和國省)	國家建設、建築委 (GOSSTROY, 聯邦共和國省)	

非公式委員：共和國 國際會議議長 Armenia Belorussia Bulgaria Czechoslovakia Estonia Georgia Hungary Latvia Lithuania Moldavia Poland Rumania Soviet Union Tadzhikistan Turkmenia Uzbekistan	(工業關係省)			(工業關係以外省) 聯邦共和國省
	全 聯 邦 省	全 聯 邦 省	聯 邦 共 和 國 省	
國家委員會	航空工業省	自動車工業省	組立、特殊建設作業省	農 業 省
對外經濟關係委	國防工業省	化學工業省	建 設 省	土地改良、水利省
林 業 委	煤 氣 工 業 省	石油、化學機械製作省	重工業企業建設省	通 信 省
勞 動 · 賃 金 委	一般機械製作省	酒精、建築、公用事業 用機械製作省	石 炭 工 業 省	文 化 省
人 民 統 制 委	機 械 工 業 省	電 子 工 業 省	建設資材工業省	國 防 省
價 格 委	中型機械製作省	刊 工 業 省	有 色 冶 金 省	教 育 省
라디오·방송 委	라디오工業省	重機、動力、運輸 裝備製作省	漁 業 省	財 務 省
標 準 委	造船工業省	機械製作、自動化學 製劑製作省	食 品 工 業 省	外 務 省
保 安 委	其他機關(非編制)	食品工業、輕工業 日用品工業機械製作省	工 業 建 設 省	地 質 省
職 業 · 技 術 教 育 委	鐵 道 委	工作機械、器具製作省	輕 工 業 省	中 等 以 上 專 門 教 育 省
特 殊 機 關	運 動 · 競 技 委	石 油 工 業 省	肉 · 乳 工 業 省	內 務 省
農 具 供 給 委 (Gosoborokhozhstehniks)	出 版 委	印刷機具製作省	有 色 冶 金 省	法 務 省
中 央 統 計 局	國 家 工 業 安 全 對 策 委	運 輸 建 設 省	精 冶 · 石 油 化 學 工 業 省	調 達 省
國 立	國 家 原 子 能 利 用 委	醫 藥 品 工 業 省	動 力 · 電 化 省	保 健 省
	免 見 · 免 明 委		農 村 建 設 省	商 業 省
	國 家 貯 蓄 委		木 材 加 工 工 業 省	全 聯 邦 省
				民 間 航 空 省
				對 外 貿 易 省
				海 運 省
				鉄 道 省

蘇聯의 行政區域編制



※ 흐르시호프失脚以後 旧 編制가 다시 復活됨

<表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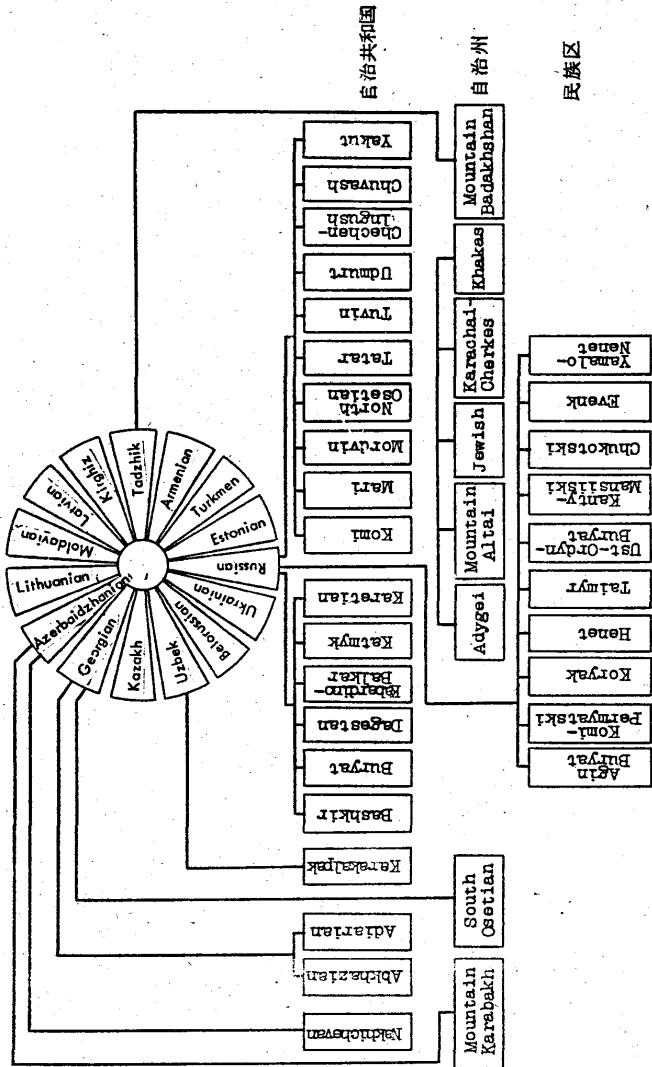
聯邦共和國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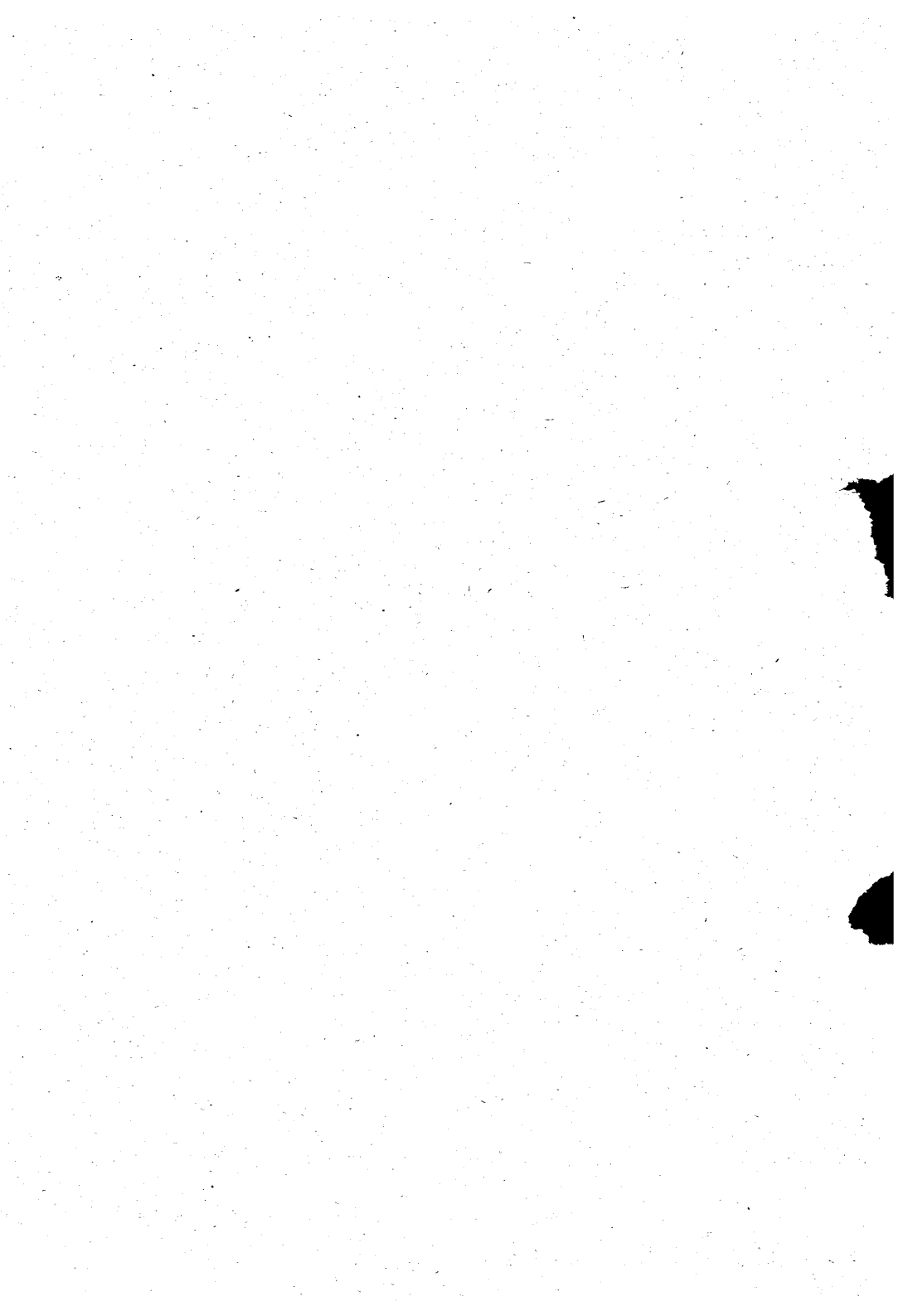
聯邦共和國名	樹立日	首都	面積(sq.km)
RSFSR	1917.11.7	Moscow	17,075.4
Ukrainian SSSR	1917.12.25	Kiev	603.7
Belorussian SSR	1919.1.1	Minsk	207.6
Uzbek SSR	1924.10.27	Tashkent	449.6
Kazakh SSR	1936.12.5	Alma-Ata	2,715.1
Georgian SSR	1921.2.25	Tbilisi	69.7
Azerbaijani SSSR	1920.4.28	Baku	86.6
Lithuanian SSSR	1940.7.21	Vilnius	65.2
Moldavian SSSR	1940.8.2	Kishinev	33.7
Latvian SSSR	1940.7.21	Riga	63.7
Kirghiz SSSR	1936.12.5	Frunze	198.5
Tadzik SSSR	1929.10.16	Dushambe	143.1
Armenian SSR	1920.11.29	Erevan	29.8
Turkmen SSSR	1924.10.27	Ashkabad	488.1
Estonian SSR	1940.6.21	Tallin	45.1

☆ Karelo-Finnish 共和國은 1940~56 年 존속했으나 以後 自治州 (oblast) 로 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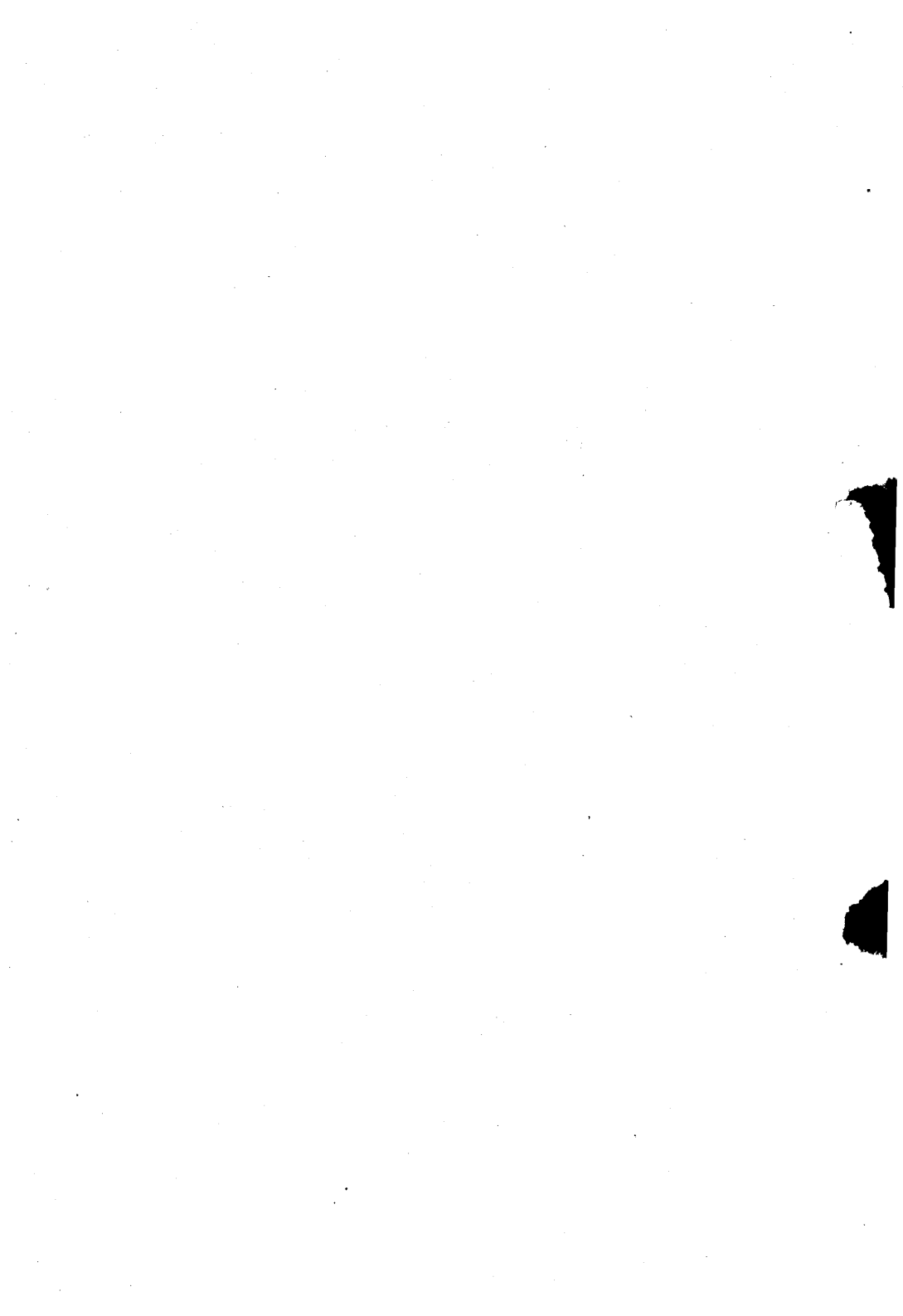
<表 10 >

蘇聯邦の構成





附 錄 III :



advokat 法の 執行에 종사하는 法曹人團의 一員

Agitprop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

(agitatsionnyi punkt) 選舉 또는 기타의 캠페인에 있어서 宣傳,
煽動的 中心地

aktiv 黨 또는 社會團體의 指導的 幹部 또는 열성당원

apparat 黨 또는 國家의 行政機構

artel' 農業, 製造業, 漁業 등 生産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
발적인 結社

blat 生産配當量을 채우기 위해서 行해지는 不法去來

Cheka 初期 蘇聯의 秘密警察機構

Chekist Cheka의 要員

chistka 人士의 숙청 또는 제거

dekret 宣 布

domkom(domovyi komitet) 住宅問題委員會

DOSAAF(Dobrovol'noe obshchestvo sodeistviia armii, aviatsii i
flotu) The Voluntary Society for Assistance to the Army, Air
Force, and Navy (蘇聯의 民防衛組織)

druzhiny 警察補助機構 (自發적조직)

edinonachalie 經營 또는 行政에 있어서 單一命令體系, 한사람에 의
한 統制와 責任 (唯一體系)

General'nyi Prokuror SSSR 蘇聯檢察所長

Glavlit(Glavnoe upravlenie po delam literatury i izdatel'stv)
Chief Administration of Literary and Publishing Affairs. 出版物
의 檢閱을 담당하는 主務機關

glavnoe upravlenie 主務行政機關

gorispolkom(gorodskoi ispolnitel'nyi komitet) 市 소비에트行政
委員會

gorkom(gorodskoi komitet) 市黨委員會

Gosarbitrazh 財産 또는 契約을 둘러싼 紛争을 해결하는 国家仲裁体制
 Gosbank(Gosudarstvennyi Bank) 国家銀行
 Gosplan SSSR(Gosudarstvennyi Planovyi Komitet) 国家計劃委員會
 ispolkom(ispolnitel'nyi komitet) 行政委員會
 iuriskonsul't 法律顧問
 izbiratel'nyi okrug 選舉區
 KGB(Komitet Gosudarstvennoi Bezopasnosti) 国家保安委員會(秘密警察)
 khoziain 頭目, 主人
 khuliganstvo 反社会的인 兇惡한 行爲
 kolkhoz(kollektivnoe khoziaistvo) 集團農場
 kollegiia 協議를 위해서 소집된 一團의 官吏(協議體)
 Komsomol(Kommunisticheskii soiuz molodezhi) 共產主義青年同盟
 KPSS(Kommunisticheskaiia partiia Sovetskogo Soiuz)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CPSU). 蘇聯共產黨
 krai 地方, 地域 (行政區域單位)
 kraispolkom(kraevoi ispolnitel'nyi komitet) 地方스비에트 行政委
 員會
 kraikom(kraevoi komitet) 地方黨委員會
 kulak 勞動者를 착취하는 富農을 자칭하는 말
 kul't lichnosti 個人偶像化
 mestnichestvo 地方主義(localism)
 militsiia 警察
 ministerstvo 蘇聯邦, 聯邦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省(閣僚)
 MVD(Ministerstvo Vnutrennikh Del) 內務省
 narodnyi sud 人民裁判
 narodnyi zasedatel' 人民參審員
 natsional'nyi okrug oblast 또는 krai에 소속된 民族區

NEP(Novaia Ekonomicheskaiia Politika) New Economic Policy

1921年 레닌에 의해서 제창된 新經濟政策

notariat

國家公証制度

obkom(oblastnoi komitet) 州黨委員會

oblast' 州 (行政區域單位)

oblispolkom(oblastnoi ispolnitel'nyi komitet) 州 소비에트 行政

委員會

Okitiabriata(Little Octobrists) 共產主義少年組織(7~9세)

okrug 區域 (行政區域單位)

otdel 中央黨書記局 또는 內閣의 部 또는 課

partiinnost' 党性

pervichnaia partiinaia organizatsiia 初級黨組織

piatiletka 經濟開發5個年計劃

Pionery(the Young Pioneers) 共產主義少年組織(9~14세)

plenium 全會議

politruk(politicheskii rukovoditel') 政治教育要員

poselok 定居 rabochii poselok (workers'settlement) 또는

dachnyi poselok(settlement of suburban homes) 등과 같이 사용.

Postanovlenie 法令, 訓令, 細則

predsedatel' 議長

prezidium 議長團

profsoiuz(professional'nyi soiuz) 勞動組合

prokuratura 國家檢察制度

protexsiia 後援

rasporiazhenie 內閣의 省 또는 地方소비에트에서 發하는 지시 또는 명령

raispolkom(raionnyi ispolnitel'nyi komitet) 地域소비에트行政委員會

raikom(raionnyi komitet) 地域黨委員會

raion 地域(行政區域單位)

reshenie 소비에트의 決定

samokritika 自我批判

seksot(sekretnyi sotrudnik) 秘密警察의 꼬나플

selo 里 (行政区域單位)

sel'sovet 里 소비에트

semeistvennost' 族閥主義

sledovatel' 수사관

soveshchatel'nyi golos 諮問權 (후보위원이나 후보대의원에게 주어지는
발언권)

Sovet Ministrov 關係會議

Sovet Natsional'nostei 蘇聯邦 最高소비에트의 民族會議

Sovet Soiuza 蘇聯邦 最高소비에트의 聯邦會議

Sovet Stareishin 元老會議

sovkhoz(sovetskoe khoziaistvo) 国营農場

sovnarkhoz(soviet narodnogo khoziaistva) 經濟會議

tekhnikum 職業 또는 技術學校

tovarishcheskii sud(somradely court) 同僚裁判

Ts K 党 中央委員會

uchastok 選舉區 또는 投票所

ukaz 最高 소비에트幹部會議의 宣布

Verkhovnyi Sovet 蘇聯邦, 聯邦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最高소비에트

Verkhovnyi Sud 最高裁判所

vuz (vysshee uchebnoe zavedenie) 高等教育機關

zakon 法令

zampolit(zamestitel' komandira po politicheskim voprosam) 政治將
校 (副司令官)